

「2021년 건국대·경희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 공동연구」

학생부종합전형 공통 평가요소 및 항목 개선 연구

2022. 2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학생부종합전형 공통 평가요소 및 항목 개선 연구

연구책임자 : 임진택(경희대학교)

공동연구자 : 이정림(건국대학교)

방유리나(건국대학교)

이승아(경희대학교)

조민경(경희대학교)

박정선(연세대학교)

안미연(연세대학교)

차정민(중앙대학교)

장준호(중앙대학교)

김창민(한국외국어대학교)

이수영(한국외국어대학교)



경희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결과 요약

요약

이번 연구는 2019년 11월 교육부가 발표한『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의 전형자료의 축소와 2015 개정교육과정의 본격적인 시행, 향후 도입될 고교학점제 등에 따른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2017년 건국대·경희대·서울여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의 공동연구에서 제시하였던 학생부종합전형의 공통 서류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을 재구조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 평가요소 및 항목을 재구조화하는 기준으로 ① 대입정책의 변화, ② 고교 교육과정의 변화, ③ 평가자료의 변화 ④ 평가 가능성, ⑤ 평가요소 혹은 평가항목 간 독립성, ⑥ 교육적 의미 등을 고려하였다. 전형자료에 내용이 나오지 않아 평가가 어려운 요소를 제외하고, 요소간 항목간 중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사한 항목을 통합하고 명칭을 변경하여 평가의 타당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요소와 평가항목을 개선하였다.

2021년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75개 대학의 평가기준 현황분석과 전국 고등학교 379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고교 교사 및 장학사, 대학의 입학관계자와 교수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조사 및 FGI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기준을 재구조화하였다. 기존의 4가지 평가요소와 15가지 평가항목을 3가지 평가요소와 10가지 평가항목으로 간소화하였다.

기존의 평가요소인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에서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의 3가지 역량 중심 평가요소로 개정하였다. 학업역량에서 ‘학업태도와 학업의지’는 ‘학업태도’로, ‘탐구활동’은 ‘탐구력’으로, 진로역량에서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를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과 ‘전공(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로 분리하고, 기존 연구의 평가항목인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와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을 통합하여 ‘전공’ 대신에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으로 변경하였다. 공동체역량에서는 기존의 ‘인성’ 및 ‘발전가능성’ 평가항목 중 ‘협업과 소통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준수’, ‘리더십’으로 재구성하였다. 그 개정 배경으로 기존 평가요소 네 가지 중에서 ‘발전가능성’이 다른 요소와 다소 중첩된다는 점과 발전가능성의 ‘자기주도성’과 ‘경험의 다양성’, ‘창의적 문제해결력’ 항목이 전 영역에 걸친 상위의 개념인 점을 고려하여 다른 요소의 개별 평가항목으로 통합하였다.

‘전공적합성’이 학생들에게 희망 전공에 맞춘 활동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심어줘 지나치게 경험을 협소하게 만드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계열적합성으로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점과 대학보다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고교의 관점을 반영하여 ‘진로역량’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인성’은 교육적 의미가 높지만 추상적이고 측정이 어렵다는 점과 전형자료 축소로 평가내용이 줄어든 점을 고려하여 개인적 특성 보다는 공동체의 관계 측면에 초점을 둔다는 의미에서 ‘공동체역량’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평가항목에서는 기존의 ‘학업태도와 학업의지’와 ‘탐구활동’이 중첩된다는 의견을 반영해 ‘학업역량 내 학업성취도, 학업태도, 탐구력’으로 하고, 전공적합성 평가요소가 자기주도적인 진로설계 학습에서 학생의 과목선택이 중요해지는 교육과정의 변화를 반영하고 보다 세밀한 잣대를 마련하기 위해 ‘진로역량 내 전공(계열) 관련 과목 이수 노력과 전공(계열) 관련 과목 성취도’로 분리하고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을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으로 변경해 개념을 확장하였다. 인성 평가요소에서 개인적 특성이 강하고 평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도덕성을 제외하고 공동체 내의 관계 역량을 반영해 발전가능성에 있던 리더십을 공동체역량에 포함하고 유사한 항목을 통합하여 ‘공동체역량 내 협업과 소통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준수, 리더십’으로 개편하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공동연구에 참여한 건국대·경희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 5개 대학의 2024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의 실제 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다. 일부 대학과 전형에서는 2023학년도부터 활용될 수도 있다. 이번 개편 안이 전국 여러 대학으로 확산되어 유사한 공통 평가요소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부종합전형의 표준화에 기여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학생들의 입시 준비 부담이 줄어들고, 고등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유용한 지침서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새롭게 개편된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이 학교 교육 활동의 충실한 반영으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이 이루어지고,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고교와 대학 입시가 연계되어 학점제형 대입제도, 학점제형 학생부전형이 정착되길 기대한다.

목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방법	2
가. 문헌 조사·분석	2
나. 설문 조사·분석	3
다. 토크쇼 조사	4
라. 전문가 심층면접(FGI)	4
 II. 학생부종합전형 환경의 변화와 대학별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현황 및 특징	 5
1. 학생부종합전형의 환경 변화	5
가. 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5
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8
다. 고교학점제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15
2. 대학별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현황 및 특징	22
가. 대학별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현황	22
나. 평가요소별 정의 및 하위요소	27
다. 요약 및 시사점	85
 III. 실태조사	 93
1. 설문조사	93
가. 설문조사 개요	93
나. 설문조사 결과 분석	96

2. 델파이조사	135
가. 델파이조사 개요	135
나. 델파이조사 결과 분석	137
3. 전문가 심층면접(FGI)	172
가. 전문가 심층면접 개요	172
나.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 분석	173
 IV.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요소 및 항목 개선 방안	199
1. 개요	199
2.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등 개선 방안	201
가. 학업역량	201
나. 진로역량	207
다. 공동체역량	215
 V. 결론 및 제언	225
1. 결론	225
2. 제언	226
 참고문헌	228
 부록 1. 설문조사 통계조사 요약표	229
부록 2. 설문조사지(교사용)	263
부록 3. 델파이조사 설문지	281
부록 4. 전문가 심층면접(FGI) 자문지	303

표 목 차

<표 I-1> 설문조사 표본으로 선택된 고등학교 현황	3
<표 II-1> 학생부 주요항목 내 비교과 영역(요소) 개선 현황	6
<표 II-2> 학생부 기재 금지사항 연도별 변화 개요	7
<표 II-3>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6가지 핵심역량(교육부)	8
<표 II-4>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신규 대조표(교육부, 2016)	9
<표 II-5> 2015 개정교육과정의 과목별 이수 기본 단위와 증감 범위(교육부, 2016)	10
<표 II-6> 일반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 단위 배당 기준(교육부, 2018)	11
<표 II-7> 보통 교과와 공통 과목 및 선택 과목(교육부, 2018)	12
<표 II-8> 전문 교과 I 과목(교육부, 2018)	13
<표 II-9>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 편성 예시(교육부, 2016)	14
<표 II-10> 고등학교 과목별 성적 기재 방법(교육부, 2020)	15
<표 II-11>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안(교육부, 2021)	16
<표 II-12> 고등학교 과목구조 변경	17
<표 II-13> 고교학점제 성취도 평가 체계	17
<표 II-14> 고교 교과성적 산출 방식의 변화(보통교과)	18
<표 II-15> 성취평가제 확대(2025학년도~)에 따른 성적 산출 방식(예시)	19
<표 II-16>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지향점	20
<표 II-17>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기초소양	20
<표 II-18>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현황(교육부, 2020)	22
<표 II-19> 대학별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용어 활용 현황	24
<표 II-20> 대학별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 평가요소 활용 현황	25
<표 II-21>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 평가요소별 활용 현황	27
<표 II-22> 학생부종합전형 공통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건국대 외, 2016)	31
<표 II-23> 학생부종합전형 공통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건국대 외, 2018)	32
<표 II-24> 대학별 학업역량 관련 평가요소의 정의 및 평가항목	36

<표 II-25> 대학별 학업역량 관련 평가요소의 하위 평가항목 정의/구성요소	36
<표 II-26> 학업역량 중 ‘학업성취도’ 관련 평가세부내용	41
<표 II-27> 학업역량 중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관련 평가세부내용	42
<표 II-28> 학업역량 중 ‘탐구능력’ 관련 평가세부내용	43
<표 II-29> 대학별 전공적합성 관련 평가요소의 정의 및 평가항목	48
<표 II-30> 대학별 전공적합성 관련 평가요소의 하위 평가항목 정의/구성요소	52
<표 II-31> 전공적합성 중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관련 평가세부내용	53
<표 II-32> 전공적합성 중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관련 평가세부내용	54
<표 II-33> 전공적합성 중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관련 평가세부내용	55
<표 II-34> 대학별 인성 관련 평가요소의 정의 및 평가항목	59
<표 II-35> 대학별 인성 관련 평가요소의 하위 평가항목 정의/구성요소	64
<표 II-36> 인성 중 ‘협업능력’ 관련 평가세부내용	65
<표 II-37> 인성 중 ‘나눔과 배려’ 관련 평가세부내용	66
<표 II-38> 인성 중 ‘소통능력’ 관련 평가세부내용	67
<표 II-39> 인성 중 ‘도덕성’ 관련 평가세부내용	68
<표 II-40> 인성 중 ‘성실성’ 관련 평가세부내용	69
<표 II-41> 대학별 발전가능성 관련 평가요소의 정의 및 평가항목	73
<표 II-42> 대학별 발전가능성 관련 평가요소의 하위 평가항목 정의/구성요소	78
<표 II-43> 발전가능성 중 ‘자기주도성’ 관련 평가세부내용	80
<표 II-44> 발전가능성 중 ‘경험의 다양성’ 관련 평가세부내용	80
<표 II-45> 발전가능성 중 ‘리더십’ 관련 평가세부내용	81
<표 II-46> 발전가능성 중 ‘창의적 문제해결력’ 관련 평가세부내용	82
<표 II-47> 발전가능성 중 ‘도전정신’ 관련 평가세부내용	84
<표 II-48> 발전가능성 중 ‘자기관리능력’ 관련 평가세부내용	84
<표 III-1> 표본으로 선택된 고등학교 현황	93
<표 III-2> 설문 응답자 현황: 교사	94
<표 III-3>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위한 집단 재분류	96
<표 III-4> 평가요소	97

<표 III-5> ‘학업역량’ 적절성 평가	97
<표 III-6> ‘학업역량’ 적절성에 대한 유의성 검정	98
<표 III-7> 교직 경력에 따른 ‘학업역량’ 적절성 평가	99
<표 III-8> ‘전공적합성’ 적절성 평가	99
<표 III-9> ‘전공적합성’ 적절성에 대한 유의성 검정	99
<표 III-10> ‘인성’ 적절성 평가	100
<표 III-11> ‘인성’ 적절성에 대한 유의성 검정	100
<표 III-12> ‘발전가능성’ 적절성 평가	101
<표 III-13> ‘발전가능성’ 적절성에 대한 유의성 검정	101
<표 III-14> 평가요소에 대한 상대비	102
<표 III-15> 학생부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서	102
<표 III-16> 평가요소별 평가항목	103
<표 III-17> 학업역량의 평가항목	103
<표 III-18> ‘학업역량’ 평가항목의 적절성 평가	104
<표 III-19> ‘학업역량’ 적절성에 대한 유의성 검정	105
<표 III-20> ‘전공적합성’ 의 평가항목	105
<표 III-21> ‘전공적합성’ 평가항목의 적절성 평가	106
<표 III-22> ‘전공적합성’ 적절성에 대한 유의성 검정	107
<표 III-23> ‘인성’ 의 평가항목	108
<표 III-24> ‘인성’ 평가항목의 적절성 평가	109
<표 III-25> ‘인성’ 적절성에 대한 유의성 검정	110
<표 III-26> ‘발전가능성’ 의 평가항목	111
<표 III-27> ‘발전가능성’ 평가항목의 적절성 평가	111
<표 III-28> ‘발전가능성’ 적절성에 대한 유의성 검정	112
<표 III-29> ‘학업역량’ 세부 평가항목	113
<표 III-30> ‘학업역량’ 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적절성 평가	115
<표 III-31> ‘학업역량’ 세부 평가항목의 적절성에 대한 유의성 검정	115
<표 III-32> ‘학업역량’ 의 세부 평가항목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에 대한 평가	116

〈표 III-33〉 ‘전공적합성’ 세부 평가항목	117
〈표 III-34〉 ‘전공적합성’ 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적절성 평가	118
〈표 III-35〉 ‘전공적합성’ 의 세부 평가항목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에 대한 평가	119
〈표 III-36〉 ‘인성’ 세부 평가항목	119
〈표 III-37〉 ‘인성’ 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적절성 평가	121
〈표 III-38〉 ‘인성’ 세부 평가항목의 적절성에 대한 유의성 검정	122
〈표 III-39〉 ‘인성’ 의 세부 평가항목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에 대한 평가	122
〈표 III-40〉 ‘발전가능성’ 세부 평가항목	123
〈표 III-41〉 ‘발전가능성’ 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적절성 평가	125
〈표 III-42〉 ‘발전가능성’ 세부 평가항목의 적절성에 대한 유의성 검정	125
〈표 III-43〉 ‘발전가능성’ 의 세부 평가항목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에 대한 평가	126
〈표 III-44〉 세부 평가항목의 평가요소별 평균 반응	127
〈표 III-45〉 학생부 기재 영역과 평가요소의 적합성 평가	128
〈표 III-46〉 평가항목이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에 미치는 영향	130
〈표 III-47〉 평가항목이 ‘학생 참여형 수업활동 강화’ 에 미치는 영향	132
〈표 III-48〉 평가요소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의 적절성	133
〈표 III-49〉 조사에 사용된 용어 분류	134
〈표 III-50〉 델파이조사 응답자 현황: 고교 및 교육청	136
〈표 III-51〉 델파이조사 응답자 현황: 대학	136
〈표 III-52〉 델파이조사 질문 문항	137
〈표 III-53〉 평가자료 변화에 따른 고교의 학생부종합전형 대응 방향	138
〈표 III-54〉 평가자료 변화에 따른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방향	140
〈표 III-55〉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변화에 따라 대학/고교에 바라는 점	141
〈표 III-56〉 ‘학업역량’ 평가항목 별 평가 가능한 학생부 항목 점수 비율	142
〈표 III-57〉 ‘전공적합성’ 평가항목 별 평가 가능한 학생부 항목 점수 비율	143
〈표 III-58〉 ‘인성’ 평가항목 별 평가 가능한 학생부 항목 점수 비율	143
〈표 III-59〉 ‘발전가능성’ 평가항목 별 평가 가능한 학생부 항목 점수 비율	144
〈표 III-60〉 평가요소별 평가 어려운 정도	145

<표 III-61> 평가항목별 평가 어려운 정도	146
<표 III-62> 학업역량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수정·보완 의견	147
<표 III-63> 전공적합성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수정·보완 의견	149
<표 III-64> 인성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수정·보완 의견	150
<표 III-65> 발전가능성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수정·보완 의견	152
<표 III-66> 학업역량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재구성에 대한 의견	153
<표 III-67> 전공적합성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재구성에 대한 의견	155
<표 III-68> 인성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재구성에 대한 의견	156
<표 III-69> 발전가능성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재구성에 대한 의견	157
<표 III-70>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개선 방향 건의사항	158
<표 III-71> 2차 델파이조사 항목	160
<표 III-72> 다른 평가요소와 독립적으로 [전공적합성] 평가요소 유지	161
<표 III-73> ‘전공’에서 ‘진로’로 평가 방향 전환	162
<표 III-74> [발전가능성] 및 [인성] 평가요소의 통합	164
<표 III-75> [인성] 내 평가항목의 일부 통합	166
<표 III-76> [인성]에서 [공동체역량]으로 명칭 변경	167
<표 III-77>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평가항목의 발전적 해체	169
<표 III-78>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항목은 삭제	170
<표 III-79> 전문가 심층면접 조사 설계	172
<표 III-80> 전문가 심층면접 대상자 현황	173
<표 III-81> 1차 개선안	174
<표 III-82> 2차 개선안	174
<표 III-83> ‘학업역량’ 개념 정의 및 평가항목	175
<표 III-84> ‘학업성취도’ 개념 정의 및 세부평가내용	176
<표 III-85> ‘학업태도’ 개념 정의 및 세부평가내용	178
<표 III-86> ‘탐구력’ 개념 정의 및 세부평가내용	180
<표 III-87> ‘진로역량’ 개념 정의 및 평가항목	182
<표 III-88>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개념 정의 및 세부평가내용	183

<표 III-89> ‘전공(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 개념 정의 및 세부평가내용	185
<표 III-90>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개념 정의 및 세부평가내용	186
<표 III-91> ‘공동체역량’ 개념 정의 및 평가항목	187
<표 III-92> ‘협업과 소통능력’ 개념 정의 및 세부평가내용	189
<표 III-93> ‘나눔과 배려’ 개념 정의 및 세부평가내용	190
<표 III-94> ‘성실성과 규칙준수’ 개념 정의 및 세부평가내용	191
<표 III-95> ‘리더십’ 개념 정의 및 세부평가내용	193
<표 III-96> 공통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최종안	195
<표 IV-1> ‘학업역량’의 정의,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내용	206
<표 IV-2> ‘진로역량’의 정의,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내용	215
<표 IV-3> ‘공동체역량’의 정의,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내용	222
<표 IV-4>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개정 총괄표	223

그 림 목 차

[그림 II-1]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교육부, 2016)	9
[그림 IV-1]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의 개선 방향	200
[그림 IV-2] ‘학업역량’ 평가항목의 변경	202
[그림 IV-3] ‘진로역량’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의 변경	208
[그림 IV-4] ‘공동체역량’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의 변경	218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학생부종합전형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평가자료도 대폭 줄고, 고등학교 교육과정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새로운 평가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2017년에 건국대·경희대·서울여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의 6개 대학은 공동 연구를 통해 「학생부종합전형 공통 평가요소 및 항목」을 제시한 바 있고, 이 연구 결과를 실제 평가에 활용해 왔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기준으로 학업 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의 4가지 평가요소와 15가지 평가항목을 제시하였다. 당시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기준이 대학마다 달라 입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6개 대학이 학생부종합전형의 공통 평가요소 및 항목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부종합전형의 표준화에 기여하여,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을 지도하는 유용한 지침서로서 학생들의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진학지도에 도움을 제공하였다. 이후 전국 여러 대학이 이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유사한 공통 평가요소로 활용하였고,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한 바 있다.

공정한 학생 선발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2019년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추천서가 폐지되었으며, 자기소개서는 2024학년도 입시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는 사교육 등 외부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일부 항목이 삭제되거나 대입 자료로 활용이 제한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를 평가자료로 활용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기초 전형자료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전형자료가 단계적으로 축소되는데, 2022학년도부터 이미 학교생활기록부의 진로희망사항 삭제, 학기당 1개의 수상실적 제공, 자율동아리와 창의적 체험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항목별 기재 글자 수가 축소되었다. 2024학년도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교외활동이 완전히 배제되고, 수상실적, 독서활동상황, 자율동아리, 봉사(개인) 등은 더 이상 대학에 제공되지 않는다. 자기소개서도 완전 폐지된다. 대학은 2024학년도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만을 활용하여 서류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평가함으로써 2024학년도가 되면 서류평가라는 용어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학교생활기록부 평가(약칭 학생부평가)’라는 용어가 일반화될 것이다. 2024학년도 이후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평가 환경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도 크게 바뀐다. 학생선택형 교육과정인 2015개정교육과정이 시행 중이며, 향후 고교학점제의 도입이 예고되어 있다.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시행을 위한 2022개정교육과정도 확정되었다.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고, 학생 중심의 수업활동을 강화하는 학생선택형 교육과정이 확대되고 있다. 선택과목의 확대와 아울러 교과성적 평가 체계도 개편된다. 이미 2022학년도부터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과목의 기존 9등급 상대평가 외에, 진로선택과목에 성취평가제를 도입하여 성취도(A/B/C)가 제공되었다. 2025학년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서는 1학년 공통과목은 기존의 석차 9등급이 유지되겠지만, 모든 선택과목(일반/융합/진로선택)은 성취평가제에 기초해 성취도(A~E)로 표기된다. 2022개정교육과정에 따라 고교학점제로 배운 학생들이 2028학년도 대입부터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학생부 등 전형자료 축소와 성취평가제 도입에 따른 교과성적 변별력 약화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의 변별력 확보가 시급하다. 특히, 학생부의 창의적 체험활동 등 비교과 활동 축소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교과 수업 위주의 세밀한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2019년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의 전형자료의 축소와 2015개정교육과정의 본격적인 시행, 향후 도입될 고교학점제 등에 따른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2017년 기존 공동연구를 통해 제시 하였던 학생부종합전형의 공통 서류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들을 재구조화하여 새롭게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및 항목 개선 방안은 2024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의 실제 평가기준으로 활용될 것이다.

2. 연구방법

가. 문헌 조사·분석

정부는 2019년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통해 “학생 개인의 능력이나 성취가 아닌 부모 배경, 사교육 등 외부요인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이 차단되도록 학생부·자기소개서·추천서를 개선”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방안의 하나로 2022학년도 대입부터 추천서를 폐지하고, 2024학년도에는 자기소개서도 폐지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만 남는다. 서류평가의 유일한 평가자료로 남게 된 학교생활기록부도 기재 항목이 계속해서 축소된다.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정규 교육과정 외의 비교과 활동은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

이러한 학생부종합전형의 대입정책 변화는 교육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주로 참고하였다. 2022학년도 이후 학교생활기록부 항목 양식 및 기재 방식 등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과 아울러, 2015개정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및 2022개정교육과정 등의 교육과정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대학별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기준을 서로 비교하기 위해,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전국의 75개 대학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해당 대학의 2022학년도 대학별 모집요강 및 입학안내자료집, 홈페이지 등에서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및 항목 등 분석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알리미 자료도 참고하였다.

나. 설문 조사·분석

이번 조사는 학생부종합전형 공통 평가요소 및 항목 개선 연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의 주체인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는 모두 두 차례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전국에서 500개 고등학교를 임의로 추출하였으나, 응답 수가 부족하여 297개교를 추가로 조사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전국의 17개 시도를 모두 포함하였으나, 2차 조사에서는 응답 수가 충분했던 지역을 제외하였다. 조사 대상 고등학교를 추출할 때 고교 유형에 따른 편중을 피하기 위해 유형에 따라 일정 수의 고등학교가 포함되도록 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표본으로 선택된 797개 고등학교의 소재지와 유형별 특성은 <표 1-1>과 같다.

<표 1-1> 설문조사 표본으로 선택된 고등학교 현황

구분	세부 항목	N	%
지역	수도권	292	36.6
	강원권	44	5.5
	충청권	120	15.1
	전라권	144	18.1
	경상권	183	23.0
	제주권	14	1.8
고교 유형	일반고	472	59.2
	자율형공립고	56	7.0
	자율형사립고	32	4.0
	외국어고/국제고	30	3.8
	과학고/영재학교	23	2.9
	특성화고/산업수요맞춤형고	152	19.1
	예술고/체육고	32	4.0

원활한 설문조사를 위해 대상 학교에 설문 참여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설문 응답 희망자는 누구나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조사는 2021년 12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조사 방법은 해당 학교에 공문(설문조사 URL 포함)을 발송한 뒤 인터넷으로 조사 페이지에 접속하여 응답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최종적으로 456명이 조사를 위해 접속하였으나, 이중 응답을 끝까지 마치고 유의미하게 경우는 379명이었다.

다. 델파이 조사

델파이 조사는 ‘전형자료 축소와 고교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및 항목의 개선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교 교사 및 교육청 소속 15명, 대학입학사정관 13명으로 총 28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 진행하였다. 1차 설문지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2022년 1월 9일까지 개방형 주관식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2차 설문지는 1차 설문지를 바탕으로 폐쇄형/개방형 주·객관식 혼용 질문을 구성하여 1월 28일부터 2월 7일까지 진행하였다. 온라인으로 개별 이메일을 통해 델파이 조사지를 발송 및 회신받았다.

라. 전문가 심층면접(FGI)

전문가 심층면접(FGI)은 설문조사와 델파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작성한 ‘전형자료 축소와 고교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및 항목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개선안’에 대해 대학 입학관계자 5명, 장학사 및 고교 교사 6명 총 11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 진행하였다. 1차 자문지 작성은 2022년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진행하여 2월 7일에 1차 자문회의를 진행하였으며, 2차 자문지 작성은 2월 8일부터 2월 9일까지 진행하여 2월 10일에 2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온라인으로 개별 이메일을 통해 자문지 발송 및 회신을 받았으며, 자문회의는 모두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하였다.

II. 학생부종합전형 환경의 변화와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현황 및 특징

1. 학생부종합전형의 환경 변화

가. 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교육부는 2019년 11월 28일 학생부종합전형의 실태조사를 거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학입학전형계획 수립의 기본 방향과 학생부위주전형 운영의 기준을 담고 있다.

크게는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대입전형 간 비율 조정 및 대입전형 단순화,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기회 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회통합전형 도입으로 구성되었다. 학생부위주 전형의 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 가이드라고 하겠다.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정규교육과정 외의 비교과활동은 대입전형 자료에서 폐지, 자기소개서 및 고교 프로파일의 폐지, 세부평가기준 공개 및 1인당 평가시간 확보 등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다. 이외에도 대입전형 간 비율 조정 및 대입전형 단순화를 위해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위주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수능위주전형을 40% 이상 확대, 논술위주전형과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전형의 폐지를 담고 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기회 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회통합전형 도입을 위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10% 이상 의무화, 수도권 대학 대상 지역균형 선발 10% 이상 및 학생부 교과위주 선발을 권고하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해서는 우선, 고등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등 대입전형자료가 공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부모 배경, 사교육 등 외부요인을 차단하고, 학교와 교원의 책무성을 강화하였다. 부모 배경 등 외부요인 차단하기 위해 대입정책 4년 예고제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현재 중2)부터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비교과활동(수상경력, 개인봉사활동실적, 자율동아리, 독서활동 등)과 자기소개서는 대입자료로 미반영하거나 폐지하게 된다. 학교와 교원의 책무성 강화하기 위해 교원의 평가와 학생부 기록 역량을 높이기 위해 모든 학생의 교과 세부능력특기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학생부 기재에 위한 표준안 보급을 추진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개편 및 대입 활용 개선 방안은 다음 <표 II-1>과 같으며, 단계별로 시행된다.

II. 학생부종합전형 환경의 변화와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현황 및 특징

<표 II-1> 학생부 주요항목 내 비교과 영역(요소) 개선 현황

구분		現 고2~고3 (20~21학년도 대입)	現 중3~고1 (22~23학년도 대입)	現 중2 (24학년도부터 대입)
① 교과활동		●과목당 500자	●과목당 500자 ●방과후학교 활동(수강) 내용 미기재	●과목당 500자 ●방과후학교 활동 (수강) 내용 미기재 ●영재·발명교육 실적 대입 미반영
② 종합의견		●연간 500자	●연간 500자	●연간 500자
③ 비 교 과 영 역	자율활동	●연간 500자	●연간 500자	●연간 500자
	동아리활동	●연간 500자 ●정규자율동아리, 청소년 단체활동, 스포츠클럽 활동 기재 ●소논문 기재 가능	●연간 500자 ●자율동아리는 연간 1개 (30자)만 기재 ●청소년단체활동은 단체명 만 기재 ●소논문 기재 금지	●연간 500자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 ●청소년단체활동 미기재 ●소논문 기재 금지
	봉사활동	●연간 500자 ●실적 및 특기사항	●특기사항 미기재 ●교내·외 봉사활동실적 기재	●특기사항 미기재 ●개인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 단,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은 대입 반영
	진로활동	●연간 700자	●연간 700자 ●진로희망분야 대입 미반영	●연간 700자 ●진로희망분야 대입 미반영
	수상경력	●모든 교내수상	●교내수상 학기당 1건만 (3년간 6건) 대입 반영	●대입 미반영
	독서활동	●도서명과 저자	●도서명과 저자	●대입 미반영

※(미기재) 학생부에서 삭제, (미반영) 학생부에는 기재하되, 대입자료로 미전송

*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19.11.28.),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또한, 대입에서 출신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고, 투명하고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 지도록 2021학년도부터 서류 블라인드 평가를 도입하고, 공통 고교정보(고교프로파일)를 폐지한다. 아울러, 외부 공공사정관의 평가 참여, 면접 등 평가과정 녹화와 보존, 면접관의 동일모집단위 평가 연임 금지 등을 유도하여 평가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입시 부정과 비리 요인을 사전 차단하도록 한다. 입학사정관 공통교육과정 개발하고 위촉

사정관의 교육이수 권장시간을 상향하는 등 대학의 평가 전문성을 강화한다.

고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논술위주 전형과 특기자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대입 전형을 학생부위주 전형과 수능위주 전형으로 단순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평가방식 및 고교학점제 등 변화하는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수능체계(안)을 2021년까지 마련하고자 한다. 새로운 수능체계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금지 사항을 추가해 왔으며, 학교 교육 내 활동으로 기재 방향을 변경해 왔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금지사항의 연도별 변화는 다음 <표 II-2>와 같다.

<표 II-2> 학생부 기재 금지사항 연도별 변화 개요

학생부 기재 금지사항	‘11	‘12	‘13	‘14	‘15	‘16	‘17	‘18	‘19
장학금, 장학명	-	-	-	-	-	-	-	-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	-	-	-	-	×	×	×	×
특정 대학명, 기관명, 강사명	-	-	-	-	×	×	×	×	×
논문 투고&발표	-	-	-	×	×	×	×	×	×
도서 출판	-	-	-	×	×	×	×	×	×
모의고사, 학력평가 성적	-	-	-	×	×	×	×	×	×
발명 특허	-	-	×	×	×	×	×	×	×
교외 대회실적	-	×	×	×	×	×	×	×	×
교외 수상실적	×	×	×	×	×	×	×	×	×
해외(봉사)활동	×	×	×	×	×	×	×	×	×
교외체험활동	×	×	×	×	×	×	×	×	×
공인어학시험	×	×	×	×	×	×	×	×	×
교내·외 인증시험	×	×	×	×	×	×	×	×	×

* 입학사정관제 도입(‘07) 이후 학생부종합전형 운영대학 증가 → 대입 공정성 제고를 위한 학생부 기재 항목 정비 지속 추진(‘11~)

**출처: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2021.6.16.). 2021. 고교교원-입학사정관 권역별 협의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권역) 회의자료

나. 2015 개정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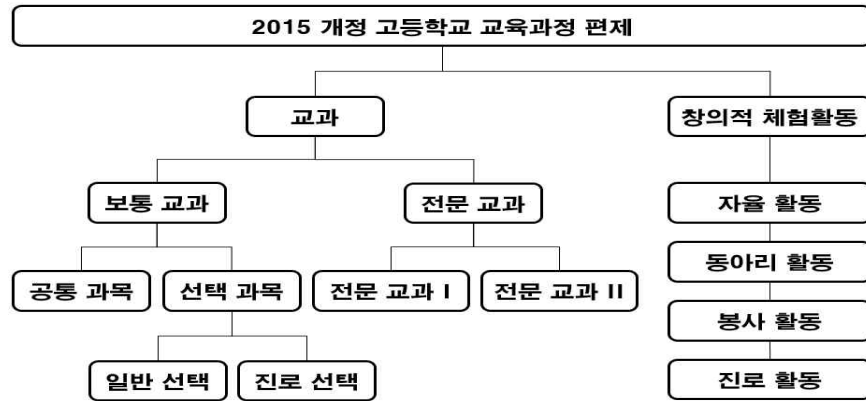
2015 개정교육과정은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의 국가적 필요성은 물론 문·이과 통합에 대한 범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이다. 2015 개정교육과정은 2015년 9월 23일에 최초 고시(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되었으며, 2018년 3월 1일부터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최초 적용되어 2020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2021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처음으로 평가자료로 활용되게 되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미래사회를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핵심역량을 제시하였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6가지 핵심역량은 다음 <표 II-3>과 같다.

<표 II-3>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6가지 핵심역량(교육부)

핵심역량	내용
자기관리 역량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지식정보처리 역량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창의적 사고 역량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능력
심미적 감성 역량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능력
의사소통 역량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능력
공동체 역량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

2015 개정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편제는 [그림 II-1]과 같다.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은 2009 개정교육과정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교과 교육과정의 경우 보통 교과 영역이 공통 과목과 선택과목으로, 선택과목은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선택과목과 진로선택과목으로 구분되어 구성되었다.



[그림 11-2]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교육부, 2016)

2015 개정교육과정이 이전의 2009 개정교육과정과 달라진 부분들은 다음 <표 11-4>와 같다. 문·이과의 진로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함양하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공통과목』을 도입하였다. 공통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의 7개 과목으로 편성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기초 소양 교육을 바탕으로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선택과목』도 이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표 11-4>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신규 대조표(교육부, 2016)

구분		주요 내용	
		2009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 개정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적인 인재 양성 전인적 성장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강화 국민공통교육과정 조정 및 학교교육 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모든 학생이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 함양 학습량 적정화,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개선을 통한 핵심역량 함양 교육 교육과정과 수능·대입제도 연계, 교원 연수 등 교육 전반 개선
총론	핵심역량 반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구하는 인간상’에 6개 핵심역량 제시 교과별 교과 역량을 제시하고 역량 함양을 위한 성취기준 개발
	인문학적 소양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고 심화 선택과목에 ‘연극’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서교육 강화: 초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매학기 수업시간에 책 한 권 읽기 연극교육 활성화: 일반 선택 과목에 ‘연극’ 개설 교과별 교육내용에 인문학적 요소 반영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화 선택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 과목을 심화 선택에서 일반 선택으로 전환, 소프트웨어 중심 개편

II. 학생부종합전형 환경의 변화와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현황 및 특징

구분	주요 내용	
	2009 개정	2015 개정
범교과학습 주제 개선	• 39개의 범교과 학습주제 제시	• 10개 범교과 학습 주제로 통합·조정
NCS 직업교육 과정 연계	-	• 총론의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등에 반영
공통 과목 신설	• 공통 과목 없이 선택과목으로만 구성	• 공통 과목 및 선택 과목으로 구성: 선택과목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구분 ※ 진로 선택 및 전문 교과를 통한 맞춤형 교육, 수월성 교육 실시
국어, 수학, 영어 비중 적정화	• 기초 교과(국·수·영) 이수단위는 교과 총 이수단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초 교과(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이수 단위 제한 규정(50%)이 유지 됨에 따라 국·수·영 비중이 90단위에서 84단위로 감축
특성화고 교육과정	• 전문 교과로 제시	•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초 과목과 실무 과목으로 구성
교과 교육과정 개정 방향	-	•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의 유기적 연계 강화
	-	• 교과 교육과정 개정 기본 방향 제시 - 핵심 개념 및 원리 중심으로 학습량 적정화 - 학생 참여 중심 교수·학습 방법 개선 - 과정 중심 평가 확대

2015 개정교육과정의 과목별 이수 기본 단위와 증감 범위는 <표 II-5>와 같다.

<표 II-5> 2015 개정교육과정의 과목별 이수 기본 단위와 증감 범위(교육부, 2016)

과목 구분	과목	기본 단위	편성운영 범위	비고
공통 과목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8단위	6~8단위	2단위 내 감축 허용
	한국사	6단위	6단위 이상	
	과학탐구실험	2단위	2단위	특목고(마이스터고 포함), 특성화고에서는 과학탐구실험 편성 제외 가능
일반 선택 과목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과(군) 관련 일반 선택 과목	5단위	3~7단위	2단위 내 증감 허용
진로 선택 과목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과(군) 관련 진로 선택 과목	5단위	2~8단위	3단위 내 증감 허용
교양 과목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 실용 경제, 논술	5단위	2~8단위	3단위 내 증감 허용

일반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 단위 배당 기준은 <표 II-6>과 같다. 공통과목은 2단위 범위 내에서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한국사는 6단위 이상 이수하되 2개 학기 이상 편성하도록 한다. 과학탐구실험은 이수 단위 증감 없이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학계열, 체육계열, 예술계열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특수 목적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 예술 교과(군)는 5단위 이상, 생활·교양 영역은 12단위 이상 이수할 것을 권장한다. 기초 교과 영역 이수 단위 총합은 교과 총 이수 단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II-6> 일반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 단위 배당 기준(교육부, 2018)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 (단위)	필수 이수 단위	자율 편성 단위
교과 (군)	기초	국어	국어(8)	10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수학(8)	10	
		영어	영어(8)	10	
		한국사	한국사(6)	6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8)	10	
		과학	통합과학(8) 과학탐구실험(2)	12	
	체육·예술	체육		10	
		예술		10	
	생활·교양	기술·가정/제2외국어 /한문/교양		16	
	소계			94	
창의적 체험활동				24(408시간)	
총 이수 단위				204	

보통교과의 공통과목 및 일반과목은 다음 <표 II-7>, 전문 교과 I 과목은 <표 II-8>과 같다. 전문 교과 I 은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 계열에 관한 과목으로 하며, 전문 교과 II 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경영·금융, 보건·복지, 디자인·문화콘텐츠, 미용·관광·레저, 음식 조리, 건설, 기계, 재료, 화학 공업, 섬유·의류,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 가공, 인쇄·출판·공예, 환경·안전, 농림·수산해양, 선박 운항 등에 관한 과목으로 한다. 전문 교과 II 의 과목은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으로 구분한다.

II. 학생부종합전형 환경의 변화와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현황 및 특징

<표 II-7> 보통 교과와 공통 과목 및 선택 과목(교육부, 개정 2020.9.11)

교과 영역	교과 (군)	공통 과목	선택 과목(기본 단위 수 : 5단위)	
			일반 선택(3~7단위)	진로 선택(2~8단위)
기초	국어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수학	수학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본 수학, 실용 수학, 인공지능 수학, 기 하, 경제 수학, 수학과제 탐구
	영어	영어	영어 회화, 영어 I,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II	기본 영어,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한국사	한국사		
탐구	사회 (역사/ 도덕 포함)	통합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과학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	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물리학II, 화학II, 생명과학II, 지구과학 II,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체육 · 예술	체육		체육,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 체육 탐구
	예술		음악, 미술, 연극	음악 연주,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비평
생활 · 교양	기술· 가정		기술·가정, 정보	농업 생명 과학, 공학 일반, 창의 경영, 해양 문화와 기술, 가정과학, 지식 재산 일반, 인공지능 기초
	제2 외국어		독일어 I 프랑스어 I 스페인어 I 중국어 I	일본어 I 러시아어 I 아랍어 I 베트남어 I
	한문		한문 I	한문 II
	교양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 실용 경제, 논술	

<표 II -8> 전문 교과 I 과목(교육부, 2018)

교과(군)	전문 교과 I 과목
과학 계열	심화 수학 I, 심화 수학 II, 고급 수학 I, 고급 수학 II,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고급 생명과학, 고급 지구과학,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정보과학,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생태와 환경
체육 계열	스포츠 개론, 체육과 진로 탐구, 체육 지도법, 육상 운동, 체조 운동, 수상 운동, 개인·대인 운동, 단체 운동, 체육 전공 실기 기초, 체육 전공 실기 심화, 체육 전공 실기 응용, 스포츠 경기 체력, 스포츠 경기 실습, 스포츠 경기 분석
예술 계열	음악 이론, 음악사, 시창·청음, 음악 전공 실기, 합창, 합주, 공연 실습, 미술 이론, 미술사, 드로잉, 평면 조형, 입체 조형, 매체 미술, 미술 전공 실기, 무용의 이해, 무용과 몸, 무용 기초 실기, 무용 전공 실기, 무용 음악 실습, 안무, 무용과 매체, 무용 감상과 비평, 문예 창작 입문, 문학 개론, 문장론, 문학과 매체, 고전문학 감상, 현대문학 감상, 시 창작, 소설 창작, 극 창작, 연극의 이해, 연기, 무대기술, 연극 제작 실습, 연극 감상과 비평, 영화의 이해, 영화기술, 시나리오, 영화 제작 실습, 영화 감상과 비평, 사진의 이해, 기초 촬영, 암실 실기, 중급 촬영, 사진 표현 기법, 영상 제작의 이해, 사진 영상 편집, 사진 감상과 비평
외국어 계열	심화 영어 회화 I, 심화 영어 회화 II, 심화 영어 I, 심화 영어 II, 심화 영어 독해 I, 심화 영어 독해 II, 심화 영어 작문 I, 심화 영어 작문 II, 전공 기초 독일어, 독일어 회화 I, 독일어 회화 II, 독일어 독해와 작문 I, 독일어 독해와 작문 II, 독일어권 문화, 전공 기초 프랑스어, 프랑스어 회화 I, 프랑스어 회화 II, 프랑스어 독해와 작문 I, 프랑스어 독해와 작문 II, 프랑스어권 문화, 전공 기초 스페인어, 스페인어 회화 I, 스페인어 회화 II, 스페인어 독해와 작문 I, 스페인어 독해와 작문 II, 스페인어권 문화, 전공 기초 중국어, 중국어 회화 I, 중국어 회화 II, 중국어 독해와 작문 I, 중국어 독해와 작문 II, 중국 문화, 전공 기초 일본어, 일본어 회화 I, 일본어 회화 II, 일본어 독해와 작문 I, 일본어 독해와 작문 II, 일본 문화, 전공 기초 러시아어, 러시아어 회화 I, 러시아어 회화 II, 러시아어 독해와 작문 I, 러시아어 독해와 작문 II, 러시아 문화, 전공 기초 아랍어, 아랍어 회화 I, 아랍어 회화 II, 아랍어 독해와 작문 I, 아랍어 독해와 작문 II, 아랍 문화, 전공 기초 베트남어, 베트남어 회화 I, 베트남어 회화 II, 베트남어 독해와 작문 I, 베트남어 독해와 작문 II, 베트남 문화
국제 계열	국제 정치, 국제 경제, 국제법, 지역 이해, 한국 사회의 이해, 비교 문화,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 국제 관계와 국제기구, 현대 세계의 변화, 사회 탐구 방법, 사회과제 연구

II. 학생부종합전형 환경의 변화와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현황 및 특징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 편성 예시는 <표 II -9>와 같다.

<표 II -9>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 편성 예시(교육부, 2016)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경상 계열 (사회 중심)	국어	문학, 독서, 언어와 매체	고전 읽기
	수학	수학I, 수학II	경제 수학
	영어	영어I, 영어II	영미 문학 읽기
	사회	세계지리, 세계사, 경제, 사회·문화, 정치와 법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한국사회의 이해(전문)
	과학	물리학I	과학사
	체육·예술	체육, 음악, 미술	스포츠 생활
	생활·교양	한문I, 실용 경제, 진로와 직업, 논술	
어문 계열 (외국어 중심)	국어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심화 국어
	수학	수학I, 확률과 통계	
	영어	영어I, 영어II, 영어 회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심화 영어II(전문)
	사회	한국지리, 생활과 윤리, 정치와 법	
	과학	생명과학I	생활과 과학
	체육·예술	체육, 운동과 건강, 음악, 연극	미술 감상과 비평
	생활·교양	중국어I, 한문I, 진로와 직업	중국어II, 중국어 회화(전문)
예술 계열 (미술 중심)	국어	문학, 독서	고전 읽기
	수학	수학I, 확률과 통계	
	영어	영어I,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회화	영미 문학 읽기, 실용 영어
	사회	사회, 문화, 세계사	여행지리
	과학		과학사
	체육·예술	체육, 운동과 건강, 음악, 미술, 연극	미술 감상과 비평, 미술 전공 실기, 매체 미술(전문)
	생활·교양	일본어I, 한문I, 심리학, 철학	
이공 계열 (수학 과학 중심)	국어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수학	수학I, 수학II, 미적분	기하, 수학과제 탐구
	영어	영어I,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회화	
	사회	사회·문화	사회문제 탐구
	과학	물리학I, 화학I, 지구과학I, 생명과학I	물리학II, 화학II, 지구과학II, 생명과학II, 융합과학
	체육·예술	체육, 운동과 건강, 음악, 미술	
	생활·교양	기술·가정, 정보, 논리학, 환경	

고등학교 과목별 성적은 다음 <표 II-10>과 같이 처리한다. 과목별 성취도는 성취율에 따라 A(90%이상), B(80%이상~90%미만), C(70%이상~80%미만), D(60%이상~70%미만), E(60%미만)의 5단계로 평정하되, 기준 성취율에 따른 분할점수는 과목별로 학교가 설정할 수 있다. 단, 보통 교과 공통 과목의 과학탐구 실험, 보통 교과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보통 교과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포함), 전문 교과 I 과학계열 교과(군)의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전문 교과 I 국제계열 교과(군)의 사회 탐구 방법, 사회과제 연구의 성취도는 원점수에 따라 A(80%이상), B(60%이상~80%미만), C(60%미만)의 3단계로 평정한다.

<표 II-10> 고등학교 과목별 성적 기재 방법(교육부, 2020)

구분	기재 내용
교양교과(군)의 과목, 아래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동석차수), 석차등급 산출
[보통 교과] 진로 선택 과목	원점수, 과목 평균, 성취도(수강자수), 성취도별 분포비율 산출
[보통 교과] 과학탐구실험, [전문 교과 I, II]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만 산출, 전문 교과II의 실무과목은 능력단위로 산출할 수 있으며, 능력단위 평가 시 이수시간, 원점수, 성취도만 산출한다.
[보통 교과]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성취도만 산출
고등학교에서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 (보통 교과 진로 선택 과목,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 (군)의 과목 제외)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산출

다. 고교학점제 및 2022 개정교육과정의 주요 내용¹⁾

1) 고교학점제

교육부는 2021년 2월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고교학점제는

1) 교육부 보도자료(2021).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2021.02.17.),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2021.08.23.),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2021.11.24.)을 요약 정리하였다.

II. 학생부종합전형 환경의 변화와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현황 및 특징

학생이 공통과목 이수 후,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체제 개편(2025년 외교·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과 더불어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화, 감염병 발생, 학령인구 급감 등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2025년 학생 맞춤형 교육체제의 완전한 안착을 목표로,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이행은 다음 <표 II-11>과 같이 2021년 기반 정비를 거쳐 2022년부터 이루어진다. 2022년에는 법령·지침 정비를 토대로 교원 역량 강화, 시도교육청 및 학교단위 추진체제 마련 등 고교학점제 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중점 추진한다. 2023년(고1)부터는 수업량 적정화(204단위→192학점), 공통과목 중 국어·수학·영어에 대한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 등을 적용해, 2025년 미이수제·성취평가제(선택과목) 도입을 준비한다.

<표 II-11>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안(교육부, 2021)

	기반 마련 ~2021년	운영체제 전환 2022년	제도의 단계적 적용 2023년2024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2025년~
수업량 기준	단위	단위 (특성화고학점)	학점		학점
총 이수학점	1~3학년 204단위	1학년 204단위	1학년 192학점	1학년 192학점	1학년 192학점
		2학년 204단위	2학년 204단위	2학년 192학점	2학년 192학점
		3학년 204단위	3학년 204단위	3학년 204단위	3학년 192학점
연구선도학교 비중*	55.9%	84%	95%	100%	고교학점제 안정적 운영
책임교육	준거 개발	교원 연수 시도학교 준비	공통과목(국어, 수학, 영어)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		전 과목 미이수제 도입
평가제도	진로선택과목 성취평가제 (공통, 일반선택 9등급 병기)				모든 선택과목 성취평가제 (공통과목 9등급 병기)

* 시도교육청 계획 수합(2021.4, 일반계고) / 2023년까지 100% 조기 달성 목표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 고등학교의 수업·학사운영이 기존의 ‘단위’에서 ‘학점’ 기준으로 전환되고, 학습량 적정화와 학사 운영 유연성 제고를 위해 졸업기준이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조정된다. 현재 교과 180단위, 창의적 체험활동(창체) 24단위 총 204단위에서 이후 교과 174학점, 창체 18학점 총 192학점으로 조정된다. 학생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 과목구조를 다음 <표 II-12>와 같이 주로 특목고에서 개설한 전문교과 I 을 보통교과로 편제하고, 선택과목을 일반·융합·진로과목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표 II-12> 고등학교 과목구조 변경

< 현행 고교 과목구조 >		< 개편안(2025학년도~) >		
교과	과목	교과	과목	
보통 교과	공통과목	보통 교과	공통과목	
	일반선택과목		선택 과목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			융합선택과목
전문 교과	전문교과 I *(심화과목)			진로선택과목
	전문교과 II (직업과목)	전문교과	전문공통/전공일반/전공실무	

*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 계열의 심화 과목

학사 운영은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각 학년 과정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하면 진급과 졸업이 가능하나,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는 학점 기반의 졸업제도가 도입된다. 학생이 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과목출석률(수업횟수의 2/3 이상)과 학업성취율(40%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3년간 누적 학점이 192학점 이상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된다. 고교학점제 성취도 평가 체계는 다음 <표 II-13>과 같다.

<표 II-13> 고교학점제 성취도 평가 체계

< 현행 >		< 향후(2025학년도~) >	
성취율	성취도	성취율	성취도
90%이상	A	90%이상	A
80%이상 ~ 90% 미만	B	80%이상 ~ 90% 미만	B
70% 이상 ~ 80%미만	C	70% 이상 ~ 80%미만	C
60% 이상 ~ 70% 미만	D	60% 이상 ~ 70% 미만	D
60% 미만	E	40% 이상 ~ 60%미만	E
		40% 미만	I

↑ 이수
↓ 미이수

* 미이수 과목에 통상 F학점을 부여하나, 단어의 의미(Fail)를 고려하여 I(Incomplete) 사용

학교에서는 학생의 미이수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미이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충이수를 통해 학점을 취득하도록 하여, 최소 학업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책임교육을 강화한다. 보충이수는 별도 과제 수행, 보충 과정 제공 등 본 과목의 내용이나 수업량을 축소하여 수강하는 방식, 대학과 같이 미이수 과목을 다음 학기나 학년도에 수강하는 재이수 방식은 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한다. 보충이수는 학업결손 보완뿐 아니라 학습동기 부여 등을 고려하여 개별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프로그램, 온라인 과정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며, 보충이수 후 부여되는 성적에 상한을 둔다(미이수 → 보충이수 → 성취도 E).

학점제 도입에 맞춰 석차등급 중심의 현행 내신평가 제도를 다음 <표 II-14>와 같이 바꾼다. 2019학년도부터 보통교과 진로선택과목에 적용되고 있는 성취평가제를 2025학년도(고1~)부터 모든 선택과목으로 확대 도입하여, 학생들이 학업 성취수준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을 지원한다. 석차등급제에서는 수강 인원 수 등에 따라 내신등급의 유불리가 발생하여,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이라도 수강인원이 적은 경우 수강을 기피하는 등 학생들의 선택이 왜곡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표 II-14> 고교 교과성적 산출 방식의 변화(보통교과)

[현행(2019~)]		[향후(2025~)]	
교과	성적 산출	교과	성적 산출
공통과목 일반선택과목	성취도(A,B,C,D,E), 석차등급 병기	공통과목	성취도(A,B,C,D,E,I), 석차등급 병기
진로선택과목	성취도(A,B,C) 표기	선택과목 (일반/ 융합/ 진로)	성취도(A,B,C,D,E,I) 표기

※ 단, ‘체육·예술’은 성취도 3단계 외 모두 미산출, ‘교양’은 P(이수) 외 모두 미산출
(현행 방식 유지)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다음 <표 II-15>와 같이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 수강자 수, 성취도별 학생 비율을 산출한다.

<표 II-15> 성취평가제 확대(2025학년도~)에 따른 성적 산출 방식(예시)

과목명	학점 수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수강자 수)	성취도별 학생 비율
정치와 법	4	85/64.4	B(55)	A(7.3) B(30.9) C(12.7) D(30.9) E(18.2)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이에 맞춰서 과목 선택과 학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들이 고 1때부터 진로·적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진로 집중학기를 운영하고, 교사들의 관련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도 확대한다. 비교과 영역인 창의적 체험활동을 재구조화하여, 교과 융합적 성격의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가칭) 진로 탐구 활동’을 도입한다. 기존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 활동을 탐구형 자율 활동과 통합한 영역으로, 진로 관련 프로젝트 학습, 교과 융합 활동 등 학생의 자기주도적 활동을 지원한다.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 곤란 등으로 단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과목 등을 여러 교고가 공동으로 개설하여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도 활성화(2020년 온라인 809과목, 오프라인 3,425과목 개설)한다. 또한, 다양한 학습경험 제공을 위해 학교 내 또는 학교 간 개설 및 운영이 어렵다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지역사회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인 학교 밖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는 2021.11.24.일에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을 발표하였다. 2022 개정교육과정은 학습자들이 디지털 전환, 기후환경 변화 및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초소양과 역량을 함양하여,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목적을 둔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표 II-16>과 같이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소양 및 역량을 기초로 교육적 인간상, 핵심역량, 교육목표를 개선할 예정이다. 교육의 핵심역량은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길러내는 범교과적이고 일반적인 역량으로 이전 교육과정의 ‘의사소통’을 ‘협력적 소통’으로 변경하여, 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협력적 소통, 공동체 역량 여섯가지를

II. 학생부종합전형 환경의 변화와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현황 및 특징

제시하였다. 첫째, 언어, 수학, 디지털 소양 등을 기초소양으로 강조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학업과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성을 강화한다. 둘째, 인간과 환경의 공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태전환교육 및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 등 공동체 가치 교육을 강화한다. 기후환경변화 등에 대응하는 생태환경 교육을 교육목표와 전(全) 교과에 내용요소에 반영한다. 셋째, 디지털 기초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급별 발달 단계에 따라 내용 기준을 개발하고, 모든 교과에 디지털 소양을 강화한다.

<표 II-16>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지향점

미래 전망	4차 산업혁명 도래, 인구 급감, 학습자 성향 변화, 기후환경 변화 등 불확실성 심화	⇒	인간상 설정 시 고려사항
국민 의견	개인과 사회 공동의 행복 추구 자기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자기 주도적 학습,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 ※ 국가교육회의 설문조사('21.5.17. ~ 6.17.)		자기 주도성 (주체성, 책임감, 적극적 태도) 창의와 혁신 (문제해결, 융합적 사고, 도전) 포용성과 시민성 (배려, 소통, 협력, 공감, 공동체 의식)
글로벌 동향	학생 행위 주체성(student agency) 변혁적 역량, 세계 시민 역량 등 강조		

* (포용성)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교육적 성장과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함께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태도 및 소양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데 기반이 되는 언어, 수학, 디지털 소양 등을 기초소양으로 강조하고 총론과 교과에 반영한다.

<표 II-17>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기초소양

기초소양		개념(안)
언어 소양		언어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호, 양식, 매체 등을 활용한 텍스트를 대상, 목적, 맥락에 맞게 이해하고, 생산·공유,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구성원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능력
수리 소양		다양한 상황에서 수리적 정보와 표현 및 사고 방법을 이해, 해석, 사용하여 문제해결, 추론, 의사소통하는 능력
디지털 소양		디지털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평가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생산·활용하는 능력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전(초6, 중3, 고3) 2학기 중 일부 기간을 활용하여 학교급별 연계 및 정서 지원, 진로 교육 등을 강화하기 위해 진로연계학기를 도입한다. 다음 학년 학습에 필요한 교과별 학습 경로, 학습법, 진로 및 이수 경로 등으로 교과 내 단원을 구성하고, 진로 탐색·설계활동으로 운영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 기반 고등학교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한다. 고등학교의 수업·학사운영이 ‘학점’ 기준으로 전환됨에 따라, 1학점의 수업량을 17회(16+1회)에서 16회로 줄여 수업량을 적정화한다. 과목별 기본이수학점도 5단위에서 4학점으로 낮춰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교육과정 편성의 유연성을 확보한다. 필수이수학점을 94단위에서 84학점으로 조정하고, 자율이수학점 범위를 86단위에서 90학점으로 확대하여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교 단계 공통소양 함양을 위한 공통과목 유지 및 다양한 탐구·융합 중심의 선택과목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 선택과목 적정화하고, 창의력 및 비판적 사고 함양 등의 역량함양을 위해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융합 선택과목 신설한다. 다양한 진로 관련 및 심화 학습으로 현행의 진로 선택과목을 재구조화하고, 특수목적고에서 개설되었던 전문교과 I 은 일반고 학생들도 선택할 수 있도록 보통교과로 통합한다. 지역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 밖 교육 학점 인정 등을 통해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학습 기회를 확대한다.

2. 대학별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현황 및 특징

가. 대학별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현황

대학별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각 대학 입학처 혹은 입학 안내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2학년도 수시모집요강이나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자료에 공개된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를 추출하였다.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이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2년 차 지원사업임을 고려하여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대학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는 총 75개 대학이 선정되었으며(교육부, 2020), 선정 현황은 <표 II-18>과 같다.

<표 II-18>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현황(교육부, 2020)

지원유형		대학명
유형 I	수도권 (30교)	가톨릭대, 강남대, 건국대, 경기대, 경인교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대진대, 동국대, 명지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천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비수도권 (37교)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글로벌), 경북대, 경상대, 계명대, 공주대, 광주교대, 군산대, 대구교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교대, 부산대, 선문대, 순천향대, 안동대, 영남대, 전남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남대, 한동대, 한림대, 한밭대, 호서대
	소계	67개교
유형 II	수도권 (3교)	덕성여대, 차의과대, 한양대(ERICA)
	비수도권 (5교)	가톨릭관동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 목포대, 창원대
	소계	8개교
총 계		75개교

대학별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용어 활용 현황은 <표 II-19>와 같다. 평가용어의 측면에서 각 대학들은 평가요소, 평가항목,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준거, 평가기준, 평가

내용 등의 용어들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용어 간 상하 위계 관계가 일관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서류평가 평가요소와 면접평가 평가요소의 평가용어도 다른 경우가 많았다. 대학의 전형이나 평가 방식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학교 혹은 전형의 인재상이나 핵심역량을 규정하는 평가영역을 최상위에, 배점을 부여하는 평가요소를 그 다음 층위에, 각 평가요소를 구성하는 평가항목을 그 다음 층위에, 마지막으로 각 평가항목을 구성하는 세부평가내용을 최하단 층위로 구성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표 II-19> 대학별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용어 활용 현황

대학명	평가 용어 활용 현황(상위 위계 순)
단국대, 명지대, 순천향대, 인천대	평가요소-평가항목-평가내용
충남대	평가요소-세부평가항목-평가내용
강원대, 건국대, 동국대(경주), 전남대	평가요소-평가항목-세부평가내용
대구가톨릭대	평가요소-평가항목-평가기준
가톨릭관동대, 경희대, 서울여대, 한국외대	평가요소-평가항목
아주대, 한양대(ERICA)	평가요소-평가내용
계명대, 대구한의대	평가요소-평가기준-평가항목
경북대	평가요소-세부항목-평가세부내용
창원대	평가요소-평가영역-평가내용
호서대	평가요소-평가지표
가톨릭대, 서울과기대, 이화여대	평가요소
연세대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
강남대, 상명대	평가항목-평가요소-평가내용
경기대	평가항목-평가요소-평가세부내용
안동대	평가항목-평가요소-평가기준
강릉원주대, 한국교원대, 한남대	평가항목-평가요소
경상대	평가항목-평가지표-평가내용
목포대	평가항목-평가지표
덕성여대, 동국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내용
한림대	평가항목-세부항목-세부내용
인하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
경인교대, 숭실대	평가항목-평가기준
광운대	평가항목-세부평가기준 및 평가내용
숙명여대	평가항목-평가내용
중앙대	평가항목-평가세부내용
한양대	평가항목-주요평가영역-평가내용
대진대	평가항목
광주교대	평가영역(인재상)-평가요소-평가항목-평가내용
전주대	평가영역-평가요소-세부요인-평가내용
동의대, 한국교통대	평가영역-평가요소-평가기준

II. 학생부종합전형 환경의 변화와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현황 및 특징

대학명	평가 용어 활용 현황(상위 위계 순)
부산대	평가영역-평가요소-세부평가기준
제주대, 충북대	평가영역-평가요소-평가내용
한밭대	평가영역-평가요소-평가세부요소
대구교대, 청주교대	평가영역-평가요소
건국대(글로벌), 한동대	평가영역-평가항목-평가내용
국민대	평가영역-평가항목-평가주요내용
동아대	평가영역-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
진주교대	평가영역-평가항목-평가기준
선문대, 조선대	평가영역-평가항목
공주대	평가영역-평가기준-평가요소-평가내용
군산대, 대구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영남대	평가영역-평가내용
서울대	평가내용
성균관대	평가내용-평가영역(역량)-평가요소-평가항목
고려대	평가역량-평가요소-세부내용
차의과대	평가기준-세부평가지표-세부설명
서울시립대	구분-평가항목-평가내용-평가요소
서강대	평가방향-세부평가항목
부산교대	인재상-핵심역량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의 경우 다층적인 위계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대학마다 층위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 층위에 해당하는 평가요소들을 추출하여 비교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위계를 설정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시모집요강이나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자료를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된 평가요소 중 배점이 부여된 평가요소를 해당 대학의 평가요소로 추출하였다. 만일, 두 개 이상의 층위에서 배점이 부여된 경우에는 가장 하위 위계에 해당하는 평가요소들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생부종합전형 면접평가를 실시하는 대학들의 경우 서류평가 평가요소와 면접평가 평가요소를 다르게 설정할 뿐만 아니라 각 평가요소 혹은 평가 항목의 하위 세부평가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본 연구에서는 서류평가 평가요소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학별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 평가요소 활용 현황은 <표 II-20>과 같다.

서류평가의 경우 배점을 부여한 평가요소 수가 4개인 대학이 35개교로 가장 많았으며, 3개인 대학이 22개교, 5개인 대학이 12개교였다.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달가능성』의 4가지 평가요소 구조를 가장 많은 대학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4개 대학에 불과했고, 대학별로 매우 다양한 평가요소의 조합을 활용하고 있었다. 배점을 부여하는 평가요소의 수는 적게는 3개부터 많게는 10개까지 분포하였다.

몇 개의 평가요소가 가장 적절한지를 검증하는 것은 대학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평가요소간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선에서 가장 많은 평가요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표 II-20> 대학별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 평가요소 활용 현황

대학명	개수	서류평가 평가요소
동의대	3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고려대	3	학업역량, 인성, 자기계발역량
숭실대	3	학업역량, 활동역량, 잠재역량
이화여대	3	학업역량, 학교활동의 우수성, 발전가능성
덕성여대	3	학업역량, 덕성역량, 발전역량
서울시립대	3	학업역량, 잠재역량, 사회역량
서울대	3	학업능력, 학업태도, 학업 외 소양
한림대	3	학업성취역량, 성장잠재역량, 인성역량
한양대(ERICA)	3	학업성취도, 적성, 인성
대진대	3	기초학습능력, 인성, 성장잠재력
호서대	3	기초학업능력, 인성, 잠재력
강남대, 공주대, 전문대	3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
군산대	3	전공적합성, 인성, 잠재능력
한국교통대	3	전공적합성, 인성, 자기주도성
제주대	3	전공적합성, 인성·공동체 기여도, 자기주도성
전주대	3	적성, 인성, 잠재력
숙명여대	3	전공적합성 및 발전가능성, 탐구역량, 공동체의식과 협업능력
충북대	3	전문성, 인성, 적극성
조선대	3	교과활동, 전공적합성, 비교과활동
청주교대	3	교직 인·적성, 창의적 탐구 역량, 변화 리더십
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계명대, 광운대, 대구한의대, 부경대, 서울과기대, 서울여대, 순천향대, 연세대, 차의과대, 충남대	4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
한국외대	4	학업(탐구)역량, 계열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
명지대	4	학업역량, 전공적성, 인성, 발전가능성
강릉원주대	4	학업역량, 전공관심도, 인성, 발전가능성
가톨릭대	4	학업역량, 전공(계열)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
목포대	4	학업역량, 계열(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
창원대	4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및 공동체의식, 발전가능성
대구대	4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공동체의식, 발전가능성
동국대(경주)	4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및 사회성, 성장가능성
영남대	4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잠재능력
한남대①	4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종합평가

II. 학생부종합전형 환경의 변화와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현황 및 특징

대학명	개수	서류평가 평가요소
한국교원대	4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교직 적합성 및 잠재력, 교직 인성
상명대	4	학업역량, 전공적성, 성실성 및 공동체의식, 자기주도성 및 실천능력
한남대②	4	학업역량, 인성, 성장잠재력 및 발전가능성, 종합평가
전남대	4	학업수행역량, 전공준비도, 인성역량, 학업외소양
한양대	4	종합성취도, 비판적 사고역량 및 창의적 사고역량, 자기주도역량 및 소통·협업역량, 종합평가
서강대	4	성취수준, 학업태도와 의지, 인성, 성장가능성
동국대	4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전공적합성, 인성 및 사회성, 지원동기
안동대	4	전공적합성, 자기주도성, 인성, 발전가능성
건국대(글로벌)	4	지식탐구역량, 정보활용역량, 인성역량, 글로벌역량
인하대	4	지성, 적성, 인성, 종합
대구교대	4	교직 소양, 교직수행 역량, 창의적 지식활용 역량, 개인·사회적 역량
부산교대	4	공동체 리더십 역량, 다문화·글로벌 역량, 공감·정서 조절 역량, 자기관리 역량
중앙대①	5	학업역량, 탐구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
중앙대②	5	학업역량, 탐구역량, 인성, 발전가능성, 통합역량
한동대	5	학업역량, 탐구역량, 인성, 발전가능성, 동기
가톨릭관동대①	5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 종합평가
경기대	5	학업역량, 전공적성, 성실성, 공동체의식, 자기주도성
동아대	5	기초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성실성, 공동체의식, 발전가능성
국민대	5	학업능력, 전공잠재력, 자기주도성, 공동체의식 및 협동능력, 발전가능성
경상대	5	학업역량, 지원의지, 전공이해도, 인성, 발전가능성·자기주도성
아주대	5	학업역량, 목표의식, 자기주도성, 공동체의식, 성실성
부산가톨릭대	5	학업역량, 자기주도성, 학교생활충실성, 봉사정신, 발전가능성
경인교대	5	학업역량, 교직 적합성, 리더십 및 자기주도성, 나눔과 배려, 공감 및 소통능력
부산대	5	대학수학준비도, 지적탐구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및 사회성, 발전가능성
인천대	5	전공적합성, 자기주도성, 발전가능성, 창의융합성, 인성사회성
가톨릭관동대②	5	전공적합성, 잠재성, 개인품성, 사회성, 종합평가
성균관대	6	학업수월성, 학업충실성, 전공적합성, 활동다양성, 자기주도성, 발전가능성
광주교대	6	학업역량, 교직에 대한 흥미와 관심, 창의적 문제해결능력과 경험의 다양성, 공동체의식과 대인관계능력, 나눔과 배려, 책임감과 성실성
진주교대	6	학업성취도, 활동실적, 교직적합성, 자기주도성, 자기 및 타인 이해, 예비 초등교사로서의 자질

대학명	개수	서류평가 평가요소
단국대	8	학업성취도, (탐구)교과활동의 적극성, (탐구)교과활동의 우수성, 전공의지, 전공관련활동, 리더십, 문제해결능력, 성실성 및 공동체의식
대구가톨릭대	8	학업성취도, 학업태도와 의지,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전공 관련 관심과 경험, 나눔과 배려, 협업능력,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한밭대	10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도전적 문제해결력, 학업성취도, 학업의지와 학습태도, 계열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계열관련 활동과 경험, 협업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

※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대학의 평가요소 혹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할당된 요소만을 추출하였음. 동일 대학 내에서 전형에 따라 평가요소가 다른 경우 ①, ②, ③ 등의 기호로 구분하였음.

나. 평가요소별 정의 및 하위요소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 평가요소별 활용 현황은 <표 II-21>과 같다.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평가요소는 인성(40개교)과 학업역량(40개교), 전공적합성(36개교), 발전가능성(35개교)의 4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자기주도성, 학업성취도, 공동체의식, 나눔과 배려, 성실성, 인성 및 사회성, 인성역량, 적성, 전공적성, 종합평가, 탐구역량, 경험의 다양성, 성실성 및 공동체의식, 성장가능성, 잠재능력, 잠재력, 잠재역량, 학업능력, 학업태도와 의지, 협업능력 등의 평가요소가 활용되었으나, 이러한 평가요소들은 가장 많이 활용된 평가요소와 유사용어 혹은 용어의 조합이거나 하위 평가항목인 경우가 많았다.

<표 II-21>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 평가요소별 활용 현황

서류평가 평가요소	대학명	대학 수 (개교)
인성	가톨릭관동대, 가톨릭대, 강남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경상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공주대, 광운대, 군산대, 대구한의대, 대진대, 동의대, 명지대, 목포대, 부경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여대, 선문대, 순천향대, 안동대, 연세대, 영남대, 인하대, 전주대, 중앙대, 차의과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통대, 한국외대, 한남대, 한동대, 한양대(ERICA), 호서대	40

II. 학생부종합전형 환경의 변화와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현황 및 특징

서류평가 평가요소	대학명	대학 수 (개교)
학업역량	가톨릭관동대, 가톨릭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 경기대, 경북대, 경상대, 경인교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광운대, 광주교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덕성여대, 동국대(경주), 동의대, 명지대, 목포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상명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순천향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이화여대, 중앙대, 차의과대, 창원대, 충남대, 한국교원대, 한남대, 한동대	40
전공적합성	가톨릭관동대, 강남대, 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계명대, 공주대, 광운대, 군산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동국대, 동국대(경주),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대, 서울과기대, 서울여대, 신문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안동대, 연세대, 영남대, 인천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 차의과대, 창원대, 충남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남대	36
발전가능성	가톨릭관동대, 가톨릭대, 강남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계명대, 공주대, 광운대, 국민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동아대, 명지대, 목포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대, 서울과기대, 서울여대, 신문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안동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천대, 중앙대, 차의과대, 창원대, 충남대, 한국외대, 한동대	35
자기주도성	경기대, 국민대, 대구가톨릭대, 부산가톨릭대, 성균관대, 아주대, 안동대, 인천대, 제주대, 진주교대, 한국교통대, 한밭대	12
학업성취도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진주교대, 한밭대, 한양대(ERICA)	5
공동체의식	경기대, 대구대, 동아대, 아주대	4
나눔과 배려	경인교대, 광주교대, 대구가톨릭대, 한밭대	4
성실성	경기대, 동아대, 아주대, 한밭대	4
인성 및 사회성	동국대, 동국대(경주), 부산대	3
인성역량	건국대(글로벌), 전남대, 한림대	3
적성	인하대, 전주대, 한양대(ERICA)	3
전공적성	경기대, 명지대, 상명대	3
종합평가	가톨릭관동대, 한남대, 한양대	3
탐구역량	숙명여대, 중앙대, 한동대	3
경험의 다양성	대구가톨릭대, 한밭대	2
성실성 및 공동체의식	단국대, 상명대	2
성장가능성	동국대(경주), 서강대	2
잠재능력	군산대, 영남대	2
잠재력	전주대, 호서대	2
잠재역량	서울시립대, 숭실대	2
학업능력	국민대, 서울대	2
학업태도와 의지	대구가톨릭대, 서강대	2
협업능력	대구가톨릭대, 한밭대	2
(탐구)교과활동의 우수성	단국대	1
(탐구)교과활동의 적극성	단국대	1

서류평가 평가요소	대학명	대학 수 (개교)
개인·사회적 역량	대구교대	1
개인품성	가톨릭관동대	1
계열(전공)적합성	목포대	1
계열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한밭대	1
계열관련 활동과 경험	한밭대	1
계열적합성	한국외대	1
공감 및 소통능력	경인교대	1
공감·정서 조절 역량	부산교대	1
공동체 리더십 역량	부산교대	1
공동체의식 및 협동능력	국민대	1
공동체의식과 대인관계능력	광주교대	1
공동체의식과 협업능력	숙명여대	1
교과활동	조선대	1
교직 소양	대구교대	1
교직 인·적성	청주교대	1
교직 인성	한국교원대	1
교직 적합성	경인교대	1
교직 적합성 및 잠재력	한국교원대	1
교직수행 역량	대구교대	1
교직에 대한 흥미와 관심	광주교대	1
교직적합성	진주교대	1
글로벌역량	건국대(글로벌)	1
기초학습능력	대진대	1
기초학업능력	호서대	1
기초학업역량	동아대	1
다문화·글로벌 역량	부산교대	1
대학수학준비도	부산대	1
덕성역량	덕성여대	1
도전적 문제해결력	한밭대	1
동기	한동대	1
리더십	단국대	1
리더십 및 자기주도성	경인교대	1
목표의식	아주대	1
문제해결능력	단국대	1
발전가능성·자기주도성	경상대	1
발전역량	덕성여대	1
변화 리더십	청주교대	1
봉사정신	부산가톨릭대	1
비교과활동	조선대	1
비판적 사고역량 및 창의적 사고역량	한양대	1

II. 학생부종합전형 환경의 변화와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현황 및 특징

서류평가 평가요소	대학명	대학 수 (개교)
사회성	가톨릭관동대	1
사회역량	서울시립대	1
성장잠재력	대진대	1
성장잠재력 및 발전가능성	한남대	1
성장잠재역량	한림대	1
성취수준	서강대	1
예비 초등교사로서의 자질	진주교대	1
인성 및 공동체의식	창원대	1
인성·공동체 기여도	제주대	1
인성사회성	인천대	1
자기 및 타인 이해	진주교대	1
자기계발역량	고려대	1
자기관리 역량	부산교대	1
자기주도성 및 실천능력	상명대	1
자기주도역량 및 소통·협업역량	한양대	1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동국대	1
장래성	가톨릭관동대	1
적극성	충북대	1
전공 관련 관심과 경험	대구가톨릭대	1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대구가톨릭대	1
전공(계열)적합성	가톨릭대	1
전공관련활동	단국대	1
전공관심도	강릉원주대	1
전공의지	단국대	1
전공이해도	경상대	1
전공잠재력	국민대	1
전공적합성 및 발전가능성	숙명여대	1
전공준비도	전남대	1
전문성	충북대	1
정보활용역량	건국대(글로벌)	1
종합	인하대	1
종합성취도	한양대	1
지성	인하대	1
지식탐구역량	건국대(글로벌)	1
지원동기	동국대	1
지원의지	경상대	1
지적탐구역량	부산대	1
창의융합성	인천대	1
창의적 문제해결능력과 경험의 다양성	광주교대	1

서류평가 평가요소	대학명	대학 수 (개교)
창의적 지식활용 역량	대구교대	1
창의적 탐구 역량	청주교대	1
책임감과 성실성	광주교대	1
통합역량	중앙대②	1
학교생활충실성	부산가톨릭대	1
학교활동의 우수성	이화여대	1
학업 외 소양	서울대	1
학업(탐구)역량	한국외대	1
학업성취역량	한림대	1
학업수월성	성균관대	1
학업수행역량	전남대	1
학업외소양	전남대	1
학업의지와 학습태도	한밭대	1
학업충실성	성균관대	1
학업태도	서울대	1
활동다양성	성균관대	1
활동실적	진주교대	1
활동역량	승실대	1

본 연구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은 두 번의 연구를 통해 추출되었다. 2016년 건국대, 경희대, 서울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가 공동으로 진행한 「학생부종합전형 운영공통기준과 용어표준화 연구」(건국대 외, 2016)에서 학생부종합전형 공통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표 II-22>)을 최초로 도출하였으며, 2017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6개 대학(건국대, 경희대, 서울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의 공동연구인 「대입전형 표준화방안 연구」(건국대 외, 2018)를 통해 수정되었다(<표 II-23>).

<표 II-22> 학생부종합전형 공통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건국대 외, 2016)

평가요소	평가항목
학업역량	학업성취도,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지적 호기심, 탐구능력
전공적합성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진로 탐색 노력, 적성과 소질
인성	팀워크와 협력, 나눔과 배려 실천, 리더십, 도덕성과 품성, 성실성, 대인관계와 소통능력
발전가능성	자기주도성, 도전정신, 창의성, 문제해결/환경극복능력, 문화적 소양

<표 II-23> 학생부종합전형 공통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건국대 외, 2018)

평가요소	평가항목
학업역량	학업성취도,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탐구활동
전공적합성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인성	협업능력, 나눔과 배려, 소통능력, 도덕성, 성실성
발전가능성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창의적 문제해결력

두 차례의 연구를 통해 개선된 사항을 살펴보면, 『학업역량』에서 하위 평가항목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지적 호기심’을 삭제하고, ‘탐구능력’을 ‘탐구활동’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전공적합성』에서는 ‘진로 탐색 노력’과 ‘적성과 소질’을 삭제하고,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를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인성』에서는 ‘리더십’을 ‘발전가능성’의 하위 평가항목으로 이동하고, ‘팀워크와 협력’을 ‘협업능력’으로, ‘나눔과 배려 실천’을 ‘나눔과 배려’로, ‘도덕성과 품성’을 ‘도덕성’으로, ‘대인관계와 소통능력’을 ‘소통능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발전가능성』에서는 ‘도전정신’과 ‘문화적 소양’을 삭제하고, ‘경험의 다양성’을 추가하였으며, ‘창의성 & 문제해결/환경극복능력’을 ‘창의적 문제해결력’으로 통합·변경하였다.

1) 학업역량

『학업역량』은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학업성취도,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탐구능력 등을 하위 평가항목으로 평가할 수 있다(건국대 외, 2018). 대학별 학업역량 관련 평가요소의 정의 및 평가항목은 <표 II-24>, 대학별 학업역량 관련 평가요소의 하위 평가항목 정의/구성요소는 <표 II-25>와 같다.

『학업역량』은 학업성취도, 학업능력, 학업준비도, (탐구)교과활동의 우수성, 교과활동, 기초학습능력, 기초학업능력, 기초학업역량, 대학수학준비도, 성취수준, 종합성취도, 학업(탐구)역량, 학업성취역량, 학업수월성, 학업수행역량, 학업충실성 등의 용어와 유사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탐구능력/탐구역량』은 『지식탐구역량』 혹은 『지적탐구역량』으로도 지칭되며,

『학업역량』 혹은 『전공적합성』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지만, 단독으로 분리되어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만일, 탐구능력에 대한 평가 비중이 높은 전형 혹은 모집단위라면 『탐구역량』을 분리하여 독립적인 평가요소로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논리적사고력, 종합적사고력, 논리성, 논리적 표현력, 문제에 대한 비판적 사고능력, 문제인식 및 상황대처능력, 분석력, 적용력, 비판적 사고역량 및 창의적 사고역량, 사고력, 정보활용역량, 지성 등의 용어들은 학업역량이라는 용어가 줄 수 있는 교과 중심의 평가 부담을 덜기 위해 사용되는 측면이 있으며, 서류평가보다는 면접평가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표 II-24> 대학별 학업역량 관련 평가요소의 정의 및 평가항목

대학명	평가요소	정의	평가항목
가톨릭 관동대	학업역량		학업성취도, 학업의지
강원대	학업역량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	학업성취도, 학업 의지와 태도, 탐구력과 사고력
건국대 (글로벌)	지식탐구 역량		학업성취도,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탐구활동
건국대	학업역량		학업성취도,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탐구활동
경북대	학업역량	대학 입학 후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고교 교육과정 기반 학업 수행 능력	학업성취도, 교과 학습 노력 및 태도
경희대	학업역량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	학업성취도,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탐구활동
계명대	학업역량		학업 및 활동 태도와 의지, 학업성취도 및 탐구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고려대	학업역량	본 대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학업 능력	학업우수성, 고른 학업성취, 기타 요소
	자기계발 역량	스스로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	탐구역량
광운대	학업역량		학업성취도 및 학업발전성, 학업성실성
광주교대	학업역량		학업성취도, 학습태도 및 의지, 탐구활동
단국대	학업역량		학업성취도, 탐구능력
대구 가톨릭대	학업역량		학업성취도, 학업태도와 의지

II. 학생부종합전형 환경의 변화와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현황 및 특징

대학명	평가요소	정의	평가항목
대구교대	창의적 지식활용 역량		기초학습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 환경변화적응력, 지식처리·융합능력
대구대	학업역량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	기초 학업역량, 학업 성실성과 학업의지
대구 한의대	학업역량		학업성취도, 학업 태도와 의지, 탐구활동
덕성여대	학업역량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기초학습역량, 학업성취역량
동국대 (경주)	학업역량		기초학업역량, 전공학업역량
동국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기초학업역량, 학습의 주도성
동의대	학업역량		학업태도/학업성취
목포대	학업역량		전체 교과목 이수단위 및 학업성취도, 학업에 대한 학습의지, 학업관련 탐구활동
부산대	학업역량		대학수학준비도, 지적탐구역량
서강대	지(학업 역량)		학업성취도, 탐구능력, 융합능력, 비판적 사고력
서울 과기대	학업역량	대학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수학능력	학업성취도, 학업태도와 의지, 탐구활동
서울대	학업능력	주어진 여건에서 교과 및 학업관련 활동의 성취수준과 논리적 사고력, 과제수행능력 등의 역량	
	학업태도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에서 나타나는 지적 호기심과 탐구 의지, 깊이 있는 배움에 대한 열의, 학업수행 과정에서의 적극성 및 진취성, 진로탐색의지 등의 학업 소양	
서울 시립대	학업역량		고교 기초 학업 능력, 대학 전공 기초 소양
서울여대	학업역량		학업성취도, 학업태도와 의지, 탐구활동
성균관대	학업역량		학업수월성, 학업충실성
숙명여대	탐구역량		지적호기심, 자기주도성, 탐구활동, 기초학업역량
순천향대	학업역량		학업성취도,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대학명	평가요소	정의	평가항목
숭실대	학업역량		주요 과목 학업성취도, 전 과목 성적을 통한 학업 성실성
아주대	학업역량		고교 교육과정 기반의 학업수행능력, 학업행동과 지적호기심
연세대	학업역량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능력	학업성취도,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탐구활동
영남대	학업역량	고교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전공 분야에서 학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학업역량	교과학습 태도 및 노력, 기초학업역량
이화여대	학업역량		기초학업역량, 심화학업역량
전남대	학업수행 역량	학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학습 목표를 설정하여, 성취해 낼 수 있는 능력	학습태도, 자기주도적 학습경험, 지적호기심 해결방식, 전반적인 학업성취 및 추이
전주대	학업성취 능력		학업성취도
	학업수행 능력		학습태도 및 의지, 탐구 활동
조선대	교과활동		학업역량, 학업태도 및 의지, 탐구활동
중앙대	학업역량		교과 성취수준, 계열 교과 이수율과 성취
	탐구역량		탐구활동 우수성, 학업 태도와 지적 호기심
진주교대	학업역량		학업수행능력
차의과대	학업역량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	학업성취도,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탐구활동
창원대	학업역량		학업성취도, 학업의지와 탐구활동
충남대	학업역량		학업성취도,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한국 교원대	학업역량		학업성취도, 학업에 대한 태도 및 의지
한국외대	학업(탐구) 역량		학업성취도,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탐구활동
한동대	학업역량	본교에서 수학하기 위한 기초학업능력	학업성취도
	탐구역량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탐구활동 등을 통해 나타나는 학업 성장잠재력	탐구활동, 선택과목 이수 및 성취도,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II. 학생부종합전형 환경의 변화와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현황 및 특징

대학명	평가요소	정의	평가항목
한림대	학업성취 역량		학업성취도, 학업태도/학업의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전공적합성
한밭대	학업역량		학업성취도, 학업의지와 학습태도

<표 II-25> 대학별 학업역량 관련 평가요소의 하위 평가항목 정의/구성요소

대학명	평가요소	평가항목	정의/구성요소
강원대	학업역량	학업성취도	교과목의 석차등급, 원점수(평균/표준편차), 교과목 이수 현황, 노력 등을 기반으로 전반적인 성취 수준이나 학업의 발전 정도
		학업 의지와 태도	학생이 스스로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학습전략을 적용하여 학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학업관련 의지와 태도
		탐구력과 사고력	어떤 분야나 주제에 대해 의문과 관심을 가지고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건국대	학업역량	학업성취도	교과목의 석차등급 또는 원점수(평균/표준편차)를 활용해 산정한 학업능력 지표와 교과목 이수 현황, 노력 등을 기반으로 평가한 교과의 성취수준이나 학업적 발전의 정도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을 해나가는 자발적인 의지와 태도/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학습 전략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실행하는 과정
		탐구력과 사고력	어떤 대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깊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
경북대	학업역량	학업성취도	지원 계열별 주요교과의 학업성취도, 3개년 간 성적추이
		교과 학습 노력 및 태도	자기주도적 학습목표 수립과 실행과정, 학업의지 및 탐구노력

대학명	평가요소	평가항목	정의/구성요소
경희대	학업역량	학업성취도	교과목의 석차등급 또는 원점수(평균/표준편차)를 활용해 산정한 학업능력 지표와 교과목 이수 현황, 노력 등을 기반으로 평가한 교과목의 성취수준이나 학업적 발전의 정도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을 해나가는 자발적인 의지와 태도/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학습 전략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실행하는 과정
		탐구활동	어떤 대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깊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
고려대	학업역량	학업우수성	전공관련 교과를 포함한 전반적인 교과목의 성취수준
		고른 학업성취	주요교과와 비주요교과 간의 성적 편차
		기타 요소	성적 변화 추이 등 상기 외 ‘학업역량’에 부합하는 기타 요소
	자기계발 역량	탐구역량	주어진 문제에 대해 깊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
대구 가톨릭대	학업역량	학업성취도	교과목의 석차등급 또는 원점수(평균 /표준편차)를 활용해 산정한 학업능력 지표와 교과목 이수 현황 등을 기반으로 평가한 교과목의 성취수준이나 학업 발전의 정도
		학업태도와 의지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해 나가는 자발적인 의지와 태도
덕성여대	학업역량	기초학습 역량	교과목의 다면적 지표와 기록을 통한 학업역량, 학업에 기울인 노력
		학업성취 역량	진로선택과목의 선택과 학업과정 및 학습태도, 학교수업 및 교과관련 활동에 적극적인 탐구자세, 발전된 태도의 학업지향성, 학습호기심
동국대 (경주)	학업역량	기초학업 역량	기초적인 학업역량, 모든 교과목의 학업성취도 및 성취도 추이
		전공학업 역량	전공 관련 교과목의 학업성취도, 전공 관련 교과목의 이수 및 노력
동의대	학업역량	학업태도/ 학업성취	학업에 대한 흥미 및 주도적 노력, 수업시간 적극적 참여, 학업에 대한 성취정도, 학년별 성적추이
부산대	학업역량	대학수학 준비도	계열별 지정교과목의 성취 수준, 지정교과목별 학업 역량 노력의 결과
		지적탐구역량	학업 관련 탐구활동 과정 및 결과, 수업 참여도 및 학습태도의 적극성, 학업 관련 수상 결과의 우수성

II. 학생부종합전형 환경의 변화와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현황 및 특징

대학명	평가요소	평가항목	정의/구성요소
서강대	지(학업역량)	학업성취도	교과목의 석차등급 원점수(평균/표준편차)를 활용해 선정한 학업능력 지표와 교과목 이수현황
		탐구능력	어떤 대상에 대해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깊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
		융합능력	문이과 경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각과 폭넓은 수용성을 가지고 융합·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비판적 사고력	기존 틀에서 벗어나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지식의 폭을 확장한 경험과 과제를 수행한 경험
서울시립대	학업역량	고교 기초학업 능력	대학 학업 수행의 기초가 되는 고등학교 교과 학업성취도
		대학 전공 기초 소양	고교생활을 통해 진로 및 전공분야 탐구에 대하여 학습한 경험 및 교육활동 실적
성균관대	학업역량	학업수월성, 학업충실성	학업성취도, 학업의 발전 정도, 학업에 대한 관심과 열의, 탐구력과 실험정신, 지적 호기심
연세대	학업역량	학업성취도	교과목의 석차등급 또는 원점수(평균/표준편차), 성취도를 활용해 산정한 학업 능력 지표와 교과목 이수 현황, 노력 등을 기반으로 평가한 교과의 성취수준이나 학업적 발전의 정도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을 해나가는 자발적인 의지와 태도,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학습전략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실행하는 과정
		탐구활동	어떤 대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깊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
이화여대	학업역량	기초학업역량	교과목 석차등급 또는 원점수(평균/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 수, 성취 수준별 학생 비율 등을 활용하여 도출한 학업 능력 지표와 교과목 이수 현황, 노력 등을 기반으로 평가한 교과의 성취 수준이나 학업적 발전의 정도
		심화학업역량	고교 교육과정에서 지원 전공(계열)의 수학에 기초가 되는 과목 수강 및 해당 과목에 대한 학업 성취 수준
조선대	교과활동	학업역량	학업성취도, 학업발전정도
		학업태도 및 의지	학업태도, 학업의지
		탐구활동	탐구역량, 학업적호기심

대학명	평가요소	평가항목	정의/구성요소
중앙대	학업역량	교과 성취 수준, 계열 교과 이수와 성취	교과목의 석차등급 또는 원점수(평균/표준편차) 등의 학업 능력 지표, 교과목 이수 현황, 노력 등을 기반으로 한 교과 성취 수준 및 학업의 발전 정도
	탐구역량	탐구활동 우수성, 학업 태도와 지적 호기심	어떤 대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깊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실행해 나가는 과정,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을 해나가는 자발적인 의지와 태도
진주교대	학업역량	학업수행 능력	학업성취도, 활동실적
차의과대	학업역량	학업성취도	교과목의 석차등급 또는 원점수(평균/표준편차), 성취도를 활용해 산정한 학업 능력 지표와 교과목 이수 현황, 노력 등을 기반으로 평가한 교과의 성취수준이나 학업적 발전의 정도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을 해나가는 자발적인 의지와 태도,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학습 전략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실행하는 과정
		탐구활동	어떤 대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깊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
창원대	학업역량	학업성취도	계열별, 지원 전공 관련 반영 교과의 학업성취도
		학업의지와 탐구활동	학년별 학업성취 추이의 상승 변화
충남대	학업역량	학업성취도	고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전체 교과목의 학업성취 수준, 교과목 이수 현황과 학업 발전의 정도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학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발적인 의지와 태도
한국외대	학업역량	학업성취도	교과목의 석차등급 또는 원점수(평균/표준편차)를 활용해 산정한 학업능력 지표와 교과목 이수 현황, 노력 등을 기반으로 평가한 교과의 성취수준이나 학업적 발전의 정도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을 해 나가는 자발적인 의지와 태도,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학습 전략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실행하는 과정
		탐구활동	어떤 대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깊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

II. 학생부종합전형 환경의 변화와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현황 및 특징

대학명	평가요소	평가항목	정의/구성요소
한동대	학업역량	학업성취도	석차등급 또는 원점수(평균/표준편차)를 활용해 산정한 학업능력 지표로 성적변화 추이, 특정교과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학업능력
		탐구활동	학업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탐구한 노력과 성과
	탐구역량	선택과목 이수 및 성취도	진로와 관련된 교과, 심화 교과 등을 이수하면서 기울인 노력과 성과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을 해나가는 자발적인 태도와 의지
한림대	학업성취역량	학업성취도	학업능력 지표{교과목의 석차 등급 또는 원점수(평균/표준편차)}와 교과목 이수현황, 노력 등을 기반으로 평가한 교과의 성취수준이나 학업적 발전의 정도
		학업태도/학업의지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을 해나가는 자발적인 의지와 태도,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학습 전략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 및 실행하는 과정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타인의 도움 없이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요구를 진단하고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그 학습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적절한 학습전략을 선택해서 실행하고 자신이 성취한 학습결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주도권을 갖는 태도
		전공적합성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가)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는 「교과목의 석차등급 또는 원점수(평균/표준편차)를 활용해 산정한 학업 능력 지표와 교과목 이수 현황, 노력 등을 기반으로 평가한 교과의 성취 수준이나 학업적 발전의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건국대 외, 2018), ‘학업성취도’의 평가 세부내용은 <표 II-26>과 같다.

‘학업성취도’의 평가세부내용 중 희망 전공/계열과 관련된 학업성취도 평가세부내용들은 학업역량의 하위범주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전공적합성의 하위범주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만일, 전체적인 교과성적이나 학기별/학년별 성적 평가에 희망 전공/계열 관련 과목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한다면 지원 모집단위 관련 과목들은 전공적합성의 하위 평가세부내용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도전적인 과제나 과목 이수 여부는 학업성취도나 문제해결력 등의 하위 평가세부내용

으로 많이 활용되지만 도전정신과 같은 별도의 평가항목으로 분리되어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표 II-26> 학업역량 중 ‘학업성취도’ 관련 평가세부내용

연번	평가세부내용	출처
1	전체적인 교과성적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어느 정도인가?	건국대 외(2018)
2	학기별/학년별 성적은 고르게 유지되고 있는가?	건국대 외(2018)
3	학기별/학년별 성적은 상승/하락하고 있는가?	건국대 외(2018)
4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과목(예: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등) 성적은 어느 정도인가? 그 외 과목 성적은 전반적으로 무난한가? 유난히 소홀함을 보인 과목은 없는가?	건국대 외(2018)
5	희망 전공과 관련된 기본 과목은 어느 정도 이수했는가?	건국대 외(2018)
6	희망 전공과 관련하여 도전적인 과제나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건국대 외(2018)
7	희망 전공과 관련된 과목과 다른 과목의 성적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	건국대 외(2018)
8	과목별 이수자 수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건국대 외(2018)
9	과목별 등급 외에 원점수(평균/표준편차 포함)는 적절한가?	건국대 외(2018)
10	[학업성취도] 지원 전공과 관련된 과목의 성적이 다른 과목보다 우수한가?	강원대
11	[학업역량] 학기별/학년별/교과별 성적의 변화 추이는 어떠한가?	경인교대
12	[학업역량] 전 과목을 고르게 성취(학습, 이수)하였는가?	경인교대
13	[학업능력] 교과 및 학업 활동 내용에서 우수한 학업 역량이 고르게 나타나는가?	서울대
14	[학업능력] 단순 암기 수준 이상의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식을 갖추었는가?	서울대
15	[학업능력] 의미 있는 학습경험은 무엇이었는가?	서울대

나)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학업태도와 학업의지’는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을 해나가는 자발적인 의지와 태도,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학습 전략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실행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건국대 외, 2018), ‘학업태도와 학업의지’의 평가세부내용은 <표 II-27>과 같다.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용어의 정의와 관련하여 ‘~과정’으로 정의되는 것보다는 태도나 의지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조작적 정의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학업태도와 학업의지’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태도가 중요하게 다뤄지지만, 대학에 따라서는 자기주도성을 별도로 평가하는 경우도 많다.

II. 학생부종합전형 환경의 변화와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현황 및 특징

<표 II-27> 학업역량 중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관련 평가세부내용

연번	평가세부내용	출처
1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자기 주도적인 태도로 노력하고 있는가?	건국대 외(2018)
2	자발적인 성취동기와 목표의식을 가지고 넓고 깊게 학습하려는 의지와 열정이 있는가?	건국대 외(2018)
3	교과 활동을 통해 지식의 폭을 확장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건국대 외(2018)
4	교과 수업에서 적극적이고 집중력이 있으며 스스로 참여하고 이해하려는 태도와 열정을 보이는가?	건국대 외(2018)
5	[발전가능성] 구체적인 목표의식과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강릉원주대
6	[학업역량] 수업에 집중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를 보였는가?	경인교대
7	[학업성실성] 교과 관련 활동에서 책임감을 바탕으로 꾸준히 노력하여 최선을 다하는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가?	광운대
8	[학교생활충실도] 학업활동에 있어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는가?	광운대
9	[학업능력] 자신의 성취를 점검하고 더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가 고민한 경험이 있는가?	서울대
10	[학업능력] 습득한 지식을 적절히 활용한 경험이 있는가?	서울대
11	[학업능력] 노력을 통해 성장한 모습은 어떠한가?	서울대
12	[학업태도] 열심히 공부한 이유는 무엇인가?	서울대
13	[학업태도] 지식을 쌓기 위한 과정은 어떠하였는가?	서울대
14	[학업태도]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는가?	서울대
15	[학업태도] 학교생활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서울대
16	[학업태도] 스스로 알고자 하는 호기심과 도전적 태도가 나타나는가?	서울대
17	[학업태도]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였는가?	서울대

다) 탐구능력

‘탐구능력’은 「어떤 대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깊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건국대 외, 2018), ‘탐구능력’의 평가세부내용은 <표 II-28>과 같다. ‘탐구능력’은 탐구활동의 우수성으로 정의되기도 하고, 탐구능력 혹은 탐구역량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탐구능력’은 학업역량의 하위 범주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지만, 전공적합성이나 발전가능성의 하위 범주에 포함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된다.

<표 II-28> 학업역량 중 ‘탐구능력’ 관련 평가세부내용

연번	평가세부내용	출처
1	교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탐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건국대 외(2018)
2	각종 교과 탐구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결과물을 산출하고 있는가?	건국대 외(2018)
3	탐구 활동에서 표출되는 학문에 대한 열의와 지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건국대 외(2018)
4	성공적인 학업 생활을 위해 적극적인 탐구 의지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가?	건국대 외(2018)
5	[탐구력과 사고력] 흥미나 호기심을 가진 주제를 탐구하는 지적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있는가?	강원대
6	[지원 전공(계열) 지원을 위한 준비 및 의지(전공 관련 분야에 대한 지적 탐구 역량) 지원 전공(계열) 관련 교과탐구활동에서 적극적인 탐구 의지와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가?	경상대
7	[자신의 꿈을 위한 자기주도적 도전자세와 극복을 위한 노력(미래목표 및 준비활동의 우수성, 자기주도성)] 관심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탐구 의지와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가?	경상대
8	[지적호기심] 주어진 과제에 대하여 다양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였는가?	공주대
9	[전공 관련 분야에 대한 지적탐구역량] 지원 전공(계열) 관련 교과탐구활동에서 적극적인 탐구 의지와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가?	광운대
10	[학업능력] 단순 암기 수준 이상의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식을 갖추었는가?	서울대
11	[학업능력] 의미 있는 학습경험은 무엇이었는가?	서울대
12	[학업능력] 자신의 성취를 점검하고 더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가 고민한 경험이 있는가?	서울대
13	[학업능력] 습득한 지식을 적절히 활용한 경험이 있는가?	서울대
14	[학업태도] 스스로 알고자 하는 호기심과 도전적 태도가 나타나는가?	서울대

2) 전공적합성

‘전공적합성’은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노력과 준비 정도」라고 할 수 있으며,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등을 하위 평가항목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건국대 외, 2018), 대학별 전공적합성 관련 평가요소의 정의 및 평가항목은 <표 II-29>, 대학별 전공적합성 관련 평가요소의 하위 평가항목 정의/구성요소는 <표 II-30>과 같다.

전공적합성은 학업역량과 위계 구조 상 동일한 층위에 존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전공적합성이 학업역량의 하위 범주이거나 그 반대의 구조를 갖는 경우 등 다양한 개념 위계 구조가 발견되고 있다. ‘전공적합성’이라고 명시할 경우 전공 관련성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열적합성’, ‘전공(계열)적합성’, ‘계열(전공)적합성’ 등의 평가요소명을 사용하는 대학들이 있으며, 전공적합성은 적성, 전공적성, 전공관련활동, 계열(전공)적합성, 계열적합성, 전공(계열)적합성, 전공관심도, 전공이해도, 전공잠재력, 전공준비도, 전문성 등의 용어들과 유사한 의미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대학의 경우 교육 잠재력, 교직 소양, 교직 인·적성, 교직 인성 및 전문성 개발 역량, 교직 적성, 교직 적합성, 교직 적합성 및 잠재력, 교직관, 교직소양 및 인성, 교직수행 역량, 교직에 대한 흥미와 관심, 교직적합성, 예비 교사로서의 소명감, 예비 초등교사로서의 자질, 예비교사로서 기본 소양 및 관심정도 등의 용어로 별도의 전공적합성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원동기를 분리한 경우도 있는데, 지원의지, 진학 의지, 목표의식, 사명감 등의 용어와 유사한 의미로 활용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수준의 개념 속에 포함되기도 한다.

<표 II -29> 대학별 전공적합성 관련 평가요소의 정의 및 평가항목

대학명	평가요소	정의	평가항목
가톨릭 관동대	전공적합성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전공 관련 활동 경험
강남대	전공적합성		학업역량, 전공적성
강원대	전공적합성	대학 입학 후 전공을 수학할 때 필요한 기초 소양과 자질	전공관련 과목 이수/성취도, 전공관심과 이해, 진로개발활동과 경험
건국대 (글로벌)	정보활용 역량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전공에 대한 관심과 전공 관련 활동, 다양한 경험을 활용한 문제해결력
건국대	전공적합성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경기대	전공적합성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학업능력, 계열적성 및 관심과 노력	학업역량, 전공적성
경북대	전공적합성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주도적인 진로 탐색 및 개발 노력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및 성취, 전공 관련 활동 및 노력
경상대	전공적합성		학업역량, 지원의지, 전공이해도
경인교대	교직 적합성 및 잠재력		교직 적합성, 리더십 및 자기주도성
경희대	전공적합성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노력과 준비 정도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계명대	전공적합성		전공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전공 관련 활동 경험, 진로 탐색 노력
고려대	자기개발 역량	스스로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	계열 관련 역량, 탐구역량, 기타 요소
공주대	전공적합성		학업의지, 학업능력, 지적호기심, 목표의식, 전공관련활동
광운대	전공적합성		전공 관련 분야에 대한 지적탐구역량, 전공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열정
광주교대	교직적합성 및 잠재력		교직에 대한 흥미와 관심, 창의적 문제해결능력과 경험의 다양성
국민대	전공적합성		전공잠재력, 학업능력
군산대	전공적합성		학업의지, 학업능력, 전공 관심도, 진로계획, 전공 관련 활동

II. 학생부종합전형 환경의 변화와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현황 및 특징

대학명	평가요소	정의	평가항목
단국대	전공적합성		전공의지, 전공 관련 활동
대구 가톨릭대	전공적합성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전공 관련 관심과 경험
대구교대	교직소양		교직원, 사명감, 교육에 대한 이해, 교직에 대한 열정
	교직수행 역량		리더십, 매체활용능력, 학습과 발달에 대한 이해, 예체능 능력
대구대	전공적합성	지원전공(계열)과 관련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노력과 준비 정도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대구 한의대	전공적합성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학업성취도, 전공 관련 관심과 이해,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동국대 (경주)	전공적합성		전공 관련 이해도, 전공 관련 활동 경험
동국대	학교생활 충실도 (지원동기)		동기의 타당성
	학교생활 충실도 (전공 적합성)		전공수학역량, 전공관심도 및 학습경험
동아대	전공적합성 및 발전 가능성	학업역량 및 주도성	기초학업역량,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동의대	전공적합성		열정
명지대	전공적합성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학업능력과 전공에 대한 관심 및 노력	학업역량, 전공적성
목포대	계열(전공) 적합성		계열(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단위 및 성취도, 계열(전공) 관련 학습의지, 계열(전공) 관련 탐구활동
부산 가톨릭대	전공적합성		학업역량, 자기주도성
부산대	잠재적역량		전공적합성
상명대	전공적합성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학업능력과 전공에 대한 관심 및 노력	학업역량, 전공적성

대학명	평가요소	정의	평가항목
서울 과기대	전공적합성	지원 전공에 대한 이해와 노력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서울대	학업태도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에서 나타나는 지적 호기심과 탐구 의지, 깊이 있는 배움에 대한 열의, 학업수행 과정에서의 적극성 및 진취성, 진로탐색의지 등의 학업 소양	
서울여대	전공적합성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전공 관련 기초소양 및 활동
선문대	전공적합성		종합적 학업성취도,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탐구활동,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기타 전공 관련 핵심 역량
성균관대	개인역량		전공적합성
숙명여대	전공적합성 및 발전 가능성		진로 탐색 노력,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계열)역량 개발
순천향대	전공적합성		전공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전공에 대한 관심과 경험
송실대	활동역량 (전공 적합성)		활동의 전공 연계성 및 우수성, 지원 분야 연계 과목 선택 노력 및 성과
아주대	목표의식		지원학과에 대한 관심과 열정, 학업의지, 적성과 진로에 대한 탐색과 노력
안동대	전공적합성		지원동기, 학습방법과 노력도, 학업성취도
연세대	전공적합성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노력과 준비 정도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영남대	전공적합성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노력과 준비 정도	전공 관련 활동 및 노력,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및 노력
이화여대	학교활동의 우수성		지식탐구역량, 창의융합역량

II. 학생부종합전형 환경의 변화와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현황 및 특징

대학명	평가요소	정의	평가항목
전남대	전공준비도	진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관련 활동에서 전공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진로에 대한 구체성, 진로탐색 활동과 경험, 전공 분야 학업성취 및 추이
전주대	전공적합성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 다양한 진로 경험 및 활동
제주대	전공적합성		전공 관심도, 기초지식 및 학업역량, 전공 관련 활동
조선대	전공적합성		전공교과역량, 전공활동 및 의지, 전공 관심 및 이해
중앙대	전공적합성		전공(계열) 관련 활동과 이해 수준, 전공(계열)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
차의과대	전공적합성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노력과 준비 정도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창원대	전공적합성		전공잠재성, 전공활동성
충남대	전공적합성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전공에 대한 관심과 활동 경험
한국교원대	전공적합성		전공수학능력, 전공에 대한 흥미와 관심,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
한국교통대	전공적합성		전공관심도, 전공수학능력, 발전가능성
한국외대	계열적합성		계열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계열에 대한 관심과 이해, 계열 관련 활동과 경험
한밭대	계열적합성		계열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계열 관련 활동과 경험

<표 II -30> 대학별 전공적합성 관련 평가요소의 하위 평가항목 정의/구성요소

대학명	평가요소	평가항목	정의/구성요소
강남대	전공 적합성	학업역량	학업적 노력정도 및 성취 수준
		전공적성	고교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원 분야 관련 학업 및 학업 외적인 활동의 내용과 성취수준
강원대	전공 적합성	전공 관련 과목 이수 /성취도	고교 교육과정에서 지원 전공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성취 수준
		전공 관심과 이해	지원 전공의 학습내용과 전망 등에 대한 관심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와 이해 정도
		진로개발 활동과 경험	지원전공에서 학생이 진로를 개발하고 장래 포부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과 배운 점
전국대	전공 적합성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고교 교육과정에서 지원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 성취의 수준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지원 전공(계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인 태도와 알고 있는 정도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지원 전공(계열)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 과정과 배운 점
경기대	전공 적합성	학업역량	고교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학업성취도, 고교교육과정에서 발휘한 학습관련 역량, 선택과목 및 학습활동 이수내용과 이수과정
		전공적성	고교교육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원 분야 관련 학업탐색 과정, 전공(계열)관련 학업흥미와 연계되는 활동 내용과 성취 수준
경북대	전공 적합성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및 성취	전공 관련 교과의 이수 및 성적, 심화학습 노력
		전공 관련 활동 및 노력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 관련 교내활동 참여 노력
경상대	전공 적합성	학업역량	지원 전공(계열) 주요 과목의 학업역량 (학업성취도 및 학업성실성)
		지원의지	지원 전공(계열) 지원을 위한 준비 및 의지
		전공이해도	지원 전공(계열)에 대한 교육과정 기반 이해 및 관심
경희대	전공 적합성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고교 교육과정에서 지원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성취의 수준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지원 전공(계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인 태도와 알고 있는 정도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지원 전공(계열)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 과정과 배운 점

II. 학생부종합전형 환경의 변화와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현황 및 특징

대학명	평가요소	평가항목	정의/구성요소
고려대	자기계발 역량	계열 관련 역량	지원 계열에 대한 이해 및 준비도
		탐구역량	주어진 문제에 대해 깊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
		기타 요소	환경극복노력, 창의적 문제해결력 등 상기 외 ‘자기계발역량’에 부합하는 기타 요소
공주대	전공 적합성	학업의지	지원 분야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한 정도
		학업능력	지원 분야의 특성에 적합한 인재로서의 학업 역량
		지적호기심	주어진 과제에 대하여 다양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목표의식	지원 분야에 적합한 진로와 구체적인 진학 계획
		전공 관련 활동	지원 분야와 관련된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실적
대구 가톨릭대	전공 적합성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고교 교육과정에서 지원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성취의 수준
		전공 관련 관심과 경험	지원 전공(계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인 태도와 노력한 과정
동국대 (경주)	전공 적합성	전공 관련 이해도	해당 전공에 대한 고민의 흔적 및 깊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진로계획
		전공 관련 활동 경험	해당 전공에 대한 활동과 경험, 해당 전공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 과정
동의대	전공 적합성	열정	지원전공(계열) 관련 활동과 경험, 지원전공(계열) 관련 학업의지, 학교 활동의 적극적 참여
명지대	전공 적합성	학업역량	학업적 노력정도 및 성취 수준
		전공적성	고교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원 분야 관련 학업 및 학업 외적인 활동의 내용과 성취수준
부산 가톨릭대	전공 적합성	학업역량	기초 학업역량, 모집단위 관련 교과 학업역량, 학업에 대한 노력과 의지
		자기주도성	모집단위에 대한 관심과 이해, 진로탐색 노력 및 모집단위 관련 활동 경험
부산대	잠재적 역량	전공적합성	모집단위 관련 학업준비도 및 성취수준, 전공(계열)분야 활동의 우수성, 전공(계열)분야 관심과 이해 정도
상명대	전공 적합성	학업역량	학업적 노력정도 및 성취 수준
		전공적성	고교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원 분야 관련 학업 및 학업 외적인 활동의 내용과 성취수준
성균관대	개인역량	전공적합성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진로에 대한 관심과 열정, 다양한 영역에 대한 폭넓은 시각,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소양

대학명	평가요소	평가항목	정의/구성요소
연세대	전공 적합성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고교 교육과정에서 지원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성취의 수준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지원 전공(계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인 태도와 알고 있는 정도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지원 전공(계열)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 과정과 배운 점
이화여대	학교활동의 우수성	지식탐구 역량	어떤 대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깊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
		창의융합 역량	새롭고 독창적이며 논리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조선대	전공 적합성	전공교과 역량	전공교과 성취도, 전공교과 발전정도
		전공활동 및 의지	전공관련 활동경험, 전공의지
		전공 관심 및 이해	전공관심도, 학과(부) 인재상
중앙대	전공 적합성	전공(계열) 관련 활동과 이해 수준, 전공(계열)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	지원 전공(계열)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활동한 과정과 배운 점, 고교 교육과정에서 지원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성취의 수준
차의과대	전공 적합성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고교 교육과정에서 지원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 성취의 수준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지원 전공(계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인 태도와 알고 있는 정도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지원 전공(계열)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 과정과 배운 점
창원대	전공 적합성	전공잠재성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정도, 교과수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창의적인 결과물을 산출한 경험
		전공활동성	지원 전공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흥미와 관심 정도, 지원 학과와 관련된 교과목의 학습경험 정도

II. 학생부종합전형 환경의 변화와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현황 및 특징

대학명	평가요소	평가항목	정의/구성요소
충남대	전공 적합성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고교 교육과정에서 지원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 성취 수준
		전공에 대한 관심과 활동 경험	지원 전공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 활동 과정과 경험의 성과
한국외대	계열 적합성	계열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고교 교육과정에서 지원 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성취의 수준
		계열에 대한 관심과 이해	지원 계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인 태도와 알고 있는 정도
		계열 관련 활동과 경험	지원 계열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 과정과 배운 점

가)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는 「고교 교육과정에서 지원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성취의 수준」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건국대 외, 2018),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의 평가세부내용은 <표 II-31>과 같다.

용어의 정의에서 ‘과목 이수의 적절성이나 관련성’을 강조하여 ‘과목 이수 현황’과 ‘성취 수준’ 모두 균형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자발적인 과목 선택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평가세부내용에 포함시킬 때에는 매우 주의 깊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표 II-31> 전공적합성 중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관련 평가세부내용

연번	평가세부내용	출처
1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어느 정도 이수하였는가?	건국대 외(2018)
2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해 스스로 선택하여 수강한 과목은 얼마나 되는가?	건국대 외(2018)
3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교과 성적이 우수한가? (이수단위, 수강자수,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참고)	건국대 외(2018)
4	[전공관심도] 관심분야에 대한 잠재력과 기초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강릉원주대
5	[전공 관련 과목 이수/성취도] 지원 전공과 관련된 과목은 충실하게 이수하였는가?	강원대

연번	평가세부내용	출처
6	[전공 관련 과목 이수/성취도] 지원 전공과 관련된 과목의 성적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강원대
7	[전공 관련 과목 이수/성취도] 지원 전공과 관련된 주제나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강원대
8	[지원 전공(계열) 주요 과목의 학업역량(학업성취도 및 학업성실성)]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과목의 성취도는 어느 정도인가?	경상대
9	[지원 전공(계열) 지원을 위한 준비 및 의지(전공 관련 분야에 대한 지적 탐구 역량)] 관심 분야에 대한 도전적인 과제나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경상대
10	[지원 전공(계열) 주요 과목의 학업역량(학업성취도 및 학업성실성)] 교과 성적이 노력에 따라 향상된 추이가 보이는가?	경상대
11	[학업능력] 지원 분야의 특성에 적합한 인재로서의 학업 역량을 갖추었는가?	공주대
12	[전공 관련 분야에 대한 지적탐구역량] 관심 분야에 대한 도전적인 과제나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광운대
13	[학업능력] 교과 및 학업 활동 내용에서 우수한 학업 역량이 고르게 나타나는가?	서울대
14	[학업능력] 단순 암기 수준 이상의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식을 갖추었는가?	서울대
15	[학업능력] 의미 있는 학습경험은 무엇이었는가?	서울대
16	[학업능력] 자신의 성취를 점검하고 더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가 고민한 경험이 있는가?	서울대

나)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지원 전공(계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인 태도와 알고 있는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건국대 외, 2018),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평가세부내용은 <표 II-32>와 같다. 자기소개서나 추천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지원동기’와 ‘학업계획’을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하위 평가세부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표 II-32> 전공적합성 중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관련 평가세부내용

연번	평가세부내용	출처
1	지원 전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건국대 외(2018)
2	지원 전공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건국대 외(2018)
3	자신의 경험과 지원 전공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건국대 외(2018)
4	[전공관심도] 모집단위에 대한 열정과 관심, 구체적인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강릉원주대
5	[전공 관심과 이해] 지원 전공에 대해 충실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강원대

II. 학생부종합전형 환경의 변화와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현황 및 특징

연번	평가세부내용	출처
6	[전공 관심과 이해] 지원 전공을 이해하기 위한 적절한 탐색 경험이 있는가?	강원대
7	[지원 전공(계열) 주요 과목의 학업역량(학업성취도 및 학업성실성)] 교과 수업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스스로 이해하려는 노력과 태도가 보이는가?	경상대
8	[학업의지] 지원 분야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하였는가?	공주대
9	[목표의식] 지원 분야에 적합한 진로와 진학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가?	공주대
10	[창의성(미래지향성)] 구체적인 지원동기와 학업계획의 이해 : 학과(전공) 관련 기본개념 지식의 이해정도, 전공 선택의 동기 및 열의, 학업 이수 계획의 성취가능성	대구가톨릭대
11	[학업능력] 자신의 성취를 점검하고 더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가 고민한 경험이 있는가?	서울대
12	[학업능력] 습득한 지식을 적절히 활용한 경험이 있는가?	서울대
13	[학업능력] 노력을 통해 성장한 모습은 어떠한가?	서울대

다)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은 「지원 전공(계열)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 과정과 배운 점」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건국대 외, 2018),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의 평가세부내용은 <표 II-33>과 같다.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은 ‘경험의 다양성’이나 교과 활동 등에 대한 평가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차별화하여 평가요소 혹은 평가항목 간 개념적 중복성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표 II-33> 전공적합성 중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관련 평가세부내용

연번	평가세부내용	출처
1	지원 전공에 관련된 교과관련활동(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수상 등)이 있는가?	건국대 외(2018)
2	지원 전공에 관련된 창의적 체험활동(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이 있는가?	건국대 외(2018)
3	지원 전공에 관련된 독서가 있는가, 적절한 수준인가?	건국대 외(2018)
4	[진로개발활동과 경험] 지원 전공과 관련된 독서가 의미 있고 적절한가?	강원대
5	[진로개발활동과 경험] 자신의 진로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 경험이 있는가?	강원대
6	[지원 전공(계열)에 대한 교육과정 기반 이해 및 관심(전공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열정)] 관심 분야에 대한 열의와 지적 관심이 표출되는 교내활동이 있는가?	경상대
7	[전공관련활동] 지원 분야와 관련된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가?	공주대

연번	평가세부내용	출처
8	[전공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열정] 관심 분야에 대한 열의와 지적 관심이 표출되는 교내활동이 있는가?	광운대
9	[미래목표 및 준비활동의 우수성] 자신의 관심분야나 진로와 관련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광운대
10	[전공잠재력] 진로탐색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고 그 성과는?	국민대
11	[전공잠재력] 지원전공 특성에 맞는 역량이 있는가?	국민대
12	[학업능력] 교과 및 학업 활동 내용에서 우수한 학업 역량이 고르게 나타나는가?	서울대
13	[학업태도] 지식을 쌓기 위한 과정은 어떠하였는가?	서울대
14	[학업태도] 학교생활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서울대

3) 인성

『인성』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협업능력, 나눔과 배려, 소통능력, 도덕성, 성실성 등을 하위 평가항목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건국대 외, 2018). 대학별 인성 관련 평가요소의 정의 및 평가항목은 <표 II-34>, 대학별 인성 관련 평가요소의 하위 평가항목 정의/구성요소는 <표 II-35>와 같다.

『인성』의 정의와 하위 평가요소는 매우 다양하며, 서류평가와 면접평가의 평가방법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인성 영역은 개념적 범위가 대단히 넓기 때문에 인지적 역량과 대비되는 정의적 영역으로서의 속성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조작적 정의를 내리는 작업이 중요하다. 현재 대학들이 활용하고 있는 『인성』과 관련한 평가요소들을 살펴보면 개인적인 성격적 기질이나 특질보다는, 대인관계기술에 기반한 사회적 역량을 강조하여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용어도 매우 다양하게 활용되어 『인성』은 인성 및 사회성, 인성 및 의사소통능력, 인성역량, 성실성 및 공동체 의식, 개인·사회적 역량, 개인품성, 공감 및 소통능력, 공감·정서 조절 역량, 공동체 리더십 역량, 공동체 의식, 공동체성, 공동체의식 및 협동능력, 공동체의식과 대인관계 능력, 공동체의식과 협업능력, 대인역량, 덕성역량, 사회성, 사회역량, 사회적역량,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성, 인성 및 공동체의식, 인성[공동체의식], 인성·공동체 기여도, 인성사회성, 인성적 자질, 인화, 자기 및 타인 이해, 자기계발역량, 자기관리 역량 등 다양한 개념들이 포함되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글로벌 역량 혹은

II. 학생부종합전형 환경의 변화와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현황 및 특징

다양성 수용 및 공감능력과 같은 역량은 매우 중요한 인성 요소지만 현재 학교 교육 과정 운영 현황을 볼 때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일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요소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표 II-34> 대학별 인성 관련 평가요소의 정의 및 평가항목

대학명	평가요소	정의	평가항목
가톨릭 관동대	인성		성실성, 적극성, 학업태도, 공동체의식, 소통능력, 이타성
강남대	인성		성실성, 공동체의식
강원대	인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	공동체의식 및 협업능력, 성실성과 책임감, 의사소통능력
건국대 (글로벌)	인성역량		성실성, 정직성, 책임감, 긍정성
	글로벌 역량		협업능력, 자기주도성, 공동체의식, 나눔과 배려, 지역시민의식
건국대	인성		협업능력, 나눔과 배려, 소통능력, 도덕성, 성실성
경기대	인성	학교 교육을 통해 성장·발현되는 개인적 품성 및 사회성	성실성, 공동체의식
경북대	인성	바람직한 공동체 의식과 지속적인 실천 노력	바람직한 공동체 의식과 실천
경상대	인성		배려심, 성실성, 책임감, 공동체의식
경인교대	교직인성		나눔과 배려, 공감 및 소통능력
경희대	인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	협업능력, 나눔과 배려, 소통능력, 도덕성, 성실성
계명대	인성		배려와 나눔 실천, 팀워크와 리더십, 도덕성과 성실성, 대인관계와 소통능력
고려대	인성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	규칙준수, 나눔과 배려, 리더십, 기타 요소
공주대	인성		공동체의식, 소통, 나눔/배려, 성실, 리더십
광운대	인성		학교생활충실도, 공동체의식
광주교대	교직인성		공동체의식과 대인관계능력, 나눔과 배려, 책임감과 성실성
국민대	인성		공동체의식 및 협동능력
군산대	인성		공동체 의식, 배려/나눔, 성실성, 소통능력, 리더십

대학명	평가요소	정의	평가항목
단국대	인성 및 발전 가능성		리더십, 문제해결능력, 성실성 및 공동체의식
대구 가톨릭대	인성		나눔과 배려, 협업능력
대구교대	개인· 사회적 역량		자기통제, 타인배려 및 공감능력, 협업능력, 시민성 및 책임성
대구대	공동체 의식	공동체의 일원으로 필요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	협업능력, 나눔과 배려, 소통능력
대구 한의대	인성		공동체의식(협업능력), 나눔과 배려, 소통능력
덕성여대	덕성역량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	협업 및 소통능력, 성실성
동국대 (경주)	인성 및 사회성		협력소통 능력, 성실성 및 봉사
동국대	인성 및 사회성		성실성, 역할의 주도성
동아대	인성	학교생활충실도 및 핵심인성요소 (배려·나눔·협력·갈등관리)	성실성, 공동체의식
동의대	인성		나눔
명지대	인성	학교교육을 통해 성장, 발현되는 개인적 품성 및 사회성	성실성, 공동체의식
목포대	인성		나눔과 배려, 협업·소통능력, 성실성·도덕성
부산 가톨릭대	인성		학교생활충실성, 봉사정신
부산교대	공동체 리더십 역량		목표 지향성, 공동체 협업 역량
	다문화· 글로벌 역량		다문화 역량, 글로벌 역량
	공감· 정서조절 역량		공감 능력, 긍정적 정서 조절 능력
부산대	사회적 역량		인성 및 사회성
상명대	인성	학교교육을 통해 성장, 발현되는 개인적 품성 및 사회성	성실성 및 공동체의식

II. 학생부종합전형 환경의 변화와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현황 및 특징

대학명	평가요소	정의	평가항목
서강대	정(인성)		협업능력, 이타성, 소통능력, 도덕성
서울과기대	인성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능력과 태도	도덕성과 책임감, 협업·소통능력, 나눔과 배려
서울대	학업 외 소양	학교생활을 통해 드러난 개인의 품성, 리더십, 공동체 의식, 책임감,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여 가능성	
서울시립대	사회역량		공동체 및 시민윤리의식, 협동학습능력
서울여대	인성		협업능력, 나눔과 배려, 도덕성, 성실성, 소통능력
선문대	인성		협업 능력(팀워크), 나눔과 배려, 의사소통능력, 도덕성, 성실성, 학업태도와 학업의지(계획성, 실천성)
성균관대	잠재역량		자기주도성, 발전가능성
숙명여대	공동체 의식과 협업능력		공동체 의식 및 리더십, 협업능력 및 소통능력
순천향대	인성		협업능력, 성실성
송실대	잠재역량 (인성)		공동체 의식, 인성 등 종합평가, 자기소개서 작성 지침 준수 여부 평가, 학교폭력 사실 등 확인 및 개선 과정 판단
아주대	공동체 의식		배려와 나눔, 협력의 태도와 행동, 대인관계를 통한 공동체의 긍정적 기여도
안동대	인성		자기관리능력, 배려와 나눔, 협력 및 갈등관리
연세대	인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	협업능력, 나눔과 배려, 소통능력, 도덕성, 성실성
영남대	인성	바람직한 공동체 의식과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의 실천	공동체 의식
이화여대	학교활동의 우수성		공존공감역량

대학명	평가요소	정의	평가항목
전남대	인성역량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공동체의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관심, 의사소통능력을 바탕으로 한 공감능력, 리더십 발휘 경험, 봉사활동의 진정성, 나눔과 배려의 경험
전주대	인성		학교생활충실성, 사회성 및 봉사성
제주대	인성 · 공동체 기여도		인성, 공동체 기여
조선대	비교과 활동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중앙대	인성		봉사활동 경험과 질적 우수성, 협력활동 및 팀워크, 성실성 및 책임감
진주교대	인성역량		교육잠재력, 태도 및 자질
차의과대	인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	협업능력, 나눔과 배려, 소통능력, 도덕성, 성실성
창원대	인성 및 공동체 의식		인성 및 품성, 공동체 의식
충남대	인성		성실성, 협업능력, 나눔과 배려
한국 교원대	교직 인성		나눔과 배려, 공감 및 소통능력
한국외대	인성		협업능력, 나눔과 배려, 소통능력, 도덕성, 성실성
한동대	인성	개인 및 공동체 일원으로서 실현해야 할 도덕적 품성	성실과 책임감, 나눔과 배려, 리더십
한림대	인성역량		근면성실성, 타인배려성, 리더십,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능력
한밭대	인성		협업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

II. 학생부종합전형 환경의 변화와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현황 및 특징

<표 II -35> 대학별 인성 관련 평가요소의 하위 평가항목 정의/구성요소

대학명	평가요소	평가항목	정의/구성요소
강남대	인성	성실성	학교의 규칙과 원칙을 지키려는 태도, 자신의 역할에 책임감을 갖고 끈기 있게 임하는 자세
		공동체의식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동하여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자세,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
강원대	인성	공동체의식 및 협업능력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협력하며 생활할 수 있는 능력
		성실성과 책임감	자신이 담당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 책임감을 바탕으로 꾸준히 노력하고 성의를 다해 노력하는 태도와 행동
		의사소통 능력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자신의 생각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
건국대	인성	협업능력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돕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역량
		나눔과 배려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타인을 위하여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
		소통능력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정보와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역량
		도덕성	공동체의 기본윤리와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부정 또는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 태도
		성실성	책임감을 바탕으로 꾸준히 노력하여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태도와 행동
경기대	인성	성실성	학교의 규칙과 원칙을 지키려는 태도, 자신의 역할에 책임감을 갖고 끈기 있게 임하는 자세
		공동체의식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동하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자세,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
경북대	인성	바람직한 공동체 의식과 실천	모집단위에 적합한 가치관과 실천, 바람직한 의식을 통한 공동체 기여도
경희대	인성	협업능력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돕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역량
		나눔과 배려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타인을 위하여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
		소통능력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정보와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역량
		도덕성	공동체의 기본윤리와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부정 또는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 태도
		성실성	책임감을 바탕으로 꾸준히 노력하여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태도와 행동

대학명	평가요소	평가항목	정의/구성요소
고려대	인성	규칙준수	공동체 내의 규칙·규정을 준수
		나눔과 배려	봉사활동 등 나눔과 배려를 실천한 경험
		리더십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낸 경험
		기타 요소	협업 및 소통능력 등 상기 외 ‘인성’에 부합하는 기타 요소
공주대	인성	공동체의식	집단이나 팀의 구성원들과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생활을 발전시킨 정도
		소통	다양한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고, 상대방과 자신의 동기와 감정을 이해하는 성공적 상호작용
		나눔/배려	원칙과 공정함을 넘어서 곤경에 처한 사람을 우선시하는 태도와 행동의 지속성
		성실	규칙을 준수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윤리적인 태도와 행동의 지속성
		리더십	집단 내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집단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정도
대구 가톨릭대	인성	나눔과 배려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타인을 위하여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
		협업능력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돕고 함께 생활 할 수 있는 역량
덕성여대	덕성역량	협업 및 소통	화합을 이끌어가는 공동체의식, 의견 수용력과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 공감과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능력
		성실성	생활에서 관찰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 수준, 원칙과 의무를 인지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
동국대 (경주)	인성 및 사회성	협력소통 능력	갈등관리 능력과 공동체적 의식, 경청과 공감, 의사소통 능력
		성실성 및 봉사	출결상황에 나타난 성실성, 봉사활동의 참여도 및 진정성
동의대	인성	나눔	공동의 목표를 위한 협력적 태도, 봉사활동의 진정성, 학교폭력 여부
명지대	인성	성실성	학교의 규칙과 원칙을 지키려는 태도, 자신의 역할에 책임감을 갖고 끈기 있게 임하는 자세
		공동체의식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동하여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자세,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
부산 가톨릭대	인성	학교생활 충실성	전반적인 학교생활의 성실성, 다양한 교내 활동경험을 통한 학교생활의 우수성,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능력, 리더십
		봉사정신	봉사활동의 진정성 및 지속성, 타인에 대한 배려심 및 공동체의식

II. 학생부종합전형 환경의 변화와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현황 및 특징

대학명	평가요소	평가항목	정의/구성요소
부산대	사회적 역량	인성 및 사회성	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 기여도, 봉사활동 내용의 진정성과 봉사정신
상명대	인성	성실성 및 공동체의식	학교의 규칙과 원칙을 지키려는 태도, 자신의 역할에 책임감을 갖고 끈기 있게 임하는 자세,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동하여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자세,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
서강대	인성	협업능력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돕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역량
		이타성	타인을 위하여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소통능력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정보와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역량
		도덕성	공동체의 기본윤리와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부정 또는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 태도
서울 시립대	사회역량	공동체 및 시민윤리 의식	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과 공적윤리를 중시하는 태도와 행위
		협동학습 능력	타인과 협력함으로써 결여된 것을 보완하여 성과를 산출하는 팀워크
성균관대	잠재역량	자기주도성, 발전가능성	리더십, 봉사정신, 성실성, 자기극복의지, 공동체의식, 교우관계
연세대	인성	협업능력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돕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역량
		나눔과 배려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타인을 위하여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
		소통능력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정보와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역량
		도덕성	공동체의 기본윤리와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부정 또는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 태도
		성실성	책임감을 바탕으로 꾸준히 노력하여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태도와 행동
이화여대	학교활동 의 우수성	공존공감 역량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하며,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가는 역량
전주대	인성	학교생활 충실성	성실성, 책임감, 자기조절
		사회성 및 봉사성	공동체 의식, 대인관계능력, 공감능력, 진정성

대학명	평가요소	평가항목	정의/구성요소
조선대	비교과 활동	자기주도 역량	성실성,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융합 역량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경험의 다양성, 의사소통능력
		배려봉사 역량	시민의식, 나눔과 배려, 협업능력
중앙대	인성	봉사활동 경험과 실적 우수성, 협력활동 및 팀워크, 성실성 및 책임감	타인에 대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태도와 행동, 상대를 존중하고 이해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태도와 행동, 공동체의 기본윤리와 원칙을 준수하고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태도와 행동
진주교대	인성역량	교육잠재력	교직적합성, 자기주도성
		태도 및 자질	자기 및 타인 이해, 예비 초등교사로서의 자질
차의과대	인성	협업능력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돕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역량
		나눔과 배려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타인을 위하여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
		소통능력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정보와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역량
		도덕성	공동체의 기본윤리와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부정 또는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 태도
		성실성	책임감을 바탕으로 꾸준히 노력하여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태도와 행동
창원대	인성 및 공동체 의식	인성 및 품성	교과 및 비교과 활동(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에서 지원 학과와 관련하여 보여준 성과, 지원 전공에 관련된 독서 수준과 내용 이해의 적절성
		공동체 의식	무단결석, 지각, 조퇴, 결과 기록, 교과 외 활동에서 자신이 속한 구성원들에게 인정과 신뢰를 얻고 있으며,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모범을 보이는 정도
충남대	인성	성실성	책임감을 바탕으로 꾸준히 노력하여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태도와 행동
		협업능력	공동체 내에서 함께 돕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역량
		나눔과 배려	타인을 위하여 기꺼이 봉사하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

II. 학생부종합전형 환경의 변화와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현황 및 특징

대학명	평가요소	평가항목	정의/구성요소
한국외대	인성	협업능력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돕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역량
		나눔과 배려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타인을 위하여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
		소통능력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정보와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역량
		도덕성	공동체의 기본윤리와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부정 또는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 태도
		성실성	책임감을 바탕으로 꾸준히 노력하여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태도와 행동
한동대	인성	성실과 책임감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정직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태도와 행동
		나눔과 배려	타인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고 협력하는 태도와 행동
		리더십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가는 역량
한림대	인성	근면성실성	책임감을 바탕으로 꾸준히 노력하여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태도와 행동
		타인배려성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태도와 행동
		리더십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가는 역량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정보와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역량

가) 협업능력

‘협업능력’은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돕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건국대 외, 2018), ‘협업능력’의 평가세부내용은 <표 II-36>과 같다. ‘협업능력’은 ‘공동체의식’으로도 많이 활용되며, 대부분의 인성 영역 평가에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평가요소 중 하나이다. 그러나, 동료들로부터 받는 신뢰와 관련된 평가세부내용들은 ‘도덕성’이나 ‘리더십’ 과도 상당히 중복되는 등 인성 영역 내의 평가요소간 중복성이 다수 발견된다.

<표 II-36> 인성 중 ‘협업능력’ 관련 평가세부내용

연번	평가세부내용	출처
1	자발적인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과제를 완성한 경험이 자주 나타나는가?	건국대 외(2018)
2	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설득하여 협동을 이끌어낸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건국대 외(2018)
3	공동과제나 단체 활동을 즐겨하고, 구성원들로부터 좋은 동료로 인정받고 있는가?	건국대 외(2018)
4	[공동체의식 및 협업능력] 학교나 학급, 팀 등에서 공동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헌신한 경험이 빈번한가?	강원대
5	[공동체의식 및 협업능력] 구성원들의 협력을 촉진하거나 갈등을 해소하여 협동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가?	강원대
6	[공동체의식 및 협업능력] 과제 수행이나 활동 과정에서 자발적인 협력 경험이 자주 드러나는가?	강원대
7	[공동체의식 및 협업능력] 공동체의 구성원들로부터 믿음직한 리더나 동료로 인정받고 있는가?	강원대
8	[바람직한 공동체 의식과 실천] 바람직한 가치관을 함양하고 실천을 지속하여 공동체에 기여하였는가?	경북대
9	[주변에 대한 배려와 자기역할에 대한 성실한 생활태도(학교생활 충실도와 공동체의식)] 학업활동 및 교내활동에서 일관된 모습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경험이 있는가?	경상대
10	[주변에 대한 배려와 자기역할에 대한 성실한 생활태도(학교생활 충실도와 공동체의식)]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 공동의 목표를 위해 구체적으로 실행한 계획이나 경험이 있는가?	경상대
11	[문제해결력] 집단이나 팀의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구성원들을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공주대
12	[공동체의식] 집단이나 팀의 구성원들과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생활을 발전시켰는가?	공주대
13	[공동체의식]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경험이 있는가?	광운대
14	[공동체의식]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실행을 주도한 경험이 있는가?	광운대
15	[공동체의식] 자발적인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과제를 완성한 경험이 자주 나타나는가?	광운대
16	[학업 외 소양] 바른 인성을 갖추려 노력하였는가?	서울대
17	[학업 외 소양]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있는가?	서울대

나) 나눔과 배려

‘나눔과 배려’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타인을 위하여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건국대 외, 2018), ‘나눔과 배려’의 평가세부내용은 <표 II-37>과 같다. ‘나눔’과 달리 ‘배려’는 ‘소통능력’과 상당히 중복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평가세부내용의 차별화가 충분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

<표 II-37> 인성 중 ‘나눔과 배려’ 관련 평가세부내용

연번	평가세부내용	출처
1	타인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나누고자 한 구체적 경험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가?	건국대 외(2018)
2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나눔을 생활화 하고자 하는 경험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가?	건국대 외(2018)
3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건국대 외(2018)
4	학교생활에서 타인을 배려한 본보기로 언급되거나 모범이 된 사례가 있는가?	건국대 외(2018)
5	[의사소통능력]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기울이는가?	강원대
6	[의사소통능력] 모둠활동, 공동과제 수행에서 타인을 존중하고 공감적 이해 경험을 보이는가?	강원대
7	[주변에 대한 배려와 자기역할에 대한 성실한 생활태도(학교생활 충실도와 공동체 의식)] 상대방의 요구사항이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하였는가?	경상대
8	[나눔과 배려] 타인에 대한 배려를 보여준 사례가 있는가?	경인교대
9	[나눔/배려] 원칙과 공정함을 넘어서 곤경에 처한 사람을 우선시하는 태도와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였는가?	공주대
10	[공동체 의식] 상대방의 요구사항이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하였는가?	광운대
11	[학업 외 소양] 바른 인성을 갖추려 노력하였는가?	서울대
12	[학업 외 소양]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있는가?	서울대
13	[학업 외 소양]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서울대

다) 소통능력

‘소통능력’은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정보와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건국대 외, 2018), ‘소통능력’의 평가세부내용은 <표 II-38>과 같다. 면접평가에서의 의사소통능력을 구분하여 정의·활용하는 대학들이 많지만, 면접평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평가이기 때문에 면접평가의 다른 평가요소들과 의사소통능력이 분리될 수 있는 개념인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표 II-38> 인성 중 ‘소통능력’ 관련 평가세부내용

연번	평가세부내용	출처
1	공동과제 수행이나 모둠활동, 단체활동 등에서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상대방의 관심사항과 요구를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건국대 외(2018)
2	수업이나 교과 외 활동 등에서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건국대 외(2018)
3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논리적·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경험이 나타나는가?	건국대 외(2018)
4	새로운 지식이나 사고방식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건국대 외(2018)
5	[의사소통능력]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기울이는가?	강원대
6	[의사소통능력] 모둠활동, 공동과제 수행에서 타인을 존중하고 공감적 이해 경험을 보이는가?	강원대
7	[공감 및 소통능력]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적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해결 방안 등을 제시한 경험이 있는가?	경인교대
8	[문제해결력] 집단이나 팀의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구성원들을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공주대
9	[소통] 다양한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고, 상대방과 자신의 동기와 감정을 이해하여, 성공적으로 상호작용하였는가?	공주대
10	[학업 외 소양]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있는가?	서울대
11	[창의융합역량(의사소통능력)] 공동과제 수행이나 단체활동 등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는가?	조선대
12	[공감 및 소통능력]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고, 사실, 감정, 태도, 생각 등을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한국교원대
13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능력]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정보와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역량	한림대

라) 도덕성

‘도덕성’은 「공동체의 기본윤리와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부정 또는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 태도」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건국대 외, 2018), ‘도덕성’의 평가세부내용은 <표 II-39>와 같다. ‘도덕성’은 광의의 도덕성 개념이라기보다는 규칙 준수와 같은 좁은 영역의 도덕성 수준을 정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용어인 도덕성보다는 평가하고자 하는, 혹은 평가 가능한 수준의 구체적인 용어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표 II-39> 인성 중 ‘도덕성’ 관련 평가세부내용

연번	평가세부내용	출처
1	자신이 속한 집단이 정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건국대 외(2018)
2	자신이 속한 구성원들에게 인정과 신뢰를 얻고 있으며, 바람직한 행동으로 모범이 되는가?	건국대 외(2018)
3	규칙이나 규정을 어긴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가?	건국대 외(2018)
4	[자기관리능력]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정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가?	강원대
5	[자기관리능력] 자신이 속한 구성원들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받고 있는가?	강원대
6	[성실] 규칙을 준수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윤리적인 태도와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였는가?	공주대
7	[학업 외 소양] 바른 인성을 갖추려 노력하였는가?	서울대
8	[학업 외 소양]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있는가?	서울대

마) 성실성

‘성실성’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꾸준히 노력하여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태도와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건국대 외, 2018), ‘성실성’의 평가세부내용은 <표 II-40>과 같다. ‘성실성’은 매우 다양한 평가요소와 연관되어 있다. 사실상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의 대부분이 성실함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인지적 영역을 제외한 평가요소 대부분이 성실성과 분리되기는 어렵다. 일부 대학들은 출결상황이나 과목 간 성적 편차 등의 정량적 지표들을 성실성 평가의 주된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활동 여부나 어려운 상황에서의 일관된 노력 여부 등은 ‘성실성’의 평가내용이 될 수도 있으나 ‘전공적합성’ 혹은 ‘발전가능성’, ‘도전정신’ 등의 평가요소와도 상당히 깊은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평가에 활용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II-40> 인성 중 ‘성실성’ 관련 평가세부내용

연번	평가세부내용	출처
1	학업활동에 있어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는가?	건국대 외(2018)
2	자신의 관심분야나 진로와 관련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건국대 외(2018)
3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도 일관된 모습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경험이 있는가?	건국대 외(2018)
4	출결상황이나 단체활동 참여 등 학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있는가?	건국대 외(2018)
5	[성실성과 책임감] 학교생활에서 학업과 활동 과정에서 담당한 일을 꾸준히 수행하는가?	강원대
6	[성실성과 책임감] 자신의 관심사 해결이나 진로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강원대
7	[성실] 규칙을 준수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윤리적인 태도와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였는가?	공주대
8	[학업능력] 교과 및 학업 활동 내용에서 우수한 학업 역량이 고르게 나타나는가?	서울대
9	[학업태도]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는가?	서울대
10	[학업태도] 학교생활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서울대
11	[학업 외 소양] 바른 인성을 갖추려 노력하였는가?	서울대
12	[활동역량(성실성)] 학교생활 성실성(출결, 봉사)	숭실대
13	[성실성] 출결상황을 통한 기본적 성실성, 자기소개서 작성의 성실도	아주대

4) 발전가능성

『발전가능성』은 「현재의 상황이나 수준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될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창의적 문제해결력 등을 하위 평가항목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건국대 외, 2018), 대학별 발전가능성 관련 평가요소의 정의 및 평가항목은 <표 II-41>, 대학별 발전가능성 관련 평가요소의 하위 평가항목 정의/구성요소는 <표 II-42>와 같다.

『발전가능성』은 평가요소의 성격 상 기본적으로 지원자의 모든 정보를 토대로 판단하는 종합평가의 성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평가요소로 정의하는 작업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실제로 대학마다 『발전가능성』 관련 평가요소의 용어나 정의가 매우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다. 『발전가능성』은 잠재역량, 잠재능력, 잠재력, 성장가능성, 성장잠재력, 미래지향성, 발전역량, 성장잠재력 및 발전가능성, 성장잠재역량, 잠재력 및 발전가능성, 잠재적역량, 잠재성 등의 용어와 함께 활용되고 있다. 자기주도성은 하나의 평가요소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활동에서의 자기주도성과 학습에서의 자기주도성으로 분리하여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표 II-41> 대학별 발전가능성 관련 평가요소의 정의 및 평가항목

대학명	평가요소	정의	평가항목
가톨릭 관동대	발전가능성		진로탐색 노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경험의 다양성, 사명감(소명의식), 실행가능성
강남대	발전가능성		자기주도성, 도전정신
강원대	발전가능성	현재의 상황이나 수준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될 가능성	도전정신, 자기주도성, 자기관리능력
건국대	발전가능성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창의적 문제해결력
경기대	발전가능성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성장가능성 및 잠재력	자기주도성
경북대	발전가능성	미래창의인재로서의 성장 가능성	대학 입학 후 성장 가능한 잠재 역량
경상대	발전가능성· 자기주도성		자기주도성, 도전정신, 문제해결력

대학명	평가요소	정의	평가항목
경희대	발전가능성	현재의 상황이나 수준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될 가능성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창의적 문제해결력
계명대	발전가능성		도전정신 및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경험의 다양성, 문화적 소양
고려대	자기계발 역량	스스로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	환경극복노력, 창의적 문제해결력 등
공주대	발전가능성		자기주도능력, 문제해결력, 학교생활충실도, 논리적사고력, 창의적사고력
광운대	발전가능성		미래목표 및 준비활동의 우수성, 자기주도성
광주교대	교직적합성 및 잠재력		교직에 대한 흥미와 관심, 창의적 문제해결능력과 경험의 다양성
국민대	자기주도성 및 도전정신		자기주도성, 발전가능성
군산대	잠재능력		문제해결능력, 발전가능성
단국대	인성 및 발전가능성		리더십, 문제해결능력, 성실성 및 공동체의식
대구 가톨릭대	발전가능성		경험의 다양성, 자기주도성
대구대	발전가능성	현재의 상황이나 수준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될 가능성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창의적 문제해결력
대구 한의대	발전가능성		자기주도성, 리더십, 문제해결 및 환경극복
덕성여대	발전역량	꿈을 이루기 위해 현재의 상황이나 수준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될 가능성	자기주도성, 자기성장노력
동국대 (경주)	성장가능성		학업태도 및 학업의지, 지적호기심 및 탐구능력
동아대	전공적합성 및 발전 가능성	학업역량 및 주도성	기초학업역량,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명지대	발전가능성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성장 가능성 및 잠재력	자기주도성, 도전정신
목포대	발전가능성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II. 학생부종합전형 환경의 변화와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현황 및 특징

대학명	평가요소	정의	평가항목
부산가톨릭대	발전가능성		발전가능성
부산대	잠재적역량		발전가능성
상명대	발전가능성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성장가능성 및 잠재력	자기주도성 및 실천능력
서강대		의(성장가능성)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창의적 문제해결력
서울과기대	발전가능성	학문적 측면에서 성장할 수 있는 자질	창의적 문제 해결력,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서울대	학업 외 소양	학교생활을 통해 드러난 개인의 품성, 리더십, 공동체 의식, 책임감,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여 가능성	
서울시립대	잠재역량		다학제적 전공수학 열의, 통합적인 문제해결 역량
서울여대	발전가능성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창의적 문제해결력
선문대	발전가능성		자기주도성(성취지향성/적극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창의적 문제해결역량, 논리적·합리적 사고역량
성균관대	개인역량		활동다양성
	잠재역량		리더십, 봉사정신, 성실성, 자기극복의지, 공동체의식, 교우관계
숙명여대	전공적합성 및 발전가능성		진로 탐색 노력,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계열)역량 개발
순천향대	발전가능성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송실대	잠재역량 (발전가능성)		전형별 인재상에 기반한 종합평가, 진로분야 탐색 및 진학 의지, 학업 및 진로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안동대	발전가능성		활동내용, 수행과정의 적극성과 치밀성, 성취도의 경험적 가치
연세대	발전가능성	현재의 상황이나 수준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될 가능성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창의적 문제해결력

대학명	평가요소	정의	평가항목
영남대	잠재능력	교과 및 비교과의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미래 인재로 성장할 가능성	성장가능성
		자기주도적인 교내활동 참여와 진로목표를 이루기 위한 자기계발 노력	자기주도성
이화여대	발전가능성		성실성, 성장잠재력
전남대	학업외 소양	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의 발과 신장을 위하여, 학업 외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미를 부여하여, 스스로 자기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	교내활동 참여의 다양성, 교내활동 참여의 적극성, 학교생활의 자기주도성 및 성실성, 도전적인 목표설정 및 성취 경험
전주대	성장가능성		도전 정신,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제주대	자기주도성		목표지향과 도전정신, 문제해결능력, 성실성, 리더십
조선대	비교과 활동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중앙대	발전가능성		자기주도성, 리더십
	통합역량		경험의 다양성 및 깊이
차의과대	발전가능성	현재의 상황이나 수준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될 가능성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창의적 문제해결력
창원대	발전가능성		자기 주도성, 다양한 경험과 창의적 문제해결력
충남대	발전가능성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창의적 문제해결력
한국 교원대	교직 적합성 및 잠재력		교직에 대한 흥미와 관심, 교직 수행을 위한 다양한 경험, 교직 활동을 위한 리더십 및 자기주도성
한국외대	발전가능성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창의적 문제해결력
한동대	발전가능성		진로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창의적 문제해결력
한림대	성장잠재 역량		책임감, 자기관리능력, 진취성, 자기주도성
한밭대	발전가능성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도전적 문제해결력

<표 II-42> 대학별 발전가능성 관련 평가요소의 하위 평가항목 정의/구성요소

대학명	평가요소	평가항목	정의/구성요소
강남대	발전가능성	자기주도성	자신의 꿈을 위해 스스로 계획하여 추진해 나가는 태도
		도전정신	관심 분야에 대한 도전 과정 및 성취수준, 문제 상황에 직면 했을 때 해결책을 가지고 극복하고자 노력한 경험
강원대	발전가능성	도전정신	현재 수준보다 더 높은 성과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열정을 기울이는 태도와 행동
		자기주도성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여 공부나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
		자기관리능력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기조절을 바탕으로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 자신의 시간과 행동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전국대	발전가능성	자기주도성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성향
		경험의 다양성	학교교육의 다양한 영역에서 직접 겪거나 활동하면서 얻은 성장 과정 및 결과
		리더십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가는 역량
		창의적 문제해결력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경기대	발전가능성	자기주도성	자신의 진로와 관련 계획하여 추진해나가는 태도 (목표 지향적이며 실천의지가 반영된 계획), 배움과 책임의 자세에서의 주체적, 능동적 태도
경북대	발전가능성	대학 입학 후 성장가능한 잠재 역량	미래창의인재로 성장 가능한 잠재역량 (도전정신, 적극성 등)
경희대	발전가능성	자기주도성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성향
		경험의 다양성	학교교육의 다양한 영역에서 직접 겪거나 활동하면서 얻은 성장 과정 및 결과
		리더십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가는 역량
		창의적 문제해결력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대구가톨릭대	발전가능성	경험의 다양성	학교교육의 다양한 영역에서 직접 겪거나 활동하면서 얻은 성장 과정 및 결과
		자기주도성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성향

대학명	평가요소	평가항목	정의/구성요소
공주대	발전 가능성	자기주도 능력	집단이나 팀의 구성원들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성취한 경험
		문제해결력	집단이나 팀의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구성원들을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
		학교생활 충실도	학교의 교육 과정과 학교 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과 사고를 체계화한 과정
		논리적 사고력	사건과 사물의 의미나 관계를 해석하거나 추론해서 말이나 글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창의적 사고력	기존의 정보나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발견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
덕성여대	발전역량	자기주도성	문제의식을 통한 관심사, 활동과 탐구를 통한 문제해결 의식, 합리적인 목표설정에 따른 계획 및 실천력
		자기성장 노력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자기 발전을 위한 도전정신, 결과에 상관없이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태도, 경험을 통한 성찰 및 성장의지
동국대 (경주)	성장 가능성	학업태도 및 학업의지	자기주도적 학업태도, 교과 수업에서의 적극성 및 열정
		지적호기심 및 탐구능력	관심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계 활동, 고교 생활 내에서 다양한 경험을 위해 노력한 과정
명지대	발전 가능성	자기주도성	자신의 꿈을 위해 스스로 계획하여 추진해 나가는 태도
		도전정신	관심 분야에 대한 도전 과정 및 성취 수준, 문제 상황에 직면 했을 때 해결책을 가지고 극복하고자 노력한 경험
부산 가톨릭대	발전 가능성	발전가능성	경험의 다양성, 창의성, 문화적 소양, 도전정신 및 문제해결능력
부산대	잠재적 역량	발전가능성	적극적 행동 변화와 성장 가능성, 학교생활 전반적 충실도 및 성실성
상명대	발전 가능성	자기주도성 및 실천능력	자신의 꿈을 위해 스스로 계획하여 추진해 나가는 태도, 관심 분야에 대한 도전 과정 및 성취수준,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해결책을 가지고 극복하고자 노력한 경험
서강대	의(성장 가능성)	자기주도성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성향
		경험의 다양성	학교교육의 다양한 영역에서 직접 겪거나 활동하면서 얻은 성장 과정 및 결과
		리더십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가는 역량
		창의적 문제해결력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II. 학생부종합전형 환경의 변화와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현황 및 특징

대학명	평가요소	평가항목	정의/구성요소
서울 시립대	잠재역량	다학제적 전공수학 열의	지원동기·학업계획과 관련된 교과 및 비교과 활동내용 간의 연계성 및 심화학습 수준
		통합적인 문제해결 능력	전공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를 탐구하고 대안을 제시한 경험 및 활동실적
성균관대	개인역량	활동다양성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진로에 대한 관심과 열정, 다양한 영역에 대한 폭넓은 시각,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소양
	잠재역량	자기주도성, 발전가능성	리더십, 봉사정신, 성실성, 자기극복의지, 공동체의식, 교우관계
연세대	발전 가능성	자기주도성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성향
		경험의 다양성	학교교육의 다양한 영역에서 직접 겪거나 활동하면서 얻은 성장 과정 및 결과
		리더십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가는 역량
		창의적 문제해결력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화여대	발전 가능성	성실성	책임감을 바탕으로 꾸준히 노력하여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태도와 행동
		성장잠재력	현재까지의 행동 성향과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향후 더 큰 폭의 성장과 발전이 기대되는 상태
조선대	비교과 활동	자기주도 역량	성실성,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융합 역량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경험의 다양성, 의사소통능력
		배려봉사 역량	시민의식, 나눔과 배려, 협업능력
중앙대	발전 가능성	자기주도성, 리더십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실행하는 역량,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가는 역량,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통합역량	경험의 다양성 및 깊이	학교 교육의 다양한 영역에서 직접 겪거나 활동하면서 얻은 성장 과정 및 결과, 교내 예술, 문화, 체육 활동 등을 통해 쌓은 기본 소양

대학명	평가요소	평가항목	정의/구성요소
차의과대	발전 가능성	자기주도성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성향
		경험의 다양성	학교교육의 다양한 영역에서 직접 겪거나 활동하면서 얻은 성장 과정 및 결과
		리더십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가는 역량
		창의적 문제해결력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창원대	발전 가능성	자기 주도성	공동과제 수행, 모둠 활동, 단체활동에서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발적인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과제를 완성한 경험, 봉사활동을 통하여 나눔을 생활화하는 노력
		다양한 경험과 창의적 문제해결력	학생회, 동아리 등 학생주도 활동에서 리더 역할을 수행한 경험, 자신의 관심 분야와 진로 관련하여 새로운 과제를 주도적으로 만들고 성과를 낸 정도
충남대	발전 가능성	자기주도성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주도적으로 실행하는 태도
		경험의 다양성	학교 교육의 다양한 영역에서 직접 경험하고 활동하면서 얻은 성장 과정 및 결과
		창의적 문제해결력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한국외대	발전 가능성	자기주도성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성향
		경험의 다양성	학교교육의 다양한 영역에서 직접 겪거나 활동하면서 얻은 성장 과정과 결과
		리더십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가는 역량
		창의적 문제해결력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한동대	발전 가능성	진로주도성	진로에 대한 관심과 이해, 노력과 준비 정도
		경험의 다양성	학교교육 내의 다양한 영역에서 직접 겪거나 활동하면서 얻은 성장 과정 및 결과
		창의적 문제해결력	창의적이고 논리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II. 학생부종합전형 환경의 변화와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현황 및 특징

대학명	평가요소	평가항목	정의/구성요소
한림대	성장잠재역량	책임감	맡아서 해야 할 의무나 임무, 자신이 행사하는 모든 행동의 결과를 부담하고자 하며 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이를 행한 경험
		자기관리 능력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진취성	적극적으로 나아가 일을 이룩하고자 하는 태도, 변화를 포착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나아가려는 의지 및 시도 경험
		자기주도성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성향

가) 자기주도성

‘자기주도성’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하는 성향」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건국대 외, 2018), ‘자기주도성’의 평가세부내용은 <표 II-43>과 같다. 대학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발전가능성’의 ‘자기주도성’은 학업역량의 하위 평가요소로서의 자기주도성이 아닌 「비교과활동에서의 자기주도성」으로 규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스스로’, ‘자발적’, ‘주도적’ 등의 용어들로 규정되는 행동 지표들을 학업과 활동의 측면에서 명확히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자기주도성’의 조작적 정의 및 차별화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II-43> 발전가능성 중 ‘자기주도성’ 관련 평가세부내용

연번	평가세부내용	출처
1	교내 다양한 활동에서 주도적, 적극적으로 활동을 수행하는가?	건국대 외(2018)
2	새로운 과제를 주도적으로 만들고 성과를 내었는가?	건국대 외(2018)
3	기존에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의견을 확장하려고 노력하였는가?	건국대 외(2018)
4	[발전가능성] 학교교육과정과 학교활동에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성취한 경험이 있는가?	강릉원주대
5	[자기주도성] 학습이나 활동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수행하는가?	강원대

연번	평가세부내용	출처
6	[자기주도성] 어떤 과제를 스스로 주도적으로 계획, 실행, 점검하여 성과를 산출하였는가?	강원대
7	[자기주도성]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우수한 성과를 산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는가?	강원대
8	[자기주도성]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실행을 주도한 경험이 있는가?	강원대
9	[자신의 꿈을 위한 자기주도적 도전자세와 극복을 위한 노력(미래목표 및 준비활동의 우수성, 자기주도성)] 관심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탐구 의지와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가?	경상대
10	[자신의 꿈을 위한 자기주도적 도전자세와 극복을 위한 노력(미래목표 및 준비활동의 우수성, 자기주도성)] 자발적인 성취동기와 목표의식을 가지고 넓고 깊게 학습하려는 의지와 열정이 있는가?	경상대
11	[자신의 꿈을 위한 자기주도적 도전자세와 극복을 위한 노력(미래목표 및 준비활동의 우수성, 자기주도성)] 자신의 목표를 위해 도전한 경험에서 성취한 적이 있는가?	경상대
12	[자신의 꿈을 위한 자기주도적 도전자세와 극복을 위한 노력(미래목표 및 준비활동의 우수성, 자기주도성)] 관심 분야가 변경된 경우 이에 따른 교과 혹은 비교과 활동에 변화가 있는가?	경상대
13	[리더십 및 자기주도성] 다양한 활동에서 협력하며, 책임감있게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경인교대
14	[리더십 및 자기주도성] 공동체 활동에 주도적·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경험이 있는가?	경인교대
15	[자기주도능력] 집단이나 팀의 구성원들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성취한 경험이 있는가?	공주대
16	[미래목표 및 준비활동의 우수성] 교내 활동을 통해 지식의 폭을 확장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광운대
17	[자기주도성] 자발적인 성취동기와 목표의식을 가지고 넓고 깊게 학습하려는 의지와 열정이 있는가?	광운대
18	[자기주도성] 자신의 목표를 위해 도전한 경험을 통해 성취한 적이 있는가?	광운대
19	[공동체의식]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실행을 주도한 경험이 있는가?	광운대
20	[학업태도] 학교생활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서울대
21	[학업태도]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였는가?	서울대
22	[학업 외 소양] 폭넓은 시야를 갖추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	서울대
23	[학업 외 소양] 학교생활에서 겪은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가?	서울대
24	[활동역량(자기주도성)] 고교생활 전반의 목표설정 과정 및 노력,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의지 및 성과	승실대
25	[자기주도성] 고교 활동경험의 주도적 역할과 성취, 활동의 노력과 문제해결능력	이주대
26	[자기주도성] 목표수립 및 계획능력, 진로탐색 노력과 활동, 진로계획의 타당성	안동대

나) 경험의 다양성

‘경험의 다양성’은 「학교교육의 다양한 영역에서 직접 겪거나 활동하면서 얻은 성장 과정 및 결과」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건국대 외, 2018), ‘경험의 다양성’의 평가 세부내용은 <표 II-44>와 같다. ‘경험의 다양성’은 활동다양성, 활동실적, 활동역량, 학교생활충실성, 학교활동의 우수성, 비교과활동, 학업 외 소양 등의 용어로도 사용된다. 대부분의 교내 활동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등의 평가 요소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을 수 있으며, 이러한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차별화를 할 필요가 있다.

<표 II-44> 발전가능성 중 ‘경험의 다양성’ 관련 평가세부내용

연번	평가세부내용	출처
1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등 체험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았는가?	건국대 외(2018)
2	독서활동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지식과 문화적 소양을 쌓았는가?	건국대 외(2018)
3	예체능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참여하였는가?	건국대 외(2018)
4	자신의 목표를 위해 도전한 경험을 통해 성취한 적이 있는가?	건국대 외(2018)
5	[학교생활충실도] 학교의 교육 과정과 학교 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과 사고를 체계화하였는가?	공주대
6	[학교생활충실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도 일관된 모습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경험이 있는가?	광운대
7	[학교생활충실도] 교내활동에 있어서 일관된 모습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경험이 있는가?	광운대
8	[경험의 다양성] 교내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았는가?	서울과기대
9	[학업태도] 학교생활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서울대
10	[학업 외 소양] 폭넓은 시야를 갖추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	서울대
11	[학업 외 소양] 학교생활에서 겪은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가?	서울대

다) 리더십

‘리더십’은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가는 역량」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건국대 외, 2018), ‘리더십’의 평가세부내용은 <표 II-45>와 같다. ‘리더십’은 매우 광범위한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 개념이 아닌 동일한 층위에서 하나의 평가요소로 독립적인 정의를 내리고 차별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이러한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을 매우 구체적인 활동 사실에 대한 제한적 의미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표 II-45> 발전가능성 중 ‘리더십’ 관련 평가세부내용

연번	평가세부내용	출처
1	학생회, 동아리 등 학생 주도 활동에서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건국대 외(2018)
2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경험이 있는가?	건국대 외(2018)
3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을 주도한 경험이 있는가?	건국대 외(2018)
4	[리더십 및 자기주도성] 다양한 활동에서 협력하며, 책임감있게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경인교대
5	[리더십 및 자기주도성] 공동체 활동에 주도적 ·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경험이 있는가?	경인교대
6	[리더십] 집단 내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집단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인 동기를 부여하였는가?	공주대
7	[학업 외 소양] 바른 인성을 갖추려 노력하였는가?	서울대
8	[학업 외 소양] 학교생활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 있는가?	서울대

라) 창의적 문제해결력

‘창의적 문제해결력’은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건국대 외, 2018), ‘창의적 문제해결력’의 평가세부내용은 <표 II-46>과 같다. ‘창의적 문제해결력’보다는 ‘문제해결능력’으로 더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일부 대학들은 ‘창의성’을 독립적인 평가요소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창의성’과 관련된 평가세부내용들은 발전가능성의 ‘창의적 문제해결력’이나 학업역량의 ‘탐구능력’ 등에서 중복하여 활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개념적 차별화가 필요하다. 문제해결능력의 경우 도전정신이나 창의성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으며, 도전적 문제해결력, 창의적 문제해결력, 창의융합성, 창의융합역량, 창의적 문제해결능력과 경험의 다양성, 창의적 지식활용 역량, 창의적 탐구 역량, 창조 등의 용어들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6> 발전가능성 중 ‘창의적 문제해결력’ 관련 평가세부내용

연번	평가세부내용	출처
1	교내 활동 과정에서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일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가?	건국대 외(2018)
2	교내 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는가?	건국대 외(2018)
3	주어진 교육환경을 극복하거나 충분히 활용한 경험이 있는가?	건국대 외(2018)
4	[도전정신] 문제 상황에 직면 했을 때 해결책을 가지고 극복하고자 노력한 경험	강남대
5	[도전정신] 학업이나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강원대
6	[자기주도적인 교내활동 참여와 진로목표를 이루기 위한 자기개발 노력(면접)] 주어진 문제 해결에 필요한 탐구 및 분석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경상대
7	[공감 및 소통능력]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적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해결 방안 등을 제시한 경험이 있는가?	경인교대
8	[지적호기심] 주어진 과제에 대하여 다양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였는가?	공주대
9	[문제해결력] 집단이나 팀의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구성원들을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공주대
10	[창의적사고력] 기존의 정보나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발견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산출하였는가?	공주대
11	[리더십] 집단 내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집단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인 동기를 부여하였는가?	공주대
12	[학업능력] 습득한 지식을 적절히 활용한 경험이 있는가?	서울대
13	[학업 외 소양] 학교생활에서 겪은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가?	서울대

마) 도전정신

‘도전정신’은 「현재보다 더 좋은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마음가짐」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도전정신’의 평가세부내용은 <표 II-47>과 같다. ‘도전정신’은 별도의 평가요소로 분리하는 경우보다는 탐구능력,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등의 평가요소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와 달리 경우에 따라 도전정신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특정 전형에서는 독립적인 평가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

<표 II-47> 발전가능성 중 ‘도전정신’ 관련 평가세부내용

연번	평가세부내용	출처
1	[도전정신] 관심 분야에 대한 도전 과정 및 성취수준	강남대
2	[도전정신] 문제 상황에 직면 했을 때 해결책을 가지고 극복하고자 노력한 경험	강남대
3	[도전정신] 학업이나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강원대
4	[도전정신] 현재보다 더 좋은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노력하는가?	강원대
5	[도전정신] 어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능력을 발휘하거나 몰입한 경험이 있는가?	강원대
6	[도전정신]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도전하여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는가?	강원대
7	[도전정신] 자신의 목표를 위해 도전한 경험에서 성취한 적이 있는가?	경상대
8	[경험의 다양성] 자신의 목표를 위해 도전한 경험을 통해 성취한 적이 있는가?	경희대
9	[발전가능성] 도전정신 및 창의성	계명대
10	[학교생활충실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도 일관된 모습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경험이 있는가?	광운대
11	[자기주도성] 자신의 목표를 위해 도전한 경험을 통해 성취한 적이 있는가?	광운대
12	[교직에 대한 흥미와 관심]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한 경험 및 성취 내용	광주교대
13	[발전역량(자기성장노력)]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자기 발전을 위한 도전정신	덕성여대
14	[자기주도성 및 도전정신(발전가능성)] 다양한 여건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발전하는 모습이 보이는가?	국민대
15	[도전정신] 관심 분야에 대한 도전 과정 및 성취 수준, 문제 상황에 직면 했을 때 해결책을 가지고 극복하고자 노력한 경험	명지대
16	[발전가능성] 도전정신 및 문제해결능력	부산가톨릭대
17	[경험의 다양성] 자신의 목표를 위해 도전한 경험을 통해 성취한 경험이 있는가?	서울과기대
18	[학업 외 소양] 학교생활에서 겪은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가?	서울대
19	[경험의 다양성] 자신의 목표를 위해 도전한 경험을 통해 성취한 적이 있는가?	연세대
20	[창의적 도전정신]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과제나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고 해결하고자 한 노력	인천대
21	[진로에 대한 관심] 도전 정신	인하대
22	[학업외 소양] 도전적인 목표 설정 및 성취 경험	전남대
23	[잠재력(성장가능성)] 시행착오를 통한 도전정신	전주대
24	[자기주도성] 목표지향과 도전정신	제주대

II. 학생부종합전형 환경의 변화와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현황 및 특징

연번	평가세부내용	출처
25	[자기주도성(문제해결능력)] 역경을 극복한 경험이 있으며 그를 통해 극복 의지가 드러나는가?	제주대
26	[성장잠재력 및 발전가능성] 열정과 도전정신	한남대
27	[발전가능성] 도전적 문제해결력	한밭대
28	[잠재력] 도전정신	호서대

바) 자기관리능력

‘자기관리능력’은 「스스로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수행 계획을 세워, 효율적으로 시간과 학습 및 활동량을 관리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통제·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자기관리능력’의 평가세부내용은 <표 II-48>과 같다. ‘자기관리능력’의 경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학업 및 교내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평가요소로 분리하여 평가하기는 쉽지 않으나, 평가요소로서의 독립성과 관계없이 특정 평가요소의 평가세부내용으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메타인지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표 II-48> 발전가능성 중 ‘자기관리능력’ 관련 평가세부내용

연번	평가세부내용	출처
1	[자기관리능력] 장기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실천해나간 경험이 있는가?	강원대
2	[자기관리능력] 학교생활에서 효율적인 시간 관리나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천하고 있는가?	강원대
3	[자기관리능력] 자신이 속한 구성원들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받고 있는가?	강원대
4	[자기관리능력]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정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가?	강원대
6	[자기관리 역량] 인지 관리 능력, 동기 관리 능력, 행동 관리 능력	부산교대
7	[자기주도성 및 실천능력] 자기관리 능력	상명대
8	[학업능력] 자신의 성취를 점검하고 더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가 고민한 경험이 있는가?	서울대
9	[학업태도] 지식을 쌓기 위한 과정은 어떠하였는가?	서울대
10	[학업태도]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는가?	서울대
11	[학업태도]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였는가?	서울대
12	[자기관리능력] 자신의 행동을 관리하고 주어진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였는가?	안동대
13	[자기주도역량(자기관리)] 자신의 목표를 위해 주도적, 적극적으로 활동을 수행하는가?	조선대
14	[자기주도 역량] 자발적인 [동기-계획-노력-성취-피드백]의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습하여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가는 자기관리역량	한양대

다. 요약 및 시사점

가) 요약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된 75개교를 대상으로 대학별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용어 활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각 대학들은 평가요소, 평가항목,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준거, 평가기준, 평가내용 등의 용어들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용어 간 상하 위계 관계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 평가요소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서류평가의 경우 배점을 부여한 평가요소 수가 4개인 대학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개, 5개의 평가요소를 활용하는 순서로 나타났다.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의 4가지 평가요소 구조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분포 비율이 높지는 않았으며, 대학별로 매우 다양한 평가요소의 조합을 활용하고 있었다.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 평가요소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평가요소는 『인성』과 『학업역량』이었으며,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자기주도성, 학업성취도, 공동체의식, 나눔과 배려, 성실성, 인성 및 사회성, 인성역량, 적성, 전공적성, 종합평가, 탐구역량, 경험의 다양성, 성실성 및 공동체의식, 성장가능성, 잠재능력, 잠재력, 잠재역량, 학업능력, 학업태도와 의지, 협업능력 등의 평가요소가 활용되었으나, 이러한 평가요소들은 가장 많이 활용된 평가요소와 유사용어 혹은 용어의 조합이거나 하위 평가항목인 경우가 많았다.

『학업역량』은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학업성취도, 학업능력, 학업준비도, (탐구)교과활동의 우수성, 교과활동, 기초학습능력, 기초학업능력, 기초학업역량, 대학수학준비도, 성취수준, 종합성취도, 학업(탐구)역량, 학업성취역량, 학업수월성, 학업수행역량, 학업충실성 등의 용어와 유사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탐구능력/탐구역량’은 ‘지식탐구역량’ 혹은 ‘지적탐구역량’으로도 지칭되며, ‘학업역량’ 혹은 ‘전공적합성’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지만, 단독으로 분리되어 활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학업성취도’는 「교과목의 석차등급 또는 원점수(평균/표준편차)를 활용해 산정한 학업 능력 지표와 교과목 이수 현황, 노력 등을 기반으로 평가한 교과목의 성취 수준이나 학업적 발전의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학업성취도’의 평가세부내용 중 희망전공/계열과 관련된 학업성취도 평가세부내용들은 『학업역량』과 『전공적합성』에서

중복되어 평가되는 경우들이 많았다.

‘학업태도와 학업의지’는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을 해나가는 자발적인 의지와 태도,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학습 전략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실행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대학에 따라서는 자기주도성을 별도로 평가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탐구능력’은 「어떤 대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깊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탐구능력’은 탐구활동의 우수성으로 정의되기도 하고, 탐구능력 혹은 탐구역량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탐구능력’은 학업역량의 하위 범주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지만, 전공적합성이나 발전가능성의 하위 범주에 포함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된다.

『전공적합성』은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노력과 준비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학업역량과 위계 구조 상 동일한 층위에 존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전공적합성이 학업역량의 하위 범주이거나 그 반대의 구조를 갖는 경우들도 있었다. 용어의 측면에서 『전공적합성』은 적성, 전공적성, 전공관련활동, 계열(전공)적합성, 계열적합성, 전공(계열)적합성, 전공관심도, 전공이해도, 전공잠재력, 전공준비도, 전문성 등의 용어들과 유사한 의미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는 「고교 교육과정에서 지원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성취의 수준」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고교학점제 등의 변화된 교육 환경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커질 수 있다.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지원 전공(계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인 태도와 알고 있는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자기소개서나 추천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지원동기’와 ‘학업계획’을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은 「지원 전공(계열)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 과정과 배운 점」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은 ‘경험의 다양성’이나 교과 활동 등에 대한 평가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인성』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정의와 하위 평가요소가 매우 다양하고, 서류평가와 면접평가의 평가방법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인성 영역은 개념적 범위가 대단히 넓지만, 현재 대학들이 활용하고 있는 『인성』과 관련한 평가요소들을 살펴보면 개인적인 성격적 기질이나 특질보다는, 대인관계기술에 기반한 사회적 역량을 강조하여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용어의 측면에서 『인성』은 인성 및 사회성, 인성 및 의사소통능력, 인성역량, 성실성 및 공동체의식, 개인·사회적 역량, 개인품성, 공감 및 소통능력, 공감·정서 조절 역량,

공동체 리더십 역량, 공동체 의식, 공동체성, 공동체의식 및 협동능력, 공동체의식과 대인 관계능력, 공동체의식과 협업능력, 대인역량, 덕성역량, 사회성, 사회역량, 사회적역량,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성, 인성 및 공동체의식, 인성[공동체의식], 인성·공동체 기여도, 인성사회성, 인성적 자질, 인화, 자기 및 타인 이해, 자기계발역량, 자기관리 역량 등의 다양한 용어와 혼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업능력’은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돕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공동체의식’으로도 많이 활용된다. 대부분의 인성 영역 평가에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평가요소 중 하나이지만, 동료들로부터 받는 신뢰와 관련된 평가세부내용들은 ‘도덕성’이나 ‘리더십’과도 상당히 중복되는 등 인성 영역 내의 평가요소간 중복성이 다수 발견된다.

‘나눔과 배려’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타인을 위하여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나눔’과 달리 ‘배려’는 ‘소통능력’과 상당히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통능력’은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정보와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면접평가에서의 의사소통능력을 구분하여 정의·활용하는 대학들이 많았다.

‘도덕성’은 「공동체의 기본윤리와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부정 또는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 태도」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도덕성’은 광의의 도덕성 개념이라기보다는 규칙 준수와 같은 좁은 영역의 도덕성 수준을 정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성실성’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꾸준히 노력하여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태도와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사실상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의 대부분이 성실함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인지적 영역을 제외한 평가요소 대부분이 성실성과 명확히 분리되기는 어렵다. 관심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활동 여부나 어려운 상황에서의 일관된 노력 여부 등은 ‘성실성’의 평가내용이 될 수도 있으나 ‘전공적합성’ 혹은 ‘발전가능성’, ‘도전정신’ 등의 평가요소와도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다.

『발전가능성』은 「현재의 상황이나 수준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될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평가요소의 성격 상 기본적으로 지원자의 모든 정보를 토대로 판단하는 종합평가의 성격을 갖는다. 이 때문에 대학마다 『발전가능성』 관련 평가요소의 용어나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용어의 측면에서 『발전가능성』은 잠재역량, 잠재능력, 잠재력, 성장가능성, 성장잠재력, 미래지향성, 발전역량, 성장잠재력 및 발전가능성, 성장잠재역량, 잠재력 및 발전가능성, 잠재적역량, 잠재성 등의 용어와 함께

활용되고 있다.

‘자기주도성’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하는 성향」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대학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발전가능성’의 ‘자기주도성’은 학업역량의 하위 평가요소로서의 자기주도성이 아닌 「비교과활동에서의 자기주도성」으로 규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경험의 다양성’은 「학교교육의 다양한 영역에서 직접 겪거나 활동하면서 얻은 성장 과정 및 결과」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활동다양성, 활동실적, 활동역량, 학교생활 충실성, 학교활동의 우수성, 비교과활동, 학업 외 소양 등의 용어로도 사용된다. 대부분의 교내 활동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등의 평가요소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을 수 있다.

‘리더십’은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가는 역량」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리더십’은 매우 광범위한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 개념이 아닌 동일한 층위에서 하나의 평가요소로 독립적인 정의를 내리고 차별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창의적 문제해결력’은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창의적 문제해결력’보다는 ‘문제해결능력’으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일부 대학들은 ‘창의성’을 독립적인 평가요소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창의성’과 관련된 평가세부내용들은 발전가능성의 ‘창의적 문제해결력’이나 학업역량의 ‘탐구능력’ 등에서 중복하여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 용어의 측면에서 ‘문제해결능력’은 도전정신이나 창의성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으며, 도전적 문제해결력, 창의적 문제해결력, 창의융합성, 창의융합역량, 창의적 문제해결능력과 경험의 다양성, 창의적 지식활용 역량, 창의적 탐구 역량, 창조 등의 용어들이 혼용되어 사용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전정신’은 「현재보다 더 좋은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마음가짐」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도전정신’은 별도의 평가요소로 분리하는 경우보다는 탐구능력,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등의 평가요소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자기관리능력’은 「스스로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수행 계획을 세워, 효율적으로 시간과 학습 및 활동량을 관리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통제·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자기관리능력’의 경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학업 및 교내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평가요소로 분리하여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나) 시사점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을 변경하는 데에는 ①교육적 의미, ②평가 가능성, ③평가요소 혹은 평가항목 간 독립성, ④고교 교육과정 변화, ⑤평가 자료의 변화, ⑥대입정책의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 「교육적 의미」란 고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충실히 담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의 역량을 포함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의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선언적 기능까지 포함한다. 「평가 가능성」이란 평가의 타당성에도 직결되는 개념으로 지원자가 제출한 제출 서류로부터 실질적인 평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며, 변별력의 범위가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평가요소 혹은 평가항목 간 독립성」은 평가의 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평가요소 혹은 평가항목 간의 개념적 중복성을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는 가장 중요한 평가 구조에 속하며,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 등의 평가요소 간 개념적 중복성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고교 교육과정 변화」는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으며, 고교학점제나 교과 대신 성적 절대평가(성취평가제)의 확대는 대입 평가요소 및 전형 방식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평가자료의 변화」는 대입에 활용되는 평가 자료 자체의 변화를 의미하며, 대부분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 및 활용의 변경이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입정책의 변화」는 지금까지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정책의 방향이 점점 미시적 수준의 지침이 강화되면서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전반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평가요소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용어와 관련하여 대학의 전형이나 평가 방식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①평가영역-②평가요소-③평가항목-④세부평가내용의 4단계 위계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최상위 위계인 평가영역에서 학교 혹은 전형의 인재상이나 핵심역량을 규정하고, 대학들이 일반적으로 배점을 부여하는 평가요소들을 두 번째 위계에, 그리고 각 평가요소별 평가항목을 그 아래 위계에 배치하고, 각 평가항목의 구체적인 세부평가내용을 가장 아래 위계에 배치하는 구조를 활용할 경우 평가 용어들 간의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동시에 각 대학들의 차이를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요소의 명칭과 정의와 관련하여 2016년과 2018년에 진행되었던 두 차례의 연구에서 활용되었던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학업역량』의 경우 『탐구역량』을 독립적으로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탐구역량의 명시적 포함을 강조하여 『학업탐구역량』과 같은 용어의 활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전공적합성』의 경우 “전공”의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오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 보다 넓은 개념일 수 있는 『전공계열적합성』과 같은 용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인성』의 경우 광범위한 인성 영역 중 학교생활기록부에 의해 평가가능한 요소들만이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인성』이란 용어를 쓰는 것보다는 실제 평가되고 있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용어로 대체할 필요가 있으나, 『인성』 이외의 용어들이 지나치게 복잡하기 때문에 부정확한 용어일지라도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활용해온 『인성』 용어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발전가능성』은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등을 토대로 판단할 수 있는 속성을 갖고 있으며, 정의에 따라 하위 평가항목이 매우 달라질 수 있는 매우 임의적인 평가요소이다. 따라서, 『발전가능성』의 하위 평가항목들을 다른 평가요소로 이동하거나 삭제함으로써 발전가능성 평가요소를 활용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2024학년도 전형자료 간소화, 고교 교육과정 변화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 다양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학업역량』의 ‘학업성취도’의 경우 향후 전 과목 절대평가 적용 시 교과 성적의 성취 수준이나 학업적 발전의 정도의 변별력이 낮아질 수 있으며, ‘학업태도와 학업의지’와 ‘탐구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내용 및 분량 제한으로 인해 실질적인 평가가 어려워질 수 있다. 『전공적합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는 ‘학업성취도’와 마찬가지로 향후 전 과목 절대평가 적용 시 교과 성적의 성취 수준이나 학업적 발전의 정도의 변별력이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 등의 교육 환경 변화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 커질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세부평가내용을 더욱 세분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나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도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재 내용 및 분량 제한으로 인해 평가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내용들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평가항목의 경우, ‘학업태도와 학업의지’는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을 해나가는 자발적인 의지와 태도,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학습 전략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실행하는 과정」보다는 두 개의 내용을 하나로 합쳐,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학습 전략을 선택하여 학습계획을 수립하고 학습을 해나가려는 자발적인 태도와 의지」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된다.

‘탐구활동’은 능력 혹은 역량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탐구능력’ 혹은 ‘탐구역량’과 같은 명칭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는 「고교 교육과정에서 지원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한 현황의 적절성 및 취득한 학업성취의 우수성」으로 정의를 수정함으로써 ‘과목 이수 현황의 적절성’과 ‘성취 수준의 우수성’을 모두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혹은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현황의 적절성’과 ‘전공 관련 교과목 성취 수준의 우수성’으로 분리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세부 평가내용에서 과목 선택의 자발성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에서는 자기소개서나 추천서를 활용하지 않고 학교생활 기록부만을 평가자료로 활용할 경우 ‘지원동기’와 ‘학업계획’을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과 지원 전공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지원 분야에 적합한 진로와 진학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가?」, 「구체적인 지원동기와 학업계획의 이해」와 같은 평가세부내용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

『인성』 평가요소의 하위 평가항목들은 환경 변화 이전에도 평가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재 내용 및 분량 제한으로 인해 평가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평가항목의 변경 혹은 평가 비중 축소 등의 현실을 고려한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협업능력’, ‘나눔과 배려’, ‘소통능력’은 서류평가에서 상당한 수준의 중복성이 발견되지만,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용어들을 분리·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도덕성’의 경우에는 광의의 도덕성 개념을 포괄하지 않기 때문에 ‘규칙 준수’ 정도의 좁은 의미로 정의함으로써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

‘자기주도성’은 서류상으로만 평가하기에 매우 어려운 항목이기 때문에 평가항목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으나, 꼭 반영해야 한다면 『학업역량』의 ‘학업태도와 학업의지’의 하위 세부평가내용을 보완하여 자기주도성을 평가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자기주도성’은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재 내용 및 분량 제한으로 인해 평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험의 다양성’은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등의 하위 평가항목과 상당히 많이 중복되기 때문에 다른 평가항목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재 내용 및 분량 제한으로 인해 평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리더십’은 『인성』의 하위 평가항목이 더 적절할 수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인성』의 하위 평가항목 간 중복성을 다수 제거해야만 한다. 특정 직위를 수행하면서 발휘한 리더십은 환경 변화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으나, 특정 직위를 수행하지 않으며 발휘한 리더십 경험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재 내용 및 분량 제한으로 인해 평가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창의적 문제해결력’은 서류평가만으로 평가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평가항목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실태조사

1. 설문조사

가. 설문조사 개요

1) 조사 설계

이번 조사는 학생부종합전형 공통 평가요소 및 항목 개선 연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학생부 작성의 주체인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는 모두 두 차례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전국에서 500개 고등학교를 임의로 추출하였으나, 응답 수가 부족하여 297개교를 추가로 조사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전국의 17개 시도를 모두 포함하였으나, 2차 조사에서는 응답 수가 충분했던 지역을 제외하였다. 조사 대상 고등학교를 추출할 때 고교 유형에 따른 편중을 피하기 위해 유형에 따라 일정 수의 고등학교가 포함되도록 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표본으로 선택된 797개 고등학교의 소재지와 유형별 특성은 <표 Ⅲ-1>과 같다.

<표 Ⅲ-1> 표본으로 선택된 고등학교 현황

구분	세부 항목	N	%
지역	수도권	292	36.6
	강원권	44	5.5
	충청권	120	15.1
	전라권	144	18.1
	경상권	183	23.0
	제주권	14	1.8
고교 유형	일반고	472	59.2
	자율형공립고	56	7.0
	자율형사립고	32	4.0
	외국어고/국제고	30	3.8
	과학고/영재학교	23	2.9
	특성화고/산업수요맞춤형고	152	19.1
	예술고/체육고	32	4.0

Ⅲ. 실태조사

원활한 설문조사를 위해 대상 학교에 설문 참여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설문 응답 희망자는 누구나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조사는 2021년 12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조사 방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학교에 공문(설문조사 URL 포함)을 발송한 뒤 인터넷으로 조사 페이지에 접속하여 응답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최종적으로 456명이 조사를 위해 접속하였으나, 이중 응답을 끝까지 마친 경우는 390명이었다.

2) 응답 특성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교사 390명의 특성은 <표 Ⅲ-2>와 같다.

<표 Ⅲ-2> 설문 응답자 현황: 교사

구분	세부 항목	N	%
지역	수도권	171	43.8
	강원권	1	0.3
	충청권	58	14.9
	전라권	33	8.5
	경상권	121	31
	제주권	6	1.5
고교 유형	일반고	286	73.3
	자율형공립고	16	4.1
	자율형사립고	24	6.2
	외국어고/국제고/과학고	50	12.8
	특성화고	10	2.6
	영재학교	3	0.8
	산업수요맞춤형고	1	0.3
설립 유형	국·공립	183	46.9
	사립	207	53.1
교직 경력	10년 미만	97	24.9
	10년 ~ 20년	168	43.1
	20년 ~ 30년	87	22.3
	30년 이상	38	9.7

지역적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고교에 재학 중인 교사가 171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약 43.8%를 차지하였으며, 경상권(31.0%), 충청권(14.9%) 순으로 많이 응답하였다. 강원권

과 제주권은 각각 1명(0.3%)와 6명(1.5%)으로 응답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고등학교 유형별 분포를 보면 일반고가 286명(73.3%)로 가장 많았으며, 특성화고와 산업수요맞춤형고는 각각 2.6%와 0.3%로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설립 유형에 따른 응답을 살펴보면 국·공립고교가 183명(46.9%), 사립고교가 207명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 경력을 보면 10년에서 20년 정도 근무한 교사가 168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40% 이상을 차지하였고, 30년 이상 재직한 교사도 38명(9.7%) 정도 응답하였다.

이번 설문조사의 자료는 대부분 5점 척도나 예/아니오와 같은 범주형 반응 변수로 조사되었다. 범주형 자료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집단 간의 특성 차이를 밝히는 데 활용되는 유의성 검정 방법은 적절한 표본 수를 요구한다. 따라서 집단의 분류가 너무 세부적이어서 집단 수가 많아지면 각 집단에 속한 표본 수가 적어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집단 간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정을 실시 할 경우에는 최초에 조사된 집단 중 일부를 통합하여 재분류한다.

먼저, 고교 유형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수가 응답한 자공고와 자사고는 자율고로 통합하여 분류하고, 영재학교는 학교 특성을 고려하여 특목고에 포함한다. 반면에 특성화고와 산업수요맞춤형고는 응답자 수가 적고 학교 특성도 타 유형과 통합하기가 어려워 분석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지역은 수도권과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며, 교직 경력은 10년을 단위로 세 개 집단으로 나눈다. 설립 유형은 적정 표본 수를 충족하여 원자료 형태인 국·공립과 사립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이처럼 통계적 분석 목적에 맞게 응답자를 재분류하면 앞서 응답한 390명 중 특성화고와 산업수요맞춤형고의 응답자 11명이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통계 분석에 사용된 표본 수는 379명이다. 이번 조사 분석에 실제로 사용한 응답자 379명의 주요 항목별 특성은 <표 III-3>과 같다. 또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5점 척도로 조사한 반응 변수의 경우는 가능한 한 3개 범주로 구분한다. 예를 들어 ‘매우 부적절’부터 ‘매우 적절’ 까지 5개 범주로 조사한 항목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 분석을 할 경우에는 ‘매우 부적절’과 ‘부적절’ 응답을 하나로 묶고, ‘적절’과 ‘매우 적절’ 응답을 다른 하나의 범주로 통합하여 분석한다.

<표 Ⅲ-3>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위한 집단 재분류

구분	항목	N	%
지역	수도권	164	43.3
	기타	215	56.7
고교 유형	일반고	286	75.5
	자율고	40	10.6
	특목고	53	14.0
설립 유형	국·공립	178	47.0
	사립	201	53.0
교직 경력	10년 미만	95	25.1
	10년 ~ 20년	168	44.3
	20년 이상	116	30.6

3) 설문지 구성

설문지는 크게 네 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영역은 2017년 발표된 평가요소와 평가항목, 그리고 세부평가항목 등에 대한 적절성 평가를 질문하였다. 2019년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교육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2024학년도 이후 대입은 추천서에 이어 자기소개서도 폐지되어 학교생활기록부만을 활용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기존에 발표된 서류평가의 평가요소들이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개발된 것이기에 새로운 환경에서도 적합한 것인지를 질문하였다. 물론, 세 번째 영역에서 질문한 세부평가항목의 경우 이미 폐지가 예고된 항목과 관련된 것들은 질문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 영역은 학생부 기재 영역과 기존 평가요소와의 관련성, 평가요소로 적정한 용어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 더불어 기존의 평가항목들이 학생의 과목선택권과 학생 참여형 수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였다.

나. 설문조사 결과 분석

이번 설문조사의 주요 목적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교육부, 2019년 11월)』에 따른 평가자료 및 기록의 축소, 2015 개정교육과정의 본격적인 실시와 향후 도입될 고교학점제 등에 따른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하였던 서류평가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을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특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추진 계획에 따라 2022학년도 대입부터 추천서가 폐지된 데 이어 2024학년도 대입에서는 자기소개서도 폐지되고, 이후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평가는 학생부만을 활용하여 진행될 것이다. 또한, 학생부는 사교육 등 외부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목별로 작성 가능한 글자 수가 축소되고, 일부 항목은 대입에 활용될 수 없도록 계획되어 있다. 이처럼 2024학년도 이후 대입의 서류평가 환경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설문 조사도 향후 변화될 대입 환경에 맞는 서류평가 환경을 전제로 진행하였다.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와 기본적인 조사 결과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1) 평가요소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건국대·경희대·서울여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 등 6개 대학은 2017년 고교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의 공동 연구로 『대입전형 표준화방안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들 6개 대학은 이 연구를 통해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 등 4개의 공통 평가요소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영역에서는 <표 III-4>에 제시된 4개 평가요소들이 학생부만을 활용하여 평가하는데 얼마나 적절한지를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표 III-4> 평가요소

문항	평가요소	정의
1)	학업역량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
2)	전공적합성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노력과 준비 정도
3)	인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
4)	발전가능성	현재의 상황이나 수준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될 가능성

가) ‘학업역량’의 적절성

평가요소로서 학업역량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표 III-5>와 같다. ‘적절’과 ‘매우 적절’을 긍정적 반응으로 보았을 때, 전체 응답자의 약 85% 정도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정도로 평가요소로서 학업역량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III-5> ‘학업역량’ 적절성 평가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계
N	4	16	38	174	147	379
%	1.1	4.2	10	45.9	38.8	100

‘학업역량’의 적절성에 대한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표 Ⅲ-6>과 같다. ‘학업역량’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은 교직 경력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학생부만을 활용할 경우에도 ‘학업역량’은 여전히 공통적으로 평가요소로서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지역이나 설립 유형, 고교 유형 등에 따라서도 같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평가요소로서 ‘학업역량’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은 교직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6> ‘학업역량’ 적절성에 대한 유의성 검정

구분	N	자유도	통계량	p-값
지역	379	2	1.55	0.4606
설립 유형	379	2	2.35	0.3089
고교 유형	379	4	1.34	0.855
교직 경력	379	4	11.42	0.0222*

p-값: *<0.05, **<0.01

<표 Ⅲ-7>은 ‘학업역량’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을 교직 경력별로 구분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위해 반응을 3개 척도²⁾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표 Ⅲ-7>의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교직 경력에 관계없이 대다수가 ‘학업역량’에 대해 평가요소로서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다만, 10년 미만의 경력자에 비해 10년 이상 경력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적절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20년 이상 경력자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약 86.2%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의 7.8%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여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10년에서 20년 미만의 경력자의 경우는 적절하다고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가장 낮아 ‘학업역량’의 적절성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 최초 설문은 5점 척도로 질문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위해 3점 척도로 변환한다. 5점 척도의 ‘매우 부적절’과 ‘부적절’을 ‘부적절’로, ‘매우 적절’과 ‘적절’을 ‘적절’로 통합한다.

<표 III-7> 교직 경력에 따른 ‘학업역량’ 적절성 평가

교직 경력	구분	부적절	보통	적절	계
10년 미만	N	5	17	73	95
	%	5.3	17.9	76.8	100.0
10 ~ 20년	N	6	14	148	168
	%	3.6	8.3	88.1	100.0
20년 이상	N	9	7	100	116
	%	7.8	6.0	86.2	100.0

나) ‘전공적합성’의 적절성

평가요소로서 ‘전공적합성’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표 III-8>과 같다. ‘적절’과 ‘매우적절’을 긍정적 반응으로 보았을 때, 전체 응답자의 약 73% 정도가 긍정적 반응을 보여 평가요소로서 ‘전공적합성’의 적절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표 III-8> ‘전공적합성’ 적절성 평가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계
N	9	29	65	181	95	379
%	2.4	7.7	17.2	47.8	25.1	100

‘전공적합성’의 적절성에 대한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표 III-9>과 같다. ‘전공적합성’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은 지역이나 설립 유형, 고교 유형, 교직 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9> ‘전공적합성’ 적절성에 대한 유의성 검정

구분	N	자유도	통계량	p-값
지역	379	2	0.34	0.8428
설립 유형	379	2	0.30	0.8599
고교 유형	379	4	1.59	0.8106
교직 경력	379	4	3.85	0.4270

p-값: *<0.05, **<0.01

다) ‘인성’의 적절성

평가요소로서 ‘인성’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표 III-10>과 같다. ‘적절’과 ‘매우적절’을 긍정적 반응으로 보았을 때, 전체 응답자의 약 55% 정도가 긍정적 반응을 보여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 정도가 ‘인성’이 평가요소로서 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대체로 ‘인성’에 대해서 과반수 정도가 긍정 반응을 보였으나, 이는 앞서 살펴본 ‘학업역량’이나 ‘전공적합성’보다 낮은 수준이다.

<표 III-10> ‘인성’ 적절성 평가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계
N	16	54	100	139	70	379
%	4.2	14.2	26.4	36.7	18.5	100

‘인성’의 적절성에 대한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표 III-11>과 같다. ‘인성’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은 지역이나 설립 유형, 고교 유형, 교직 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11> ‘인성’ 적절성에 대한 유의성 검정

구분	N	자유도	통계량	p-값
지역	379	2	1.32	0.5166
설립 유형	379	2	0.39	0.821
고교 유형	379	4	1.16	0.8843
교직 경력	379	4	3.38	0.4957

p-값: *<0.05, **<0.01

라) ‘발전가능성’의 적절성

평가요소로서 ‘발전가능성’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표 III-12>와 같다. ‘적절’과 ‘매우적절’을 긍정적 반응으로 보았을 때, 전체 응답자의 약 58% 정도가 긍정적 반응을 보여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 정도가 ‘발전가능성’이 평가요소로서 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인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학업역량’과 ‘전공적합성’에 보인 긍정적 반응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표 III-12> ‘발전가능성’ 적절성 평가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계
N	8	47	104	150	70	379
%	2.1	12.4	27.4	39.6	18.5	100

‘발전가능성’의 적절성에 대한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표 III-13>과 같다. ‘발전가능성’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은 지역이나 설립 유형, 고교 유형, 교직 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13> ‘발전가능성’ 적절성에 대한 유의성 검정

구분	N	자유도	통계량	p-값
지역	379	2	0.09	0.9574
설립 유형	379	2	2.14	0.3431
고교 유형	379	4	0.83	0.934
교직 경력	379	4	2.25	0.6905

p-값: * <0.05 , ** <0.01

마) 평가요소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비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향후 학생부만을 활용하여 서류평가를 진행하더라도 대체로 이전에 제시하였던 네 개의 평가요소는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네 가지 평가요소에 대한 긍정적 반응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네 개의 평가요소에 대한 긍정 반응(적절 + 매우 적절)을 살펴보면 ‘학업역량’ (84.7%), ‘전공적합성’ (72.9%), ‘발전가능성’ (58.1%), ‘인성’ (55.2%) 순이다. 네 개의 평가요소 모두 긍정적 반응이 과반수이었으나 반응에 대한 정도의 차이는 비교적 큰 편이다. <표 III-14>는 긍정 반응과 부정 반응의 상대적 크기를 계산한 것이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네 가지 평가요소는 모두 긍정 반응이 우세하다. 그러나 긍정 반응 비율을 부정 반응 비율로 나눈 값인 상대비를 살펴보면 ‘인성’과 ‘발전가능성’은 긍정 반응이 부정 반응보다 3~4배 정도 높은데 반해, ‘전공적합성’은 7배 이상 높으며 ‘학업역량’은 긍정 반응이 부정 반응보다 15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학생부만을 활용하여 서류평가를 할 경우 기존에 제시한 네 개의 평가요소는 모두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인성’과 ‘발전가능성’은 ‘학업역량’이나 ‘전공적합성’에 비해 그 정도가 현저히 낮다고 할 수 있다.

<표 Ⅲ-14> 평가요소에 대한 상대비

평가요소	부정 반응(%)	긍정 반응(%)	상대비 ³⁾
학업역량	5.3	84.7	15.98
전공적합성	10.1	72.9	7.22
인성	18.4	55.2	3.00
발전가능성	14.5	58.1	4.01

이러한 현상은 ‘4가지 평가요소 중 학생부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서’를 묻는 질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15>는 학생부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평가요소에 대한 답변 결과이다.

<표 Ⅲ-15> 학생부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서

평가요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N	%	N	%	N	%	N	%
학업역량	38	10.0	34	9.0	71	18.7	236	62.3
전공적합성	52	13.7	78	20.6	192	50.7	57	15.0
인성	205	54.1	67	17.7	51	13.5	56	14.8
발전가능성	84	22.2	200	52.8	65	17.2	30	7.9

<표 Ⅲ-15>의 결과를 보면 학생부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 1순위 답변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이 ‘인성’으로 전체 응답자의 약 54%가 선택하였다. 그 다음이 ‘발전가능성’(22.2%), ‘전공적합성’(13.7%), ‘학업역량’(10.0%) 순이었다. 이 순서는 앞서 <표 Ⅲ-13>에서 살펴보았던 긍정 반응과 부정 반응의 상대비 순서와 일치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고등학교의 교사들은 공정성 강화 방안의 추진 일정 따라 향후 추천서와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학생부의 기록이 축소될지라도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의 네 가지 평가요소는 기본적으로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다만, ‘인성’과 ‘발전가능성’은 ‘학업역량’이나 ‘전공적합성’보다는 상대적으로 평가가 어려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긍정 반응(%)을 부정 반응(%)으로 나눈 값으로 1보다 클 경우 긍정 반응이, 1보다 작을 경우에는 부정 반응이 더 높음을 의미함

2) 평가항목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앞서 검토한 네 개의 평가요소는 각각 세 개 또는 다섯 개의 평가항목으로 세분화된다. 두 번째 영역에서는 4개 평가요소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해 앞서와 같이 학생부만을 활용하여 서류평가 하는 데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또한, 각 평가요소와 관련된 평가항목 중 학생부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답하도록 하였다. 네 개 평가요소의 각 평가항목은 <표 III-16>과 같다.

<표 III-16> 평가요소별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항목
학업역량	학업성취도 ·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 탐구활동
전공적합성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 전공에 대한 관심 ·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인성	협업능력 · 나눔과 배려 · 소통능력 · 도덕성 · 성실성
발전가능성	자기주도성 · 경험의 다양성 · 리더십 · 창의적 문제해결력

가) ‘학업역량’ 평가항목의 적절성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평가요소 ‘학업역량’의 평가항목은 <표 III-17>과 같다.

<표 III-17> 학업역량의 평가항목

문항	평가항목	설명
1)	학업성취도	교과목의 석차등급 또는 원점수(평균/표준편차), 성취도를 활용하여 산정한 학업능력 지표와 교과목 이수 현황, 노력 등을 기반으로 평가한 교과목의 성취수준이나 학업적 발전의 정도
2)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을 해나가는 자발적인 의지와 태도,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학습전략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실행하는 과정
3)	탐구활동	어떤 대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깊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

‘학업역량’의 세 가지 평가항목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표 III-18>과 같다. ‘적절’과 ‘매우적절’을 긍정적 반응으로 보았을 때, 평가항목에 대한 적절성은 대체로 긍정적 평가가 높았다. 특히, ‘학업성취도’는 전체 응답자의 약 87% 정도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정도로 ‘학업역량’의 평가항목으로 매우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태도와 학업의지’의 경우 긍정 반응이 전체 응답자의 약 67%이었으며, ‘탐구활동’은 약 57%가 평가항목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 Ⅲ-18> ‘학업역량’ 평가항목의 적절성 평가

평가항목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계
학업성취도	N	2	6	42	177	152	379
	%	0.5	1.6	11.1	46.7	40.1	100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N	4	32	89	180	74	379
	%	1.1	8.4	23.5	47.5	19.5	100
탐구활동	N	7	46	110	151	65	379
	%	1.8	12.1	29	39.8	17.2	100

‘학업역량’의 적절성에 대한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표 19>와 같다. ‘학업역량’의 세 가지 평가항목들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학생부만을 활용할 경우에도 ‘학업역량’의 각 평가항목들은 지역이나 설립 유형, 고교 유형, 교직 경력 등에 관계없이 평가항목으로서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향후 학생부만을 활용하여 서류평가를 진행하더라도 대체로 이전에 제시하였던 ‘학업역량’의 세 가지 평가항목은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평가항목들 간에 긍정적 반응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긍정 반응(적절 + 매우 적절)을 살펴보면 ‘학업성취도’(86.8%), ‘학업태도와 학업의지’(67.0%), ‘탐구활동’(57.0%) 순이다. 세 개의 평가항목 모두 긍정적 반응이 높았으나, 반응에 대한 정도의 차이는 비교적 큰 편이다.

또한, 별도 질문으로 진행된 ‘학업역량’과 관련된 세 가지 평가항목 중 학생부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약 42%는 ‘탐구활동’을, 응답자의 약 39%는 ‘학업태도와 학업의지’가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학업성취도’가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약 5%에 그친 점을 볼 때, 이들 두 항목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응답 비율은 앞서 적절성 평가에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대체로 ‘탐구활동’이나 ‘학업태도와 학업의지’가 상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평가하기 어려운 항목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약 15% 정도로 나타났다. 정량

적 평가 기록에 의존해 상대적으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학업성취도’에 비해, 정 성적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 ‘학업태도와 학업의지’와 ‘탐구활동’ 등에 대한 긍정 반응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은 참고할 만하다.

<표 III-19> ‘학업역량’ 적절성에 대한 유의성 검정

문항	구분	N	자유도	통계량	p-값
학업성취도	지역	379	2	0.64	0.7265
	설립 유형	379	2	2.51	0.2858
	고교 유형	379	4	2.73	0.604
	교직 경력	379	4	3.23	0.5201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지역	379	2	0.36	0.8337
	설립 유형	379	2	1.44	0.487
	고교 유형	379	4	1.9	0.7544
	교직 경력	379	4	3.64	0.4574
탐구활동	지역	379	2	0.76	0.6851
	설립 유형	379	2	0.55	0.7582
	고교 유형	379	4	1.47	0.8324
	교직 경력	379	4	2.01	0.7332

p-값: * <0.05 , ** <0.01

나) ‘전공적합성’ 평가항목의 적절성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평가요소 ‘전공적합성’의 평가항목은 <표 III-20>과 같다.

<표 III-20> 전공적합성의 평가항목

문항	평가항목	설명
1)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고교 교육과정에서 지원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성취의 수준
2)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지원 전공(계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인 태도와 알고 있는 정도
3)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지원 전공(계열)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 과정과 배운 점

‘전공적합성’의 세 가지 평가항목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표 III-21>과 같다. ‘적절’과 ‘매우적절’을 긍정적 반응으로 보았을 때, 평가항목에 대한 적절성은 대체로 긍정적 평가가 높았다.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는 전체 응답자의 약 76% 정도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경우도 긍정 반응이 전체 응답자의 약 61%에 이르러 대체로 새로운 환경에서도 적절한 평가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은 응답자의 약 56%가 평가항목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앞선 두 항목보다 긍정 반응이 다소 낮았다.

<표 III-21> ‘전공적합성’ 평가항목의 적절성 평가

평가항목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계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N	10	21	59	175	114	379
	%	2.6	5.5	15.6	46.2	30.1	100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N	9	46	92	160	72	379
	%	2.4	12.1	24.3	42.2	19	100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N	11	50	107	145	66	379
	%	2.9	13.2	28.2	38.3	17.4	100

‘전공적합성’의 적절성에 대한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표 III-22>와 같다. ‘전공적합성’의 세 가지 평가항목들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집단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학생부만을 활용할 경우에도 ‘전공적합성’의 각 평가항목들은 지역이나 설립 유형, 고교 유형, 교직 경력 등에 관계없이 평가항목으로서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III-22> ‘전공적합성’ 적절성에 대한 유의성 검정

문항	구분	N	자유도	통계량	p-값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지역	379	2	0.05	0.9731
	설립 유형	379	2	1.79	0.4076
	고교 유형	379	4	1.99	0.7370
	교직 경력	379	4	5.52	0.2377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지역	379	2	0.29	0.8634
	설립 유형	379	2	3.12	0.2106
	고교 유형	379	4	2	0.7353
	교직 경력	379	4	5.48	0.2413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지역	379	2	0.9	0.6367
	설립 유형	379	2	0.05	0.9744
	고교 유형	379	4	6.88	0.1426
	교직 경력	379	4	3.81	0.4319

p-값: * <0.05 , ** <0.01

앞서 살펴 본 ‘학업역량’의 평가항목에서처럼 ‘전공적합성’의 평가항목들도 학생부만을 활용하여 서류평가를 진행하더라도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평가항목들 간에 긍정적 반응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긍정 반응(적절 + 매우 적절)을 살펴보면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76.3%),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61.2%),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55.7%) 순이다. 세 개의 평가항목 모두 긍정적 반응이 높았으나, 반응에 대한 정도의 차이는 큰 편이다.

또한, 별도 질문으로 진행된 ‘전공적합성’ 관련된 세 가지 평가항목 중 학생부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약 40%는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을, 응답자의 약 36%는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가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약 8%에 그친 점을 볼 때, 이들 두 항목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평가하기 어려운 항목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약 15% 정도로 나타났다.

다) ‘인성’ 평가항목의 적절성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평가요소 ‘인성’의 평가항목은 <표 III-23>과 같다.

<표 III-23> ‘인성’의 평가항목

문항	평가항목	설명
1)	협업능력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돕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역량
2)	나눔과 배려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타인을 위하여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
3)	소통능력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정보와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역량
4)	도덕성	공동체의 기본윤리와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부정 또는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 태도
5)	성실성	책임감을 바탕으로 꾸준히 노력하여 자신의 의무를 다 하는 태도와 행동

인성의 다섯 가지 평가항목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표 III-24>와 같다. ‘적절’과 ‘매우적절’을 긍정적 반응으로 보았을 때, 평가항목에 대한 적절성은 앞서 살펴본 ‘학업역량’과 ‘전공적합성’과는 다르게 긍정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다섯 개의 평가항목 중 ‘성실성’에 대한 긍정 평가가 응답자의 약 62%로 가장 높은데 반해, ‘도덕성’의 경우는 약 32% 정도에 그쳤다. ‘협업능력’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약 53%, ‘소통능력’이 약 48%, ‘나눔과 배려’는 약 43% 정도가 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학업역량’과 ‘전공적합성’의 평가항목들이 적절성에서 모두 50%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이다. 이는 추천서에 이어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학생부에서도 정성적 평가가 가능한 기록들이 축소됨에 따라 ‘학업역량’이나 ‘전공적합성’ 등과 같이 학업적인 측면보다 인성이라는 정성적 평가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도덕성’, ‘나눔과 배려’, ‘소통능력’ 등과 같이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관찰되고 평가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적절성이 낮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표 III-24> ‘인성’ 평가항목의 적절성 평가

평가항목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계
협업능력	N	17	45	115	152	50	379
	%	4.5	11.9	30.3	40.1	13.2	100
나눔과 배려	N	21	62	134	119	43	379
	%	5.5	16.4	35.4	31.4	11.3	100
소통능력	N	22	58	116	139	44	379
	%	5.8	15.3	30.6	36.7	11.6	100
도덕성	N	36	80	141	96	26	379
	%	9.5	21.1	37.2	25.3	6.9	100
성실성	N	18	34	94	167	66	379
	%	4.7	9	24.8	44.1	17.4	100

‘인성’의 적절성에 대한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표 III-25>와 같다. ‘인성’의 각 평가항목들에 대한 인식도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앞서 언급한 ‘인성’의 평가항목에 대한 인식은 지역이나 설립 유형, 고교 유형, 교직 경력 등에 관계없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학업역량’이나 ‘전공적합성’의 평가항목과는 다르게 ‘인성’의 경우 학생부만으로 평가할 경우 항목에 따라 적절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개의 평가항목 중 ‘성실성’이나 ‘협업능력’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 반응이 우세하였으나, ‘도덕성’은 긍정적 반응이 3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 외에 ‘나눔과 배려’와 ‘소통능력’은 부정적 반응보다는 긍정적 반응이 높았으나, 50%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별도 질문으로 진행된 ‘인성’과 관련된 다섯 가지 평가항목 중 학생부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약 58%가 ‘도덕성’을 선택하여 다른 항목들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는 앞서 적절성 인식에서와 같은 결과로 교사들은 향후 서류평가에서 ‘인성’의 경우 ‘도덕성’을 평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 밖에 ‘소통능력’(13.7%), ‘나눔과 배려’(12.7%), ‘성실성’(3.8%) 순으로 ‘도덕성’에 비해 평가에 어려움이 적을 것으로 답하였다. 한편, 평가하기 어려운 항목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약 7% 정도로 나타났다.

<표 Ⅲ-25> '인성' 적절성에 대한 유의성 검정

문항	구분	N	자유도	통계량	p-값
협업능력	지역	379	2	2.67	0.2632
	설립 유형	379	2	3.91	0.1412
	고교 유형	379	4	4.62	0.3282
	교직 경력	379	4	1.84	0.7649
나눔과 배려	지역	379	2	0.56	0.7554
	설립 유형	379	2	3.54	0.1701
	고교 유형	379	4	6.78	0.1482
	교직 경력	379	4	3.07	0.5469
소통능력	지역	379	2	0.85	0.6525
	설립 유형	379	2	2	0.3681
	고교 유형	379	4	5.2	0.2676
	교직 경력	379	4	9.46	0.0506
도덕성	지역	379	2	0.33	0.847
	설립 유형	379	2	0.32	0.8525
	고교 유형	379	4	6.94	0.1389
	교직 경력	379	4	3.37	0.4976
성실성	지역	379	2	0.79	0.6731
	설립 유형	379	2	1.95	0.3781
	고교 유형	379	4	3.75	0.4402
	교직 경력	379	4	2.23	0.6937

p-값: * <0.05 , ** <0.01

라) ‘발전가능성’ 평가항목의 적절성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평가요소 ‘발전가능성’의 평가항목은 <표 III-26>과 같다.

<표 III-26> ‘발전가능성’의 평가항목

문항	평가항목	설명
1)	자기주도성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성향
2)	경험의 다양성	학교 교육의 다양한 영역에서 직접 겪거나 활동하면서 얻은 성장 과정 및 결과
3)	리더십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가는 역량
4)	창의적 문제해결력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발전가능성’의 네 가지 평가항목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표 III-27>과 같다. ‘적절’과 ‘매우적절’을 긍정적 반응으로 보았을 때, 평가항목에 대한 적절성은 앞서 살펴본 ‘학업역량’과 ‘전공적합성’보다는 긍정적 평가가 다소 낮다. 네 개의 평가항목 중 ‘자기주도성’에 대한 긍정 평가가 응답자의 약 61%로 가장 높은 데 반해, ‘창의적 문제해결력’의 경우는 긍정적 반응이 약 42% 정도에 그쳤다. ‘경험의 다양성’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약 55%가, ‘리더십’이 약 56%가 긍정적 반응을 보여 큰 차이가 없었다. 대체로 ‘인성’의 평가항목보다는 긍정적 반응이 높았으나 가장 높은 긍정적 반응을 보인 ‘자기주도성’도 60% 수준에 그쳤다.

<표 III-27> ‘발전가능성’ 평가항목의 적절성 평가

평가항목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계
자기주도성	N	12	36	101	172	58	379
	%	3.2	9.5	26.6	45.4	15.3	100
경험의 다양성	N	8	40	121	149	61	379
	%	2.1	10.6	31.9	39.3	16.1	100
리더십	N	8	45	112	162	52	379
	%	2.1	11.9	29.6	42.7	13.7	100
창의적 문제해결력	N	17	70	132	119	41	379
	%	4.5	18.5	34.8	31.4	10.8	100

Ⅲ. 실태조사

‘발전가능성’의 적절성에 대한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표 Ⅲ-28>과 같다. ‘발전가능성’의 각 평가항목들에 대한 인식도 통계적으로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발전가능성’의 평가항목에 대한 인식은 지역이나 설립 유형, 고교 유형, 교직 경력 등에 관계없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Ⅲ-28> ‘발전가능성’ 적절성에 대한 유의성 검정

문항	구분	N	자유도	통계량	p-값
자기주도성	지역	379	2	0.17	0.9171
	설립 유형	379	2	4.24	0.12
	고교 유형	379	4	6.08	0.1931
	교직 경력	379	4	3.11	0.54
경험의 다양성	지역	379	2	2.21	0.331
	설립 유형	379	2	1.02	0.6012
	고교 유형	379	4	4.27	0.371
	교직 경력	379	4	5.06	0.2816
리더십	지역	379	2	2.87	0.2379
	설립 유형	379	2	1.39	0.5002
	고교 유형	379	4	4.4	0.3542
	교직 경력	379	4	3.21	0.5226
창의적 문제해결력	지역	379	2	2.33	0.3123
	설립 유형	379	2	4.4	0.1108
	고교 유형	379	4	1.84	0.7652
	교직 경력	379	4	2.1	0.7178

p-값: *<0.05, **<0.01

‘발전가능성’의 평가항목의 경우 앞서 살펴 본 ‘학업역량’이나 ‘전공적합성’의 평가항목보다는 적절성에 대한 긍정 반응이 낮고, ‘인성’ 보다는 약간 높게 나타났다. 네 개의 평가항목 중 ‘자기주도성’이나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등은 대체로 긍정적 반응이 우세하였으나, ‘창의적 문제해결력’은 긍정적 반응이 50%에 미치지 못해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별도 질문으로 진행된 ‘발전가능성’과 관련된 네 가지 평가항목 중 학생부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약 58%가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선택하여 다른 항목들보다 평가가 어려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앞서 적절성 인식에서와 같은 결과로 교사들은 향후 서류평가에서 ‘발전가능성’의 경우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평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창의적 문제해결력’의 경우 결과보다 과정이 평가에 중요한 점을 고려하면 자기소개서의 폐지와 학생부 기재의 축소가 평가를 어렵게 하게 주요 요인일 것으로 추측된다. 그 밖에 ‘경험의 다양성’ (16.9%), ‘리더십’ (11.4%), ‘자기주도성’ (7.7%) 순으로 평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답하였다. 한편, 평가하기 어려운 항목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6% 정도로 나타났다.

3) 세부 평가항목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기존 연구에서 발표된 서류평가의 공통 평가요소는 각 평가요소가 하부 평가항목을 갖고, 각 평가항목은 다시 세부 평가항목으로 나뉜다. 여기서는 마지막 단계인 세부 평가항목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앞선 평가요소와 평가항목과 마찬가지로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서도 학생부만을 활용하여 서류평가 하는 데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세부 평가항목은 기본적으로 이전 연구에서 제시한 것을 기준으로 설문에 포함하였으나 일부 항목은 새로운 환경에 맞게 수정하거나 삭제하였다. 예를 들어, 2024학년도 대입에 제공되는 학생부의 경우 개인 봉사활동 기록이나 수상실적, 독서 기록 등이 대학에 제공되지 않거나 학생부에서 삭제되어 이와 관련된 세부 평가항목은 삭제하여 설문을 구성하였다.

가) ‘학업역량’ 세부 평가항목의 적절성

평가요소 ‘학업역량’의 세부 평가항목은 <표 III-29>와 같다.

<표 III-29> ‘학업역량’ 세부 평가항목

문항	세부 평가항목
1)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자기주도적인 태도로 노력하고 있는가?
2)	교과 활동을 통해 지식의 폭을 확장하려 노력하고 있는가?
3)	교과성적에 유난히 소홀함을 보인 과목은 없는가?
4)	학기별/학년별 성적은 상승 또는 하락하고 있는가?
5)	각종 교과 탐구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가?
6)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교과 외에 타 교과의 성적은 적절한가?
7)	과목별 성취도는 적절한가?
8)	전체적인 교과성적은 대학 수학에 적절한 수준인가?

Ⅲ. 실태조사

문항	세부 평가항목
9)	학업을 위해 적극적인 탐구 의지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가?
10)	교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탐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11)	과목별 원점수(평균/표준편차 포함)는 적절한가?
12)	과목별 석차등급 및 성취도는 적절한가?
13)	자발적인 성취동기와 목표의식을 가지고 학습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14)	교과 수업에 스스로 참여하고 이해하려는 태도와 열정을 갖고 있는가?
15)	희망전공과 관련된 과목과 다른 과목의 성적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
16)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가?

‘학업역량’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적절성 평가는 <표 Ⅲ-30>과 같다. <표 Ⅲ-30>은 ‘적절’과 ‘매우적절’을 긍정으로, ‘부적절’과 ‘매우 부적절’을 부정으로 구분한 결과이다. 각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된 결과는 <부록>을 참고하라. <표 Ⅲ-30>에서 알 수 있듯이 ‘학업역량’의 세부 평가항목들은 대체로 적절성에서 긍정 반응 비율이 부정 반응 비율보다 월등히 높다. 16개 전체 항목의 평균적인 반응을 살펴보면, 긍정 반응 비율이 72.4%로 부정 반응 비율 7.2%보다 약 10배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문항 번호 3)번 4)번 6)번 7)번 11)번은 긍정 비율이 80%를 넘을 정도로 압도적이다. 이들은 교과목 성적과 관련된 항목들도 대체로 정량화가 가능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반면에 문항 번호 1)번 9)번 13)번 14)번 16)번등은 상대적으로 평가에 적절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가장 낮은 긍정 반응을 보인 13)번의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약 56% 정도가 적절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적절성이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들은 공통적으로 정량화가 어렵고 정성적 판단에 의존하는 성향이 높은 경우이다. 이는 아무래도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학생부 기재가 축소됨에 따라 교사들도 정성적 판단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30> 학업역량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적절성 평가

문항	부정 반응(%)	긍정 반응(%)	상대비
1)	9.0	62.2	6.91
2)	9.3	67.8	7.29
3)	4.0	82.4	20.60
4)	2.3	90.3	39.26
5)	6.6	66.0	10.00
6)	2.6	81.5	31.35
7)	2.6	85.0	32.69
8)	4.8	76.5	15.94
9)	12.7	61.0	4.80
10)	8.4	67.0	7.98
11)	4.0	80.2	20.05
12)	2.9	79.1	27.28
13)	15.6	56.2	3.60
14)	14.5	62.1	4.28
15)	5.8	77.6	13.38
16)	10.0	63.9	6.39

<표 III-31>은 ‘학업역량’의 세부 평가항목 적절성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검정한 결과 중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만을 제시한 것이다. ‘학업역량’의 세부 평가항목 16개 중 대부분은 통계적으로 지역이나 설립 유형, 고교 유형,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I-31>에 제시된 네 개의 항목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모두 교직 경력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를 보인 네 개의 항목을 살펴보면 모두 ‘학업성취도’와 관련된 항목들이다. 앞서 <표 -30>의 결과에 의하면 이들 네 개 항목은 모두 70% 이상이 세부 평가항목으로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7)번과 11)번의 경우에는 전체 응답자의 80%가 학생부만으로 평가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하였다.

<표 III-31> ‘학업역량’ 세부 평가항목의 적절성에 대한 유의성 검정

문항	구분	N	자유도	통계량	p-값
7)	교직 경력	379	4	17	0.0019**
11)	교직 경력	379	4	18.18	0.0011**
12)	교직 경력	379	4	10.51	0.0326*
15)	교직 경력	379	4	11.16	0.0249*

p-값: *<0.05, **<0.01

<표 Ⅲ-32>는 ‘학업역량’의 세부 평가항목 중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항목들에 대한 적절성 인식 결과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네 개 항목들도 모두 교직 경력에 관계없이 긍정 반응 비율이 부정 반응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다만, 네 개 문항 모두 부정 반응의 비율에서 10년 미만 근무한 교사들이 10년 이상 근무한 교사들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부정 반응 대비 긍정 반응 비율인 상대비를 살펴보면, 네 개 항목 모두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집단에서 현저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10년 이상 근무한 교사들은 그렇지 않은 교사들보다 네 개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고 할 수 있다.

<표 Ⅲ-32> 학업역량의 세부 평가항목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에 대한 평가

문항	구분	교직 경력	부정 반응 (%)	긍정 반응 (%)	상대비
7)	교직 경력	10년미만	8.4	77.9	9.25
		10 ~ 20년	0.6	87.5	145.83
		20년이상	0.9	87.1	101.24
11)	교직 경력	10년미만	9.5	70.5	7.45
		10 ~ 20년	1.2	80.4	67.53
		20년이상	3.5	87.9	25.49
12)	교직 경력	10년미만	6.3	69.5	10.99
		10 ~ 20년	1.8	80.4	44.89
		20년이상	1.7	85.3	49.62
15)	교직 경력	10년미만	9.5	69.5	7.34
		10 ~ 20년	3.0	85.1	28.56
		20년이상	6.9	73.3	10.6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향후 학생부만을 활용하여 서류평가를 진행하더라도 제시된 학업역량의 세부 평가항목들은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거의 대부분 문항들이 교직 경력이나 지역, 고교 유형, 설립 유형 등에 관계없이 인식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일부 문항에서 교직 경력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나) ‘전공적합성’ 세부 평가항목의 적절성

평가요소 전공적합성의 세부 평가항목은 <표 III-33>과 같다.

<표 III-33> ‘전공적합성’ 세부 평가항목

문항	세부 평가항목
1)	지원 전공(계열)에 관련된 교과 관련 활동이 있는가?
2)	지원 전공(계열)에 관련된 창의적 체험활동이 있는가?
3)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충실히 이수하였는가?
4)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교과 성적이 우수한가?
5)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활동 성과는 우수한가?
6)	지원 전공(계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있는가?
7)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해 선택하여 수강한 과목은 얼마나 되는가?
8)	교육과정에 비취 선택과목은 적절한가?
9)	(진로)선택과목은 교과목 위계에 맞게 이수하였는가?
10)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되어 교내에 개설된 과목을 적절히 수강하는가?
11)	지원 전공(계열)과 참여한 교내 활동 간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가?
12)	교내 활동은 지원 전공(계열)을 수학하는데 필요한 역량과 관련되는가?
13)	지원 전공(계열) 관련 과목의 수업에서 보이는 학업 태도는 어떠한가?

‘전공적합성’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적절성 평가는 <표 III-34>와 같다. <표 III-34>는 ‘적절’과 ‘매우 적절’을 긍정으로, ‘부적절’과 ‘매우 부적절’을 부정으로 구분한 결과이다. 각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된 결과는 <부록>을 참고하라. <표 III-34>에서 알 수 있듯이 ‘전공적합성’의 세부 평가항목들은 대체로 적절성에서 긍정 반응 비율이 부정 반응 비율보다 월등히 높다. 13개 전체 항목의 평균적인 반응을 살펴보면, 긍정 반응 비율이 68.1%로 부정 반응 비율 6.5%보다 약 10배 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학업역량’보다 긍정 비율은 약간 낮으나 부정 반응 비율도 낮아 전체적인 상대비는 오히려 ‘전공적합성’이 ‘학업역량’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학업역량’보다 긍정 평가 비율은 낮으나, 부정적 평가 비중도 낮아 부정 평가 대비 긍정 평가 비중은 오히려 ‘전공적합성’이 더 높게 평가되었다.

특히, 문항 번호 1)번 3)번 4)번 7)번 10)번은 긍정 비율이 80%를 넘을 정도로 압도적이다. 이들은 대체로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의 선택이나 이수성적과 관련된 항목으로 앞서 ‘학업역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정량화가 가능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반면에 문항 번호 12)번 13)번 등은 긍정 비율이 68%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평가에 적절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두 항목은 교내 활동의 전공 연관성이나 수업에서 보인 학업 태도와 관련된 항목으로, 정량화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정성적 판단에 의존하는 성향이 높은 경우이다. 이러한 인식은 ‘학업역량’에서 낮은 평가를 보인 항목과 유사한 것으로, ‘전공적합성’의 평가에서도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학생부 기재가 축소됨에 따라 교사들이 정성적 판단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Ⅲ-34> ‘전공적합성’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적절성 평가

문항	부정 반응(%)	긍정 반응(%)	상대비
1)	4.0	82.3	20.58
2)	6.6	70.2	10.64
3)	4.3	84.1	19.56
4)	3.2	87.3	27.28
5)	7.6	73.9	9.72
6)	7.1	72.3	10.18
7)	3.9	80.7	20.69
8)	5.8	72.6	12.52
9)	6.1	73.6	12.07
10)	5.6	80.0	14.29
11)	7.1	72.0	10.14
12)	10.5	68.6	6.53
13)	12.4	68.1	5.49

‘전공적합성’의 세부 평가항목 적절성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검정한 결과 중 통계적으로 유의적 차이가 있는 것은 문항 13)번으로, 교직 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p\text{-값} \leq .0308$)를 보였다. ‘전공적합성’의 세부 평가항목 16개 중 나머지 15개 항목은 통계적으로 지역이나 설립 유형, 고교 유형,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Ⅲ-35>는 13)번 문항에 대한 교직 경력별 적절성 인식 결과이다. <표 Ⅲ-34>에서 보면 13)번 문항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약 68%가 긍정적 반응을, 약 12%가 부정적 반응을 보여 긍정 반응 비율이 약 5.5배 정도 높다. 이에 반해, <표 Ⅲ-35>에서 보면 교직 경력이 10년에서 20년 정도인 중견 교사들이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긍정적 반응은 높고, 부정적 반응은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III-35> ‘전공적합성’의 세부 평가항목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에 대한 평가

문항	구분	교직 경력	부정 반응 (%)	긍정 반응 (%)	상대비
13)	교직 경력	10년 미만	19.0	68.4	3.61
		10 ~ 20년	8.3	72.0	8.65
		20년 이상	12.9	62.1	4.8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향후 학생부만을 활용하여 서류평가를 진행하더라도 ‘전공적합성’의 세부 평가항목들은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학업 역량’의 세부 평가항목의 평가 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 두 가지 평가요소가 주로 학생이 이수한 교육과정과 학업성취, 수업에 임하는 태도 등에 근거한 평가를 한다는 점에서 학생부에 근거한 평가만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인성’ 세부 평가항목의 적절성

평가요소 ‘인성’의 세부 평가항목은 <표 III-36>과 같다.

<표 III-36> ‘인성’ 세부 평가항목

문항	세부 평가항목
1)	타인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나누고자 한 구체적 경험이 있는가?
2)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도 일관된 모습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경험이 있는가?
3)	공동과제나 단체활동을 통해 구성원들로부터 좋은 동료로 인정받고 있는가?
4)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5)	상대방의 관심 사항과 요구를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6)	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설득하여 협동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가?
7)	공동과제 수행이나 모듬활동 단체활동 등에서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가?
8)	출결상황이나 단체활동 참여 등 학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있는가?
9)	수업이나 교과 외 활동 등에서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Ⅲ. 실태조사

문항	세부 평가항목
10)	자신이 속한 구성원들에게 인정과 신뢰를 얻고 있으며 바람직한 행동으로 모범이 되는가?
11)	자신이 속한 집단이 정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는가?
12)	자발적인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과제를 완성한 경험이 나타나는가?
13)	학교생활에서 타인을 배려한 사례가 있는가?
14)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논리적·체계적으로 기술하거나 표현한 경험이 있는가?
15)	자신의 재능을 나누려고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
16)	단체로 하는 학습 및 활동 경험이 있는가?

‘인성’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적절성 평가는 <표 Ⅲ-37>과 같다. <표 Ⅲ-37>은 ‘적절’과 ‘매우적절’을 긍정으로, ‘부적절’과 ‘매우 부적절’을 부정으로 구분한 결과이다. 각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된 결과는 <부록>을 참고하라. <표 Ⅲ-37>에서 알 수 있듯이 ‘인성’의 세부 평가항목들은 대체로 적절성에서 긍정 반응 비율이 부정 반응 비율보다 높다. 16개 전체 항목의 평균적인 반응을 살펴보면, 긍정 반응 비율이 52.8%로 부정 반응 비율 18.0%보다 약 3배 가까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학업역량’이나 ‘전공적합성’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와는 차이가 있다. ‘학업역량’이나 ‘전공적합성’의 경우에도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다는 점에서는 ‘인성’의 경우와 같다. 그러나 ‘학업역량’이나 ‘전공적합성’의 경우에는 긍정 평가 비율이 부정 평가 비율보다 10배 이상 높은 데 반해, ‘인성’의 경우는 3배 정도 높은 데 그치고 있다. 다시 말해, 교사들은 ‘인성’의 경우에도 학생부만을 활용하여 평가하는 데는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학업역량’이나 ‘전공적합성’ 보다는 어려울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긍정 반응을 살펴보다라도 8)번 항목에 대한 긍정 비율이 70%를 넘고, 16)번 항목이 60% 정도를 보일 뿐 나머지 항목들은 대체로 50% 대이거나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8)번 항목이 출결상황이나 단체 활동 참여를 통한 평가이고, 16)번 항목 또한 단체 학습이나 활동 경험을 평가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학생부 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교적 높은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1)번부터 7)번 항목의 경우 긍정 반응 비율은 50%에 미치지 못한 반면, 부정 반응 비율은 20% 수준을 넘거나 근접하고 있다. 이들 항목은 대체로 타인과의 협력이나 공감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들로서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등을 통한 정성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적절성이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들은 공통적

으로 객관화가 어렵고 정성적 판단에 의존하는 성향이 높은 경우이다. 이는 아무래도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학생부 기재가 축소됨에 따라 교사들도 정성적 판단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37> ‘인성’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적절성 평가

문항	부정 반응(%)	긍정 반응(%)	상대비
1)	18.2	49.9	2.74
2)	20.9	44.8	2.14
3)	20.6	49.9	2.42
4)	22.5	44.0	1.96
5)	25.1	40.1	1.60
6)	21.1	48.5	2.30
7)	21.3	48.3	2.27
8)	8.5	72.6	8.54
9)	14.0	59.4	4.24
10)	16.7	53.3	3.19
11)	17.2	55.7	3.24
12)	16.8	58.8	3.50
13)	18.2	50.9	2.80
14)	16.6	54.1	3.26
15)	16.6	54.6	3.29
16)	14.0	60.4	4.31

<표 III-38>은 ‘인성’의 세부 평가항목 적절성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검정한 결과 중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만을 제시한 것이다. ‘인성’의 세부 평가항목 16개 중 대부분은 통계적으로 지역이나 설립 유형, 고교 유형,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I-38>에 제시된 세 개의 항목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7)번 항목은 근무 지역에 따라, 9)번과 14)번 항목은 재직 중인 고교 유형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세 개의 항목을 살펴보면 타인의 의견을 경청(7번) 하거나, 의견을 표출(9번, 14번)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인성’의 평가항목 중 소통능력과 관련되어 있다. ‘인성’의 다섯 가지 평가항목 중 다른 네 개의 평가항목들은 대체로 지역이나 설립 유형, 고교 유형, 교직 경력에 따라 반응에 차이가 없으나 소통능력만이 지역과 고교 유형에 따라 반응에 차이를 보이는 점은 특이하다.

<표 III-38> ‘인성’ 세부 평가항목의 적절성에 대한 유의성 검정

문항	구분	N	자유도	통계량	p-값
7)	지역	379	2	6.54	0.0379*
9)	고교 유형	379	4	9.62	0.0474*
14)	고교 유형	379	4	11.21	0.0243*

p-값: * <0.05 , ** <0.01

<표 III-39>는 ‘인성’의 세부 평가항목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들에 대한 적절성 인식 결과이다. 7)번 항목의 경우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지역 모두 부정 반응은 20%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으나, 긍정 반응에서 수도권 지역이 기타 지역보다 12%p 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9)번 항목은 일반고와 특목고는 부정 반응과 긍정 반응에 큰 차이가 없으나, 자율고의 경우 부정 반응이 약 28% 정도로 일반고나 특목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14)번 항목도 9)번 항목과 유사한 데 긍정 반응에서는 고교 유형별로 큰 차이가 없으나, 자율고의 경우 부정 반응이 약 33%로 일반고나 특목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표 III-39> ‘인성’의 세부 평가항목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에 대한 평가

문항	구분	세부항목	부정 반응 (%)	긍정 반응 (%)	상대비
7)	지역	수도권	22.0	41.5	1.89
		기타	20.9	53.5	2.56
9)	고교 유형	일반고	12.9	60.8	4.70
		자율고	27.5	55.0	2.00
		특목고	9.4	54.7	5.80
14)	고교 유형	일반고	15.7	54.9	3.49
		자율고	32.5	50.0	1.54
		특목고	9.4	52.8	5.6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향후 학생부만을 활용하여 서류평가를 진행하더라도 문항으로 제시된 ‘인성’의 세부 평가항목들은 대체로 부정 반응보다는 긍정 반응이 더 높게 평가되었다. 다만, ‘학업역량’이나 ‘전공적합성’의 세부 평가항목들과는 다르게 긍정 반응 비율은 낮고, 부정 반응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인성’이라는 평가요소는 앞선 두 평가요소보다 정성적 판단과 학생 개인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이번 조사가 향후 서류평가에서 자기소개서와 추천서가 폐지되고 학생부의 기재사항이 축소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어찌면 당연한 반응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거의 대부분 문항들이 교직 경력이나 지역, 고교 유형, 설립 유형 등에 관계없이 인식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일부 문항에서 지역이나 고교 유형에 따라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라) ‘발전가능성’ 세부 평가항목의 적절성

평가요소 ‘발전가능성’의 세부 평가항목은 <표 III-40>과 같다.

<표 III-40> ‘발전가능성’ 세부 평가항목

문항	세부 평가항목
1)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
2)	학생회나 동아리 등의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3)	교내 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는가?
4)	기존에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외연을 확장하려고 노력하였는가?
5)	교내 활동 과정에서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일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가?
6)	교내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으려 노력하였는가?
7)	교내 활동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8)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을 주도한 경험이 있는가?
9)	자신의 목표를 위해 도전한 경험을 통해 성취한 적이 있는가?
10)	새로운 과제를 주도적으로 만들고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
11)	예체능 영역에서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참여하였는가?
12)	새로운 지식이나 사고방식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13)	필요한 과목이라면 학교 밖 교육과정(공동교육과정, 클러스터 교육과정 등)을 통해서라도 이수하였는가?

‘발전가능성’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적절성 평가는 <표 III-41>과 같다. <표 III-41>은 ‘적절’과 ‘매우 적절’을 긍정으로, ‘부적절’과 ‘매우 부적절’을 부정으로 구분한 결과이다. 각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된 결과는 <부록>을 참고하라. <표 III-41>에서 알 수 있듯이 ‘발전가능성’의 세부 평가항목들은 대체로 적절성에서 긍정 반응 비율이 부정 반응 비율보다 높다. 13개 전체 항목의 평균적인 반응을 살펴보면, 긍정 반응 비율이 59.3%로 부정 반응 비율 14.9%보다 약 4배 가까이 높게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 반응 비율에서는 ‘학업역량’이나 ‘전공적합성’의 세부 평가항목보다는 낮고 ‘인성’의 세부 평가항목보다는 약간 높다. 부정 반응 역시 ‘학업역량’이나 ‘전공적합성’보다는 높고, ‘인성’보다는 낮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교사들은 ‘인성’과 마찬가지로 ‘발전가능성’의 경우에도 학생부만을 활용하여 평가하는 데는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학업역량’이나 ‘전공적합성’보다는 어려울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긍정 반응을 살펴보다라도 2)번 항목에 대한 긍정 비율이 70%를 넘을 뿐 대부분의 항목은 50%에서 60% 정도의 긍정 반응을 보이고 있다. 12)번 항목은 긍정 반응이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발전가능성’의 세부 평가항목 중 가장 높은 긍정 반응을 받은 2)번 항목은 학생회나 동아리 활동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학생부 기록을 통해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한 반면, 가장 낮은 긍정 반응을 받은 12)번은 새로운 지식이나 사고방식에 대한 수용 태도를 묻는 항목으로 정성적 판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는, 앞서 기술한 평가요소들 중 긍정 반응이 낮은 항목들과 같은 성격의 항목으로 볼 수 있다. 12)번 이외에 3)번 4)번 5)번 항목들도 12)번 항목과 마찬가지로 정성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 역시 상대적으로 긍정 반응이 낮게 나타났다. 2)번 이외에 비교적 높은 긍정 반응을 받은 6)번 7)번 13)번 항목들은 교내활동에 대한 적극성과 경험이나, 적극적인 교육과정 이수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역시 학생부 기록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한 항목들이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적절성이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들은 공통적으로 학생부를 기반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정성적 판단에 의존하는 성향이 높은 경우이며, 반대로 학생부를 통해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적절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아무래도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학생부 기재가 축소됨에 따라 교사들도 정성적 판단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41> ‘발전가능성’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적절성 평가

문항	부정 반응(%)	긍정 반응(%)	상대비
1)	16.1	57.6	3.58
2)	10.0	73.9	7.39
3)	16.9	54.6	3.23
4)	19.0	51.9	2.73
5)	18.5	50.6	2.74
6)	11.0	67.0	6.09
7)	11.9	67.6	5.68
8)	13.9	61.2	4.40
9)	14.5	61.2	4.22
10)	16.1	56.0	3.48
11)	15.3	55.6	3.63
12)	20.6	44.6	2.17
13)	10.3	68.6	6.66

<표 III-42>는 ‘발전가능성’의 세부 평가항목 적절성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검정한 결과 중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만을 제시한 것이다. ‘발전가능성’의 세부 평가항목 13개 중 대부분은 통계적으로 지역이나 설립 유형, 고교 유형, 교직 경력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I-42>에 제시된 다섯 개의 항목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2> ‘발전가능성’ 세부 평가항목의 적절성에 대한 유의성 검정

문항	구분	N	자유도	통계량	p-값
1)	설립 유형	379	2	6.98	0.0305
5)	지역	379	2	8.56	0.0139
7)	교직 경력	379	4	10.7	0.0301
10)	지역	379	2	7.17	0.0277
	고교 유형	379	4	9.57	0.0484
13)	교직 경력	379	4	10.56	0.0320

p-값: *<0.05, **<0.01

<표 III-43>은 ‘발전가능성’의 세부 평가항목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들에 대한 적절성 인식 결과이다. ‘리더십’과 관련된 항목인 1)번의 경우 국·공립교에 재직

중인 교사들이 사립학교 교사들보다 긍정 반응은 더 높고, 부정 반응은 낮았다. 5)번 항목은 ‘창의적 문제해결력’ 평가항목과 관련된 것으로 수도권 교사들보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교사들이 더 높은 긍정 반응을 보였다. ‘자기주도성’ 과 연관된 7)번 항목의 경우 교직 경력에 따라 반응에 차이를 보였는데 10년에서 20년 정도 근무한 교사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긍정 반응은 높고, 부정 반응은 낮았다. 10)번 항목도 ‘자기주도성’ 과 관련된 것인데 이 항목은 수도권 이외 지역 교사들의 긍정 반응 높고, 자율고 교사들의 부정 반응이 더 높게 나타났다. 13)번 항목은 ‘자기주도성’ 과 연관된 것으로 10년에서 20년 정도 근무한 교사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긍정 반응은 높고, 부정 반응은 현저히 낮았다.

<표 Ⅲ-43> ‘발전가능성’의 세부 평가항목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에 대한 평가

문항	구분	교직 경력	부정 반응 (%)	긍정 반응 (%)	상대비
1)	설립 유형	국·공립	12.9	64.6	5.00
		사립	18.9	51.2	2.71
5)	지역	수도권	21.3	42.1	1.97
		기타	16.3	57.2	3.51
7)	교직 경력	10년 미만	17.9	64.2	3.59
		10 ~ 20년	6.0	70.8	11.90
		20년 이상	15.5	65.5	4.22
10)	지역	수도권	19.5	48.2	2.47
		기타	13.5	61.9	4.59
	고교 유형	일반고	15.4	57.3	3.73
		자율고	30.0	50.0	1.67
		특목고	9.4	52.8	5.60
13)	교직 경력	10년 미만	14.7	66.3	4.50
		10 ~ 20년	4.8	73.8	15.51
		20년 이상	14.7	62.9	4.2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향후 학생부만을 활용하여 서류평가를 진행하더라도 대체로 문항으로 제시된 ‘발전가능성’의 세부 평가항목들은 대체로 부정 반응보다는 긍정 반응이 더 높게 평가되었다. 다만, ‘인성’의 세부 평가항목들처럼 ‘학업역량’, ‘전공적합성’에 비해 긍정 반응 비율은 낮고, 부정 반응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인성’과 마찬가지로 ‘발전가능성’이라는 평가요소도 ‘학업역량’

이나 ‘전공적합성’ 보다 정성적 판단과 학생 개인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긍정 반응이 부정 반응보다 우세하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학업역량’ 이나 ‘전공적합성’ 보다는 낮다는 점에서, 향후 평가의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마) 세부 평가항목의 적절성 비교

지금까지 평가요소별 세부 평가항목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설문에 응답한 대상이 모두 같고 누락된 응답이 없으므로 평가요소별로 세부 평가항목별 반응을 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평가요소에 대한 적절성 인식의 한 지표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III-44>는 세부 평가항목의 적절성에 대한 반응을 평가요소별로 평균한 것이다.

<표 III-44> 세부 평가항목의 평가요소별 평균 반응

평가요소	부정 반응(%)	긍정 반응(%)	상대비
학업역량	7.2	72.4	10.06
전공적합성	6.5	75.8	11.66
인성	18.0	52.8	2.93
발전가능성	14.9	59.3	3.98

<표 III-44>에 나타났듯이 네 가지 평가요소는 모두 부정 반응보다 긍정 반응이 높다. 그러나 ‘학업역량’ 과 ‘전공적합성’ 은 긍정 반응이 부정 반응보다 10배 이상 높은 데 반해, ‘인성’ 과 ‘발전가능성’ 은 3 ~ 4배 정도 높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부정 반응의 경우 ‘인성’ 과 ‘발전가능성’ 의 부정 반응 비율이 ‘학업역량’ 과 ‘전공적합성’ 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 교사의 경우, 이 두 평가요소를 학생부만을 활용하여 평가하기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학생부 기재영역과 평가요소의 적합성 평가

자기소개서와 추천서가 폐지되고 학생부의 기재 축소가 예정된 상황에서 학생부의 주요 기재영역이 기존 네 개 평가요소에 얼마나 의미 있는 항목인가를 조사하였다. 조사에 사용된 학생부 기재영역은 출결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과 교과학습

Ⅲ. 실태조사

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이었다. 수상경력과 독서활동상황은 2024학년도 대입부터 평가에 반영할 수 없어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Ⅲ-45>는 응답자 379명이 학생부 기재 영역별로 각각의 평가요소에 적합성을 평가한 결과이다.

<표 Ⅲ-45> 학생부 기재 영역과 평가요소의 적합성 평가
(N=379명, 단위: %)

평가요소 학생부 기재 영역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
출결상황		14.5	3.2	92.1	26.9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21.1	67.8	48.0	62.5
	동아리활동	26.4	88.9	44.1	62.0
	봉사활동	2.6	15.8	92.6	22.2
	진로활동	27.4	90.8	21.1	59.4
교과학습 발달상황	교과성적	93.9	53.6	7.9	45.4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83.1	69.4	40.6	66.8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36.7	42.2	88.7	74.1

출결상황의 경우 ‘인성’ 평가에 적합하다는 약 92%로 절대적으로 높았으며, 다른 영역과의 적합성은 크게 높지 않아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보았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은 ‘전공적합성’과 ‘발전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적합하다는 의견이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인성’에 적합하다는 의견도 약 48%로 비교적 높았으나, ‘학업역량’과의 적합성은 약 2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동아리활동의 경우 ‘전공적합성’과 관련이 있다는 의견이 약 89%로 가장 높았으며, ‘발전가능성’과의 적합성도 약 6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인성’과의 적합성은 약 44%, ‘학업역량’과는 약 26%로 자율활동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봉사활동의 경우 ‘인성’ 평가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약 93%로 압도적이었으나, 나머지 세 개 영역과의 적합성은 높지 않았다. 진로활동은 ‘전공적합성’ 평가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약 91%로 가장 높고, ‘발전가능성’ 평가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약 59%로 비교적 높았다. ‘학업역량’이나 ‘인성’에 대한 적합성은 각각 27.4%와 21.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교과학습 발달상황은 내신을 정량적으로 기록하는 교과성적 영역과 수업의 활동을 정성적으로 평가·기록하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하 ‘세특’)으로 구분된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교과성적은 ‘학업역량’ 평가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약 94%로 전체 영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과성적의 경우 ‘전공적합성’ 평가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53.6%, ‘발전가능성’ 평가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45.4%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인성’과의 관련성은 낮게 평가되었다. 세특의 경우 ‘학업역량’ 평가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약 8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전공적합성’이 약 69%, ‘발전가능성’이 약 67%로 비슷한 지지를 얻었다. 특이할 만한 것은 세특이 ‘인성’ 평가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40.6%로 교과학습발달상황의 다른 영역의 결과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세특이 다양한 교과 활동을 포함하여 기록하는데, 이는 ‘인성’의 세부 평가항목 중 단체 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항목이 포함된 결과라고 추측할 수 있다. 학년 말에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하 ‘행특’)은 ‘인성’ 평가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약 8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약 74%가 ‘발전가능성’ 평가에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2022학년도 대입부터 추천서가 폐지된 상황에서 이러한 결과는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행특은 ‘전공적합성’ 평가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42.2%, ‘학업역량’ 평가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36.7%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학업역량’ 평가에 적합한 영역으로는 교과성적(93.9%)과 세특(83.1%)이 다른 영역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전공적합성’ 평가에 적합한 영역은 진로활동(90.8%), 동아리활동(88.9%), 세특(69.8%)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인성’은 봉사활동(92.6%), 출결상황(92.1%), 행특(88.7%) 순이었다. ‘인성’의 경우 교과성적(7.9%)과 진로활동(21.1%)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평가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40% 이상이었다. ‘발전가능성’의 경우 행특(74.1%), 세특(66.8%) 순이었으며, 자율활동(62.5%)과 동아리활동(62.0%)도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발전가능성’의 경우 ‘학업역량’이나 ‘전공적합성’ 같이 특정 영역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전 영역에서 평가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5) 평가항목이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학생참여형 수업활동 강화’에 미치는 영향

2015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의 교육환경 변화를 대입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평가요소와 평가항목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조사와 더불어 평가항목들이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학생참여형 수업활동 강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가)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에 미치는 영향

앞서 <표 Ⅲ-16>에 제시된 평가요소별 평가항목을 서류평가에 활용하는 것이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평가항목별 조사 결과는 <표 Ⅲ-46>과 같다. 이 결과는 ‘도움됨’과 ‘매우 도움됨’을 긍정 반응으로, ‘별로 도움 안됨’과 ‘전혀 도움 안됨’을 부정 반응으로 구분한 것으로, 각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된 결과는 <부록>을 참고하라.

<표 Ⅲ-46> 평가항목이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에 미치는 영향

평가요소	평가항목	부정 반응 (%)	긍정 반응 (%)	상대비
학업 역량	학업성취도	16.8	63.1	3.76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8.7	73.9	8.49
	탐구활동	7.4	73.6	9.95
전공 적합성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9.3	78.4	8.43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7.6	79.7	10.49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8.2	79.4	9.68
인성	협업 능력	25.9	37.3	1.44
	나눔과 배려	28.8	33.2	1.15
	소통능력	24.8	35.4	1.43
	도덕성	32.4	26.9	0.83
	성실성	24.0	47.0	1.96
발전 가능성	자기주도성	9.3	69.9	7.52
	경험의 다양성	10.6	72.0	6.79
	리더십	20.6	39.1	1.90
	창의적 문제해결력	16.1	57.3	3.56

<표 Ⅲ-46>에서 알 수 있듯이 ‘학업역량’과 ‘전공적합성’ 관련 평가항목들은 긍정 반응이 대체로 70% 이상으로 과목 선택권 확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성은 긍정 반응이 대체로 40%에 미치지 못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발전가능성’은 평가항목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전공적합성’은 다른 평가요소에 비해 높은 긍정 반응을 보였으며 세 개의 평가항목이 80%에 가까운 긍정 반응을 보였다. ‘학업역량’의 평가항목 중 정량적 평가

지표인 ‘학업성취도’ 만 약 63%로 약간 낮을 뿐 ‘학업태도와 학업의지’와 ‘탐구활동’은 긍정 반응이 70%가 넘었다. ‘인성’과 관련된 평가항목들은 대부분 긍정 반응이 40%에 미치지 못하였다. 특히, ‘인성’ 관련 평가항목들은 부정 반응도 상대적으로 높아 ‘인성’의 평가항목들이 과목 선택권 확대와 연관성이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인성’이 주로 학생의 태도와 관련 평가에 주안점을 둔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수준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발전가능성’은 평가항목에 따라 반응이 나뉘었는데 ‘경험의 다양성’(72.0%)과 ‘자기주도성’(69.9%)은 비교적 높은 긍정 반응을 보인 반면, ‘리더십’(39.1)과 ‘창의적 문제해결력’(57.3%)로 상대적으로 낮은 긍정 반응을 보였다.

나) ‘학생참여형 수업활동 강화’에 미치는 영향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마찬가지로 <표 III-16>에 제시된 평가요소별 평가항목을 서류평가에 활용하는 것이 학생참여형 수업활동 강화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평가항목별 조사결과는 <표 III-47>과 같다. ‘도움됨’과 ‘매우 도움됨’을 긍정 반응으로, ‘별로 도움 안됨’과 ‘전혀 도움 안됨’을 부정 반응으로 구분한 것으로, 각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된 결과는 <부록>을 참고하라.

<표 III-47>의 결과를 보면 ‘인성’의 평가항목인 ‘도덕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긍정 반응이 60% 수준을 넘고 있다. ‘학업역량’의 평가항목 중 정량적 평가지표인 ‘학업성취도’만 긍정 반응이 약 64%로 약간 낮을 뿐 ‘학업태도와 학업의지’와 ‘탐구활동’은 긍정 반응이 80% 수준으로 매우 높았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과목 선택권에 대한 긍정 반응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전공적합성’의 평가항목들의 경우는 과목 선택권에서는 긍정 반응이 ‘학업역량’보다 약간 높았으나, 참여형 수업활동에서는 소폭 낮게 나타났다.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와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은 긍정 반응이 75%를 넘어 비교적 높았으나,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는 긍정 반응이 약 68%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학업역량’의 평가항목에서도 정량화 지표 성격이 강한 ‘학업성취도’가 정성적 지표 성격인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탐구활동’보다 낮은 긍정 반응을 보인 것과 마찬가지로 ‘전공적합성’에서도 정량화 지표 성격이 강한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것은 흥미롭다.

<표 Ⅲ-47> 평가항목이 ‘학생 참여형 수업활동 강화’에 미치는 영향

평가요소	평가항목	부정 반응(%)	긍정 반응(%)	상대비
학업역량	학업성취도	11.6	63.9	5.51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6.9	80.8	11.71
	탐구활동	5.6	80.5	14.38
전공적합성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8.7	68.3	7.85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6.9	75.5	10.94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6.3	79.4	12.60
인성	협업 능력	8.4	71.3	8.49
	나눔과 배려	14.3	61.2	4.28
	소통능력	11.1	67.3	6.06
	도덕성	20.3	44.6	2.20
	성실성	11.1	63.4	5.71
발전가능성	자기주도성	6.8	76.8	11.29
	경험의 다양성	7.1	73.9	10.41
	리더십	10.6	62.8	5.92
	창의적 문제해결력	10.0	70.1	7.01

‘인성’의 평가항목에 대한 긍정 반응을 살펴보면, ‘도덕성’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항목들은 학생 참여형 수업활동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 반응이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에 살펴보았던 과목 선택권 확대에 미치는 영향과는 다른 결과이다. 과목 선택권 확대와 관련하여 ‘인성’과 관련된 평가항목들이 대체로 긍정 반응이 낮았던데 반해, 학생 참여형 수업활동 강화에서는 ‘인성’과 관련된 평가항목들도 긍정 반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평가가 과정 중심의 평가를 강조해 왔고, 학생 참여형 수업활동이 과정 중심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과목 선택권 확대와는 무관해 보였던 ‘인성’의 평가항목인 ‘협업 능력’, ‘소통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 등도 참여형 수업활동 강화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바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발전가능성’도 네 개의 평가항목 모두 긍정 반응이 60% 이상으로 비교적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었다. 항목별 긍정 반응을 보면 ‘자기주도성’(76.8%), ‘경험의 다양성’(73.9%), ‘창의적 문제해결력’(70.1%) 순으로 높았으며, ‘리더십’ 항목도 긍정 반응이 62.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앞서, 과목 선택권 확대에 대한 ‘리더십’의 긍정 반응이 39.1%이었던 점에 비춰 볼 때, 참여형 수업활동 강화에서 보인 긍정 반응은 흥미롭다.

6) 평가요소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의 적절성

평가요소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대학들이 평가요소와 관련된 용어로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 19개를 선택하여 적절성을 조사하였다. 조사에 사용된 용어와 조사 결과는 <표 III-48>과 같다. <표 III-48>은 5점 척도로 조사된 결과를 ‘적절’과 ‘매우 적절’을 긍정 반응으로, ‘부적절’과 ‘매우 부적절’을 부정 반응으로 구분한 것이다. 각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된 결과는 <부록>을 참고하라.

<표 III-48> 평가요소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의 적절성

문항	부정 반응(%)	긍정 반응(%)	상대비
1) 계열적합성	7.1	71.5	10.07
2) 공동체역량	10.8	67.3	6.23
3) 발전가능성	8.2	70.7	8.62
4) 학업역량	1.3	89.2	68.62
5) 활동역량	10.0	65.9	6.59
6) 소통능력	12.1	59.6	4.93
7) 전공계열적합성	7.6	75.7	9.96
8) 창의융합역량	17.2	50.4	2.93
9) 사회성	15.1	56.2	3.72
10) 지적활력	17.2	52.8	3.07
11) 성장잠재력	9.8	63.8	6.51
12) 학업충실성	2.6	88.4	34.00
13) 자기주도성	6.3	76.5	12.14
14) 전공적합성	4.7	78.6	16.72
15) 인성	15.8	60.2	3.81
16) 탐구역량	8.9	70.0	7.87
17) 잠재역량	16.6	52.5	3.16
18) 자기계발역량	10.0	65.5	6.55
19) 전공준비도	8.7	64.9	7.46

<표 III-48>에 제시된 19개의 용어를 그 의미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이전 연구에서

제시하였던 4개의 평가요소로 구분하면 <표 Ⅲ-49>와 같다.

<표 Ⅲ-49> 조사에 사용된 용어 분류

평가요소	조사에 사용된 용어
학업역량	4) 학업역량 10) 지적활력 12) 학업충실성 16) 탐구역량
전공적합성	1) 계열적합성 7) 전공계열적합성 14) 전공적합성 19) 전공준비도
인성	2) 공동체역량 6) 소통능력 9) 사회성 15) 인성
발전가능성	3) 발전가능성 5) 활동역량 8) 창의융합역량 11) 성장잠재력 13) 자기주도성 17) 잠재역량 18) 자기계발역량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학업역량’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4개 용어의 긍정 반응을 보면 4)번 학업역량(89.2%), 12)번 학업충실성(88.4%), 16)번 탐구역량(70.0%), 10)번 지적활력(52.8%)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4)번 학업역량의 경우에는 선행연구 이후 현장에서 오랫동안 사용한 이유로 가장 높은 긍정 반응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12)번 학업충실성이란 용어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긍정 반응이 4)번 학업역량에 근접한 수준임을 볼 때 평가요소의 용어로 고려할 만하다. 16)번 탐구역량과 10)번 지적활력의 경우 평가요소의 용어로는 상대적으로 긍정반응이 낮았다.

‘전공적합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4개 용어의 긍정 반응을 보면 14)번 전공적합성(78.6%), 7)번 전공계열적합성(75.7%), 1)번 계열적합성(71.5%), 19)번 전공준비도(64.9%)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14)번 전공적합성의 경우도 앞선 학업역량과 마찬가지로 선행연구 이후 현장에서 오랫동안 사용한 이유로 가장 높은 긍정 반응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7)번 전공계열적합성과 1)번 계열적합성이 기존의 ‘전공적합성’에 근접한 수준의 긍정 반응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대체 용어로 검토할 만하다. 19)번 전공준비도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긍정 반응이 나타났다.

‘인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4개 용어의 긍정 반응을 보면 2)번 공동체역량(67.3%), 15)번 인성(60.2%), 6)번 소통능력(59.6%), 9)번 사회성(56.2%)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눈에 띄는 점은 ‘인성’의 의미를 포함하는 용어들은 ‘학업역량’이나 ‘전공적합성’과는 다르게 긍정 반응이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학업역량’과 ‘전공적합성’이란 용어가 선행연구 이후 오랫동안 사용한 이유로 각각 89.2%와 78.6%라는 높은 긍정 반응을 보인 것과는 달리, 15)번 인성이란 용어의 긍정 반응이 60.2%로 두 용어보다 현저히 낮았다. 오히려 2)번 공동체역량의 긍정 반응이 약 67%로 인성보다 7% 정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15)번 인성의 경우는 부정 반응이

약 16%로 2)번 공동체역량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6)번 소통능력이나 9)번 사회성은 긍정 반응이 60%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정 반응도 10%를 넘었다.

선행연구의 ‘발전가능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7개 용어의 긍정 반응을 보면, 13)번 자기주도성(76.5%), 3)번 발전가능성(70.7%), 5)번 활동역량(65.9%), 18)번 자기계발역량(65.5%), 11)번 성장잠재력(63.8%), 17)번 잠재역량(52.5%), 8)번 창의융합역량(50.4%) 순이다. ‘발전가능성’의 의미를 포함한 용어의 경우 13)번 자기주도성의 긍정 반응이 76.5%로 가장 높았다. 앞서 살펴본 ‘인성’의 경우처럼 3)번 발전가능성도 지난 연구부터 널리 사용됐음에도 불구하고 13)번 자기주도성보다 낮은 긍정 반응을 보인 점이 특이하다. 그 밖에도 5)번 활동역량과 18)번 자기계발역량, 11)번 성장잠재력 등이 60% 이상의 긍정 반응을 보였으며, 17)번 잠재역량과 8)번 창의융합역량은 긍정반응이 5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2. 델파이조사

가. 델파이조사 개요

1) 조사 설계

이번 델파이조사는 학생부종합전형 공통 평가요소 및 항목 개선 연구를 목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고등학교 교사 및 교육청 장학사, 대학입학사정관으로 대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2024학년도 이후 학교생활기록부 등 평가자료 변화에 따른 고교 및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대응에 대한 개방적 질문과 4개 평가요소 별 평가방향과 평가요소 재구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고, 2021년 12월 30일부터 2022년 1월 9일까지 진행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교사 대상 설문조사와 1차 델파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객관식 혼용 질문을 구성하였고, 1월 28일부터 2월 7일까지 진행하였다. 온라인으로 개별 이메일을 통해 델파이 조사지를 발송하고 회신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2) 전문가 집단 선정 및 특성

III. 실태조사

텔파이 조사는 고교 교사 및 교육청 소속 15명, 대학입학사정관 13명 등 총 28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 진행하였으며, 회수율은 2차례 모두 100%였다. 고교 교사 및 교육청 소속 장학사와 대입지원관은 진로진학에 경험이 많은 인원을 선정하였고, 대학입학사정관은 지역적 고려를 통해 대학을 대표할 수 있는 경력이 많은 입학사정관을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표본으로 선택된 15개 교사 및 교육청의 소재지와 유형별 특성은 <표 III-50>과 같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과 지역이 골고루 배정되었으며 고교 교사 10명, 교육청 소속 장학사 및 대입지원관 5명으로 구성하였다.

<표 III-50> 텔파이 조사 응답자 현황: 고교 및 교육청

구분	세부 항목	N	%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	5	33.3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	4	26.7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3	20.0
	전라/제주권(광주, 전남, 전북, 제주)	3	20.0
설립 유형 및 근무 유형	국·공립학교 교사	7	46.7
	사립학교 교사	3	20.0
	지역교육청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3	20.0
	지역교육청 대입지원관	2	13.3

이번 텔파이 조사에 응답한 대학 입학사정관 13명의 특성은 <표 III-51>과 같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의 지역 분포를 고려하여 입학사정관 중 수도권 대학 소속 비율을 46.2%로 구성하였다.

<표 III-51> 텔파이 조사 응답자 현황: 대학

구분	세부 항목	N	%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	6	46.2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	2	15.4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3	23.1
	전라/제주권(광주, 전남, 전북, 제주)	2	15.4

3) 텔파이 조사 문항 구성

이번 델파이 조사지는 2회 차로 구성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참조하여 설계하였으며, 문항 구성은 아래 <표 III-52>와 같다. 1차 델파이조사에서는 우선 정부의 대입전형 공정성 확보 방안에 따른 학생부 기재 축소, 자기소개서 폐지 등의 정책이 2024학년도 이후 고등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학의 학생부종합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주관식으로 질문하였다. 다음으로 2024학년도 서류 평가 시 공통 평가요소별 평가항목과 학생부 항목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 폐쇄형으로 문항을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평가 환경 변화에 따라 평가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평가요소와 평가항목에 대해서 질문하였고, 마지막으로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의 향후 재구성 방향에 대해 질문하였다.

2차 델파이조사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재구성에 대한 1차 델파이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문항을 제작하였으며, 기존 평가요소의 유지 여부,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의 통합 및 명칭변경 등에 대해서 폐쇄형 질문과 추가 의견을 받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표 III-52> 델파이조사 질문 문항

구분	세부 내용	질문 유형	문항수
1차	평가 자료의 변화가 학생부종합전형에 미치는 영향	개방형	3
	공통 평가항목과 학교생활기록부 항목 연계	폐쇄형	4
	향후 평가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폐쇄형	1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향후 재구성 방향	폐쇄형	2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개선 방향에 대한 건의사항	개방형	1
2차	전공적합성 평가요소 유지 및 평가방향 전환	폐쇄형	2
	발전가능성, 인성의 통합 및 평가요소 명칭 변경	폐쇄형	3
	평가항목의 해제 및 축소	폐쇄형	2

나.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

이번 델파이 조사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교육부, 2019년 11월)』에 따른 평가자료 및 기록의 축소, 2015개정교육과정의 본격적인 실시와 향후 도입될 고교학점제 등에 따른 교육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교/교육청의 입장과 대학의 입장에서 질문하고, 향후 예상되는 변화에 따라 기존의 평가요소와 평가항목을 재구성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1) 1차 델파이 조사 분석

가) 평가자료 변화에 따른 고교 교육과 학생부종합전형의 변화

본격적인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재구성에 앞서 우선 평가자료 변화에 따른 학생부종합전형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 개방형 질문을 실시하였다. 고교의 학생부종합전형 대응방향과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변화 방향에 대해 고교 교사/교육청 관계자와 대학 입학사정관에게 공통으로 질문하였다.

우선 평가자료 변화에 따른 고교의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대응 방향 예측에 대한 응답은 <표 Ⅲ-53>에서 보는 것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먼저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방식 변화 방향이다. 이는 학생부종합전형 도입 이후부터 지속되던 움직임으로 2024학년도 평가 자료 변경 이후에는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고등학교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학생들의 진로희망에 따른 교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수업 내 학생 탐구활동 참여 기회 확대와 수업 방식의 변화 등을 통해서 새로운 평가 환경에 대비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자기소개서 폐지와 학생부 기재 영역 축소에 따라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커짐에 따라 학생 개인별 흥미와 관심사에 따른 교과별 학생부 기재가 충실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학생부 항목 축소에 따라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이 급격히 위축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고, 봉사활동 축소, 정규 학술 동아리 풀림, 교내대회 축소 등의 현상이 고교현장에서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표 Ⅲ-53> 평가자료 변화에 따른 고교의 학생부종합전형 대응 방향

구분	주요 의견
학생 중심 교육과정 및 수업방식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관심을 수업과 연계하고 심화 확장하는 과정이 교육과정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판단함. -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 축소, 수업 내 학생 참여 활동이 증가함. - 진로선택과목 교과 다양성 확대 및 공동교육과정 참여 가속화 등 학교별 교육과정 특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상함. - 진로 활동의 교육활동 운영, 교과 독서 활성화, 수행평가 변화 등 학업역량 확인을 위해 수업 방식 변화를 꾀하고자 함. - 소모적인 활동보다는 본질적인 학습 과정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함. - 학생 개개인의 관심에 맞는 밀착 지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함.

구분	주요 의견
교과 세특 기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는 다양한 수업의 적용과 학생중심수업 내실화를 꾀하고, 수업을 통해 평가요소에 부합되는 영역을 위주로 기록함. - 교과 세특 기재를 통해 수상경력과 독서활동 미기재를 대체할 수 있는 프로젝트 과제수행, 교과 독서의 확산 등이 예상됨. - 학생의 진로활동에 대한 관심을 교과 세특을 통해 구체적으로 사례를 작성하는 움직임이 확산될 것으로 보임. - 교과 세특 기재 집중에 따라 기재 내용의 신뢰성 우려도 예상되며, 학교별 준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커질 수 있음.
비교과 교육활동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부 항목 축소에 따라 다양한 영역의 활동이 축소되어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고민하거나 꿈과 끼를 탐색할 기회가 축소됨. - 학교 차원의 타 기관 연계 봉사활동 기획이 축소되고, 대입에 유리한 정규 학습 동아리 선호 현상 가속화됨. - 과도하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던 자율동아리, 봉사활동, 일부 교내대회 등은 자연적으로 쇠퇴할 것으로 예상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부 기록 항목 축소로 교사의 업무 부담 축소 예상함. - 개별 담임교사의 입시지도 역량보다 학교 차원의 교육활동 프로그램 기획 운영 역량이 이전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함.

다음으로 평가자료 변화에 따라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방향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교, 대학에 공통으로 질의하였다. 질문에 대한 답변도 <표 III-54>에서 정리한 것처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대학은 전반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 평가를 통해 학생을 변별하는데 어떤 면에서든 어려움에 부딪힐 것으로 판단하였다. 자칫하면 학생부 교과 중심의 평가에 의존할 수 있는 것에 우려하였다. 반면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교하게 학생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지침을 다듬고 교육훈련 등을 통해서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다음으로 대학의 평가가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과 함께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경험에 대해서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학교별 교육과정의 편성 특징 등을 사전에 충분하게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서류평가의 어려움으로 인해 면접 평가를 새로 도입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서류평가를 보완하고자 할 것이라는 의견도 다수 제시되었고, 정시 전형 확대 정책과 더불어 학생부종합전형의 전반적 선발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표 Ⅲ-54> 평가자료 변화에 따른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방향

구분	주요 의견
학생부 평가 방향 양상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부 간소화, 자기소개서 폐지, 기록의 상향평준화는 대학이 학생부종합전형 평가를 통해 학생들을 변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 - 지원자 변별 약화로 교과 중심의 평가 의존이 강화되고, 교과 세특의 평가 영향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개인의 주도성, 동기, 장단점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정교한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교육과정 중요도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평가에 중요성이 대두되며, 학생별 교육과정 선택 경로와 이수교과 현황 등으로 평가 방향이 전환될 것임. - 교육과정의 이해, 고교 교육과정 편성 상황을 통한 학교 유형별 교육과정 차이 등 평가를 위한 사전 학습 정밀화가 예측되며, 교수위축사정관 평가의 중요성이 높아짐.
새로운 전형방법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 신뢰도 제고와 학생의 평가 변별을 위해 면접평가 도입 및 강화 방안이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함. -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정량평가가 추가로 도입되거나 학생부교과전형에서 학생부 정성평가가 도입되는 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검토할 것으로 보임. - 학생부 평가 어려움으로 학생부종합전형 선발인원 축소가 우려됨.

다음으로 평가 자료의 변화를 앞두고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와 관련하여 고교를 대상으로는 대학에 바라는 점,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는 고교에 바라는 점을 개방형 질문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도입 등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과 ‘수업 및 평가의 변화’에 따라 2024학년도 이후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시 강조해야 할 내용에 대해 문의하였다. 주요 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교사와 교육청 응답자는 평가 자료가 축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학에서 학생부종합전형 도입 취지에 따라 학업성취도 외에 학생의 다면적인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손쉽게 평가할 수 있는 석차등급 외에도 성취도 평가와 선택교과목 이수 현황, 이수자수, 교육과정 편성 현황 등의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고교 간의 수업 방식의 격차,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 학생부 기재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고교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장, 위계에 맞지 않은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생부 기재가 축소되더라도 독서활동이나 봉사활동 등 교육적인 의미를 가진 활동이 축소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응답을 하였다.

<표 III-55>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변화에 따라 대학/고교에 바라는 점

구분	주요 의견
대학에 바라는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취지에 따라 평가 자료가 줄어들더라도 학업역량 측정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학생의 역량과 경험을 다면적이고 세밀하게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함. -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고교에 공개하는 고교-대학연계 과정의 강화가 필요함. - 고등학교와 고교 교육과정, 교과별 수준과 과목 위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등 기본적인 자료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 - 학교 환경에 따라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이 쉽지 않은 만큼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한계가 개별 학생의 불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진로선택과목 평가 시 성취평가제 도입에 따라 성취도 외에 성취도별 분포 비율, 원점수, 과목평균, 이수단위 및 이수자 등 다양한 평가 자료를 충실히 판단하여 평가해야 함. - 학생부 기록의 검증과 확인을 위해 면접평가 1단계 선발 배수를 늘리고 다양한 방법의 면접전형 도입을 통해서 학생 역량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 - 평가 자료가 축소되더라도 학생부종합전형 모집인원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적정 평가인원 확보 및 정규직화 등의 행정적인 노력을 추가해야 할 것으로 보임.
고교에 바라는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방식의 변화와 학생별 학생부 기록 개별화 등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부 기재 방향 개선 노력이 여전히 필요함. - 교육과정 운영에서 과목명과 교육내용 불일치 사례를 줄이고, 학생의 과목 선택에 대한 권한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수업 활동 등에서 진행되지 않은 내용을 과장해서 기재하거나 소위 셀프 학생부를 통해 학생이 내용을 기재하는 등의 사례는 없었으면 함. - 학생부 기재 영역이 줄어들더라도 학생의 소양을 개발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이 지속되기를 바람.

나) 공통 평가항목과 학교생활기록부 항목의 연계

다음은 2024학년도 이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영역 축소 이후 기존의 공통 평가항목과 학생부 항목의 평가 연계와 관련된 질문을 하였다. 총 4개 평가요소의 세부 15개 평가항목의 세부 설명을 제시하고, 각각의 평가요소와 평가항목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떤 항목을 통해 평가 가능한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학교생활기록부 항목은 출결상황,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총 7가지 항목을 제시하였다. 학생부 기재 간소화 및

Ⅲ. 실태조사

상급학교 미제공 결정에 따라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진로희망사항, 독서활동상황 항목은 설문문항에서 제외하였다.

1개 평가항목 당 학교생활기록부 7개 항목 중 최대 3개만 선택하도록 하였고, 중요도에 따라 각각 3, 2, 1점을 부여하여 최대 6점을 넘지 않도록 안내하였다. 평가가 불가하다고 판단할 경우 ‘평가불가’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전체 응답자 별 점수 총점을 제한하여 일부 응답자의 점수 부여 양상에 따라 과도한 점수가 나오는 등 전체 응답이 왜곡되는 상황을 막고자 하였다.

텔파이조사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학업역량 내 3개 평가항목에 대한 의견은 <표 Ⅲ-56>과 같다. 학업역량은 ‘교과학습발달상황’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평가 가능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두 항목은 학업성취도 전체 점수의 90.0%, 학업태도와 학업의지의 72.7%, 탐구활동의 55.3%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학업태도와 학업의지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서 14.3%, 탐구활동은 ‘동아리 활동’ 16.8%, ‘진로활동’ 15.5%의 순으로 많은 점수를 받았다.

<표 Ⅲ-56> ‘학업역량’ 평가항목 별 평가 가능한 학생부 항목 점수 비율

(단위: %)

평가요소	평가항목	출결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교과	세특	행특	평가불가
학업역량	학업성취도	2.0	0.0	1.3	0.0	4.0	54.7	35.3	2.7	0.0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0.6	4.3	1.2	0.0	6.8	24.2	48.4	14.3	0.0
	탐구활동	0.0	6.2	16.8	0.0	15.5	9.9	45.3	6.2	0.0

전공적합성 평가항목별 점수 부여 총점에 대한 결과는 <표 Ⅲ-57>과 같다.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항목에서는 ‘교과학습발달상황’ 55.0%,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34.2%로 총 89.3%로 학업역량의 학업성취도 항목과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평가항목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42.0%로 가장 높았고, ‘교과학습발달상황’ 19.2%, ‘진로활동’ 19.1%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은 ‘진로활동’ 32.3%, ‘동아리활동’ 31.1%,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23.4%로 학생부 여러 항목에서 고루 평가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57> '전공적합성' 평가항목 별 평가 가능한 학생부 항목 점수 비율

(단위: %)

평가요소	평가항목	출결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교과	세특	행특	평가 불가
전공 적합성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0.0	0.0	2.7	0.0	6.0	55.0	34.2	2.0	0.0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0.0	3.7	9.3	0.0	19.1	22.2	42.0	3.7	0.0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0.0	8.4	31.1	0.0	32.3	4.8	23.4	0.0	0.0

인성 평가항목에 대한 질문에서 협업능력은 <표 III-58>에서 보듯이 '동아리활동' 29.0%,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27.8%, '자율활동' 20.4%,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19.8% 등으로 학교생활기록부 항목 전반에서 골고루 점수를 받았다. 나눔과 배려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37.5%)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다음으로 '봉사활동' (31.3%), '자율활동' (12.5%)순이었다. 소통능력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33.1%), '동아리활동' (23.0%), '자율활동' (21.6%) 순이었다. 도덕성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54.2%)에서 평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성실성은 '출결상황' (33.3%),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32.0%), '세부능력 및 종합의견' (12.9%) 순으로 고르게 점수가 분포했다.

<표 III-58> '인성' 평가항목 별 평가 가능한 학생부 항목 점수 비율

(단위: %)

평가요소	평가항목	출결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교과	세특	행특	평가 불가
인성	협업 능력	1.2	20.4	29.0	1.9	0.0	0.0	19.8	27.8	0.0
	나눔과 배려	0.0	12.5	8.3	31.3	0.0	0.0	9.7	37.5	0.7
	소통능력	0.0	21.6	23.0	0.0	0.7	0.0	20.9	33.1	0.7
	도덕성	3.7	14.0	0.9	14.0	0.0	0.0	9.3	54.2	3.7
	성실성	33.3	10.9	4.1	3.4	0.0	3.4	12.9	32.0	0.0

Ⅲ. 실태조사

발전가능성 평가항목은 대체로 학교생활기록부 항목 곳곳에서 평가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표 Ⅲ-59>에서 자기주도성은 ‘동아리활동’ (23.9%),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22.7%), ‘자율활동’ (22.3%)순으로 점수를 매겨 학업 영역과 비학업 영역에서 골고루 평가한다고 응답하였다. 경험의 다양성은 ‘동아리활동’ 25.9%, ‘진로활동’ 25.3%, ‘자율활동’ 23.5% 등 비학업 영역에서 많은 점수를 받은 반면 학업영역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다. 리더십은 ‘자율활동’ (30.5%),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31.1%), ‘동아리활동’ (23.8%)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창의적 문제해결력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32.2%, ‘동아리활동’ 18.8%, ‘자율활동’ 16.7% 순으로 평가에 반영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Ⅲ-59> ‘발전가능성’ 평가항목 별 평가 가능한 학생부 항목 점수 비율

(단위: %)

평가요소	평가항목	출결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교과	세특	행특	평가 비율
발전 가능성	자기주도성	0.6	23.3	23.9	1.8	11.0	8.6	22.7	8.0	0.0
	경험의 다양성	0.0	23.5	25.9	1.9	25.3	0.6	19.8	3.1	0.0
	리더십	0.0	30.5	23.8	1.3	2.6	0.0	10.6	31.1	0.0
	창의적 문제해결력	0.0	16.7	18.8	0.0	10.1	1.4	36.2	14.5	2.2

결론적으로 4가지 평가요소 중 학업역량은 대부분 학생부의 교과영역에서 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전공적합성 평가항목 중에서는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와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평가항목에서는 교과영역과 일부 ‘진로활동’에서 주로 평가했으나,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은 창체활동과 교과영역에서 골고루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에서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항목과 창체활동 전반에서 골고루 평가되는 경향이 뚜렷했고, 평가항목별로 창체활동 영역별 비율이 조금씩 달랐다. 발전가능성에서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세부능력 및 종합의견’ 등 평가항목별로 교과영역과 비교과영역의 다양한 항목에서 평가가능하다고 응답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평가요소/평가항목별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의 어려운 점

이번 질문에서는 기존의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별로 2024학년도 학생부 기재 변화 및 자기소개서 폐지 정책에 따라서 향후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지 질문하였다. 평가가 어려운 정도에 따라 ‘① 전혀 어렵지 않음’에서부터 ‘⑤ 매우 어려움’으로 5단계로 구분하여 각각 점수를 매기도록 하였다. <표 III-6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가에 어려운 순서는 인성, 발전가능성, 전공적합성, 학업역량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성에서는 고교와 대학 모두 공통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발전가능성에서는 고교에서는 평가가 어렵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대학은 평가에 어렵다는 의견이 훨씬 많았다. 전공적합성과 학업역량은 대체로 평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III-60> 평가요소 별 평가 어려운 정도

평가요소	고교/교육청	대학 입학사정관	전체
학업역량	1.9	2.8	2.3
전공적합성	2.6	2.3	2.5
인성	3.3	3.5	3.4
발전가능성	2.8	3.4	3.1

다음으로 평가요소 내 평가항목별로 새로운 평가체제에서 평가하기 어려운 정도에 대해 질문했을 때 다음 <표 III-61>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학업역량의 3개 평가항목이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 학생부 기록 변화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비교적 어렵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반적으로 고교/교육청 수준에서는 2.0~2.1점 수준으로 평균 이하로 나타났으나 입학사정관은 2.5~2.9 점대로 판단하여 평균 이하 점수이지만 고교에 비해서 입학사정관은 평가에 어려움이 일부 있을 것으로 판단한 점이 차이를 보인다. 이는 블라인드 평가 정책 도입, 진로선택 과목의 성취도평가 확산 등에 따른 학업역량 평가에 대한 일부 부담감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특히, 입학사정관은 탐구활동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전공적합성 평가항목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자기소개서 폐지와 수상실적 미제공 등의 학생부 기재 변화가 탐구활동 평가의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Ⅲ. 실태조사

전공적합성 평가항목 중에서는 전체적으로는 학업역량과 큰 점수 차이는 없었다. 전반적으로 인성, 발전가능성에 비해 비교적 평가하기가 용이하다는 의견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성 평가항목 중에서는 전반적으로 도덕성(3.5점), 나눔과 배려(3.2점), 소통능력(3.0점) 순으로 평가가 어렵다고 답변했으며, 협업능력(2.7점)과 성실성(2.7점)은 비교적 평가가 어렵지 않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입학사정관은 도덕성(3.8점)을 상대적으로 가장 평가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발전가능성 평가항목은 전체적으로는 창의적 문제해결력(3.2점)이 보통 이상 점수를 차지하여 그 중에서 가장 평가가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입학사정관은 경험의 다양성(3.4점)이 가장 평가가 어려운 평가항목이라고 답하였다.

<표 Ⅲ-61> 평가항목 별 평가 어려운 정도

평가요소	평가항목	고교/교육청	입학사정관	전체
학업역량	학업성취도	2.1	2.6	2.3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2.1	2.5	2.3
	탐구활동	2.0	2.9	2.4
전공적합성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2.1	2.6	2.4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2.7	2.2	2.4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2.6	2.3	2.5
인성	협업 능력	2.7	2.7	2.7
	나눔과 배려	3.1	3.3	3.2
	소통능력	2.7	3.3	3.0
	도덕성	3.3	3.8	3.5
	성실성	2.7	2.7	2.7
발전가능성	자기주도성	2.6	3.0	2.8
	경험의 다양성	2.4	3.4	2.9
	리더십	2.5	2.5	2.5
	창의적 문제해결력	2.7	2.7	3.2

라) 평가요소/평가항목 수정 보완이 필요한 점

텔파이조사에서는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의 재구성에 앞서 기존 4가지 평가요소의 정의와 평가항목 별 정의 및 세부 질문을 함께 제시하고,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 설명이 새로운 평가 환경에서 활용되기에 적절한지,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점인지를 주관식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우선 학업역량 평가요소에 대해서는 대부분 개선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3가지 평가항목에 대한 의견은 다음 <표 III-62>에서 제시하였다. ‘학업성취도’에 대한 의견으로는 교육과정 개편, 다양한 교과목 선택, 성취평가제 도입에 따라 기존의 석차등급 위주의 정량적 평가에서 벗어나 개인별 교육과정 선택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학업태도와 학업의지’에 대해서는 자기소개서 폐지에 따라 학생부만으로 학업의지를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일부 세부질문의 중복이 있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되었다. ‘탐구활동’에 대한 의견에서 탐구활동 용어 자체가 초기 학생부종합전형 시기에 교과목 외 별도의 심화된 활동의 성과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III-62> 학업역량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수정·보완 의견

구분	주요 의견
[평가요소] 학업역량	- 학업역량을 교과영역에 간혀서 정량평가 위주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학생부 전체 영역을 통한 연계성에 초점을 두고 평가해야 함.
[평가항목] 학업성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성취 평가를 석차등급 중심으로 평가하지 않고 고교학점제, 성취평가제 도입에 따른 평가 항목의 조정과 보완이 필요함. - 등급 산출과목과 등급 미산출 과목에 대한 구체적이고 공정한 평가지침이 제시되는 것이 필요함. - 학업성취도 항목에서는 주요 교과나 희망전공에 따른 계열별 구분에 국한하지 않고 전 과목을 통해 평가할 수 있어야 함. - 선택형 교육과정에 맞게 이수자 수, 과목 선택, 이수 경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선택형 교육과정이 확대됨에 따라 학년별 성적 추이(특히 3학년 이후)는 의미가 없으므로 성적 추이에 대한 지침도 적절히 변경되어야 함.

Ⅲ. 실태조사

구분	주요 의견
[평가항목]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술만으로 학업의지(자발성, 주도성, 적극성)를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함. - 학교 미개설 과목을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 이수한 경험 등을 적절히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함. - 탐구활동과 학업태도와 학업의지의 일부 내용은 겹치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여 중복되는 개념은 통합 정리하는 것이 필요함.
[평가항목] 탐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구활동이라는 개념은 기존 창의적체험활동이 강조되던 시절의 이미지가 강하며, 화려한 활동의 경험과 성과를 너무 강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봄. - 용어 자체가 주는 어감이 수업 내용을 넘어서 심화 내용이라는 느낌이 강하여 탐구활동보다는 수업활동의 개념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함. - 탐구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뚜렷한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더라도 성과를 이루기 위한 과정도 중요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함.

다음은 전공적합성 평가요소와 평가항목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의견을 정리하였으며, 주요 의견은 아래 <표 Ⅲ-63>과 같다. 먼저 평가요소인 전공적합성 용어와 정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전공’이라는 대학의 개념을 고등학교 수준에서 얼마나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담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전공적합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고등학교 입학 당시부터 희망 대학전공을 정하고 모든 활동을 해당 전공에 맞춰서 실시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는 응답이 많았다. 따라서, 전공적합성 개념을 계열적합성 개념으로 확장하거나 대학의 전공에 맞춘 활동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 자체를 평가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대학 전공에서 필요로 하는 고등학교 과목을 너무 좁게 특정하지 않고, 학생들이 이수한 과목이 대학 전공에서 수학하기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평가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를 판단할 때 전공 관련 교과목을 교과목 위계에 맞게 이수했는지, 교내 과목 선택이 제한된 학생들이 공동교육과정 이수 등을 통해 노력하는 점이 보이는지 등도 보완해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전공적합성 평가를 잘 받기 위해 교육과정을 원칙에서 어긋나게 편성하고 교과 위계를 무시한 채 심화 과목을 많이 이수한 것이 마치 전공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사례가 없도록 평가 지침을 수정·보완하자는 의견이다. 전공적합성 개념이 대학 수준의 공부나 활동 경험을 고교에서 미리 체험한다는 점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자는 뜻이기도 하다.

<표 III-63> 전공적합성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수정·보완 의견

구분	주요 의견
[평가요소] 전공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평가요소로서 전공적합성을 선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특정 전공이라는 협의의 관점을 조금 넓히기를 바람. -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공에 적합한 활동과 과목을 특정하기는 쉽지 않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경험하고 성장한 학생들이 입학 후 진로 확장성이 높다고 판단함. - ‘전공적합성’ 용어보다는 ‘진로성취도’와 같이 학생의 진로 탐색 노력을 평가하는 용어 변경이 바람직함. - 고등학생이 1학년부터 전공을 결정하고 3년 간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본다면, 전공적합성보다는 계열적합성 등으로 용어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함. - 전공적합성을 4개 요소에서 삭제하고 학업역량의 하부 요소로 재구성함.
[평가항목]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전공이라는 협의의 관점보다는 광의의 관점을 적용하여 전공 과목이라는 표현을 활용하였으면 함. - 고교학점제 시행 취지에 따라 선택한 교과가 전공학과와의 관련성이 있다 없음을 명확히 따지기보다는 학생이 선택한 전반적인 교과목이 해당 학과에서 수학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 - 전공 관련 수강한 과목이 얼마나 되는가와 같은 양적 지표가 아닌 수강한 과목은 적절한가와 같은 정성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교내에서 개설된 과목을 충분히 이수한 점도 중요하지만, 교내 선택이 제한되어 있는 학생이 공동교육과정 이수 등을 통해 이수한 노력 등도 평가에 반영해야 함. - 이수과목은 교과목 위계에 맞게 이수하였는가와 같이 이제 단순히 교과목 이수와 성취의 양적인 측면만큼 이수 경로와 위계를 정성적으로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함.
[평가항목]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에 대한 관심을 ‘계열’ 적합의 관점에서 넓게 보았으면 함. - 1학년 때부터 전공을 정하고 이를 변경하지 않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본인의 흥미와 적성을 탐색하는 과정을 보이는가’와 같이 진로관련 활동을 잘 해나가는지에 평가의 초점을 맞추기를 바람. -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전공 관련 경험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해서 두 평가항목이 일부 중복되므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평가항목]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적으로 대학의 다양한 전공을 고교에서 모두 관련된 활동으로 만들 수 없고 이를 억지로 맞추려면 부작용이 발생함. 따라서, 전공 중심보다는 계열 중심이나 진로탐색 중심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이 현재 정의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국한된 개념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공 교과 관련 활동까지 넓힐 필요가 있음.

다음은 인성 평가요소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고, 주요 의견은 <표 Ⅲ-64>와 같다. 인성 항목의 평가는 학생부종합전형이 다른 대입전형과 명확히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대학은 인성 항목을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고교에서 학업 외에 전반적인 영역에서 충실한 학생을 선발한다는 메시지를 주었다. 다만,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봉사활동의 많은 부분이 대학에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성 영역의 평가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점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다른 평가요소에 비해 인성 아래의 평가항목이 5가지로 많은 편으로 개념이 서로 겹치는 부분도 있으며, 각 항목별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통해서 일일이 사례를 찾아내서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특히 ‘협업 능력’과 ‘소통 능력’은 개념은 조금 다르지만 평가항목을 합쳐도 평가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과 ‘도덕성’ 항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통해서 대학에서 평가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인성이라는 개념이 ‘착함’으로 대변되는 개인적인 특성이라는 측면에서 고등학교 교육으로 범위를 좁혀 ‘공동체의식’ 등으로 범위를 한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욱 명확한 이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전반적으로 기존의 인성 평가항목은 개념적으로, 학문적으로는 잘 짜인 평가항목으로 판단하지만, 실제 대학이 지원자를 변별하여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다수 응답자가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Ⅲ-64> 인성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수정·보완 의견

구분	주요 의견
[평가요소] 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성은 사회 구성원으로 반드시 필요한 자질이며 평가요소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학생부 기재 변경 이후에는 평가에 한계가 있어서 반영 비율이나 방식의 변화도 고려할만함. - 인성이라는 용어는 너무 넓은 영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공동체의식, 사회성, 공동체역량 등과 같이 범위를 조금 좁혀서 제시한다면 이해가 빠를 것으로 보임. - 인성의 5가지 평가항목의 경우 다른 평가요소에 비해서 많은 편이며, 개념이 서로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학생부 자료를 통해서 평가항목별로 일일이 사례를 찾아내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으므로 어느 정도 통합이 필요함.
[평가항목] 협업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업능력, 소통능력, 나눔과 배려의 경우 하나로 융합하는 것이 평가의 효율성 및 정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공동과제나 단체활동 등을 통해 구성원들로 좋은 동료로 인정받고 있는가와 같은 세부 질문은 실제 평가에서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삭제해도 무방함.

구분	주요 의견
[평가항목] 나눔과 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을 이해하기 위한 자질, 활동 의지, 구성원 신뢰 여부 등의 경우 외적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는 학생부를 통해 평가하기 다소 어려움. -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평가하는 개념으로 보이는데, 봉사활동을 예시로 명시하는 방법은 어떠한가?
[평가항목] 소통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통능력은 창체활동 기록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공동체 의식의 하부 요소로 재구조화는 것이 바람직함. - 소통능력은 학생부 상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나기 어려운 항목으로 사료되며, 세부설명에서 협업능력과 상통하고 있어서 통합하는 것도 필요해 보임. - 학생부 기재 주체인 교사의 성향에 따라 기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정적인 기록이 발견되면 감점할 소지는 있으나 가점으로 작용하기엔 한계가 있어 보임.
[평가항목] 도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성 개념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학생부 기재를 통해서 대학에서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함. - 서류평가에서 평가하기보다는 면접 등을 통해 실제적인 확인이 필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함. - 평가의 기본 원칙이 기록을 통해 관찰 가능하고 측정이 가능한지를 봐야 하는데, 도덕성 평가항목은 두 가지를 만족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함. - 학교폭력 등 특별한 사례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변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항목 삭제도 고려해 볼만함. - 도덕성 항목보다는 실제적인 학교생활에서 관찰 가능한 규칙준수 정도의 용어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음.
[평가항목] 성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수업과 출결상황에서 충분히 객관적인 확인이 가능하게 때문에 타당도 면에서는 문제는 없으나 지원자 간 변별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성실성은 출결로 한정지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출결은 물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행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개념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임.

발전가능성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에 대한 수정·보완 의견은 아래 <표 III-65>와 같다. 발전가능성은 다른 평가요소에 비해서 개념이 모호하고 다른 평가요소의 세부 내용과 유사한 지점, 겹치는 점이 다수 보여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평가항목 중 ‘경험의 다양성’은 전공적합성이라는 개념과 상충되어 학생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어 모든 학생 대상의 독립적인 평가항목으로 적절한지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창의적 문제해결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대단히 필요한 덕목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개념의 모호성이 있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통해 객관적으로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지, 교사의 기재만으로 서류평가에서 명확히 학생 간의 변별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표 Ⅲ-65> 발전가능성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수정·보완 의견

구분	주요 의견
[평가요소] 발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라는 보편적인 개념에는 동의하지만 고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토대로 한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지 못한 점이 아쉽기에 구체적인 개념 재정립이 필요함. - 발전가능성 개념이 학업역량과 별도로 생각하기 어려운데 리더십 등 다른 항목과 함께 제시되어 비학업적 측면만 강조되는 느낌임. - 발전가능성 평가요소는 자기주도성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떠할지. - 발전가능성은 다양한 창체활동의 경험과 교과 성적의 결합을 통해 가늠하는 추상적인 개념임. 학교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만큼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한계점도 인정해야 함. - 실질적인 수행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평가방향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는 개념임.
[평가항목] 자기주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관찰해야 하는 항목이 자기주도성이라고 생각하나 학업역량의 ‘학업태도와 학업의지’와 중첩되는 개념이 보임. 실제 자기주도성을 교과와 비교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재검토가 필요함.
[평가항목] 경험의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부 기재 변경에 따라 학생의 개별적 경험과 역량을 깊게 판단할 수 있는 요소를 상실했다고 판단함. - 경험의 다양성은 전공적합성 개념과 상충하는 부분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으며, 전공적합성과 경험의 다양성을 모두 요구하고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줄 가능성이 있음. - 경험의 다양성보다는 경험의 확장성이 강조되었으면 함.
[평가항목]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더십 발휘 경험을 단순히 정량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지 않아야 하며, 이를 세부 지침을 통해서 구현해야 함. - 리더십 항목은 ‘발전가능성’ 영역보다는 ‘인성’ 영역에 포함되어야 하는게 적절하지 않은지 검토가 필요함.
[평가항목] 창의적 문제해결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문제해결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나 고교 입장에서는 이를 기재하기 어렵고 대학에서도 평가하기 쉽지 않은 항목이라고 판단함. - 모든 학생들에게 ‘창의성’을 강조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한, 학생부 기재 기록만으로 모든 학생에게 평가가 가능할지 검토가 필요함. - 지필고사나 주어진 문제를 창의적으로 풀이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역량으로 판단할 수 있음. 창의적 사고, 창의적 문제해결력은 교사와 학생들이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개념이라고 판단함.

마)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재구성

다음 질문으로 평가요소를 재구성한다면 어떻게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를 함께 문의하였다. 일부 응답자는 제시된 객관식 항목에 중복 표시를 했고 연구진은 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전체 응답자수(28명)보다 많은 숫자가 표시되기도 하였다.

먼저 학업역량에서는 고교 응답자 15명 중 11명이 현행 유지 의견을, 대학 응답자 13명 중 10명이 현행 유지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은 다음 <표 III-66>과 같다. 학업역량 평가요소는 다른 평가요소에 비해 변경할 여지가 가장 없다는 의견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수의견으로는 학업역량과 전공적합성 평가요소를 통합하자는 의견, 학업역량이 교과성적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음으로 평가항목 재구성에 대한 의견도 3개 평가항목 모두 현행 유지가 28명 의견 중 19~22명으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학업성취도’ 평가항목에 대한 유지 의견이 다수였으나 학생선택형 교육과정과 이수 교과목 위계 등을 고려한 학업성취도 정성적 판단이 추가적으로 개념 정립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학업성취도에 대한 명칭변경 소수의견은 ‘학업수행역량’, ‘대학수학준비도’가 제시되었다.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평가항목도 현행 유지 의견이 다수였으나, 인성의 성실성 평가항목과 통합하자는 의견, 탐구활동 평가항목의 내용 일부를 흡수하자는 의견, ‘자기주도적 학업역량’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과이수 이력과 교육과정 위계성 개념을 포함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탐구활동’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탐구(능)력’, ‘연구역량’, 또는 ‘수업활동’ 등의 용어가 적절하다는 의견,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항목과 통합하자는 의견, 탐구활동 항목을 통해 보고자 하는 모습에 대해 고민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표 III-66> 학업역량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재구성에 대한 의견

평가요소/ 평가항목	① 현행 유지	② 폐지	③ 통합	④ 분리	⑤ 신설	⑥ 명칭 변경	⑦ 기타	합계
평가요소/ 학업역량								
고교	11	-	1	-	-	2	1	15
사정관	10	-	1	-	-	-	2	13
전체	21	-	2	-	-	2	3	28

Ⅲ. 실태조사

평가요소/ 평가항목		① 현행 유지	② 폐지	③ 통합	④ 분리	⑤ 신설	⑥ 명칭 변경	⑦ 기타	합계
평가항목/ 학업 성취도	고교	12	-	1	-	-	1	2	16
	사정관	10	-	-	-	-	1	2	13
	전체	22	-	1	-	-	2	4	29
평가항목/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고교	14	-	1	-	-	-	-	15
	사정관	8	-	2	-	-	2	1	13
	전체	22	-	3	-	-	2	1	28
평가항목/ 탐구활동	고교	13	-	1	-	-	1	-	15
	사정관	6	-	3	-	-	2	2	13
	전체	19	-	4	-	-	3	2	28

다음으로 전공적합성과 평가요소에 대한 재구성 응답은 다음 <표 Ⅲ-67>과 같다. 전공적합성에서도 평가요소의 현행 유지 의견이 명칭변경 의견보다 많은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명칭변경 의견으로는 전공적합성보다 넓은 개념인 ‘계열적합성’, 진로탐색 과정이 부각되는 요소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진로성취도’, ‘진로역량’, ‘잠재적 역량’으로, 학생의 진로활동과 교과활동, 학교생활 충실도를 모두 반영한다는 개념 확장의 의미로 ‘전형적합성’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3가지 평가요소에 대해서도 현행 유지 의견이 각각 18~20명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한편, 일부 통합이나 명칭변경, 폐지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공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에서는 전공이라는 용어 대신 ‘진로’라는 명칭을 사용하자는 의견, 학업역량의 세부 평가항목과 중복되는 개념이므로 합치자는 의견, 고교의 교육과정이 대학 전공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의 세부 요소로 포괄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해당 항목의 중요성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와 해당 교과 이수에 따른 성취도를 구분하여 평가항목을 재구성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평가항목에서는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과 세부내용이 겹치므로 통합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 전공이라는 세부적인 용어보다는 ‘진로에 대한 관심과 이해’라는 용어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앞의 의견과 동일하게 전공이라는 용어를 진로라는 용어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와 통합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전공 활동을 통한 정보 활용의 우수성’과 같은 명칭 변경에 대한 소수의견도 있었다.

<표 III-67> 전공적합성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재구성에 대한 의견

평가요소/ 평가항목		① 현행 유지	② 폐지	③ 통합	④ 분리	⑤ 신설	⑥ 명칭 변경	⑦ 기타	합계
평가요소/ 전공 적합성	고교	10	1	-	1	-	2	1	15
	사정관	8	-	1	-	-	2	2	13
	전체	18	1	1	1	-	4	3	28
평가항목/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고교	12	1	1	-	-	1	1	16
	사정관	8	-	-	1	-	1	2	12
	전체	20	1	1	1	-	2	3	28
평가항목/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고교	10	2	1	1	-	1	-	15
	사정관	8	-	2	1	-	-	1	12
	전체	18	2	3	2	-	1	1	27
평가항목/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고교	11	1	1	1	-	1	-	15
	사정관	7	-	2	-	-	1	1	11
	전체	18	1	3	1	-	2	1	26

인성 평가요소는 전체 응답자 28명 중에 절반인 14명이 현행유지를 선택했으나 나머지 절반은 폐지, 통합, 명칭변경 등을 통해 현재 평가요소에 대해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명칭 변경 의견으로는 ‘사회성’, ‘관계역량’, ‘공동체역량’, ‘공동체의식’ 등이 제안되었다. 통합 의견으로는 기존의 인성과 발전가능성을 통합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세부 평가항목 통합 의견도 다수 제시되었다. 인성을 학생부를 통해서 서류평가하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면접 평가 영역으로 넘기고 평가요소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을 선택한 경우도 있었다. 세부적인 의견은 <표 III-68>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협업능력’에 대한 세부 의견으로는 실제 평가 시 개념이 일정 부분 겹치는 ‘소통능력’ 또는 ‘나눔과 배려’, ‘리더십’과의 통합 제안이 있었다. 전반적으로는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한 자질, 공감능력, 활동 실천 의지, 구성원 신뢰 등의 측면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세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나눔과 배려’는 현행유지와 재구성 의견이 팽팽하였는데, 학생부 기재 특성 상 학생의 인성영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폐지를 주장하는

Ⅲ. 실태조사

의견과 ‘협업능력’ 등과 통합해서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 어떤 행위를 ‘나눔과 배려’라고 판단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의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소통능력’도 역시 ‘협업능력’과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으며, ‘도덕성’의 경우에도 독립적으로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성실성’과 통합하는 방안, 평가개념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규칙준수’ 등으로 범위를 좁혀서 규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 충분히 중요한 덕목이지만 학생부 기재 변화 등으로 실제적으로 평가가 어렵다는 의견 등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인성의 평가항목 중 ‘성실성’ 평가항목은 현행유지 의견이 전체 29건 중 22건을 차지하여 다른 항목 대비하여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성실성’ 항목에 ‘모범, 규칙, 규정’ 등 학생의 의무와 관련된 세부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 ‘도덕성’과 통합 의견, ‘끈기와 인내’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III-68> 인성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재구성에 대한 의견

평가요소/ 평가항목		① 현행 유지	② 폐지	③ 통합	④ 분리	⑤ 신설	⑥ 명칭 변경	⑦ 기타	합계
평가요소/ 인성	고교	9	2	-	1	-	1	2	15
	사정관	5	1	3	-	1	1	2	13
	전체	14	3	3	1	1	2	4	28
평가항목/ 협업 능력	고교	9	2	2	-	-	1	1	15
	사정관	7	-	6	-	-	-	-	12
	전체	16	2	8	-	-	1	1	27
평가항목/ 나눔과 배려	고교	11	2	1	-	1	-	-	15
	사정관	3	1	5	-	1	1	1	12
	전체	14	3	6	-	2	1	1	27
평가항목/ 소통 능력	고교	10	2	1	-	-	1	1	15
	사정관	5	1	5	-	-	1	-	13
	전체	15	3	6	-	-	2	1	29
평가항목/ 도덕성	고교	9	4	1	-	1	-	-	15
	사정관	3	5	2	-	-	1	2	13
	전체	12	9	3	1	1	1	2	28
평가항목/ 성실성	고교	12	2	1	-	-	-	-	15
	사정관	10	-	1	-	-	1	1	13
	전체	22	2	2	-	-	1	1	29

발전가능성 평가요소에 대해서는 <표 III-6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30건의 의견 중 절반 이상인 17건이 현행유지에 응답했으나 평가요소 통합에 의견을 제시한 응답자가 8건으로 많은 편이었으며, 다른 의견도 골고루 제시된 것을 볼 수 있다. 발전가능성 평가요소는 세부 평가항목과의 상관관계의 밀도가 떨어지고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다른 평가요소의 하위 항목으로 제시될 수 있을 정도로 범위가 넓다는 의견이 있었고, 다른 영역에서도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통합 의견이 많았다. 또한, 인성 평가요소와의 통합 또는 전공적합성과의 통합 의견도 있었으며, 평가의 명확화를 위해 ‘자기주도성’, ‘창의적 사고역량’ 등으로 명칭 변경 의견도 제시되었다.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자기주도성’은 다수가 현행유지를 선택했으나, 발전가능성 대신 독립적인 평가요소로 신설하는 방안, 자기주도성 평가항목이 학업적 요소와 비학업적 요소에서 혼용되며 사용하고 있어서 개념 정립이 필요하며, ‘전공적합성’이나 ‘창의적 문제해결력’ 등과 중복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통합을 제안하는 의견도 있었다. ‘경험의 다양성’은 전공적합성 개념과 상충된다는 점에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 리더십이나 자기주도성,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의견, ‘경험의 확장’ 등의 명칭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리더십’ 항목에서는 발전가능성보다는 이미 학생이 가진 역량에 가깝기 때문에 ‘인성’과 통합하자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고, 인성의 협업과 소통능력 등과 연결된다는 의견, 공동체 평가영역으로 옮기고 ‘팔로워십’ 등으로 개념을 확장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마지막 ‘창의적 문제해결력’에 대해서는 학업역량의 ‘탐구활동’과 통합, 전공적합성 평가항목과의 연계 등의 의견이 있었고, ‘창의적’이라는 표현의 모호성으로 인해 창의성 표현 삭제, 독립된 평가항목의 부적절성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III-69> 발전가능성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재구성에 대한 의견

평가요소/ 평가항목		① 현행 유지	② 폐지	③ 통합	④ 분리	⑤ 신설	⑥ 명칭 변경	⑦ 기타	합계
평가요소/ 발전 가능성	고교	9	-	3	1	1	1	1	16
	사정관	8	1	5	-	-	-	-	14
	전체	17	1	8	1	1	1	1	30
평가항목/ 자기 주도성	고교	11	-	2	-	-	1	1	15
	사정관	7	1	3	-	1		1	13
	전체	18	1	5	-	1	1	2	28

Ⅲ. 실태조사

평가요소/ 평가항목		① 현행 유지	② 폐지	③ 통합	④ 분리	⑤ 신설	⑥ 명칭 변경	⑦ 기타	합계
평가항목/ 경험의 다양성	고교	10	-	2	1	-	2	-	15
	사정관	6	4	2	-	1	-	1	14
	전체	16	4	4	1	1	2	1	29
평가항목/ 리더십	고교	11	-	1	-	-	1	2	15
	사정관	6	1	3	-	-	-	3	13
	전체	17	1	4	-	-	1	5	28
평가항목/ 창의적 문제해결력	고교	10	-	3	-	1	2	1	17
	사정관	5	4	3	-	1	1	-	14
	전체	15	4	6	-	2	3	1	31

바)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개선 방향에 대한 건의사항

1차 델파이조사 마지막 질문으로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개선 연구의 방향에 대한 건의사항을 개방형으로 질문했으며, 이에 대한 주요 의견은 <표 III-70>에서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기존의 평가기준에 중복적인 요소가 많으므로 이를 간소화하고 개념이 겹치는 부분은 정리하여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4개 평가요소는 여러 대학들의 평가기준 표준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일부 중복되거나 개념이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 향후 평가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를 간소화하고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다음으로는 평가기준 재구조화가 진행되더라도 학생부종합전형의 취지에 맞는 평가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편과 성취평가제 도입, 블라인드 평가 환경, 학생부 기재 영역 축소 및 자기소개서 폐지, 정시 수능전형 확대 등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대학들이 학생부종합전형을 축소 운영하거나 학생부 교과성적 위주로 쉽게 선발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였다. 평가요소와 평가항목을 재구성할 때 소위 ‘스펙 쌓기 활동’ 과 같이 고교 현장에서 잘못 인식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로운 평가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표 III-70>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개선 방향 건의사항

구분	주요 의견
평가기준의 간소화 및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요소, 평가항목이 세밀하게 구분되는 것은 평가기준 제시와 평가결과 신뢰도 제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평가요소와 평가항목 간 중복 개념이 많아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를 간소화하는 것도 필요함. - 기존 연구에서 4가지 평가요소를 도입하여 표준화한 부분은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향후 평가 환경 변화에 따라 평가요소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인성 부분에서 겹치는 항목이 많아 이를 재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함. - 기존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에서 추상적인 요소가 있는 내용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하는 시점이 왔으며, 조금 더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함. - 현재 평가기준은 항목 간 중복이 발생하는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평가자의 주관과 성향에 따라 서로 다르게 평가하는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하나의 활동은 하나의 평가항목에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음. -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개선 후 다양한 실제 적용 사례를 제시하여 이해도를 높이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학생부종합전형의 취지에 적합한 평가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므로, 희망전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보다 소속 학교 환경 속에서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한 경험을 평가하기를 원함. - 고등학교 교육과정 도입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학생부종합전형 평가방향이 제시되었으면 함. - 과도한 스펙 경쟁이 아닌 수업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요소가 개편되었으면 함. -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는 ‘교실에서 실천 가능한’ 내용을 평가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평가요소를 재구조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 공통 평가요소와 평가항목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현장에 대해서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교육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민감하게 살피는 것 또한 중요함. -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자료가 줄어든다고 교과 성적 위주로 평가하는 것은 지양하고 잠재적 역량, 과목선택 수강 노력, 진로 탐색과 탐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가 지속되었으면 함. - 자기소개서, 추천서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학생부종합전형의 본질은 흔들리지 않을 것임. 학생부는 학교의 많은 교사들의 3년간의 협업으로 탄생하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고 세밀하게 평가한다면 충분히 신뢰성 있는 선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함. - 학생부 서류 기반 평가의 한계를 인정하고, 면접 전형 확대 등의 추가적인 신뢰도 향상 방향이 필요함.

2) 2차 델파이 조사 분석

2차 델파이 조사는 대학별 현황분석과 설문조사,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주요 쟁점 사항을 바탕으로 전공적합성 평가요소의 유지 및 평가 방향 전환, 인성과 발전가능성의 통합과 평가요소 명칭 변경, 평가항목의 발전적 해체 및 삭제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총 7가지의 항목을 구성하여 전문가 심층 의견을 수렴하였다.

<표 III-71> 2차 델파이조사 항목

구분	항목
전공적합성 평가요소 유지 및 평가 방향 전환	다른 평가요소와 독립적으로 [전공적합성] 평가요소 유지
	‘전공’에서 ‘진로’로 평가 방향 전환
발전가능성, 인성의 통합 및 평가요소 명칭 변경	[발전가능성] 및 [인성] 평가요소의 통합
	[인성] 내 평가항목의 일부 통합
	[인성]에서 [공동체역량]으로 명칭 변경
평가항목의 발전적 해체 및 삭제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평가항목의 발전적 해체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항목은 삭제

가) 전공적합성 유지 및 평가 방향 전환

전공적합성 평가요소는 2017년 공동연구에서도 평가 시 학업역량과 중복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업역량의 하위요소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과 학교 교육에서 기초 학업역량 외에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및 1차 델파이 조사 실시 결과에서는 전공적합성을 2015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중요한 평가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1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 전공적합성을 통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과 이수 과정을 평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과 ‘전공’을 지원 모집단위로 한정하여 오히려 고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자유로운 과목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인식의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에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전공적합성을 기존과 같이 독립적인 평가요소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전공적합성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일부를 ‘전공’에서 ‘진로’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질

문하였다.

먼저, 전공적합성을 독립적인 평가요소로 두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약 82%는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로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표 III-72>를 보면 세부적으로 고교 응답자는 약 87%, 대학은 79%가 평가요소 유지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 고교의 긍정 응답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특히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의 경우 고교는 약 67%, 대학은 15%로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부정적 의견은 약 14%로 고교와 대학의 의견에는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II-72> 다른 평가요소와 독립적으로 [전공적합성] 평가요소 유지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인원
고교	N	2	0	0	3	10	15
	%	13.3	0.0	0.0	20.0	66.7	100.0
대학	N	1	1	1	8	2	13
	%	7.7	7.7	7.7	61.5	15.4	100.0
합계	N	3	1	1	11	12	28
	%	10.7	3.6	3.6	39.3	42.9	100.0

개방형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공적합성은 2015개정교육과정 실시 및 향후 고교 학점제의 도입에 따라 학생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교과목 선택과 이수 과정을 평가하는데 가장 부합한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평가요소로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또한 전공적합성이 학생부종합전형을 다른 전형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이며 전형의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 등의 긍정적인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공적합성 유지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한 조사 참여자들은 오히려 전공적합성이 다양한 고교교육 활동 참여를 제약하고 지나친 전공 활동 위주의 학교생활과 학생부 기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2017년 공동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되었던 점인데, 기존 전공적합성의 정의에서도 전공 관련 교과목을 지나치게 대학 전공에만 연관 지어 협소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전공’ 보다는 ‘전공(계열)’로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전공’ 용어가 지원 모집단위에 한정되거나 특정 분야의 능력만을 요구하는 의미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전공적합성을 평가요소로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한 조사 참여자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전공적합성을 평가요소로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전공’ 대신 ‘진로’, ‘계열’ 과 같은 단어로 대체하여 대학 전공과 관련된 교과 수업이나 활동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전공적합성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일부를 ‘전공’ 에서 ‘진로’ 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은 ‘전공’ 개념의 제한된 의미를 보다 확장하여 ‘진로’ 로 평가 방향을 바꾸는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제시되었다. 이에 대한 답변은 <표 Ⅲ-73>에 제시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긍정이 약 43%, 부정이 46%로 부정 의견이 근소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대학의 긍정 의견은 약 39%로 고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고교와 대학 간의 부정 평가 비율 차이는 유사한 수준이었다.

<표 Ⅲ-73> ‘전공’에서 ‘진로’로 평가 방향 전환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인원
고교	N	2	5	1	2	5	15
	%	13.3	33.3	6.7	13.3	33.3	100.0
대학	N	1	5	2	4	1	13
	%	7.7	38.5	15.4	30.8	7.7	100.0
합계	N	3	10	3	6	6	28
	%	10.7	35.7	10.7	21.4	21.4	100.0

개방형 응답 결과에서 긍정적인 평가로는 고교 교육과정이 대학의 전공 수업 과정과 달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전반적으로 기를 수 있는 교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진로’ 로 평가 방향을 전환할 경우 고교 생활 전반에서 다양한 진로활동에 참여를 시도해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조기에 대학의 특정 전공에 맞춘 준비를 해야 한다는 학생의 부담을 줄이고 고교 교육과정에서 안에서 접하는 활동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다. 학교에서도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무리한 전공 관련 활동보다 진로탐색 과정을 통한 입시 준비가 보다 용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진로’ 는 어떤 항목을 통해 평가하고 측정할 것인지 불명확하고 모호한 개념이어서 입시 준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 진로 수업

이나 창의적체험활동의 ‘진로활동’ 등의 학교 교육과정 상의 일부 영역으로 의미가 왜곡될 수 있어 전공적합성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방향의 평가가 될 수도 있고, 진로 활동 경험만 강조되어 실질적인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기보다는 단순한 경험 유무를 두고 판단하는 평가요소로 인식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다만, 부정적인 응답을 한 참여자들도 ‘전공’ 용어로 인해 학생들이 특정 전공에 대한 준비 부담을 느낀다는 점, 단순히 진로탐색 과정이 전공 관련 활동과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은 긍정적인 응답을 한 참여자들과 같은 인식을 하고 있었다.

전공적합성 평가요소 유지 및 평가 방향 전환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의 응답 결과를 종합해보면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의 교육환경 변화를 대입에 반영하기 위해 전공적합성을 평가요소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었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고교에서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하는 노력을 활성화하는데 전공적합성이 가장 적합한 평가요소 중 하나로 본 것이다. 다만,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일부에서 ‘전공’이라는 용어에 대한 오해로 인해 오히려 고교 교육과정이 대학의 전공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되거나 학생의 선택권이 축소될 여지도 있으므로, 용어 변경 등의 평가 방향 전환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발전가능성, 인성의 통합 및 평가요소 명칭 변경

발전가능성과 인성의 통합 및 평가요소의 명칭에 관한 논의의 주된 배경은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의 폐지, 학생부 기재 분량 축소 및 일부 항목의 대입전형 자료 미제공 등에 따른 평가의 어려움에 있다. 특히 발전가능성, 인성이 학업역량이나 전공적합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가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은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델파이 2차 조사에서는 발전가능성과 인성을 학생부 내에서 평가가 가능한 항목으로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발전가능성과 인성의 하위 평가항목을 재정비하여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적절한지, 내용이 중복되거나 평가하기가 어려운 인성 내 평가항목을 일부 통합하는 것이 적절한지, 전형자료 축소 등을 고려하여 인성을 공동체역량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을 제시하였다.

먼저, 발전가능성과 인성의 하위 평가항목을 재정비하여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참여자의 약 46%가 긍정, 36%가 부정 응답을 하여

평가요소의 통합을 찬성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고교와 대학의 의견은 일부 차이가 나타나는데 고교의 경우 긍정 의견이 약 53%인 반면 대학은 39%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대학의 경우 반대 의견도 약 31% 수준으로 찬반의견이 나뉘는 양상을 보였다. 상세 의견은 <표 Ⅲ-7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Ⅲ-74> [발전가능성] 및 [인성] 평가요소의 통합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인원
고교	N	3	3	1	4	4	15
	%	20.0	20.0	6.7	26.7	26.7	100.0
대학	N	1	3	4	2	3	13
	%	7.7	23.1	30.8	15.4	23.1	100.0
합계	N	4	6	5	6	7	28
	%	14.3	21.4	17.9	21.4	25.0	100.0

개방형 응답 결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살펴보면, 발전가능성과 인성의 하위 평가항목을 재정비하거나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그 이유로 발전가능성은 학교생활 전반에서 다양하게 발현되는 영역이어서 다른 평가항목과 분리하여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고, 구분하기가 모호하여 중복 평가를 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학업역량이 뛰어난 학생은 발전가능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전공적합성이 낮으면 발전가능성도 낮은 평가를 받는 식으로 다른 평가요소와 독립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하위 평가항목이 대체로 추상적인 내용이 많아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이 지나치게 개입될 여지가 있어서 공정성 강화 차원에서 평가항목을 재정비하고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 밖에 하위 평가항목 중에는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평가요소의 통합을 통해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평가요소를 통합하는 방식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발전가능성과 인성을 하나의 평가요소로 통합하는 방안, 발전가능성과 인성의 하위 평가항목 일부만 통합하는 의견이 있었다.

먼저, 발전가능성과 인성을 하나의 평가요소로 통합하는 방안은 두 평가요소가 정의적 평가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학업역량과 전공적합성에

비해 발전가능성과 인성은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큰 영역인데, 평가자료 축소로 인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요소의 통합 및 간소화를 통해 실제 확인 가능하고 측정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발전가능성과 인성의 하위 평가항목 일부만을 통합하는 방안은 가장 많은 참여자가 동의하는 의견이었다. 발전가능성과 인성이 각각 다른 능력을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발전가능성은 인성뿐만 아니라 다른 평가요소들과도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인성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즉, 평가요소를 통합하여 간소화를 한다면 발전가능성의 하위 평가항목 중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은 교과와 교과 외 활동 등의 다양한 학교활동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인성과 개념적으로도 차이가 있는 만큼, 다른 평가요소와의 통합도 고려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리더십’의 경우 인성 영역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대학들도 있으며, 인성의 하위 평가항목 중 ‘협업능력’이나 ‘나눔과 배려’와도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인성 평가요소와의 통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발전가능성과 인성의 통합에 부정적인 의견은 주로 두 평가요소의 평가 영역이 서로 다른 만큼 현재와 같이 개별 평가요소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평가자료 축소에 대응하여 평가요소를 간소화하는 것 자체에 대해 평가의 효율성만 강조한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응답자도 있었다. 예를 들어 인성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물리적인 자료의 양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주어진 자료 안에서 세심하게 찾아내고 평가하는 것이 학생부종합전형의 운영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와 관련된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위 평가항목의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은 다수의 조사 참여자에게서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인성의 하위 평가항목 중 내용이 겹치거나 학생부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항목을 일부 통합하는 방향이 적절한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약 79%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대학의 경우 약 92%가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있어 고교에서 67%가 긍정 평가를 한 것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교의 약 21%가 부정적 응답을 한 것 비해 대학은 없었다는 점을 통해 평가자의 입장에서 인성 하위 평가항목의 통합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부적인 응답은 아래 <표 III-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Ⅲ-75> [인성] 내 평가항목의 일부 통합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인원
고교	N	2	1	2	4	6	15
	%	13.3	6.7	13.3	26.7	40.0	100.0
대학	N	0	0	1	5	7	13
	%	0.0	0.0	7.7	38.5	53.8	100.0
합계	N	2	1	3	9	13	28
	%	7.1	3.6	10.7	32.1	46.4	100.0

개방형 응답 결과의 긍정적인 평가로는 기존 연구의 인성 내 하위 평가항목이 교육적 관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평가요소로서 부합하는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평가항목은 기본적으로 자료를 통해 확인과 측정이 가능해야 하지만 인성의 일부 항목들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거나 학생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학의 의견을 살펴보면 기존의 5가지 하위 평가항목이 서로 중복되거나 서류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으로 구성된 측면을 지적하고 있는데, 실제로 평가가 가능한 항목이라기보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인성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선언적 의미로 제시된 경향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기존의 평가항목도 평가에서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학생부 기재 항목이 축소되는 변화까지 대응하려면 실제 평가 가능한 항목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고교의 경우에도 평가항목을 지나치게 사전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나 대학에서 항목별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 등 불필요한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고교와 대학 참여자 모두 인성의 평가항목이 현실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항목으로 재구조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했다.

통합의 방식에 대해서도 공통적인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은 상호작용을 통해 발현되는 ‘협업능력’, ‘나눔과 배려’ 등은 통합하여 평가가 가능할 수 있지만 ‘도덕성’과 같은 개념은 확인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축소 또는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인성 내 하위 평가항목의 통합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는 다른 평가요소에 비해 하위 항목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각각의 개념은 독립적이며 미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자질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통합하여 축소는 무리가 있

다고 보았다. 학교 교육 내 인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평가항목을 통합하고 간소화할수록 학교 현장에 인성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으며, 교사의 학생에 대한 관찰과 기록의 수준도 점차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성을 공동체역량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질문에 대해서는 <표 III-76>과 같이 전체 응답자의 약 64%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학의 긍정 응답이 약 69%로 고교 60%에 비해서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다만, 고교의 부정 응답 비율 약 40% 중 ‘매우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27%로 고교에서 명칭 변경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의 정도가 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76> [인성]에서 [공동체역량]으로 명칭 변경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인원
고교	N	4	2	0	6	3	15
	%	26.7	13.3	0.0	40.0	20.0	100.0
대학	N	0	4	0	6	3	13
	%	0.0	30.8	0.0	46.2	23.1	100.0
합계	N	4	6	0	12	6	28
	%	14.3	21.4	0.0	42.9	21.4	100.0

개방형 응답 결과에서는 평가요소로서의 적절성과 교육적 효용성 중 어느 측면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의견의 차이를 보였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참여자들은 대체로 학생부에서 개인의 성품이나 태도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한 지에 대해 이전부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며, 현재의 인성 평가요소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학생부의 대입 제공 영역이 간소화되면서 ‘도덕성’ 과 같은 개인적 특성을 학생부에서 확인하고 평가하기가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에 실제 평가 가능한 평가요소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인성’ 을 ‘공동체역량’ 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학생부를 통해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면서 평가의 목적을 직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대학 참여자의 경우 ‘공동체역량’ 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보다도 하위 평가항목들을 구체적으로 관찰과 측정이 가능한 요소들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반대 의견의 경우 명칭 변경을 하게 되면 인성의 개인적 영역을 담기가 어려워 기

존의 인성 평가영역의 범주를 제한하고 축소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학생부에서 개인의 성실한 태도, 도덕적 언행 사례 등이 기재되어 있을 때, ‘공동체역량’이라는 명칭이 이를 포괄하여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인성을 단체 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만 판단한다는 협의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인성평가가 축소되고 있다는 인식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발전가능성, 인성의 통합 및 평가요소 명칭 변경과 관련된 질문의 응답 결과는 종합해보면 먼저, 발전가능성과 인성을 전면적으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전가능성의 하위 평가항목인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은 인성보다 다른 평가요소와 연관되는 경향이 있어서 인성과의 통합보다는 다른 평가요소와 연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리더십’ 항목은 대부분의 참여자가 인성과 통합하여 평가 가능한 항목으로 판단하였다. 인성 평가요소의 평가 자료의 축소 및 간소화 등의 평가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성’의 하위 평가항목 통합과 ‘공동체역량’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실제 평가 가능한 영역으로 평가요소를 정의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 평가의 범주와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점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도출할 수 있었다.

다) 평가항목의 해체 및 삭제

평가항목의 해체 및 삭제에 대한 논의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평가항목 중에서 하나의 평가요소에서만 평가되지 않는 일부 항목을 해체하여 각 평가요소 내에서 평가될 수 있도록 세부 평가내용으로 구성하는 방안과 전형자료 축소로 인하여 학생부만으로 평가를 진행해야하는 상황에서 학생부에서 관찰하기 어려운 기존의 평가항목을 삭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기존 평가항목 중에서 특정 평가요소에서만 평가되지 않는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발전가능성의 ‘자기주도성’과 ‘경험의 다양성’이 있는데, 실제로 발전가능성뿐만 아니라 학업역량이나 전공적합성과도 연계하여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평가요소와 평가항목의 위계성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항목을 특정 평가요소의 평가항목으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세부 평가내용으로서 각각의 평가요소에서 평가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검토의 필요성이 있었다. 또한 평가항목 중 실제로 평가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개념이나 전형자료 축소로 인하여 향후 학생부를 기반으로 평가가 어려운 항목을 삭제하여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델파이 2차 조사에서는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을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과 학생부만으로 관찰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개념을 평가항목에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질문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질문은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은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등 다른 평가요소 내 평가항목과 연계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별도 평가항목으로 두는 것보다는 평가항목을 해체하여 항목별 세부평가 내용으로 두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표 III-77>에서 나타나듯이 전체 응답자의 약 64%가 평가항목의 해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하였으며, 대학의 긍정 응답이 약 77%로 고교 53% 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정 답변의 경우 고교의 ‘매우 그렇지 않다’ 응답이 20%로 해당 항목들의 해체에 대해서는 고교가 상대적으로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7>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평가항목의 발전적 해체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인원
고교	N	3	1	3	5	3	15
	%	20.0	6.7	20.0	33.3	20.0	100.0
대학	N	1	2	0	8	2	13
	%	7.7	15.4	0.0	61.5	15.4	100.0
합계	N	4	3	3	13	5	28
	%	14.3	10.7	10.7	46.4	17.9	100.0

개방형 응답 결과에서는 주로 ‘자기주도성’ 위주로 의견이 제시되었다. ‘자기주도성’의 발전적 해체는 해당 항목을 평가자의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으며, 부정 응답은 교육과정상 중요한 핵심역량이라는 점에서 평가항목 해체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긍정적인 답변의 경우 ‘자기주도성’은 학업역량이나 전공적합성 차원에서 평가될 여지가 높고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태도이기 때문에 이를 따로 구분하여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평가의 측면에서 단일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경우 다른 평가요소에서는 해당 항목이 간과될 우려가 있으므로 세부 평가내용으로 구성하여 유연하게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자기주도성’을 세부 평가내용으로 구성한다면 각각의 평가요소에서 ‘자기주도성’이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험의 다양성’의 경우에도 현재와 같이 별도 평가항목으로 제시된 경우 교과 외 활동의 다양성으로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각 평가요소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부정적인 응답의 경우 ‘자기주도성’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이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지향점이기 때문에 평가항목으로 보다는 상위 범주의 평가요소로 구성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질문과 같이 ‘자기주도성’을 세부 평가내용으로 구성할 경우 학업역량이나 전공적합성이 포함되지 않는 학교 활동의 경우에는 평가가 어렵거나, 각각의 평가요소에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인성의 ‘도덕성’, 발전가능성의 ‘창의적 문제해결력’ 등 대다수 학생들의 학생부만으로 관찰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개념을 평가항목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약 61%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였다. 대학의 긍정 응답이 약 77%인데 비해 고교는 47%로 낮게 나타나 2차 조사 질문 항목 중 가장 큰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전체 응답자가 대부분 학생부에서 관찰하기 어려운 평가항목을 삭제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학의 경우 실제 평가가 가능한 평가도구로서의 평가요소, 고교는 교육적 의미가 있는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평가요소로서의 측면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자세한 결과는 아래 <표 Ⅲ-78>에서 제시하였다.

<표 Ⅲ-78>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항목은 삭제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인원
고교	N	3	2	3	3	4	15
	%	20.0	13.3	20.0	20.0	26.7	100.0
대학	N	0	2	1	6	4	13
	%	0.0	15.4	7.7	46.2	30.8	100.0
합계	N	3	4	4	9	8	28
	%	10.7	14.3	14.3	32.1	28.6	100.0

개방형 응답 결과에서는 대학과 고교 간에 긍정과 부정 의견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대학의 경우 대부분의 참여자가 학생부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변별이 어려운 항목은 평가항목에서 삭제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다만 평가항목을 삭제

하기 이전에 학교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의 개념 정의가 불분명하여 평가가 어려웠던 것인지, 평가 자료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인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학 참여자들은 대체로 인성의 ‘도덕성’이나 발전가능성의 ‘창의적 문제해결력’이 평가 기준에 대한 정의나 합의가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삭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통합이나 재구조화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평가항목을 재정립하거나 평가도 교육의 연장선상이라는 관점에서 유지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고교의 경우 평가항목별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학교 현장에서 관찰과 평가가 가능하며 기재가 가능한 항목인지를 판단 근거로 삼고 있었다. ‘도덕성’의 경우에는 고교에서도 평가 근거를 찾기 어렵고 현재 학생부의 기록상 이를 판단하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인성교육의 강화라는 차원에서 유지하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다는 의견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발전가능성의 ‘창의적 문제해결력’은 대학의 경우 이를 학생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나, 고교에서는 학생부에 기재되어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수업 활동 등에서 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다만 ‘창의적’이라는 용어가 추상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이는 명칭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삭제하더라도 ‘문제해결력’은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평가항목의 발전적 해체 및 삭제와 관련된 질문의 응답 결과를 종합해보면, 대학은 평가자로서 평가 가능 여부, 고교는 평가요소의 선언적 의미와 고교 교육과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가항목의 발전적 해체의 경우 평가항목을 구조화하는 방식에 대해 대학과 고교 간의 의견이 다르게 나타났다. 대학의 경우 여러 평가요소에서 확인되는 중요한 항목이기에 평가 세부내용으로 구성하여 해당 항목을 유연하게 평가하는 시도를 하려는 반면, 고교의 경우 평가요소로 구조화하여 학업역량이나 전공적합성과 같이 중요한 평가요소라는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만, 어떤 방식이든 대학과 고교 모두 ‘자기주도성’이나 ‘경험의 다양성’과 같은 항목들이 여러 평가요소 내에서 평가가 가능하며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은 동일했다.

평가항목의 삭제에 관한 질문은 2차 델파이조사에서 고교와 대학의 이견이 가장 컸던 항목이었다. 대학은 평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거나 추상적인 평가항목은 삭제하여 실제 평가 가능한 항목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도덕성’ 항목에서 보듯이 고교의 경우에도 동일한 인식을 하고 있으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 관찰 가능한 내용이고 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용인지, 해당 항목의 교육적 가치와 선언적 의미는 어떠한지에 따른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전문가 심층면접(FGI)

가. 전문가 심층면접 개요

1) 조사 설계

전문가 심층면접(FGI)은 설문조사와 1차 델파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된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개선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파악하고자 진행하였다. 대학 입학관계자 6명, 장학사 2명, 고교 교사 3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1차 자문지 작성은 2022년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진행하여 2월 7일에 1차 자문회의를 진행하였으며, 2차 자문지 작성은 2월 8일부터 2월 9일까지 진행하여 2월 10일에 2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개별 이메일을 통해 자문지를 발송하고 회신을 받았으며, 자문 회의는 모두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하였다. 자문지의 내용은 1차 자문지는 연구진에서 구성한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개선안에 대해 평가요소의 구조,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별 정의, 세부평가내용의 범위와 표현 등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2차 자문지는 1차 자문에서 나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으로 구성되어 진행하였다.

<표 III- 79> 전문가 심층면접 조사 설계

조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및 장학사 5명 대학 입학관계자 6명
조사 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2022년 1월 29일 ~ 2월 5일 2차: 2022년 2월 7일 ~ 2월 9일
조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면담지 작성 자문회의: 온라인(zoom) 회의

2) 응답 특성

전문가 심층면접에 참여한 인원은 총 11명으로 장학사 및 고교 교사 5명, 대학 입학 관계자 6명으로 구성하였다. 집단 구성은 교육청 소속 장학사 2명과 진학 및 교육과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3명, 경력 10년 이상의 입학사정관 4명, 입학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교수 2명으로 구성하였다.

<표 III-80> 전문가 심층면접 대상자 현황

연번	구분	지역	직위	보고서 표기
1	교육청	서울	장학사	장학사1
2	교육청	충북	장학사	장학사2
3	고교	서울	교사	교사1
4	고교	서울	교사	교사2
5	고교	경기	교사	교사3
6	대학	서울	입학사정관	입학사정관1
7	대학	경북	입학사정관	입학사정관2
8	대학	서울	입학사정관	입학사정관3
9	대학	서울	입학사정관	입학사정관4
10	대학	서울	교수	교수1
11	대학	서울	교수	교수2

나. 전문가 심층면접(FGD) 결과 분석

1차 전문가 자문은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개선’과 관련하여 진행한 설문조사와 1차 델파이조사의 의견을 참고하여 도출한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개선안’을 다음 <표 III-81>과 같이 제시하고 의견을 들었다.

<표 Ⅲ-81> 1차 개선안

현행		1차 개선안	
평가요소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항목
학업역량	학업성취도	학업역량	학업태도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학업성취도
	탐구활동		탐구력
전공적합성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진로역량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인성	협업 능력	공동체역량	협업과 소통능력
	나눔과 배려		나눔과 배려
	소통능력		성실성과 규칙준수
	도덕성		리더십
	성실성		
발전가능성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창의적 문제해결력		

2차 전문가 자문에서는 1차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의 내부 논의를 거쳐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개선안’을 다음 <표 Ⅲ-82>와 같이 제시하고 의견을 들었다.

<표 Ⅲ-82> 2차 개선안

1차 개선안		2차 개선안	
평가요소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항목
학업역량	학업태도	학업역량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		학업태도
	탐구력		탐구력
진로역량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진로역량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전공(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공동체역량	협업과 소통능력	공동체역량	협업과 소통능력
	나눔과 배려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준수		성실성과 규칙준수
	리더십		리더십

1차 개선안과 비교하여 달라진 부분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로 평가요소 ‘학업역량’의 평가항목 배치로, ‘학업성취도’와 ‘학업태도’의 순서를 변경하였다. 두 번째로 평가요소 ‘진로역량’의 평가항목에서 ‘전공’이라는 용어의 한정으로 인해 ‘전공(계열)’로 포괄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1) 평가요소 ‘학업역량’에 대한 개선안

가) 개념정의 및 평가항목의 내용

전문가 자문에서는 평가요소 ‘학업역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세 가지 평가항목을 제시하였다.

<표 III-83> ‘학업역량’ 개념 정의 및 평가항목

구분	1차 개선안		2차 개선안
개념 정의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	⇒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
평가 항목	학업태도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		학업태도
	탐구력		탐구력

이에 대한 의견으로는 크게 개념정의에 대한 서술, 평가항목의 순서 배치에 대한 것이었다. 우선 ‘학업역량’의 개념정의에 대해서 1차 자문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대학’의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의미가 전달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2차 개선안에서는 이를 반영해서 수정하였다.

‘평가항목의 순서 배치’는 ‘학업태도’와 ‘학업성취도’의 제시 순서에 대한 것으로, 학업역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순서를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1차 개선안에서 연구진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내신 등급이나 성적으로만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자 ‘학업태도’를 먼저 배치하였다. 하지만 1차 자문을 통해 학업역량을 볼 때 고교 교육과정이나 대학교육에 있어서 학업성취도의 중요성,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정성평가로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2차 개선안에서 ‘학업성취도’를 먼저 제시하는 것으로 재수정하였다.

학업역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학업성취도입니다. 하지만, 학업성취도는 학생이 재학 중인 고교에 따라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학생이 자신의 능력만으로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인지 아니면 재학 중인 학교 영향을 받은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검증이 된다면 좋은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 교사2)

나) 평가항목 ‘학업성취도’의 개념 정의 및 세부평가내용

‘학업역량’의 첫 번째 평가항목에 대해서 1차 개선안에서는 ‘학업태도’를, 2차 개선안에서는 ‘학업성취도’를 제시하면서 순서에 차이가 있었다. ‘학업성취도’에 대해서 1, 2차 개선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세부평가내용을 제시하였다.

<표 III-84> ‘학업성취도’ 개념정의 및 세부평가내용

구분	1차 개선안	2차 개선안
개념 정의	교과목 이수 현황, 노력 등을 기반으로 평가한 교과목의 성취수준이나 학업적 발전의 정도	고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취수준이나 학업적 발전의 정도
세부 평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적인 교과성적은 대학 수학에 적절한가? -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과목(예: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등) 외에 예술·체육, 제2외국어, 교양 등 교과목의 성적은 어느 정도인가? 유난히 소홀함을 보인 과목은 없는가? - 과목별 이수단위, 수강자수,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성취도, 성취도별 분포비율 등은 어느 정도인가? - 과목별 원점수(평균/표준편차 포함)는 적절한가?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과목(예: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등)의 교과성적은 적절한가? 그 외 과목(예: 예술·체육, 기술·가정, 제2외국어 등)의 교과성적은 어느 정도인가? 유난히 소홀한 과목이 있는가? - 학기별/학년별 성적의 추이는 어떠한가?

이에 대한 의견은 크게 과목의 범주 설정에 따른 서술 수정, 기존 연구의 세부평가내용 추가 등이 있었다. 우선 ‘과목의 범주 설정’에 대한 것은 1차 개선안에서 제시된 ‘등급’의 범주가 일반선택과목에만 한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1차 자문에서는 진로선택과목이나 교양 등의 교과목에서는 등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괄할 수 있도록 등급을 삭제하거나 ‘등급 외’ 문구를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2차 개선안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세부평가내용을 하나로 합쳐서 제시하였다. 이에 2차 자문에서는 수치적인 측면을 제외한 것은 긍정적이나, 세부평가내용에 대한 서술시 추가적 안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과목별 이수단위, 석차등급, 평균, 표준편차 등에 대한 기술은 제외한 부분은 성적을 수치만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취지에서 배제한 것으로 보이며, 그 부분을 ‘교과성적은 적절한가’로 통칭으로 표현한 부분은 적절함(2차 입학사정관2)

다만, 성적을 정량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겠지만, 기존에 제시했던 <과목별 이수단위, 수강자수,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성취도, 성취도별 분포비율 등은 어느 정도인가?>는 평가 세부내용을 통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2차 장학사1)

다음으로 ‘기존 연구의 세부평가내용 추가’에 대해서는 ‘학기별/학년별 성적의 추이’가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1차 개선안에서는 단순히 등급의 상승 및 하락 여부로만 할 수 있어 해당 내용을 세부평가내용에서 제외했는데, 1차 자문에서는 오히려 학생의 발전 정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2차 개선안에서는 이를 반영해 ‘성적의 추이’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보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성적이 상승하거나 하락한 경향도 평가에 반영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학업성취도 부분에 들어갔으면 함. 이전 평가 세부 내용처럼 <학기별/학년별 성적은 어떠한 추이를 나타내는가?> 등과 같은 내용이 들어갔으면 함. (1차 장학사1)

기존에 세부평가내용에 있었던 학기별 성적이 고르게 유지되는 부분과 성적이 상승/하락 부분이 빠졌습니다. 두 내용으로 단순히 평균등급만 반영하기 않고 성적추이를 평가에 활용한다는 의미가 강했습니다. 따라서 성적 추이 정도의 문구는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차 교사3)

공통과목 대비 일반선택과목의 성적은 상승/하락하고 있는가?를 추가하여 성적추이를 어느 정도 고려하는 것을 추가제안함 (1차 입학사정관2)

다만 ‘학기별/학년별 성적의 추이는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일반선택에서 등급이 잘 나온 학생이 단순히 등급만으로 추이가 좋아졌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추가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기별/학년별 성적의 추이는 어떠한가? 이 부분은 추이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하지는 않을까? 만약 3학년 1학기 일반선택을 1~2과목만 이수한 학생이 석차등급이 1등급이라면 자칫 추이가 좋다고 오해할 소지는 없을까 우려는 조금 됨 (2차 교사3)

다) 평가항목 ‘학업태도’의 개념 정의 및 세부평가내용

‘학업역량’의 두 번째 평가항목에 대해서 1차 개선안에서는 ‘학업성취도’를, 2차 개선안에서는 ‘학업태도’를 제시하면서 순서에 차이가 있었다. ‘학업태도’에 대해서 1, 2차 개선안에서는 다음 <표 III-85>와 같이 정의를 내리고 세부평가내용을 제시하였다.

<표 III-85> ‘학업태도’ 개념정의 및 세부평가내용

구분	1차 개선안	2차 개선안
개념 정의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을 해나가는 자발적인 태도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을 해나가는 자기주도적 태도
세부 평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인 성취동기와 목표의식을 가지고 학습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자기 주도적인 태도로 노력하고 있는가? - 교과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 수업에서 이해하려는 태도와 열정을 보이는가?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인 성취동기와 목표의식을 가지고 학습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자기 주도적인 태도로 노력하고 있는가? - 교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수업 내용을 이해하려는 태도와 열정이 있는가?

이에 대한 의견은 크게 평가항목 간의 변별, 세부평가내용 통합 등이 있었다. 우선 ‘평가항목 간 변별’에 대해서는 세 번째 평가항목인 ‘탐구력’과 개념 및 세부평가내용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는 의견이 나왔다. 1차 개선안에서 ‘자발적인 태도’에 대한 의미 전달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었기에, 2차 개선안에서는 주도성에 대한 의미를 포함하고자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2차 자문 결과 수정된 개념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학업태도가 자칫 자기주도성으로만 한정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의견 또한 있었다.

학업태도에 대한 위의 개념정의에 따르면, ‘학업태도’ = ‘자발적인 태도’로 해석됨. 자발적 태도라는 것에는 주도성과 진취성 등을 알 수 있으나, 학업태도에 필요한 내용을 협소하게 정의하는 것으로 보임. 학업태도는 성실성을 바탕으로 주도성과 진취성 등을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1차 입학사정관4)

개념 정의에서 자기주도적이라는 용어는 학습태도의 영역을 자기주도성으로 한정하는 효과를 가져옴.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을 해 나가는 의지와 노력 정도(혹은 수준)’을 모두 평가 영역에 넣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차 교수1)

다음으로 ‘세부평가내용 통합’에 대해서는 1차 개선안의 세 번째, 네 번째 세부평가내용이 겹친다는 점이 다수 거론되었다. 교과 수업을 이해하려는 태도와 열정이 있어야만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교과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와 ‘수업에서 이해하려는 태도와 열정을 보이는가?’라는 두 질문이 실질적으로 구별이 되는지 우려됩니다.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이 바로 수업을 이해하려는 태도나 열정의 결과물입니다. 결국 동일한 내용을 학생의 의도성 측면에서 서술한 것과 학생의 행동 결과 서술한 것으로 두 번 서술한 것입니다. (1차 교사1)

<교과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와 <수업에서 이해하려는 태도와 열정을 보이는가?>는 비슷한 내용으로 판단됨. <교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수업 내용을 이해하려는 태도와 열정을 보였는가?>로 수정했으면 함. 교과 수업 이외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서도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을 해나가는 자발적인 태도를 보여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문구가 필요해 보임. 수업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보임.(1차 장학사1)

이에 2차 개선안에서는 두 개의 세부평가내용을 합쳐 ‘교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수업 내용을 이해하려는 태도와 열정이 있는가’로 수정하였다.

교과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업 내용을 이해하려는 태도와 열정이 있는가?의 세부내용으로 기존의 두 개의 내용을 합쳐서 더 명료하게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차 교사3)

라) 평가항목 ‘탐구력’의 개념 정의 및 세부평가내용

‘학업역량’의 세 번째 평가항목인 ‘탐구력’에 대해서 1, 2차 개선안에서는 다음 <표 III-86>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세부평가내용을 제시하였다.

<표 III-86> ‘탐구력’ 개념정의 및 세부평가내용

구분	1차 개선안	2차 개선안
개념 정의	어떤 대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깊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사물에 대해 깊게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세부 평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을 위해 적극적인 탐구 의지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가? - 교과 활동을 통해 지식의 폭을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 각종 교과 탐구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가? - 기존에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외연을 확장하려고 노력하였는가?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와 각종 탐구활동 등을 통해 지식의 폭을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 교과와 각종 탐구활동 등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가? - 탐구 활동에서 표출되는 학문에 대한 열의와 지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에 대한 의견은 크게 개념정의의 모호성, 세부평가내용의 수정 등이 있었다. 우선 ‘개념정의’에 대해서는 1차 개선안의 ‘어떤 대상’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의견, 그로 인해 두 번째 평가항목인 ‘학업태도’와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2차 개선안에서는 ‘학업역량’ 내 평가항목이라는 점과 문제해결력을 포함시켜 개념정의를 수정하였다.

개념정의에서 “어떤 대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수험생이 이해하기 편할 듯 어떤 대상이 다소 모호함. 차라리 표현이 애매하다면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깊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더 명확하지 않을까 함.(1차 입학사정관2)

또한 1차 개선안의 세부평가내용 중 ‘기존에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외연을 확장하려고 노력하였는가’는 ‘학업태도’의 자발적 태도와 중첩된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2차 개선안에서는 의미의 명확화를 위해 해당 세부평가내용을 삭제하였다.

‘기존에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의견을 확장하려고 노력하였는가?’는 서술을 노력하였는가로 하여 학업태도로 읽히게 서술이 되었습니다. (1차 교사1)

학업태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발적인 성취동기와 목표의식을 가지고 학습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자기 주도적인 태도로 노력하고 있는가?”와 상당부분 중첩되는 내용으로 보임(1차 입학사정관3)

다음으로 ‘세부평가내용’에 대해 ‘교과’, ‘탐구활동’ 등 교내 활동에 대한 범위 제한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1차 개선안에서 제시한 교과활동, 각종 교과 탐구활동, 기존에 경험한 내용 등이 자칫 한정되어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이는 2차 개선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려의 의견이 있었다.

학생이 수업에서 보여준 활동만으로 학생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학업역량은 전반적인 학교생활 속에서 발휘될 수 있는 것이므로 문구 수정이 필요해 보임. 교과라는 문구는 수업시간으로 한정해 생각하게 하므로 교과 활동을 탐구 활동 등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필요함. (1차 장학사1)

교과와 각종 탐구활동을 합쳐서 수업 이외의 학교내 활동(창의적체험활동, 독서활동 등)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중요함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각종 탐구활동이라는 부분이 마치 모든 학생들이 탐구활동을 수업 이외의 활동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기존의 동아리활동 이외에 최근에는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에서도 다양한 탐구활동이 진행되고 있고,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자율형 교육과정에서도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차 교사3)

2) 평가요소 ‘진로역량’에 대한 개선안

가) 개념 정의 및 평가항목의 내용

전문가 자문에서는 평가요소 ‘진로역량’에 대해 다음 <표 III-87>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세 가지 평가항목을 제시하였다.

<표 III-87> ‘진로역량’ 개념 정의 및 평가항목

구분	1차 개선안	2차 개선안
개념 정의	진로에 관한 과목 선택, 탐색 노력과 준비 정도	자신의 진로와 전공에 관한 과목 선택, 탐색 노력과 준비 정도
평가 항목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전공(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이에 대한 주된 의견은 기존 연구와 달라진 ‘진로역량’의 명칭과 개념, 이에 따른 평가항목 내 용어의 통일 등이 있었다. 우선 ‘진로역량’이라는 평가요소 명칭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변화라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개념정의와 평가항목에서 진로, 전공 등이 혼용되어 나타나고 있기에 이를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 전공과 계열을 함께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진로와 전공을 개념을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전공적합성으로 사용되던 용어를 진로역량으로 바꾼 것은 교육과정의 변화 등을 잘 반영한 용어의 선택으로 볼 수 있음. (1차 입학사정관2)

우선 말이 많았던 전공이라는 단어를 없앤 부분에 대해서 매우 찬성하는 바입니다. 전공(계열)이라는 단어 때문에 고교현장에서 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진로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현재 강조되고 있는 진로학업설계역량이라는 부분과 연계되고 있어서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 교사3)

과거의 전공적합성을 진로 역량으로 바꾼 것은 학생들이 전공적합성을 과도하게 좁게 해석하는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평가 항목의 내용도 좀 더 진로적 측면을 강조하는 형식으로 갔으면 합니다. 평가 항목의 표현을 전공을 그대로 쓸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을 고려하여 ‘전공(계열)’이라고 하거나 ‘진로’라고 통일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교사1)

그 외 ‘전공(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에 대해서는 평가요소 ‘학업역량’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평가항목으로 제시하자는 의견, 또한 해당 평가항목을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과 합치자는 의견 또한 제시되었다.

‘진로역량’ 개념을 ‘진로탐색 노력과 준비정도’로 하고 평가항목은 ‘전공관련 교과 이수 노력과 성취도’, ‘진로탐색 활동과 경험’으로 하는 것을 제안함. (1차 입학사정관4)

나) 평가항목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의 개념 정의 및 세부평가내용

‘진로역량’의 첫 번째 평가항목에 대해서 1차 개선안에서는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으로, 2차 개선안에서는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으로 차이가 있었다. 해당 평가항목의 개념 정의 및 세부평가내용은 다음 <표 III-88>과 같다.

<표 III-88>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개념 정의 및 세부평가내용

구분	1차 개선안	2차 개선안
개념 정의	고교 교육과정에서 지원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정도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정도
세부 평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이수하였는가? - 선택과목(일반/진로)은 교과목 위계에 맞게 이수하였는가? -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해 선택하여 이수한 과목은 얼마나 되는가? -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공동교육과정, 온라인수업, 소인수과목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였는가? - 전공(계열)과 관련해 선택하여 이수한 과목은 얼마나 되는가? - 선택과목(일반/진로)은 교과목 학습 단계(위계)에 따라 이수하였는가?

이에 대해 1, 2차 자문 모두 세부평가내용의 수정 및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자기소개서 폐지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는 학생들의 자발적 교과목 선택이 알기 어렵다는 점, 학교별 환경 차이로 인해 교과목 이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선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과목의 적절한 선택을 묻는 세부평가내용은 적절한 선택이라는 것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특히 자기소개서가 폐지됨에 따라 개인의 학습 동기를 파악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대학에서의 전공별 과목 선택 안내가 수반되어야 가능하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III. 실태조사

지원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였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에서 지원 전공과 관련된 과목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과목 선택과 관련된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서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선제적인 언급이 우선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차 교사3)

또한 개선안에서 제시한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교과목 이수 노력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같았다. 괄호 속 예시는 고교학점제 등 교육과정의 변화 속에서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반면, 지역별 편차 등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필수 이수항목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예시로는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렇게 되면 학교나 학생들에게는 (공동교육과정, 온라인수업, 소인수과목 등)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과목 이수를 위한 노력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학교가 과목을 제공하고 학생이 그것을 이수하는 것이 우선해야 합니다. (1차 교사1)

효용성이 떨어지는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수업보다 정규 교과 내에서의 소화 독려가 필요한 상황에서 해당 문항 전체 혹은 예시 삭제가 바람직함 (1차 장학사1)

기존 1차의 세부내용에서 이수하기 위한 노력으로 공동교육과정, 온라인수업등이 보여줬는데 이 부분이 생략되어서 아쉽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분명히 지역간의 고교학점제를 대비하는 상황의 편차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노력이라는 단어라도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고교와 대학이 함께 고민하고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나름 의미가 있었던 내용이라고 봅니다. (2차 교사3)

지원 전공 관련 과목이수를 위한 추가적 보완노력을 평가 할 수 있는 세부 평가내용이 들어가면 좋겠음. (2차 교수1)

다) 평가항목 ‘전공(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의 개념 정의 및 세부평가내용

‘진로역량’의 두 번째 평가항목에 대해서 1차 개선안에서는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로, 2차 개선안에서는 ‘전공(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로 차이가 있었다. 해당 평가항목의 개념 정의 및 세부평가내용은 다음 <표 III-89>와 같다.

<표 III-89> ‘전공(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 개념 정의 및 세부평가내용

구분	1차 개선안	2차 개선안
개념 정의	고교 교육과정에서 지원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성취의 수준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성취의 수준
세부 평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공통 과목과 일반선택과목의 석차등급은 어느 정도인가? -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진로 선택과목의 성취도별 분포비율을 고려한 성취도는 어느 정도인가? -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과목의 석차등급/성취도, 원점수, 평균, 이수단위, 수강자수, 성취도별 분포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과 성적은 어느 정도인가?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계열)과 관련된 과목의 교과 성취 수준은 적절한가? - 전공(계열)과 관련된 동일 교과 내 과목별 성취 수준의 차이가 있는가?

이에 대한 의견은 평가항목 간 중첩 부분 수정, 평가방향에 따른 세부평가내용 통합 등이 있었다. 우선 평가항목 간 중첩에 대해서는 ‘성취도’ 차원으로 볼 때, 평가요소 ‘학업역량’의 첫 번째 평가항목인 ‘학업성취도’와 개념 및 세부평가내용이 겹친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의 석차등급은 어느 정도인가?’를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일반선택과목의 성적은 어느 정도인가?’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석차등급 외의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평가한다고 했는데, 등급만 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과목은 전공과의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 것이 더 교육적입니다. 따라서 공통과목은 학업성취도 부분에서 다루고, 진로역량 부분에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교사1)

학업역량의 학업성취도와 상당 부분 내용이 중첩됨. 학생의 교과선택권이 강화될수록 두 개념이 비슷해질 것임. (1차 입학사정관3)

다음으로 세부평가내용 통합에 대해서는 평가의 방향성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문장으로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1차 개선안에서 세부평가내용 세 가지 중 일부는 중첩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2차 개선안에서는 세부평가내용의 ‘동일 교과 내 과목별 성취 수준’이라는 문구가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전공(계열)과 관련된 동일 교과 내 과목별 성취 수준의 차이가 있는가?〉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음. 성적 추이를 의미하는 것인지, 희망 전공 결정 후 학습의 효율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 등등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음. 의도에 맞게 정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차 장학사1)

동일 교과 내 과목별 성취 수준의 차이가 의미하는 부분이 매우 모호합니다. 동일 교과에서 더 연계가 높은 과목을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관련된 동일 교과 내 과목은 모두 우수해야 함을 평가하는 것인지 모호합니다. (2차 교사3)

라) 평가항목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의 개념 정의 및 세부평가내용

‘진로역량’의 세 번째 평가항목인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에 대해서 1, 2차 개선안에서는 다음 <표 III-90>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세부평가내용을 제시하였다.

<표 III-90>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개념 정의 및 세부평가내용

구분	1차 개선안	2차 개선안
개념 정의	진로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 과정	자신의 진로를 설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나 경험 및 노력 정도
세부 평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에 관련된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 등이 있는가? -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탐색하고 진로 희망 분야를 선택하는 과정이 있는가? - 지원 전공과 무관하게 자신의 관심 분야나 진로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고, 확장하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계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교과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탐색한 경험이 있는가? - 자신의 관심 분야나 전공(계열)을 찾기 위해 다양한 진로 활동에 참여하며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

이에 대한 의견은 세부평가내용 간 상반되는 내용에 대한 문구 수정이 있었다. 우선 1차 개선안에서 세 번째 세부평가내용의 경우, ‘지원 전공과 무관하게’ 라는 표현에 대해 가장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었다. 연구진의 의도는 경험의 다양성 측면에서 제시된 것이었으나, 문맥상으로 볼 때는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이라는 평가항목과는 상반되는 내용으로 비춰진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이에 2차 개선안에서는 해당 문구를 삭제 및 수정했는데, 이 또한 진로 활동의 다양성으로 한정되는 문구로 해석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지원 전공과 무관하게 자신의 관심 분야나 진로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고, 확장하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 이 부분은 앞의 문구가 서로 거의 상호배반적 문구로 합집합은 모두 다이다. 즉,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확장하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 와 같은 의미로 판단되며, 진로역량에 이 문구가 필요한지 의문임 (1차 입학사정관2)

<자신의 관심 분야나 전공(계열)을 찾기 위해 다양한 진로 활동에 참여하며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의 의미가 자신의 관심 분야나 전공(계열)에 해당하는 다양한 진로 활동으로 읽힐 수 있음. 희망 전공 관련 활동과 그 외의 활동을 모두 포함해 다양한 진로 활동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수정 필요함. (2차 장학사1)

3) 평가요소 ‘공동체역량’ 에 대한 개선안

가) 개념 정의 및 평가항목의 내용

전문가 자문에서는 평가요소 ‘공동체역량’ 에 대해 다음 <표 III-91>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네 가지 평가항목을 제시하였다.

<표 III-91> ‘공동체역량’ 개념 정의 및 평가항목

구분	1차 개선안	2차 개선안
개념 정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
평가 항목	협업과 소통능력	협업과 소통능력
	나눔과 배려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준수	성실성과 규칙준수
	리더십	리더십

III. 실태조사

이에 대한 주된 의견은 기존 연구와 달라진 ‘공동체역량’의 명칭과 개념, 이에 따른 평가항목 간 변별 등이 있었다. 우선 기존 ‘인성’이라는 평가요소가 ‘공동체역량’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다만 공동체만 강조가 되어 개인적 의미의 인성은 포함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아쉽다는 의견이 있었다.

인성이라고 쓰던 용어를 공동체 역량으로 변경하는 부분은 현재의 평가상황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1차 입학사정관2)

공동체역량이 인성과 발전가능성의 개념을 담아 공동체의 발전과 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성과 융합적 사고’, ‘협업과 소통’, ‘책임감’ 등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1차 입학사정관4)

이전의 인성과 발전가능성을 공동체 능력으로 통합한 것으로 보이나, 넓은 의미로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능력으로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공동체가 아닌 개인적 의미의 인성 부분을 포함 할 수 있는 용어로 변경하면 좋겠음. (1차 입학사정관3)

다음으로 평가항목 간 변별에 있어서 ‘리더십’이 ‘협업과 소통능력’ 및 ‘나눔과 배려’와 일부 겹치기에 평가항목의 정의 및 세부평가내용에 있어서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나) 평가항목 ‘협업과 소통능력’의 개념 정의 및 세부평가내용

‘공동체역량’의 첫 번째 평가항목인 ‘협업과 소통능력’에 대해서 1, 2차 개선안에서는 다음 <표 III-92>와 같이 정의를 내리고 세부평가내용을 제시하였다.

<표 III-92> ‘협업과 소통능력’ 개념 정의 및 세부평가내용

구분	1차 개선안	2차 개선안
개념 정의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생활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 및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며, 구성원들과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세부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인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과제를 완성한 경험이 나타나는가? - 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설득하여 협동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가? - 공동과제나 단체 활동을 통해 구성원들로부터 좋은 동료로 인정받고 있는가? - 공동과제 수행이나 모둠활동, 단체활동 등에서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활동 과정에서 서로 돕고 함께 행동하는 모습이 보이는가? - 구성원들과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과제를 수행하고 완성한 경험이 있는가? -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정보와 생각을 잘 전달하는가?

이에 대한 의견은 다른 평가항목과의 중첩성, 세부평가내용의 구체화 등이 있었다. 우선 ‘공동체역량’ 내 평가항목인 ‘협업과 소통능력’과 ‘리더십’이 서로 다른 평가항목임에도 일부 중첩되는 세부평가내용이 들어 있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설득하여 협동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가?’의 내용은 리더십의 세부평가내용과 중복됨 (1차 입학사정관1)

다음으로 평가항목의 명칭은 ‘협업과 소통능력’인데, 세부평가내용에서는 협업에 비해 소통능력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세부평가내용이 추상적 개념으로 일부 되어있다는 점 또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2차 개선안에서는 소통능력 관련한 부분도 드러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III. 실태조사

평가 항목의 세부내용이라면 “생활”, “좋은” 등 모호한 개념보다 좀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야 함. (1차 입학사정관3)

소통과 관련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가, 효과적으로 표현하는가와 같이 발화 영역도 평가 세부내용에 포함 (1차 교수2)

1차에서는 수동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에는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소통능력에 더 맞는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2차 교사3)

다) 평가항목 ‘나눔과 배려’의 개념 정의 및 세부평가내용

‘공동체역량’의 두 번째 평가항목인 ‘나눔과 배려’에 대해서 1, 2차 개선안에서는 다음 <표 III-93>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세부평가내용을 제시하였다.

<표 III-93> ‘나눔과 배려’ 개념 정의 및 세부평가내용

구분	1차 개선안	2차 개선안
개념 정의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타인을 위하여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타인을 위하여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
세부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을 위하여 양보하거나 배려한 구체적 경험이 있는가? -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나눔을 생활화하고자 하는 경험이 나타나는가? -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생활화한 경험이 있는가? - 타인을 위하여 양보하거나 배려를 실천한 구체적 경험이 있는가? -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이에 대한 의견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변화에 따른 세부평가내용 수정이 있었다. 특히 1차 개선안에서 세부평가내용으로 제시한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나눔을 생활

하고자 하는 경험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는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오히려 학교생활로 범주를 넓혀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2차 개선안에서는 이를 반영하였다.

개인봉사활동 실적이 미반영되고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만 반영되는 상황에서 봉사활동의 비중을 축소 반영하는 것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여겨지므로, 문항을 수정하여 전반적인 학교생활 중 해당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필요함. (1차 장학사2)

학교생활 속에서 나눔을 실천한 경험, 양보와 배려의 경험,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과 같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평가하도록 한 부분은 적절해 보임. 봉사활동으로 한정하지 않은 학교생활 전체 속에서의 모습을 평가하고자 하는 부분도 적절하다고 판단됨. (2차 장학사1)

라) 평가항목 ‘성실성과 규칙준수’의 개념정의 및 세부평가내용

‘공동체역량’의 세 번째 평가항목인 ‘성실성과 규칙준수’에 대해서 1, 2차 개선안에서는 다음 <표 III-94>와 같이 정의를 내리고 세부평가내용을 제시하였다.

<표 III-94> ‘성실성과 규칙준수’ 개념 정의 및 세부평가내용

구분	1차 개선안	2차 개선안
개념 정의	공동체의 기본 윤리와 원칙에 따라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고,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태도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공동체의 기본 윤리와 원칙을 준수하는 태도
세부평가내용	- 출결상황, 단체활동 참여 등 학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있는가? -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정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는가? -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인정과 신뢰를 얻고 있으며, 바람직한 행동으로 모범이 되는가?	⇒ - 학교생활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경험이 있는가? - 수업 출석, 단체활동 참여 등 학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있는가? -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정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의견으로 개념정의에 대한 수정과 그에 따른 세부평가내용의 조정 등이 있었다. 먼저 ‘성실성과 규칙준수’에 대한 개념정의가 ‘성실성’ 보다는 ‘규칙준수’ 차원으로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규칙을 수동적으로 따르는 모습만이 강조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항목은 성실성과 규칙준수 인데 그 정의는 규칙준수적 측면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세부 내용도 규칙준수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라고 보이지 성실성이라는 내용이 약해 보입니다. 학교 활동을 통해서 꾸준히 노력한 경험에 있는가? 정도를 하나 추가했으면 합니다. (1차 교사1)

공동체의 규칙과 규정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님. 공동체가 정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준수하기 보다는 규칙과 규정이 부당한 경우, 올바른 방향으로 변경하려는 노력 등도 필요함. (1차 입학사정관3)

또한 세부평가내용 중 일부는 평가항목 ‘리더십’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2차 개선안에서는 평가항목 간 구분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인정과 신뢰를 얻고 있으며, 바람직한 행동으로 모범이 되는가? 이 문항은 ‘리더십’ 항목에 적합함 (1차 장학사2)

마) 평가항목 ‘리더십’의 개념 정의 및 세부평가내용

‘공동체역량’의 네 번째 평가항목인 ‘리더십’에 대해서 1, 2차 개선안에서는 다음 <표 III-95>와 같이 정의를 내리고 세부평가내용을 제시하였다.

<표 III-95> ‘리더십’ 개념 정의 및 세부평가내용

구분	1차 개선안	2차 개선안
개념 정의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가는 역량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가는 역량
세부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회, 동아리 등의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 -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을 주도한 경험이 있는가?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학생회, 동아리 등의 활동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여 공동체 목표 달성에 기여한 경험이 있는가? -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을 주도한 경험이 있는가? -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신뢰를 얻고 있으며, 모범이 된 사례가 있는가?

이에 대한 의견으로 세부평가내용의 명확화 및 구체화 필요 등이 있었다. 우선 ‘리더십’이라는 용어로 인해 회장, 반장 등 반드시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리더십의 정의상 세부 내용은 타당하나 실제로 모든 학생이 리더의 역할을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으로서 화합과 단결을 위해 노력하는 역량 정도로 표현하여 리더의 역할만이 아니라 구성원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는 측면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내용에 한 항목 정도를 추가했으면 합니다. (1차 교사1)

다음으로 일부 세부평가내용은 다른 항목과 중첩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1차 개선안의 세부평가내용 중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는 평가항목 ‘협업과 소통능력’에 보다 부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2차 개선안의 세부평가내용 중 ‘수업, 학생회, 동아리 등의 활동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여 공동체 목표 달성에 기여한 경험이 있는가?’는 팔로워십에 해당되기에 ‘성실성과 규칙준수’에 보다 부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 전문가 심층면접(FGD)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교육과정의 변화와 전형자료의 축소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학생부종합전형 공통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을 개선하고자 교사 및 장학사, 대학 입학관계자 전문가 집단 11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1차 자문지는 설문조사와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연구진에서 정리한 개선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다. 연구진에서 개선안을 도출할 때 고려한 점은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2022학년도 교사추천서 폐지에 이어 2024학년도 전형부터 자기소개서 폐지가 확정되어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평가를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진행해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방식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2024학년도 전형부터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개인봉사활동 실적, 영재·발명 교육 실적, 독서활동이 대입에 미반영된다. 또한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도 예고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평가가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기존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의 내용이 중복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도출하여 자문을 진행하였다. 개선안의 평가요소 구조, 평가요소별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내용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 질문하였다. 2차 자문에서는 1차 자문의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항목의 순서 변경, 문장의 수정 등 세부적인 조정을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요소는 기존의 4개 평가요소에서 3개로 통합하였다.

첫째, “학업역량”은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데 필요한 수학 능력으로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였으며, 평가항목에서도 변화가 크지 않았다. 평가항목으로 ‘학업성취도’, ‘학업태도’, ‘탐구력’으로 구성하였다. 학업역량에서는 학업성취도가 중요한 부분이므로 항목의 순서를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3년간의 종합적인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교과 성적과 같은 정량적 지표로만 인식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반영하였다. 학업태도와 탐구력은 의미가 중첩될 수 있으므로 개념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으며, 기존 평가요소인 발전가능성의 ‘자기주도성’ 내용을 학업태도 항목에 함께 반영하였다. 기존의 ‘탐구활동’을 탐구력으로 변경하고, 교과 학습 활동을 통해 드러나는 학문적 호기심을 평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둘째, 기존의 전공적합성을 “진로역량”으로 변경하였다. 전공적합성에 대해서는

학생이 지원하는 학과(전공)에 부합하는 활동과 경험으로 협소하게 인식된다는 의견에 따라 전문가 자문에서 대부분 진로역량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다만 학업역량의 개념과 중복되어 이중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평가항목으로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전공(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으로 구성하였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육과정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 노력을 평가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지역이나 고교의 환경이 다르므로 이를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연구진은 평가항목에서 전공(계열)과 진로의 용어 사용을 구분하였는데, 교과와 연관된 이수 노력과 성취도 관련해서는 ‘전공(계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학교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자신의 관심분야를 탐색할 수 있도록 개념을 확장하여 ‘진로’ 용어를 사용하여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의 세부평가내용에 기존 발전가능성의 ‘경험의 다양성’을 통합하여 구성하였다.

셋째, 기존 평가요소의 인성과 발전가능성의 리더십 항목을 통합하고 공동체 차원으로 평가의 범위를 확장하여 “공동체 역량”으로 변경하였다. 인성이라는 요소가 개념이 추상적이고 측정이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교사가 관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료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선하였다. 평가항목으로 ‘협업과 소통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준수’, ‘리더십’으로 구성하였다. 평가항목 간소화 측면에서 기존의 협업능력과 소통능력을 ‘협업과 소통능력’으로 통합하고, ‘나눔과 배려’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존의 도덕성이 고교와 대학 현장 모두에서 평가가 어려운 항목이라는 의견에 따라 평가 가능한 범위로 한정하고 성실성과 통합하여 ‘성실성과 규칙준수’로 개편하였다. ‘리더십’은 다른 평가항목의 내용과 중복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이끌어가는 행위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공동체역량이 학생의 적극적인 태도와 행위 등을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기존에는 자기소개서를 통해 학생의 입장에서 기술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전형자료의 축소로 교사가 기술한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만으로 평가해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세부평가내용을 구성하였다.

1, 2차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개정한 학생부종합전형 공통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의 최종안은 다음 <표 III-96>과 같다.

<표 III-96> 공통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최종안

학업역량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데 필요한 수학 능력	1) 학업성취도 고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취수준이나 학업 발전의 정도 -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교과목(예: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등)의 교과성적은 적절한가? 그 외 교과목(예: 예술·체육, 기술·가정/정보, 제2외국어/한문, 교양 등)의 교과성적은 어느 정도인가? 유난히 소홀한 과목이 있는가? - 학기별/학년별 성적의 추이는 어떠한가?
	2) 학업태도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해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 - 성취동기와 목표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학습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자기주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 교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수업 내용을 이해하려는 태도와 열정이 있는가?
	3) 탐구력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사물과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 교과와 각종 탐구활동 등을 통해 지식을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 교과와 각종 탐구활동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가? - 교내 활동에서 학문에 대한 열의와 지적 관심이 드러나고 있는가?
	1)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정도 - 전공(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이수한 과목은 얼마나 되는가? - 전공(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노력을 하였는가? (예: 공동교육과정, 온라인수업, 소인수과목 등) - 선택과목(일반/진로)은 교과목 학습단계(위계)에 따라 이수하였는가?
	2) 전공(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성취 수준 - 전공(계열)과 관련된 과목의 석차등급/성취도,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이수단위, 수강자수, 성취도별 분포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성취 수준은 적절한가? - 전공(계열)과 관련된 동일 교과 내 일반선택과목 대비 진로선택과목의 성취수준은 어떠한가?
진로역량 자신의 진로와 전공(계열)에 관한 탐색 노력과 준비 정도	

<p>공동체역량</p> <p>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갖춰야 할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p>	<p>3)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p> <p>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나 경험 및 노력 정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관심 분야나 흥미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노력한 경향이 있는가? - 교과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전공(계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탐색한 경험이 있는가?
	<p>1) 협업과 소통능력</p> <p>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며, 구성원들과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활동 과정에서 서로 돕고 함께 행동하는 모습이 보이는가? - 구성원들과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과제를 수행하고 완성한 경험이 있는가? - 타인의 의견에 공감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정보와 생각을 잘 전달하는가?
	<p>2) 나눔과 배려</p> <p>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타인을 위하여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생활화한 경험이 있는가? - 타인을 위하여 양보하거나 배려를 실천한 구체적 경험이 있는가? -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p>3) 성실성과 규칙준수</p> <p>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공동체의 기본 윤리와 원칙을 준수하는 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활동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 -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정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p>4) 리더십</p> <p>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이끌어가는 능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을 주도한 경험이 있는가? - 구성원들의 인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를 이끌어내고 조율한 경험이 있는가?

2) 시사점

학생부종합전형의 공통 평가요소와 평가항목을 개정하는 된 배경은 2019년 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에 따른 대입정책의 변화와 전형자료의 축소, 고교 교육과정의 변화 등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환경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2024학년도 전형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될 예정이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학교생활기록부 항목 중에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 항목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개념과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기존에는 교사들이 기록한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과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통해 교차 확인하므로 내용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여 학생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었으나, 2024학년도 전형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으로만 학생을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평가요소와 평가항목의 범위와 내용이 다소 축소되고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평가요소를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으로 통합하여 구성할 때 고교 교육과정과 학생의 관점을 고려하고자 노력하였다. 교육과정이 변화하며 진로탐색이 중요해지고, 학생의 과목선택권이 강화되는 교육환경을 반영하여 전공에서 진로로 개념을 확대하여 “진로역량”으로 변경하였으며, 2015개정교육과정 총론에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 6가지 중 하나인 “공동체역량”의 개념을 일부 적용하여 인성과 발전가능성의 항목을 통합하여 변경하였다.

또한 평가요소와 평가항목간의 독립성을 고려하여 개선하였다. 기존 평가요소 중 “발전가능성”의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창의적 문제해결력’ 항목이 전 영역에 걸친 상위의 개념인 점을 고려하여 다른 평가요소의 평가항목과 세부평가 내용에 포함시켜 통합하였다. 기존의 학업역량과 전공적합성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학업역량”과 “진로역량”에서 개념을 구분하여 중복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학업역량”은 3년간의 전반적인 학업 수준과 능력을 의미하고, “진로역량”은 대학 입학 후 해당 전공을 수학할 때 필요한 기초 소양과 자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학업역량의 ‘학업성취도’와 진로역량의 ‘전공(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는 평가과정에서 교과목에 따라서 이중으로 평가되는 측면도 있기에 대학에서 평가할 때 이 점을 고려하여 적용해야 한다.

이 개선안은 변화되는 교육환경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개별 대학에서 적용할 때 지역이나 고교 교육환경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평가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Ⅳ.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요소 및 항목 개선 방안

1. 개요

이번 연구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전형자료 축소와 고교학점제 등 교육과정이 변화함에 따라 평가 가능한 자료와 교육과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의 평가 요소 및 항목을 폐지, 축소 및 통합, 명칭을 변경하여 현실적으로 평가 가능한 요소와 내용을 중심으로 학생부종합전형 공통 평가요소 및 항목, 세부평가내용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문헌조사, 설문조사, 델파이조사, 전문가 자문회의(FGI)를 통해 도출되었다.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된 75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현황을 전수 조사하였으며, 전국 797개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부종합전형 공통 평가요소 및 항목 개선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는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교 교사 및 교육청 소속 15명, 대학입학사정관 13명으로 총 28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 진행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심층면접(FGI)은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개선안’에 대해 대학 입학관계자 6명, 장학사 및 고교 교사 5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요소는 4가지에서 3가지로, 평가항목은 15가지에서 10가지로 축소하였다. 평가요소 네 가지 중에서 ‘발전가능성’이 다른 요소와 다소 중첩된다는 점과 ‘자기주도성’과 ‘경험의 다양성’, ‘창의적 문제해결력’ 항목이 전 영역에 걸친 상위의 개념인 점을 고려하여 다른 요소의 개별 평가항목으로 통합하였다. ‘전공적합성’이 학생들에게 희망 전공에 맞춘 활동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심어줘 지나치게 경험을 협소하게 만드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계열적합성으로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점과 대학보다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고교의 관점을 반영하여 ‘진로역량’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인성’은 교육적 의미가 높지만 추상적이고 평가가 어렵다는 점과 전형자료 축소로 평가내용이 줄어든 점을 고려하여 개인적 특성보다는 공동체의 관계 측면에 초점을 둔다는 의미에서 ‘공동체역량’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평가항목에서는 배제의 원칙을 지켜 항목 간 중복을 최소화하고, 미래의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하였다. 기존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탐구활동이 중첩된다는 의견을 반영해

Ⅳ.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요소 및 항목 개선 방안

학업태도와 탐구력으로 변경하고, 자기주도적인 진로설계 학습에서 학생의 과목선택이 중요해지는 교육과정의 변화를 반영하고 세밀한 잣대를 마련하기 위해 전공(계열)과 관련 과목 이수 노력과 성취도를 분리하였고, 학교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진로활동과 경험이 이루어지도록 전공 용어 대신,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으로 변경하였다. 개인적 특성이 강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도덕성을 제외하고 공동체 내의 관계역량을 반영해 리더십을 공동체역량으로 이동하고 유사한 항목을 통합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공통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개선안은 다음 [그림]과 같이, 기존의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의 4가지 평가요소는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의 3가지 역량 중심 평가요소로 개정하였다. 『학업역량』에서 ‘학업태도와 학업의지’는 ‘학업태도’로, ‘탐구활동’은 ‘탐구력’으로, 『진로역량』에서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를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과 ‘전공(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로 분리하고,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와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을 통합하여 ‘전공’ 대신에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으로 변경하였다. 『공동체역량』에서는 기존의 『인성』 및 『발전가능성』 평가항목 중 ‘협업과 소통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준수’, ‘리더십’으로 재구성하였다.

〈현행〉		〈개선〉	
평가 요소	평가항목	평가 요소	평가항목
학업 역량	학업성취도	학업 역량	학업성취도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학업태도
	탐구활동		탐구력
전공 적합성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진로 역량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인성	협업 능력	공동체 역량	협업과 소통능력
	나눔과 배려		나눔과 배려
	소통능력		성실성과 규칙준수
	도덕성		리더십
	성실성		
발전 가능성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창의적 문제해결력		

[그림 IV-2]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의 개선 방안

2.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등 개선 방안

가. 학업역량

2017년 연구에서는 ‘학업역량’을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으로 정의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항목을 ‘학업성취도’,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그리고 ‘탐구활동’ 등으로 구분하였다. 학업역량이 대학 입학 후 고등교육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수학 능력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학업역량의 정의는 이전 연구와 큰 차이가 없으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지난 연구 이후 나타난 교육과정의 변화와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른 학생부 기재사항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학업역량의 평가항목과 세부 평가항목들을 수정하거나 변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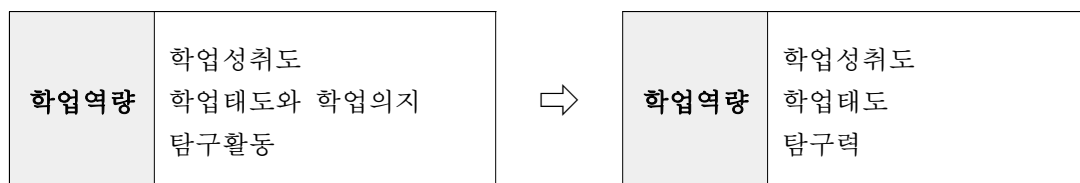
첫 번째 평가항목인 ‘학업성취도’는 2015개정교육과정 도입으로 이전 연구 때와는 다른 성적 평가체계가 도입되었으나, 교과성적이란 정량지표를 반영하여 학업성취를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하는 기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만, 교육과정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된 성적 체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세부 평가항목은 일부 수정하였다.

‘학업태도와 학업의지’는 ‘학업태도’로 단순화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학업태도와 학업의지’는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을 해나가는 자발적인 의지와 태도, 그리고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학습 전략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실행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학생부의 기재사항이 점차 축소되는 상황에서 학업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뤄 기존의 평가항목 중 ‘학업의지’를 삭제하였다.

마지막으로 ‘탐구활동’은 ‘탐구력’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일반적으로 활동은 어떤 일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힘을 쓴다는 뜻이다. 학습활동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단순 활동 참여보다는 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 탐구활동보다 탐구력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학업역량’은 기본 정의를 거의 그대로 유지할 뿐 아니라, 평가항목의 변화도 크지 않다.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변하고 학업성취도를 표현하는 방법이 변하더라도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은 중등교육 이수자들에게 고등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학업 성취수준

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래 사회를 대비해야 하는 대학이 요구하는 ‘학업역량’은 단순히 정량적 지표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전 연구와 비교했을 때, 학업역량의 평가항목 간 변화는 다음 [그림 IV-2]와 같다.



[그림 IV-2] ‘학업역량’ 평가항목의 변경

1) 학업성취도

지난 연구에서 학업성취도는 석차등급 또는 원점수(평균/표준편차)를 활용해 산정한 학업능력 지표와 교과목 이수 현황 등을 기반으로 평가한 교과목의 성취수준이나 학업 발전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기존의 정의가 석차등급이나 원점수 등을 포함하여 너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2015개정교육과정 시행을 계기로 성취도가 대학에 추가로 제공되고 있어 학업성취도의 개념을 좀 더 포괄적으로 정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의 의미를 좀 더 확장하기 위해 ‘고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취수준이나 학업 발전의 정도’로 새롭게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학생부교과전형에서는 정량지표 위주의 학업성취도가 지원자의 학업역량을 평가하는 주요 항목이나, 정성평가를 기본으로 하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학업역량 외에도 전공에 대한 관심이나 학문적 발전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정성평가의 경우에는 등급과 원점수 또는 성취도뿐만 아니라 이수과목, 이수자 수, 평균과 표준편차,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15개정교육과정이 본격 시행되면서 진로선택과목에서는 성취도와 성취도 비율이 추가로 제공되는데 이 또한 평가에 활용된다. 고등교육을 이수하는 데 기본이 되는 기초교과(국어·수학·영어)와 탐구교과(사회/과학) 뿐만 아니라, 교양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교과(예술·체육, 기술·가정/정보, 제2외국어/한문, 교양 등)의 성적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소위 주요 교과목의 성적만 우수한 경우는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학업성취도에 대한 평가는 종합적 학업능력, 추세적 발전 정도, 그리고 희망 전공과의 연계 등을 기본으로 한다. 종합적 학업성취도는 3년간의 종합적 학업성취도를 의

미하는 것으로 대체로 재학 기간 중의 평균적 학업성취도에 의해 평가된다. 다만, 교과성적은 지원자가 속한 집단에 따른 영향으로부터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정량적 지표에 의해 선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자의 여러 특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데는 종합적 학업성취도 외에도 학년이나 학기에 따른 성적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다. 이러한 평가의 관점은 학문적 발전가능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평가자들은 지원자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에 관심이 많다. 이런 점에서 성적의 향상 정도는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최근에는 진로선택과목을 주로 3학년에 이수함으로써 단순히 등급 성적에만 의존할 경우 3학년 성적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에 따라 성적 체계가 다른 점을 유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입의 특성상 졸업연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지원자가 이수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학업역량을 평가하는 데 있어 3년간의 학업성취도는 단순히 하나의 평균 성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평가자들은 다양한 과목 구분에 따라 학기별로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자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한다. 따라서 평가 시에는 전 과목이나 기초교과의 과목을 통해 전체적인 학업능력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희망 전공 분야의 과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병행한다.

학업성취도의 정의와 세부 평가항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지적되었던 점은 학업성취도가 정량적 평가 위주로 흐르는 것이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에서 학업성취도는 단순히 정량적 지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특히, 학업성취도를 Z-점수나 등급 등과 같은 정량지표 위주로 정의할 경우 고교 현장에서는 학업성취도를 성적 위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데 단순히 등급이나 성취도를 활용한 정량적 지표만을 반영한다든지, Z-점수와 같이 상대적으로 정밀한 수단들을 언급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본다. 또한, 현재 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특히, 새로운 교육과정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전공 관련 심화과목이나 전문교과의 반영 여부 등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2) 학업태도

이전 연구에서 ‘학업태도와 학업의지’를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을 해 가는 자발적인 의지와 태도’와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학습 전략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 실행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번 연구에서는 학생부의 기재사항이 점차 축소되는 상황에서 학업에 대한 의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뤄 기존의 평가항목 중 ‘학업의지’는 삭제하고 평가항목을 ‘학업태도’로 단순화하였다. 따라서 정의도 기존 정의에서 의지와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고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해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으로 단순화하였다.

학업역량 평가에서는 자기주도적으로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하는 자발적인 의지와 태도를 중요하게 고려한다. 그래서 학업태도를 살펴볼 때는 자기주도성에 기반한 학업에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 도전 정신과 실험 정신, 지적인 호기심, 각종 교내 활동에 대한 열정 등이 확인될 때 의미 있게 평가한다.

이러한 자기주도적 학업태도는 다양한 측면에서 엿볼 수 있다. 교과 수업에서 집중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스스로 탐구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어떤 교과목을 어떻게 선택하여 이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면서 확인할 수 있다. 2015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향후 도입될 고교학점제도 자유로운 과목 선택을 전제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여 어떻게 학습하였는지는 학업태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외에도 교내에서 열리는 각종 대회에 참여도와 노력의 과정을 주도적으로 보여준 경우, 동아리활동이나 자율활동, 진로활동 등에서 보이는 진취성과 무엇인가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배우려는 자세 등에서 평가자는 자기주도적 학업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자신이 처한 교육환경 속에서 스스로 배움을 확장하고 토론이나 실험, 과제수행, 집단학습 등을 통해서도 창의성이나 자기주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수업과 과제수행 과정에서 보여준 주도적인 노력, 열의와 관심, 다양한 탐구 방법의 모색 등 의미 있는 지적 성취에 대해 주목한다. 교과 학습 내에서 학생이 주도적인 학습 수단으로 접할 수 있는 수단이 독서이다. 교과 학습의 내용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된 분야의 서적을 주도적으로 찾아 읽고 그 내용이 토대가 되어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와 지적 호기심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독서활동 기록을 담고 있는 독서활동상황의 경우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대학에 제공되지 않아 직접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에 기록되는 사항을 통해 간접적인 평가는 가능할 것이다. 이 항목들에서는 학생의 지적 요소에 대한 전반적인 교사의 진술을 토대로 학교생활기록부의 다른 요소들과 연관 관계 속에서 종합적으로 학업역량을 평가할 수도 있다.

학업역량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자기주도성은 지적 호기심을 발휘해 보았는지, 또는

스스로가 어떤 하나에 심취해 보았는지 등의 경험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자기주도성은 탐구력, 지적호기심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지적 호기심과 관련된 요소들은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도 잘 드러난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업과 관련된 지적 성장의 과정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다. 평가자는 학교 수업과 과제수행 과정에서 학생이 보여준 학업 능력의 향상을 위한 노력과 스스로 탐구하고 이해하려는 태도와 열정, 학업에 대한 열의와 관심, 성취 수준, 문제 해결에 대한 다양한 방법의 모색 등에 주목하여 지적 호기심을 평가한다. 수업의 다양한 모습과 과제 수행 과정, 즉 토론과 탐구·연구 활동, 글쓰기, 실험 실습 등을 통해 학생의 관심 분야에 대한 지적 성취뿐만 아니라 지적 호기심까지도 추론할 수 있다.

3) 탐구력

지난 연구에서 탐구활동은 ‘어떤 대상에 대해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깊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존의 평가항목인 ‘탐구 활동’은 ‘탐구력’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정의도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사물과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변경하였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교과 학습활동을 통해 드러나는 학업 관련 탐구력을 학업역량 평가의 중요한 항목으로 활용한다. 탐구력이란 어떤 대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깊게 꾸준히 연구할 수 있는 역량을 지칭한다. 학업역량은 교과 학습뿐만 아니라 관심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독서활동, 글쓰기, 탐구 및 연구 활동, 실험 실습, 교내대회 참여 등 다양한 학습경험을 통해 향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탐구력은 고차원적인 학업역량을 보여주는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탐구력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자들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탐구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 이룬 성과는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교실수업을 통한 성장 과정에 주목한다. 교과 시간에 수업 내용에 대해 연계적 질문이나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는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수업을 수강하였고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탐구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는지, 수업에서 생긴 궁금증을 풀어보고 싶거나 자신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 학교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확장해 나갔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교과 영역에 대한 탐구력 평가는 특정 지식을 잘 사용할 줄 아는지와 탐구력을 신장한 과정도 평가하는데 수행평가는 그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수행평가는 학생

Ⅳ.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요소 및 항목 개선 방안

스스로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지식과 기능을 적용 또는 활용하는 능력까지 평가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탐구력을 확인할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탐구 역량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주제 탐구, 프로젝트 학습과 관련한 자율활동을 통해 꾸준한 탐구 의지를 보인 활동을 했을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술 동아리 활동에는 교과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토론, 실험, 연구, 탐구 활동 등이 포함되는데 이를 통해 탐구 역량이 드러날 수도 있다.

이처럼 탐구력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과 관련 활동이나 실험 실습, 탐구, 연구 활동 등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학문적 열정이나 지적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본다.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정리된 ‘학업역량’의 평가항목들에 대한 정의와 세부평가 내용은 다음 <표 Ⅳ-1>과 같다.

<표 Ⅳ-1> ‘학업역량’의 정의,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내용

평가요소: 학업역량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	
1) 학업성취도	
정의	고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의 성취수준이나 학업 발전의 정도
세부 평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교과목(예: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등)의 교과성적은 적절한가? 그 외 교과목(예: 예술·체육, 기술·가정/정보, 제2외국어/한문, 교양 등)의 교과성적은 어느 정도인가? 유난히 소홀한 과목이 있는가? - 학기별/학년별 성적의 추이는 어떠한가?
2) 학업태도	
정의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해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
세부 평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취동기와 목표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학습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자기주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 교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수업 내용을 이해하려는 태도와 열정이 있는가?
3) 탐구력	
정의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사물과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세부 평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와 각종 탐구활동 등을 통해 지식을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 교과와 각종 탐구활동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가? - 교내 활동에서 학문에 대한 열의와 지적 관심이 드러나고 있는가?

나. 진로역량

이번 연구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전공적합성’을 ‘진로역량’으로 평가요소를 변경한 점이다. 전공적합성은 입학사정관제 도입 때부터 지금까지 평가요소로 활용해왔는데 여러 논란이 있었다.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 전공이 다르고 고등학교 교육이 교과 기초학업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공적합성을 학업역량의 하위요소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과 학교 교육에서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을 경험하도록 권장한다는 점에서 전공적합성을 독립적인 평가요소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있었다. 실제 다수의 대학들은 전공적합성을 학업, 인성 등과 독립된 평가요소로 활용하거나 계열적합성·전공계열적합성·전공준비도 등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대학들은 학업역량이나 발전가능성 내의 세부평가항목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 전공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평가요소에서 아예 제외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고교 교사와 대학 입학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 약 82%가 전공적합성을 다른 평가요소와 독립적인 평가요소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전공적합성’을 의미하는 유사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 전공적합성(78.6%)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공계열적합성(75.7%), 계열적합성(71.5%), 전공준비도(64.9%)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진에서는 전공적합성의 취지를 살리되, ‘전공적합성’이 대학의 희망 전공에 맞춰 학생들의 활동과 경험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학업성취도의 인지적 역량과 태도적 관점의 비인지적 역량으로 나누는 안, 입학사정관의 평가 체계나 흐름에 맞게 학업성취도와 활동역량으로 나누는 안 등과 같이 근본적인 새로운 방안과, 입학사정관제 시기부터 사용해 온 전공적합성의 취지를 살리되 계열적합성으로 개념을 확장하여 학생들의 입시준비 부담과 교사의 진학 지도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서 ‘진로(계발 또는 탐색)역량’이 제시되었다. 최종적으로 문·이과 융합교육, 2015 개정교육과정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고교학점제 등 미래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도록 평가요소의 개념 확장성을 고려하여 ‘진로역량’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기존의 평가요소인 전공적합성이 대학평가자 관점이라면, 진로역량은 수험생인 고등학교 학생 관점이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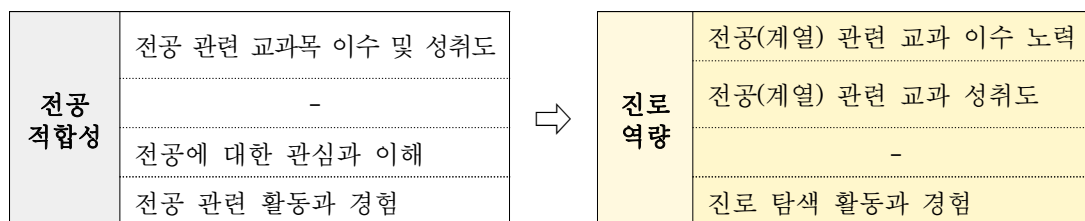
2017년 연구에서는 전공적합성을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노력과 준비정도’로 정의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진로역량을 ‘자신의 진로와 전공(계열)에 관한 탐색 노력과 준비 정도’로 정의하여, 전공 대신에 진로로 개념을

확장하였다. 대학의 전공(계열) 맞춤형 활동을 강조한 전공적합성보다는 장래 희망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의미하는 진로역량이 넓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델파이 조사에서 진로라는 개념이 주는 모호성으로 인해 입시 준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니 평가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평가항목을 기존 연구의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를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과 ‘전공(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로 분리하였다. 자기주도적인 진로설계 학습과정으로 학생의 과목 선택이 중요해지는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의 변화를 반영하여 보다 세밀한 잣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대학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희망 전공(계열) 관련하여 적절하게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학교에 개설 과목이 없는 경우 공동교육과정 등 추가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도 살펴 피게 된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진로활동과 경험이 이루어지도록 기존 연구의 평가항목인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와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을 통합하여 ‘전공’ 대신에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으로 변경한다. ‘진로’로의 명칭 변경은 고교 입학 후 조기에 진로를 정해야 하고 대학의 특정 전공에 맞춰서 전공 탐색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부담을 줄이고, 희망 전공과 무관하게 학교 활동 전반에서 다양한 진로 탐색을 하도록 하는 긍정적 변화를 기대한다.

이번 ‘진로역량’으로의 개편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의 핵심 인재상인 ‘자기주도성’을 체득하고 2017년 연구에서 발전가능성의 평가항목이었던 ‘경험의 다양성’을 실천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학업역량이 고교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학업 수준과 능력을 말한다면, 진로역량은 대학 입학 후 해당 전공을 수학할 때 필요한 기초 소양과 자질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미래의 성장잠재력에 초점을 둔다고 하겠다.

이러한 진로역량의 평가항목으로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전공(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을 제시하였다. 이전 연구와 비교했을 때, 진로역량(전공적합성)의 평가항목 간 변화는 다음 [그림 Ⅳ-3]과 같다.



[그림 Ⅳ-4] ‘진로역량’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의 변경

1)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대학 전공을 수강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이 있는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을 고등학교가 개설하고 있는가? 학생에게 과목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지는가? 대학은 학교가 지정해서 과목을 이수한 학생과 학생이 선택하여 과목을 이수한 학생을 다르게 평가해야 하는가? 이수한 과목의 난이도와 수준, 이수 단위(과목) 수를 평가해야 하는가? 등이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평가에 대한 대학의 고민이다.

먼저 학생들이 전공(계열) 관련 과목을 선택할 기회가 있는가를 생각해보자. 2015개정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공통과목을 통해 기초소양을 키우고, 학생의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해당 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이다. 예고된 고교학점제, 2022개정교육과정도 학생들이 진로·적성에 맞게 배워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미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데 목적을 둔다. 2015개정교육과정과 다가올 고교학점제 도입과 같은 고교 환경의 변화로 인해 학생의 희망 진로계열에 맞는 교과목을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교사수급문제 등으로 학교 내 과목 개설이 되지 않은 학생을 위해 학교 밖에서 공동교육과정으로 과목을 이수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학생선택형 교육과정의 방향은 대학에게 학생의 과목 선택을 평가에 활용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진로역량의 첫 번째 평가요소인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은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정도’로 정의하였다.

세부 평가내용으로 전공(계열)과 관련된 과목 선택의 적절성과 이수 과목 수, 교과목 학습단계(위계)에 따른 선택과목(일반/진로) 이수 여부, 전공(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한 추가 노력(예: 공동교육과정, 온라인수업, 소인수과목 등) 등을 제시하였다.

전공(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이수하였는가를 평가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이 대학에서 요구한 전공(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였는가를 살펴본다. 이 평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작업이 선행되고, 학생들에게 사전에 안내되어야 한다. 대학의 지원 전공(학과)별로 필요한 과목을 제시할 수도 있고, 전공(학과)보다는 넓게 인문/사회/상경/자연/공학/의학/예술/체육 계열별로 필요한 과목을 제시할 수도 있다. 대학마다 전공마다 다를 수 있어, ‘전공(계열)’으로 표기한 이유이기도 하다. 대학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전공(계열)과 관련해 학생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

을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학 전공(학과)별로 이수해야 할 과목을 상세하게 지정하기보다는 인문/사회/상경/자연/공학/의학/예술/체육 등 계열별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전공(학과)의 경우 계열별 지정 과목에 지원 전공(학과)별로 일부 과목을 추가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 예컨대 인문/사회/상경계열은 국어와 사회과목을 더 이수하고, 자연/공학/의학은 수학과 과학과목을 더 이수하고, 영어는 공통적으로 모두 이수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다만, 자연/공학/의학계열은 수학과 과학을 더 이수하면서 지원학과에 맞는 과학II 과목을 추가적으로 이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공학계열은 물리II, 생명과학계열은 생명과학II, 화학계열은 화학II, 의학계열은 생명과학II와 화학II를 이수하는 것이다.

전공(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얼마나 이수하였는지도 평가한다. 이수 과목 수와 이수 단위의 적정성 등과 같은 양적 측면도 평가 대상이 된다. 자연계열 지원자의 과학 이수 과목 수를 예를 들어보자. 선택과목으로 2학년 생명과학 I 과 화학 I, 3학년 지구과학 I, 생명과학II 이상 총 과학 4과목을 이수한 학생과 물리학 I/II, 화학 I/II, 생명과학 I/II, 과학과제연구 이상 총 과학 7과목 이수한 학생이 있다면, 교과성적이 비슷할 경우 과학 기초소양을 고려할 때 후자인 7과목을 이수한 학생에게 더 나은 평가를 하게 될 것이다. 물론 대학은 학교가 처한 상황에 따라 학생의 선택 과목 수도 달라질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표를 참조하여 학생에게 과목 선택의 기회가 어떻게 주어지고, 학생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학교가 과목을 개설하지 않아 이수하지 못한 학생과 학교가 과목을 개설했음에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의 평가는 달라야 한다. 학교가 과목을 개설하지 않아 대학이 지정한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수 단위가 적정한지도 살핀다. 단지 이수 과목 수만 많다고 충실한 학습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 학교가 과목의 이수 단위를 적정하게 배정해 학생이 학습을 충실히 하였는지를 평가한다.

학생도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가 개설하지 않아 희망 전공(학과) 관련 필수 과목을 이수할 수 없을 경우 공동교육과정, 온라인수업, 동아리, 독서 등 개인적 학습 노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대면이든지 비대면이든지 관계없이 학교가 개설하지 않은 희망 전공(계열) 관련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찾아 듣거나 난이도나 수준이 높아 수강을 기피하는 소인수과목을 수강한다면 자기 주도적인 탐색 과정을 고려해 학습태도와 의지를 높게 평가할 것이다.

자신의 진로 희망에 따라 일반선택과목과 진로선택과목을 학습 단계(위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희망 전공(계열) 관련 과목을 선택한 이수

경로를 면밀하게 살피고, 학습 단계(위계)에 맞게 난이도와 수준을 높여 탐구하는 과정을 평가한다. 대학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유형의 특성에 맞게 과목을 개설하는지를 살펴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일반고는 보통교과 과목을 얼마나 개설하고 학생에게 얼마나 선택권을 부여하는가, 보통교과를 충실히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과목 선택권의 확대에 초점을 두고 살필 필요가 있다. 진로선택과목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반드시 난이도 높은 전문교과나 심화과목일 필요는 없다. 보통교과의 충실한 이수와 깊이 있는 학습을 해나가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일반고에서 전문교과의 진로선택과목 개설 등 경쟁식 다양화는 지양해야 한다. 단순한 전문교과 이수보다 이수과목의 내용과 활동의 충실도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학교가 처한 환경을 고려하여 진로선택과목으로 개설된 전문교과를 평가에 제한적으로 활용한다. 특목고와 특성화고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에서 특성화 교육과정을 반영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시기에는 진로선택과목 못지않게 대학 수학을 위한 학업 기초역량을 쌓는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도 중요하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필요한 교과별 학문의 기본적인 이해에 바탕을 둔 일반선택과목을 충실히 이수하고, 자신의 진로·적성에 따라 희망 전공(계열) 관련한 진로선택과목을 이수하고 있는지를 연계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은 지원 전공(학과) 수학에 필요한 기초역량을 쌓는데 의미가 있다. 실제 대학에서 요구하는 전공(계열) 관련 필수 이수 과목은 국어와 수학, 탐구, 영어 등 주요 교과에서 몇 과목 정도 더 들었느냐의 차이 정도일 것이다. 마치 지원자격처럼 대학 전공(계열)에서 요구하는 필수 과목만 이수한다면 그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대학도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 전공(계열)과의 연계를 위해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교과목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안내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전공(학과) 별로 지나치게 상세하게 이수과목을 지정하면 지원자격화 될 수 있다. 대학마다 학과마다 이수해야 할 과목이 제각각이면 학생의 과목 선택에 혼란이 따를 수 있다.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는 학생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대학은 계열 수준 정도에서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원칙은 단순히 희망 전공(계열)과 관련 과목을 이수했느냐 이수 과목 수가 얼마나 되느냐 보다 어떤 과목을 듣더라도 얼마나 충실하게 들었느냐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전공(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

학업역량의 ‘학업성취도’와 전공(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가 평가과정에서 이중으로 평가되는 측면이 있다. 미적분이나 물리Ⅱ 과목의 교과성적은 전체 교과 성적을 평가하는 학업역량의 평가항목에서도 평가하지만, 자연계 전공(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를 평가하는 진로역량의 평가항목에서도 평가한다.

전공(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는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성취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세부 평가내용으로 전공(계열)과 관련된 과목의 성취 수준, 전공(계열)과 관련된 동일 교과 내 일반선택과목 대비 진로선택과목의 성취수준 비교 등을 제시하였다.

전공(계열)과 관련된 과목의 성취수준은 교과학습발달상황의 과목별 석차등급/성취도,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이수단위, 수강자수, 성취도별 분포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앞장의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에서 살펴본 전공(계열)과 관련된 이수 과목의 교과 성취가 어떠한가를 살핀다.

교과 성취수준 평가 방법은 학업역량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다를 바 없다.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은 석차등급과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이수단위와 수강자수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진로선택과목은 석차등급 없이 성취도별 분포비율을 고려한 성취도(A/B/C), 원점수와 평균, 이수단위와 수강자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진로선택과목의 도입에 따라 단순히 교과성적을 100% 전산처리하는 교과전형보다 교과성적을 정성평가하는 ‘교과종합평가’의 필요성이 커졌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모든 선택과목(일반/융합/진로)이 성취평가제로 성취도(A~E)가 제공되어 ‘교과 정성평가’의 필요성은 더 커질 것이다.

전공(계열)과 관련된 동일 교과 내 일반선택과목과 진로선택과목의 성취 수준을 비교하여 평가한다. 동일 교과 내 일반선택과목의 석차등급과 진로선택과목의 성취도를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교과 성취 수준을 살핀다. 예컨대 1학년 공통과목 과학 1등급, 일반선택과목 물리Ⅰ(수강자수 100명) 2등급, 진로선택과목 물리Ⅱ(수강자수 20명) A(성취도별 분포비율 95%)인 경우 세 과목의 성적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물리과목의 성취 수준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과목별 수강자수와 성취도별 분포비율 등을 고려하여 석차등급과 성취도를 비교할 때 학업 성취 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학습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일반선택과목을 기피하고 등급 취득이 상대적으로 쉬운 진로선택과목을 다수 선택하도록 권장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이 학습 부담이나 석차등급의 유·불리 때문에 희망 전공(계열)별로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의 선택을

기피하지 않도록, 동일 교과 내 일반선택과목과 진로선택과목의 교과 성취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3)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이번 연구에서 가장 큰 변화가 ‘전공’ 탐색에서 ‘진로’ 탐색으로 개념을 확장한 점이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지금까지 자주 들던 질문이 ‘고교 재학 중 꿈이 바뀌면 평가에 불리한가’ 이었다. 전공적합성의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와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그리고 발전가능성의 ‘경험의 다양성’ 평가항목을 통합하여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으로 변경하였다.

이전 연구에서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지원 전공(계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인 태도와 알고 있는 정도’,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은 ‘지원 전공(계열)에 대한 관심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과 배운 점’, 발전가능성의 경험의 다양성은 ‘학교교육의 다양한 영역에서 직접 겪거나 활동하면서 얻은 성장 과정 및 결과’ 로 정의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진로희망과 무관하게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진로탐색 활동과 경험’ 으로 명칭을 바꾸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나 경험 및 노력 정도’ 로 정의하였다.

세부 평가내용으로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진 자신의 관심 분야나 흥미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과 경험, 전공(계열)에 대한 탐색 활동과 경험 등을 제시하였다.

학교 교육에서 자신의 관심 분야나 흥미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를 평가한다. 학교 교육에서 교과 지식 위주의 공부에서 벗어나 학교 내 다양한 영역의 경험을 통해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고 다양한 사회 영역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의 체험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았는지 살펴본다. 희망 전공(계열)과 관련 있든 그렇지 않든 학교 교육에서 자신의 관심 분야나 흥미와 관련한 무슨 활동을 하더라도 경험을 통해 시각을 넓혔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가 중요하다. 세부능력 특기사항 등의 독서 활동 기록을 통해서도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문화적 소양을 쌓았는지를 살펴본다. 예술·체육 영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문화적 감수성, 신체적 능력을 키웠는지를 볼 수 있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 도전한 경험을 통해 이룬 성취를 평가한다. 궁극적으로 대학은 학교 교육에서 이뤄진 자기주도적인 성찰과 경험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교과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전공(계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탐색한 경험

을 평가한다. 논어(論語) 옹야 편에 공자가 말한 지(知)·호(好)·락(樂) 중에서 호(好)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공자는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 고 하였다. 좋아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하고, 그 일을 하면서 더 만족할 것이라는 믿음에서다. 미래에는 어떤 분야를 전공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점점 더 예단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예컨대 경영학과 지원자라면 ‘CEO’, ‘사회적 기업 CEO’, ‘마케터’, ‘스포츠마케터’, ‘스포츠에이전트’, ‘예술경영자’, ‘문화콘텐츠기획자’, ‘경영컨설턴트’,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제연구원’, ‘증권사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외환딜러’, ‘자산관리사’ 등 그 꿈만큼이나 활동도 다양하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교과수업 활동(발표, 토론, 주제탐구)인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록 등에서 희망 전공(계열)에 대한 관심을 파악할 수 있다.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은 학교 교육에서 활동과 경험으로 나타난다. 학생선택형 교육과정으로 발표, 토론, 주제탐구, 과제연구, 실험 등 학생참여형 교과활동(수업)이 활성화되면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에 지원 전공에 관련한 교과활동이 많아지고 있다. 학생이 수행평가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원 전공에 대한 주제탐구 활동을 하기도 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으로 남기도 한다. 호텔리어를 희망한 학생이 영어 수업시간에 호텔리어가 왜 되고 싶고, 호텔산업의 전망 등에 대해 영어로 발표하면서 진로희망을 표현하기도 한다. 지원 전공과 관련된 활동과 경험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이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라 하겠다. 학생들은 주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에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탐색 활동을 하고 있다. 교사가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시간에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자기주도적 체험활동을 소개하고,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의 진로 희망에 적합한 동아리에 가입하기도 하고, 진로체험활동을 계획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지원 전공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대학 입학 후 해당 전공을 더 열심히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다. 진로역량은 전공에 대한 관심이 없는 학생보다는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는 학생이 대학 입학 후 전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는 점에서 미래 잠재력에 맞춘 평가라고 하겠다.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정리된 ‘진로역량’의 평가항목들에 대한 정의와 세부 평가 내용은 다음 <표 IV-2>와 같다.

<표 IV-2> '진로역량'의 정의,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내용

평가요소: 진로역량	
자신의 진로와 전공(계열)에 관한 탐색 노력과 준비 정도	
1)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정의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정도
세부 평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이수한 과목은 얼마나 되는가? - 전공(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노력을 하였는가? (예: 공동교육과정, 온라인수업, 소인수과목 등) - 선택과목(일반/진로)은 교과목 학습단계(위계)에 따라 이수하였는가?
2) 전공(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	
정의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성취 수준
세부 평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계열)과 관련된 과목의 석차등급/성취도,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이수단위, 수강자수, 성취도별 분포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성취 수준은 적절한가? - 전공(계열)과 관련된 동일 교과 내 일반선택과목 대비 진로선택과목의 성취수준은 어떠한가?
3)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정의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나 경험 및 노력 정도
세부 평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관심 분야나 흥미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노력한 경험 있는가? - 교과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전공(계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탐색한 경험이 있는가?

다. 공동체역량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자아실현을 하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며 공공의 선을 추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은 개인이 행복한 공동체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해왔다.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은 사회적 정체성이 확립되는 청소년기에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청소년기는 성인기보다 사회화가 더 효과적이고 지속적이며 공동체를 지향하는 행동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긍정적인 학교생활, 삶의 만족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윤영·백아롱, 2021).

학생부종합전형이 다른 대입전형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학생의 학업능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소질, 잠재력,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정성적인 평가요소를 설정하여 반영한다는 점이다. 특히, 고등학교의 각종 공동체 활동 속에서 구성원들과 협력하고 나눔을 실천한 경험을 중요하게 평가하는데, 이는 대학생활 중에 그리고 졸업 후에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최근 10여 년간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나타나는 인지적 역량과 비인지적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 꾸준히 확대됨에 따라 공동체 내에서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범위가 확장된 점은 긍정적인 현상이다. 학교 내 멘토활동 등의 나눔 활동이나 외부 기관과 연계한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할 기회가 확대되었다. 수업 방식의 다양화에 따라 모듈학습, 협력학습 등이 활발해지면서 학생 간의 협력이 전체 수업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동아리 활동, 자율 및 진로활동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서 크고 작은 역할을 수행하고, 공동의 성과와 결과물을 창출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등 고등학교 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이뤄졌다.

2019년 교육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정책 발표에 따라, 2024년 이후 전형자료에서 교사추천서에 이어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 개인 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 등 학교생활기록부 축소 및 항목 폐지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전형 자료의 전반적 축소는 학교 내 공동체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실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비학업적인 요소에 대한 평가에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자기소개서는 학교생활 중 나눔과 배려를 실천했던 경험을 지원자의 입장에서 제시하는 핵심적이며 유일한 평가 자료라는 점에서 대학에서 이를 평가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이러한 평가의 어려움은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의 간소화와 추상적인 평가항목의 구체화 논의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번 공동연구의 핵심적인 개선방향으로 제기되었다. 기존 공통 평가요소에서는 비학업적인 측면을 ‘인성’과 ‘발전가능성’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2017년 공동연구에서 4가지 평가요소 중 기존 ‘인성’ 평가항목을 바탕으로 ‘발전가능성’의 리더십 항목을 추가하여 ‘공동체역량’으로 재구성하였다.

‘공동체역량’의 사전적 의미는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하는 집단이라는 뜻의 ‘공동체’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라는 뜻의 ‘역량’을 합친 개념이며, 사전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연구진에서 구성하여 제시한 개념이다.

학술적으로 살펴보면, 공동체역량은 시민의식, 참여의식, 대인관계, 협업능력, 자기관리, 다문화수용성, 배려, 관용, 공정성, 문제해결 등의 서로 다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백순근 외, 2017). 교육부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자기관리역량, 지식정보처리역량, 창의적사고역량, 심미적감성역량, 의사소통역량, 공동체역량의 6가지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핵심역량은 전 생애에 걸쳐 직면하는 개인과 사회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초·중등교육에서 길러야 할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 중 공동체역량은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교육부, 2015). 또한, 교육 분야 정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는 ‘학생역량’을 개발하는 연구를 시행하였는데, 국가 교육과정 인간상은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공동체역량에 해당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세부 구성요소는 사회성(공감, 의사소통, 협력 지표), 민주시민성(공동체성, 준법성, 봉사성 지표), 세계시민성(국가정체의식, 지구공동체의식 지표)으로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5).

본 연구에서는 2017년 공동연구를 기반으로 기존 연구 결과를 참조하고, 설문조사와 델파이조사, 전문가 FGI 협의 등을 통해 공동체역량을 정의하고 평가항목을 구성하였다. 교사가 학생을 관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 입학 과정에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자료를 통해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공동체역량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기존에 사용했던 ‘인성’이라는 용어는 교육적 의미가 높지만 너무 넓은 영역을 포괄하며 추상적이고 측정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사전적 의미로는 ‘사람의 성품’으로 규정되고 있고,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과정에서는 평가하기 어려운 ‘개인적 차원’의 의미가 많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성’이라는 명칭을 폐기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존 ‘발전가능성’ 평가요소를 해체하고, 공동체 차원으로 평가의 범위를 확장하는 측면에서 ‘공동체역량’으로 명칭을 통합하여 변경하였다.

‘공동체역량’의 평가항목으로 ‘협업능력과 소통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준수’, ‘리더십’을 제시하였다. 채택된 세부항목은 2017년의 평가표준안과 비교하여 변화된 부분이 있다. 이전 평가요소인 ‘인성’, ‘발전가능성’의 평가항목은 ‘학업역량’과 ‘전공적합성’의 평가항목에 비해 평가 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내용을 평가항목별로 중복적으로 평가하기 쉽고 학교생활기록부 자료를 통해 명확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평가항목을 조정하였다.

Ⅳ.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요소 및 항목 개선 방안

기존의 ‘인성’ 평가요소의 평가항목은 통합하거나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평가항목을 간소화하는 측면에서 ‘협업’과 ‘소통능력’을 ‘협업과 소통능력’으로 통합하였다. ‘나눔과 배려’ 항목은 그대로 두었다. 기존의 ‘성실성’은 ‘성실성과 규칙준수’로 재편했는데, 기존 평가항목인 ‘도덕성’을 삭제하고 이를 ‘규칙준수’로 대체하며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통해 평가 가능한 범위로 한정하였다. 또한, 기존 ‘발전가능성’ 평가요소를 없애고, ‘발전가능성’ 중 ‘리더십’ 평가항목을 ‘공동체역량’ 영역으로 가져왔다.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창의적 문제해결력’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가 아닌 전 영역에 걸친 상위의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평가항목으로 두지 않고 3가지 평가요소에 통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참고로 2017년의 연구와 비교하여 변화된 점은 다음 [그림 IV-4]와 같다.

인성	협업능력 나눔과 배려 소통능력 도덕성 성실성	⇒	공동체역량	협업과 소통능력 나눔과 배려 - - 성실성과 규칙준수
	발전가능성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창의적 문제해결력			- - 리더십 -

[그림 IV-4] ‘공동체역량’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의 변경

1) 협업과 소통능력

협업과 소통능력은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며, 구성원들과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협업은 공동체 역량을 기르는 기본적인 인성으로서,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공동학습과 단체활동 등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돕고 함께 행동하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협업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이끌어내는 동기로서 ‘공동체의 목표’를 인식하는 부분과 이러한 목표를 이루어내는 과정의 ‘상호신뢰’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을 정의에 포함하였다.

소통능력은 학교생활의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

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말한다. 이를 토대로 공동체 안에서 타인과 제대로 소통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협업과 소통능력’은 두 가지 정의를 하나로 통합하여 정의한 것은 아니며, 평가항목 개수를 줄이고 실제 평가에 용이하도록 두 가지 개념을 나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부 평가내용은 첫째, 단체 활동 과정에서 서로 돕고 함께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평가한다. 동아리, 자율, 진로활동과 같은 창의적체험활동, 수업 내 학습활동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동료 학생을 존중하며 함께 생활하는 다양한 모습이 공동체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교사 평가를 통해 반영할 수 있다.

둘째, 구성원들과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과제를 수행하고 완성한 경험이 있는지를 평가한다. 특히 학생중심의 다양한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공동의 과제 작성이나 발표 등의 다양한 협력 과정으로 성취한 결과물이 제시된다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 이러한 협력 활동이 자발적으로 지속되거나 빈도가 높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타인의 의견에 공감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정보와 생각을 잘 전달하는지를 평가에 반영한다. 대학의 평가자는 학교생활 중 소통능력의 좋은 예시를 학교생활기록부 곳곳을 통해 기술된 내용을 토대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2) 나눔과 배려

미래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와 공동체가 조화로운 삶을 이루며 성장하기 위하여 나눔과 배려는 중요한 덕목이다. 이에 ‘나눔과 배려’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타인을 위하여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나눔과 배려에 대한 경험은 아직까지 봉사활동의 양이나 지속성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지만, 실제로는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교사, 동료 등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새로운 평가 세부 내용에서는 기존 연구와 달리 ‘봉사 활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학교생활 속에서 나눔의 실천과 생활화, 양보와 배려를 실천한 경험,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고자 하는 노력의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학교생활 속에서 나눔의 실천과 생활화는 학급, 동아리, 수업 등의 다양한 공

동체 활동 경험을 평가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학습 멘토 역할과 같이 자신의 능력을 나누고 동료의 성장을 도운 경험,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상대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하는 노력, 교내 행사나 축제와 같은 학교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봉사하는 활동 등이 학생부 전반에 걸쳐 생활화되어 있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양보와 배려를 실천한 경험은 상대의 요구, 의견이나 가치관이 충돌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당장 자신에게 득이 되거나 손해를 감수하는 상황일지라도 나와 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이타적인 노력을 보인 경험이 있다면 긍정적인 평가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셋째, 일방적인 나눔과 배려의 자세가 아니라 상대의 처지를 헤아리고 나의 입장과 같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려는 노력을 바탕으로 나눔과 양보, 배려 등을 실천해 왔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3) 성실성과 규칙준수

성실성과 규칙준수는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공동체의 기본 윤리와 원칙을 준수하는 태도’로 정의하였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활동의 대부분이 성실함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실성’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항목으로 활용하고 있다. 학교생활에서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태도를 반영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의 ‘도덕성’ 개념을 ‘규칙준수’로 개정하였다. 설문조사나 전문가 자문에서 도덕성이 평가항목으로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고,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어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만으로 평가해야 하는 상황도 고려하였다. 이에 도덕성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보다는 의미를 명확히 하여 학교생활 속에서 확인 가능한 구체적인 용어 ‘규칙준수’로 개정하여 공동체의 기본 윤리와 원칙을 준수하는 태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세부 평가내용은 첫째, 교내 활동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를 평가한다. 학급의 구성원, 수업 및 동아리 활동 등에서 역할을 부여 받고 성실하게 수행하려고 노력하였는지 확인한다. 수업출석이나 단체활동 참여 등 학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에 책임감 있게 수행하였는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맡은 역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는지 확인하여 평가한다.

둘째,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정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규칙을 준수하고 있어서 변별이 쉽지 않으므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자 등의 사례가 기재되어 있으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 물론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보인다면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자기소개서의 폐지로 인해 학생의 입장에서 기술한 자료가 없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는 노력이나 부당한 규칙을 변경하려는 노력 등 이전보다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늘어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4) 리더십

리더십은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이끌어가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리더십의 개념은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집단이나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하도록 돕는 영향력 있는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고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수업 상황, 모듈별 학습 상황, 동아리 활동 등 교내 여러 상황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의 협력, 화합 등 다양한 상호작용을 이끌어가는 행위를 평가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세부 평가내용은 첫째,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을 주도한 경험을 평가한다.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계획하고, 구성원들을 움직인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학생회 회장이나 학급 반장, 동아리 회장이라고 하여 반드시 리더십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자신이 맡은 역할과 리더로서의 자질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구성원들의 인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를 이끌어내고 조율한 경험이 있는지를 평가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하도록 영향을 미치거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구성원들이 좋은 리더로 인정하고, 그 의견을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정리된 ‘공동체역량’의 평가항목들에 대한 정의와 세부 평가내용은 다음 <표 IV-3>과 같다.

<표 IV-3> '공동체역량'의 정의,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내용

평가요소: 공동체역량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	
1) 협업과 소통능력	
정의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며, 구성원들과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세부 평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활동 과정에서 서로 돕고 함께 행동하는 모습이 보이는가? - 구성원들과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과제를 수행하고 완성한 경험이 있는가? - 타인의 의견에 공감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정보와 생각을 잘 전달하는가?
2) 나눔과 배려	
정의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타인을 위하여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
세부 평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생활화한 경험이 있는가? - 타인을 위하여 양보하거나 배려를 실천한 구체적 경험이 있는가? -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3) 성실성과 규칙준수	
정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공동체의 기본 윤리와 원칙을 준수하는 태도
세부 평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활동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 -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정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4) 리더십	
정의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이끌어가는 능력
세부 평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을 주도한 경험이 있는가? - 구성원들의 인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를 이끌어내고 조율한 경험이 있는가?

이상과 같이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의 개정 방안을 총괄 정리하면, 다음 <표 IV-4>와 같다.

<표 IV-4>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개정 총괄표

학업역량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데 필요한 수학 능력	1) 학업성취도	
	정의	고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취수준이나 학업 발전의 정도
	세부평가내용	-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교과목(예: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등)의 교과성적은 적절한가? 그 외 교과목(예: 예술·체육, 기술·가정/정보, 제2외국어/한문, 교양 등)의 교과성적은 어느 정도인가? 유난히 소홀한 과목이 있는가? - 학기별/학년별 성적의 추이는 어떠한가?
	2) 학업태도	
	정의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해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
	세부평가내용	- 성취동기와 목표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학습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자기주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 교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수업 내용을 이해하려는 태도와 열정이 있는가?
	3) 탐구력	
	정의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사물과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세부평가내용	- 교과와 각종 탐구활동 등을 통해 지식을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 교과와 각종 탐구활동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가? - 교내 활동에서 학문에 대한 열의와 지적 관심이 드러나고 있는가?
진로역량 자신의 진로와 전공(계열)에 관한 탐색 노력과 준비 정도	1)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정의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정도
	세부평가내용	- 전공(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이수한 과목은 얼마나 되는가? - 전공(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노력을 하였는가? (예: 공동교육과정, 온라인수업, 소인수과목 등) - 선택과목(일반/진로)은 교과목 학습단계(위계)에 따라 이수하였는가?
	2) 전공(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	
	정의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성취 수준
	세부평가내용	- 전공(계열)과 관련된 과목의 석차등급/성취도,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이수단위, 수강자수, 성취도별 분포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성취 수준은 적절한가? - 전공(계열)과 관련된 동일 교과 내 일반선택과목 대비 진로선택과목의 성취수준은 어떠한가?

Ⅳ.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요소 및 항목 개선 방안

공동체역량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갖춰야 할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	3)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정의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나 경험 및 노력 정도
	세부 평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관심 분야나 흥미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 - 교과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전공(계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탐색한 경험이 있는가?
	1) 협업과 소통능력	
	정의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며, 구성원들과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세부 평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활동 과정에서 서로 돕고 함께 행동하는 모습이 보이는가? - 구성원들과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과제를 수행하고 완성한 경험이 있는가? - 타인의 의견에 공감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정보와 생각을 잘 전달하는가?
	2) 나눔과 배려	
	정의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타인을 위하여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
	세부 평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생활화한 경험이 있는가? - 타인을 위하여 양보하거나 배려를 실천한 구체적 경험이 있는가? -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3) 성실성과 규칙준수	
	정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공동체의 기본 윤리와 원칙을 준수하는 태도
	세부 평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활동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 -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정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4) 리더십	
	정의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이끌어가는 능력
	세부 평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을 주도한 경험이 있는가? - 구성원들의 인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를 이끌어내고 조율한 경험이 있는가?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최근 몇 년을 사이에 두고 대입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019년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추천서가 폐지되었으며, 자기소개서는 2024학년도 입시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는 일부 항목이 삭제되거나 대입 자료로 활용이 제한되었다. 또한, 2015개정교육과정이 시행 중이며, 향후 고교학점제의 도입이 예고되어 있다.

이번 연구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은 지난 두 번의 연구를 통해 정립되었다. 2016년 건국대, 경희대, 서울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가 공동으로 진행한 「학생부종합전형 운영공통기준과 용어표준화 연구」(건국대 외, 2016)에서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으로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의 용어를, 2017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6개 대학(건국대, 경희대, 서울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의 공동연구인 「대입전형 표준화방안 연구」(건국대 외, 2018)를 통해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내용을 표준화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런 대입 환경의 변화에 맞춰 2017년 6개 대학의 공동연구에서 제시하였던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요소와 평가항목들을 재구조화하여 새롭게 제시하였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을 재구조화하는 기준으로 대입정책의 변화, 고교 교육과정의 변화, 평가자료의 변화, 평가 가능성, 평가요소 혹은 평가항목 간 독립성, 교육적 의미 등을 고려하였다. 전형자료에 내용이 나오지 않아 평가가 어려운 요소를 제외하고, 요소간 항목간 중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사한 항목을 통합하고 명칭을 변경하여 의미를 좀 더 분명히 전달하는 평가요소와 평가항목을 구성하려 노력하였다.

2021년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75개 대학의 평가기준 현황분석과 전국 고등학교 39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고교 교사 및 장학사, 대학의 입학관계자와 교수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조사 및 FGI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평가요소와 평가항목, 평가세부내용 등을 도출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기존 연구의 4가지 평가요소와 15가지 평가항목을 3가지 평가요소와 10가지 평가항목으로 간소화하였다. 기존의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의 4가지 평가요소는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의 3가지 역량 중심 평가요소로 개정하였다. 평가요소 네 가지 중에서 ‘발전가능성’이 다른 요소와 다소 중첩된다는 점과 ‘자기

주도성’과 ‘경험의 다양성’, ‘창의적 문제해결력’ 항목이 전 영역에 걸친 상위의 개념인 점을 고려하여 다른 요소의 평가항목과 세부평가내용에 포함하였다. ‘전공적합성’이 학생들에게 희망 전공에 맞춘 활동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심어줘 지나치게 경험을 협소하게 만드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계열적합성으로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대학보다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고교의 관점을 반영하여 ‘진로 역량’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인성’은 교육적 의미가 높지만 추상적이고 평가가 어렵다는 점과 전형자료 축소로 평가내용이 줄어든 점을 고려하여 개인적 특성보다는 공동체의 관계 측면에 초점을 둔다는 의미에서 ‘공동체역량’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평가항목에서는 기존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탐구활동이 중첩된다는 의견을 반영해 ‘학업역량 내 학업성취도, 학업태도, 탐구력’으로 하고, 자기주도적인 진로설계 학습에서 학생의 과목선택이 중요해지는 교육과정의 변화를 반영하고 세밀한 잣대를 마련하기 위해 ‘진로역량 내 전공(계열) 관련 과목 이수 노력과 성취도’를 분리하고 전공을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으로 개념을 확장하였다. 기존 인성에서 개인적 특성이 강하고 평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도덕성을 제외하고 공동체 내의 관계 역량을 반영해 발전가능성에 있던 리더십을 공동체역량에 포함하고 유사한 항목을 통합하여 ‘공동체역량 내 협업과 소통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준수, 리더십’으로 재구성하였다.

앞으로 새롭게 개편된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이 학교 교육 활동의 충실한 반영으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이 이루어지고,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고교와 대학 입시가 연계되어 학점제형 대입제도, 학점제형 학생부전형이 정착되길 기대한다.

2. 제언

이번 연구 결과는 공동연구에 참여한 건국대·경희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 5개 대학의 2024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의 실제 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다. 일부 대학과 전형에서는 2023학년도부터 활용될 수도 있다. 이번 개편 안이 전국 여러 대학으로 확산되어 유사한 공통 평가요소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부종합전형의 표준화에 기여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학생들의 입시 준비 부담이 줄어들고, 고등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유용한 지침서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향후 대학별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내용에 대한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 예컨대

진로역량의 ‘전공(계열) 관련 과목 이수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전공(계열)과 관련한 과목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고, 대학은 학생들의 입시 준비를 위해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 전형 자료의 축소와 고교 교육과정의 변화를 반영해 앞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은 정성적 종합평가의 특성을 살려가되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을 구체화하여 의미를 좀 더 분명히 전달하고 평가의 타당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참 고 문 헌

- 건국대, 경희대, 서울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2016). **학생부종합전형 운영공통 기준과 용어 표준화 연구**. 서울: 건국대학교 입학전형센터 연구보고서.
- 건국대, 경희대, 서울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2018). **대입전형 표준화방안 연구-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와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서울: 건국대학교 입학전형센터 연구보고서.
- 건국대, 경희대, 서울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2018). **학생부종합전형 공통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서울: 건국대학교 입학전형센터 소책자.
- 교육부. (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 교육부. (2016). **2015 개정교육과정 안내(고등학교용)**. (2016. 12. 30. 보도자료).
- 교육부. (2018).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1].
- 교육부. (2019).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2019. 11. 28. 보도자료).
- 교육부. (2020).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20-248호 [별책 1].
- 교육부. (2020).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평가 결과 발표**. (2020. 5. 29. 보도자료).
- 교육부. (2021a). **2025년, 포용과 성장의 고교 교육 구현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발표**. (2021. 2. 17. 보도자료).
- 교육부. (2021b). **2025년 일반계고 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 발표**. (2021. 8. 23. 보도자료).
- 교육부. (2021c).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발표**. (2021.11.24. 보도자료).
-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2021). **2021. 고교교원-입학사정관 권역별 협의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권역) 자료집**. 17.
- 백순근, 신안나, 김연경, 손주영, 윤승혜. (2017). **고등학생용 여섯가지 핵심역량 측정 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평가연구*, 30(3), 363-395.
- 윤영, 백아롱. (2021). **고등학생의 자기관리역량과 공동체역량 관계에 대인관계 및 배려의 매개 효과 검증: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8(6), 261-288.
- 한국교육개발원 (2015), **KEDI 학생역량 조사 연구: 조사 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보고 RR 2015-31.
- 전국 75개 대학. **입학 홈페이지, 모집요강 및 안내책자**

부록 1. 설문조사 통계조사 요약표

I. 평가요소와 관련된 질문

1. 다음에 제시된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의 각 평가요소가 학생부만을 활용하여 평가하는데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1. 학업역량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4	16	38	174	147	379
%	1.1	4.2	10	45.9	38.8	100

1-2. 전공적합성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9	29	65	181	95	379
%	2.4	7.7	17.2	47.8	25.1	100

1-3. 인성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16	54	100	139	70	379
%	4.2	14.2	26.4	36.7	18.5	100

1-4. 발전가능성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8	47	104	150	70	379
%	2.1	12.4	27.4	39.6	18.5	100

[요약표]

문항	N	평균	표준편차
1-1	379	4.17	0.85
1-2	379	3.85	0.96
1-3	379	3.51	1.08
1-4	379	3.6	0.99

2. 다음에 제시된 4가지 평가요소 중 학생부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선택하여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평가요소	1순위_N	%	2순위_N	%	3순위_N	%	4순위_N	%
학업역량	38	10	34	9	71	18.7	236	62.3
전공적합성	52	13.7	78	20.6	192	50.7	57	15
인성	205	54.1	67	17.7	51	13.5	56	14.8
발전가능성	84	22.2	200	52.8	65	17.2	30	7.9
합계	379	100	379	100.1	379	100.1	379	100

II. 평가항목과 관련된 질문

앞서 제시한 4가지 평가요소 중 ‘학업역량’ 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 다음에 제시된 ‘학업역량’ 과 관련된 각 평가항목이 학생부만을 활용하여 평가하는데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1. 학업성취도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2	6	42	177	152	379
%	0.5	1.6	11.1	46.7	40.1	100

1-2.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4	32	89	180	74	379
%	1.1	8.4	23.5	47.5	19.5	100

1-3. 탐구활동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7	46	110	151	65	379
%	1.8	12.1	29	39.8	17.2	100

[요약표]

문항	N	평균	표준편차
1-1	379	4.24	0.75
1-2	379	3.76	0.9
1-3	379	3.58	0.97

2. ‘학업역량’ 과 관련된 세 가지 평가항목 중 학생부만으로 평가하기에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가항목	N	%
학업성취도	20	5.3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146	38.5
탐구활동	158	41.7
없음	55	14.5
합계	379	100

앞서 제시한 4가지 평가요소 중 ‘전공적합성’ 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3. 다음에 제시된 ‘전공적합성’ 과 관련된 각 평가항목이 학생부만을 활용하여 평가하는데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1.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10	21	59	175	114	379
%	2.6	5.5	15.6	46.2	30.1	100

3-2.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9	46	92	160	72	379
%	2.4	12.1	24.3	42.2	19	100

3-3.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11	50	107	145	66	379
%	2.9	13.2	28.2	38.3	17.4	100

[요약표]

문항	N	평균	표준편차
3-1	379	3.96	0.96
3-2	379	3.63	1
3-3	379	3.54	1.02

4. ‘전공적합성’과 관련된 세 가지 평가항목 중 학생부만으로 평가하기에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가항목	N	%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31	8.2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138	36.4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151	39.8
없음	59	15.6
합계	379	100

앞서 제시한 4가지 평가요소 중 ‘인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5. 다음에 제시된 ‘인성’과 관련된 각 평가항목이 학생부만을 활용하여 평가하는데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1. 협업능력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17	45	115	152	50	379
%	4.5	11.9	30.3	40.1	13.2	100

5-2. 나눔과 배려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21	62	134	119	43	379
%	5.5	16.4	35.4	31.4	11.3	100

5-3. 소통능력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22	58	116	139	44	379
%	5.8	15.3	30.6	36.7	11.6	100

5-4. 도덕성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36	80	141	96	26	379
%	9.5	21.1	37.2	25.3	6.9	100

5-5. 성실성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18	34	94	167	66	379
%	4.7	9	24.8	44.1	17.4	100

[요약표]

문항	N	평균	표준편차
5-1	379	3.46	1.01
5-2	379	3.27	1.04
5-3	379	3.33	1.05
5-4	379	2.99	1.06
5-5	379	3.6	1.03

6. ‘인성’과 관련된 다섯 가지의 평가항목 중 학생부만으로 평가하기에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가항목	N	%
협업능력	19	5
나눔과배려	48	12.7
소통능력	52	13.7
도덕성	220	58
성실성	13	3.4
없음	27	7.1
합계	379	100

앞서 제시한 4가지 평가요소 중 ‘발전가능성’ 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7. 다음에 제시된 ‘발전가능성’ 과 관련된 각 평가항목이 학생부만을 활용하여 평가하는데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1. 자기주도성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12	36	101	172	58	379
%	3.2	9.5	26.6	45.4	15.3	100

7-2. 경험의 다양성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8	40	121	149	61	379
%	2.1	10.6	31.9	39.3	16.1	100

7-3. 리더십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8	45	112	162	52	379
%	2.1	11.9	29.6	42.7	13.7	100

7-4. 창의적 문제해결력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17	70	132	119	41	379
%	4.5	18.5	34.8	31.4	10.8	100

[요약표]

문항	N	평균	표준편차
7-1	379	3.6	0.96
7-2	379	3.57	0.95
7-3	379	3.54	0.94
7-4	379	3.26	1.02

8. ‘발전가능성’과 관련된 네 가지 평가항목 중 학생부만으로 평가하기에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가항목	N	%
자기주도성	29	7.7
경험의 다양성	64	16.9
리더십	43	11.3
창의적 문제해결력	221	58.3
없음	22	5.8
합계	379	100

Ⅲ. 세부평가항목과 관련된 질문

1. 학생부만을 활용하여 ‘학업역량’을 평가하는데 다음 각 항목은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1.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자기주도적인 태도로 노력하고 있는가?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4	30	109	176	60	379
%	1.1	7.9	28.8	46.4	15.8	100

- 1-2. 교과 활동을 통해 지식의 폭을 확장하려 노력하고 있는가?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6	29	87	179	78	379
%	1.6	7.7	23	47.2	20.6	100

- 1-3. 교과성적에 유난히 소홀함을 보인 과목은 없는가?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1	14	52	167	145	379
%	0.3	3.7	13.7	44.1	38.3	100

1-4. 학기별/학년별 성적은 상승 또는 하락하고 있는가?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2	7	28	164	178	379
%	0.5	1.8	7.4	43.3	47	100

1-5. 각종 교과 탐구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가?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6	19	104	172	78	379
%	1.6	5	27.4	45.4	20.6	100

1-6.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교과 외에 타 교과의 성적은 적절한가?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3	7	60	194	115	379
%	0.8	1.8	15.8	51.2	30.3	100

1-7. 과목별 성취도는 적절한가?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2	8	47	181	141	379
%	0.5	2.1	12.4	47.8	37.2	100

1-8. 전체적인 교과성적은 대학 수학에 적절한 수준인가?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4	14	71	176	114	379
%	1.1	3.7	18.7	46.4	30.1	100

1-9. 학업을 위해 적극적인 탐구 의지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가?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8	40	100	166	65	379
%	2.1	10.6	26.4	43.8	17.2	100

1-10. 교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탐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7	25	93	168	86	379
%	1.8	6.6	24.5	44.3	22.7	100

1-11. 과목별 원점수(평균/표준편차 포함)는 적절한가?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4	11	60	175	129	379
%	1.1	2.9	15.8	46.2	34	100

1-12. 과목별 석차등급 및 성취도는 적절한가?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2	9	68	165	135	379
%	0.5	2.4	17.9	43.5	35.6	100

1-13. 자발적인 성취동기와 목표의식을 가지고 학습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12	47	107	150	63	379
%	3.2	12.4	28.2	39.6	16.6	100

1-14. 교과 수업에 스스로 참여하고 이해하려는 태도와 열정을 갖고 있는가?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11	44	89	170	65	379
%	2.9	11.6	23.5	44.9	17.2	100

1-15. 희망전공과 관련된 과목과 다른 과목의 성적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2	20	63	175	119	379
%	0.5	5.3	16.6	46.2	31.4	100

1-16.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가?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10	28	99	170	72	379
%	2.6	7.4	26.1	44.9	19	100

[요약표]

문항	N	평균	표준편차
1-1	379	3.68	0.87
1-2	379	3.78	0.91
1-3	379	4.16	0.82
1-4	379	4.34	0.74
1-5	379	3.78	0.88
1-6	379	4.08	0.78
1-7	379	4.19	0.77
1-8	379	4.01	0.86
1-9	379	3.63	0.96
1-10	379	3.79	0.93
1-11	379	4.09	0.84
1-12	379	4.11	0.82
1-13	379	3.54	1.01
1-14	379	3.62	0.99
1-15	379	4.03	0.86
1-16	379	3.7	0.95

2. 학생부만을 활용하여 ‘전공적합성’을 평가하는데 다음 각 항목은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1. 지원 전공(계열)에 관련된 교과 관련 활동이 있는가?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4	11	52	182	130	379
%	1.1	2.9	13.7	48	34.3	100

2-2. 지원 전공(계열)에 관련된 창의적 체험활동이 있는가?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6	19	88	172	94	379
%	1.6	5	23.2	45.4	24.8	100

2-3.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충실히 이수하였는가?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4	12	44	179	140	379
%	1.1	3.2	11.6	47.2	36.9	100

2-4.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교과 성적이 우수한가?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4	8	36	152	179	379
%	1.1	2.1	9.5	40.1	47.2	100

2-5.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활동 성과는 우수한가?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5	24	70	167	113	379
%	1.3	6.3	18.5	44.1	29.8	100

2-6. 지원 전공(계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있는가?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6	21	78	177	97	379
%	1.6	5.5	20.6	46.7	25.6	100

2-7.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해 선택하여 수강한 과목은 얼마나 되는가?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5	10	58	168	138	379
%	1.3	2.6	15.3	44.3	36.4	100

2-8. 교육과정에 비춰 선택과목은 적절한가?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6	16	82	161	114	379
%	1.6	4.2	21.6	42.5	30.1	100

2-9. (진로)선택과목은 교과목 위계에 맞게 이수하였는가?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9	14	77	154	125	379
%	2.4	3.7	20.3	40.6	33	100

2-10.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되어 교내에 개설된 과목을 적절히 수강하는가?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4	17	55	169	134	379
%	1.1	4.5	14.5	44.6	35.4	100

2-11. 지원 전공(계열)과 참여한 교내 활동 간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가?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8	19	79	182	91	379
%	2.1	5	20.8	48	24	100

2-12. 교내 활동은 지원 전공(계열)을 수학하는데 필요한 역량과 관련되는가?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7	33	79	168	92	379
%	1.8	8.7	20.8	44.3	24.3	100

2-13. 지원 전공(계열) 관련 과목의 수업에서 보이는 학업 태도는 어떠한가?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9	38	74	182	76	379
%	2.4	10	19.5	48	20.1	100

[요약표]

문항	N	평균	표준편차
2-1	379	3.68	0.87
2-2	379	3.78	0.91
2-3	379	4.16	0.82
2-4	379	4.34	0.74
2-5	379	3.78	0.88
2-6	379	4.08	0.78
2-7	379	4.19	0.77
2-8	379	4.01	0.86
2-9	379	3.63	0.96
2-10	379	3.79	0.93
2-11	379	4.09	0.84
2-12	379	4.11	0.82
2-13	379	3.54	1.01

3. 학생부만을 활용하여 ‘인성’을 평가하는데 다음 각 항목은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1. 타인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나누고자 한 구체적 경험이 있는가?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12	57	121	144	45	379
%	3.2	15	31.9	38	11.9	100

3-2.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도 일관된 모습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경험이 있는가?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14	65	130	124	46	379
%	3.7	17.2	34.3	32.7	12.1	100

3-3. 공동과제나 단체활동을 통해 구성원들로부터 좋은 동료로 인정받고 있는가?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19	59	112	142	47	379
%	5	15.6	29.6	37.5	12.4	100

3-4.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20	65	127	126	41	379
%	5.3	17.2	33.5	33.2	10.8	100

3-5. 상대방의 관심 사항과 요구를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20	75	132	110	42	379
%	5.3	19.8	34.8	29	11.1	100

3-6. 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설득하여 협동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가?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19	61	115	140	44	379
%	5	16.1	30.3	36.9	11.6	100

3-7. 공통과제 수행이나 모둠활동 단체활동 등에서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가?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18	63	115	138	45	379
%	4.7	16.6	30.3	36.4	11.9	100

3-8. 출결상황이나 단체활동 참여 등 학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있는가?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9	23	72	153	122	379
%	2.4	6.1	19	40.4	32.2	100

3-9. 수업이나 교과 외 활동 등에서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11	42	101	178	47	379
%	2.9	11.1	26.6	47	12.4	100

3-10. 자신이 속한 구성원들에게 인정과 신뢰를 얻고 있으며 바람직한 행동으로 모범이 되는가?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15	48	114	158	44	379
%	4	12.7	30.1	41.7	11.6	100

3-11. 자신이 속한 집단이 정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는가?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17	48	103	148	63	379
%	4.5	12.7	27.2	39.1	16.6	100

3-12. 자발적인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과제를 완성한 경험이 나타나는가?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18	46	92	166	57	379
%	4.7	12.1	24.3	43.8	15	100

3-13. 학교생활에서 타인을 배려한 사례가 있는가?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16	53	117	144	49	379
%	4.2	14	30.9	38	12.9	100

3-14.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논리적·체계적으로 기술하거나 표현한 경험이 있는가?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10	53	111	144	61	379
%	2.6	14	29.3	38	16.1	100

3-15. 자신의 재능을 나누려고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11	52	109	150	57	379
%	2.9	13.7	28.8	39.6	15	100

3-16. 단체로 하는 학습 및 활동 경험이 있는가?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9	44	97	162	67	379
%	2.4	11.6	25.6	42.7	17.7	100

[요약표]

문항	N	평균	표준편차
3-1	379	3.4	0.99
3-2	379	3.32	1.01
3-3	379	3.37	1.05
3-4	379	3.27	1.04
3-5	379	3.21	1.05
3-6	379	3.34	1.04
3-7	379	3.34	1.04
3-8	379	3.94	0.98
3-9	379	3.55	0.95
3-10	379	3.44	0.99
3-11	379	3.51	1.05
3-12	379	3.52	1.04
3-13	379	3.41	1.02
3-14	379	3.51	1.01
3-15	379	3.5	1
3-16	379	3.62	0.98

4. 학생부만을 활용하여 ‘발전가능성’을 평가하는데 다음 각 항목은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1.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12	49	100	170	48	379
%	3.2	12.9	26.4	44.9	12.7	100

4-2. 학생회나 동아리 등의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8	30	61	181	99	379
%	2.1	7.9	16.1	47.8	26.1	100

4-3. 교내 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는가?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13	51	108	141	66	379
%	3.4	13.5	28.5	37.2	17.4	100

4-4. 기존에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의견을 확장하려고 노력하였는가?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12	60	110	137	60	379
%	3.2	15.8	29	36.1	15.8	100

4-5. 교내 활동 과정에서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일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가?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9	61	117	132	60	379
%	2.4	16.1	30.9	34.8	15.8	100

4-6. 교내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으려 노력하였는가?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7	35	83	169	85	379
%	1.8	9.2	21.9	44.6	22.4	100

4-7. 교내 활동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8	37	78	169	87	379
%	2.1	9.8	20.6	44.6	23	100

4-8.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을 주도한 경험이 있는가?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10	43	94	168	64	379
%	2.6	11.3	24.8	44.3	16.9	100

4-9. 자신의 목표를 위해 도전한 경험을 통해 성취한 적이 있는가?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8	47	92	161	71	379
%	2.1	12.4	24.3	42.5	18.7	100

4-10. 새로운 과제를 주도적으로 만들고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10	51	106	153	59	379
%	2.6	13.5	28	40.4	15.6	100

4-11. 예체능 영역에서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참여하였는가?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12	46	110	151	60	379
%	3.2	12.1	29	39.8	15.8	100

4-12. 새로운 지식이나 사고방식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13	65	132	130	39	379
%	3.4	17.2	34.8	34.3	10.3	100

4-13. 필요한 과목이라면 학교 밖 교육과정(공동교육과정, 클러스터 교육과정 등)을 통해서라도 이수하였는가?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12	27	80	145	115	379
%	3.2	7.1	21.1	38.3	30.3	100

[요약표]

문항	N	평균	표준편차
4-1	379	3.51	0.98
4-2	379	3.88	0.96
4-3	379	3.52	1.04
4-4	379	3.46	1.04
4-5	379	3.46	1.02
4-6	379	3.77	0.96
4-7	379	3.77	0.98
4-8	379	3.61	0.98
4-9	379	3.63	0.99
4-10	379	3.53	1
4-11	379	3.53	1
4-12	379	3.31	0.99
4-13	379	3.85	1.03

IV. 기타 질문

1. 다음에 제시된 학생부 기재 영역들이 4개의 평가요소를 평가하는 데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명)

기재영역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	합계
출결상황	55	12	349	102	379
자율활동	80	257	182	237	379
동아리활동	100	337	167	235	379
봉사활동	10	60	351	84	379
진로활동	104	344	80	225	379
교과성적	356	203	30	172	379
세특	315	263	154	253	379
행특	139	160	336	281	379

(단위: %)

기재영역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	응답(N)
출결상황	14.51	3.17	92.08	26.91	379
자율활동	21.11	67.81	48.02	62.53	379
동아리활동	26.39	88.92	44.06	62.01	379
봉사활동	2.64	15.83	92.61	22.16	379
진로활동	27.44	90.77	21.11	59.37	379
교과성적	93.93	53.56	7.92	45.38	379
세특	83.11	69.39	40.63	66.75	379
행특	36.68	42.22	88.65	74.14	379

* 4개의 평가요소 외에 추가할 영역이 있다면 기타 항목에 직접 작성해 주십시오.

연번	고교유형	시도	설립유형	근무기간	4개 평가요소 외에 추가할 평가요소
35	자사고	대전	사립	10 ~ 20년	경험의 다양성
43	일반고	대구	사립	20 ~ 30년	출결은 학교생활 성실도에 연관되어 감점요소로만 적용 가능할 듯.
60	일반고	서울	사립	10 ~ 20년	학생들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쓰지 못하는 학생부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시간에 내내 엎드려 자는 학생도 학생의 발전가능성을 참고하여 부정적인 말을 되도록 적지 말라고 하니 결국 사실이 아닌 포장
66	자사고	서울	사립	20 ~ 30년	봉사활동은 완전 자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70	특목고	서울	사립	10 ~ 20년	출결 꼭 봐주세요~!!! 특히 남학생의 경우 질병 결석, 여학생의 경우 인정 결석(보건결이 있기 때문)이 많다면 성실도와 진실성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99	일반고	광주	사립	10 ~ 20년	성실성 판단
106	일반고	서울	사립	10년미만	성실성
134	자사고	서울	사립	10년미만	봉사활동은 의미가 없음. 실제 시간을 이수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함.
161	영재학교	대구	국공립	30년이상	나눔과 배려
185	자사고	서울	사립	10년미만	인성에 포함되기 어려운 항목으로서의 '개별 과업에의 성실성'
226	일반고	울산	국공립	10 ~ 20년	흥미
280	특목고	경기	국공립	10년미만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적게 했다고 해서 학생의 이성에 대해 평가하기 어렵다.
355	특성화고	경상	사립	30년이상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과활동
380	자사고	서울	사립	10년미만	자율활동 기재 내용은 평가 시 무의미함
389	일반고	충청	국공립	10년미만	성실성
445	일반고	경상	국공립	10년미만	성실
453	일반고	경상	국공립	20 ~ 30년	성실성

2. 다음에 나열된 항목들이 학생부만을 활용하여 서류평가할 경우 ‘평가요소’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로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1. 계열적합성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5	22	81	189	82	379
%	1.3	5.8	21.4	49.9	21.6	100

2-2. 공동체 역량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8	33	83	188	67	379
%	2.1	8.7	21.9	49.6	17.7	100

2-3. 발전가능성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3	28	80	186	82	379
%	0.8	7.4	21.1	49.1	21.6	100

2-4. 학업역량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2	3	36	172	166	379
%	0.5	0.8	9.5	45.4	43.8	100

2-5. 활동역량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7	31	91	184	66	379
%	1.8	8.2	24	48.5	17.4	100

2-6. 소통 능력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10	36	107	168	58	379
%	2.6	9.5	28.2	44.3	15.3	100

2-7. 전공계열적합성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5	24	63	191	96	379
%	1.3	6.3	16.6	50.4	25.3	100

2-8. 창의융합 역량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14	51	123	144	47	379
%	3.7	13.5	32.5	38	12.4	100

2-9. 사회성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12	45	109	160	53	379
%	3.2	11.9	28.8	42.2	14	100

2-10. 지적활력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15	50	114	150	50	379
%	4	13.2	30.1	39.6	13.2	100

2-11. 성장잠재력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9	28	100	190	52	379
%	2.4	7.4	26.4	50.1	13.7	100

2-12. 학업충실성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3	7	34	190	145	379
%	0.8	1.8	9	50.1	38.3	100

2-13. 자기주도성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5	19	65	173	117	379
%	1.3	5	17.2	45.6	30.9	100

2-14. 전공적합성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5	13	63	188	110	379
%	1.3	3.4	16.6	49.6	29	100

2-15. 인성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24	36	91	147	81	379
%	6.3	9.5	24	38.8	21.4	100

2-16. 탐구역량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7	27	80	189	76	379
%	1.8	7.1	21.1	49.9	20.1	100

2-17. 잠재역량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13	50	117	150	49	379
%	3.4	13.2	30.9	39.6	12.9	100

2-18. 자기계발역량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6	32	93	189	59	379
%	1.6	8.4	24.5	49.9	15.6	100

2-19. 전공준비도

구분	매우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적절	계
N	5	28	100	179	67	379
%	1.3	7.4	26.4	47.2	17.7	100

[요약표]

문항	N	평균	표준편차
2-1	379	3.85	0.87
2-2	379	3.72	0.93
2-3	379	3.83	0.88
2-4	379	4.31	0.72
2-5	379	3.72	0.91
2-6	379	3.60	0.95
2-7	379	3.92	0.89
2-8	379	3.42	0.99
2-9	379	3.52	0.98
2-10	379	3.45	1.01
2-11	379	3.65	0.89
2-12	379	4.23	0.75
2-13	379	4.00	0.9
2-14	379	4.02	0.85
2-15	379	3.59	1.11
2-16	379	3.79	0.91
2-17	379	3.45	0.99
2-18	379	3.69	0.89
2-19	379	3.73	0.88

* 2번에 나열된 항목 이외에 학생부를 활용하여 서류평가 할 때,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가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연번	고교유형	시도	설립유형	근무기간	추가로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13	일반고	전라	국공립	20 ~ 30년	적용능력
27	일반고	서울	사립	10년미만	독서 활동 상황
34	일반고	대구	사립	10 ~ 20년	학생의 생활 태도
35	자사고	대전	사립	10 ~ 20년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37	일반고	대구	국공립	30년이상	전반적인 학생의 역량에 비해 과도하게 경쟁적 부풀리기 기제가 만연한 요즘 소신있는 있는대로 기재하는 교사를 만난 학생은 엄청불리한 제도입니다. 특히 인성 성실성 부풀려 쓴다. 하지도 않은 활동을 엄청 많이 쓴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면접 과정이 없는 학종은 무의미하다.
39	일반고	서울	사립	20 ~ 30년	리더십과 봉사정신
41	자사고	서울	사립	10년미만	교사가 제시한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 교사의 조언을 따르는 능력
43	일반고	대구	사립	20~ 30년	기초학습역량, 발전가능성
60	일반고	서울	사립	10 ~ 20년	적어도 한가지 항목 정도는 교사가 학생들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적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들의 민원 및 교사들 마다 또 다른 역량 그리고 몇 없지만 정렬 의심스러운 교사들의 성품까지 고려한다면, 이것저것 서로 다르게 적는 칸을 만들기 보다는 객관적 드러나는 활동에 대한 5지선다의 선택(추천서의 항목 5지선다 처럼)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있었으면 합니다.
70	특목고	서울	사립	10 ~ 20년	일반적으로 인성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인성 위주로 작성되고, 대학에서도 이 측면에 맞추어 평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개인 도덕성(진실성, 성실도, 역사의식 등)을 판단하는 요소의 명칭이 형성되고 이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번	고교유형	시도	설립유형	근무기간	추가로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83	일반고	인천	국공립	20 ~ 30년	조직 운영 능력(학생회 및 학급회 운영), 학교조직 문화 개선(캠페인, 학생 주도 활동 등)
92	일반고	서울	사립	10 ~ 20년	출결을 대학의 최종 합격을 위한 합, 불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109	일반고	서울	사립	10 ~ 20년	예의, 매너, 규칙 준수, 배려
120	자공고	대전	국공립	10년미만	출결여부
123	자공고	대전	국공립	10년미만	교과 성적 내용에 대한 세부적 확인
124	자공고	대전	국공립	10 ~ 20년	미인정 결석 결과 조퇴 여부
131	자사고	서울	사립	10 ~ 20년	학생의 독서활동에 대한 기록을 어떠한 항목에 반영하더라도 이를 평가에 반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58	일반고	인천	사립	10 ~ 20년	고교마다 상황을 다르겠지만, 학생의 진로학업설계 노력/태도/준비도/역량 등을 면접 등을 통해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기존의 논술 전형 대신 구술 면접 전형(변경된 2022학년도 대입의 자기소개서의 주요 항목과 대학 고유의 인재상 등을 반영한 문항으로 재구조한 문항 활용하여 준비시간 1시간+개별 구술 면접 15분 내외)을 신설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가 없어진 부분과 학생부 기재 분량 축소 및 기재 항목의 미반영에 따라 학생이 자신의 고교 생활에 대해 자평/성찰하며 대입 학종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깊은 사고력과 넓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포용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시대적 흐름과 협력과 소통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기때, 지원자의 언어로 지원자의 생각과 계획을 직접 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61	영재학교	대구	국공립	30년이상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에 대한 나눔
162	자공고	대구	국공립	30년이상	리더십, 팔로우십.
164	일반고	대전	국공립	20 ~ 30년	윤리의식
165	일반고	대전	국공립	10년미만	출결상황에 따른 성실도 평가

연번	고교유형	시도	설립유형	근무기간	추가로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175	일반고	서울	국공립	10 ~ 20년	성실성(수시 접수 이후 2학기 출결 사항을 추후 제출하여 판단)
186	일반고	충청	사립	10년미만	과목 선택의 주도성, 과목 선택의 적극성
191	일반고	충청	국공립	10 ~ 20년	진로독서와 각 교과 독서를 통한 지적호기심 탐구능력을 측정하는 항목이 필요
195	일반고	충청	국공립	10 ~ 20년	학생들 인성을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보고 싶으면 면접이 필수. 생기부 작성 과정이 교사가 보이는 대로 기입하기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아실 겁니다. 심층면접을 더 도입해서 아이들의 본체를 보려고 해 보세요.
202	일반고	인천	국공립	20 ~ 30년	협업역량
206	특목고	충청	국공립	20 ~ 30년	잠재적 역량
210	일반고	충청	국공립	10년미만	인성을 조금 더 세분화하여 반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12	일반고	충청	국공립	10년미만	환경에 비추어, 노력한 정도(정려된 용어로 표현이 잘 안되네요...)
217	일반고	경기	국공립	30년이상	협업능력
223	일반고	경기	국공립	10 ~ 20년	인성파트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학교 생활 충실도를 만들었음 해요. 출결과 교과세특 창체활동 행발등에서 많이 드러나는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226	일반고	울산	국공립	10 ~ 20년	전공에 대한 흥미
235	일반고	부산	사립	20 ~ 30년	도전과 성취 역량
236	일반고	울산	국공립	10 ~ 20년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
240	일반고	전라	사립	10 ~ 20년	문제해결능력(고교학점제로 인해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지 못하거나 했을 경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평가)
251	일반고	울산	국공립	20 ~ 30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학교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 출결에 거짓도 많고(생리결, 병결) 3학년 2학기 때 출결이 급격히 나빠지는 상위권 학생들도 너무 많다. 아프다고 하고 학원에 가거나 뭐 그런식.. 정시에도 출결 반영했으면 좋겠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학교를 이용만 한 학생이 대학가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연번	고교유형	시도	설립유형	근무기간	추가로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263	일반고	경기	사립	10년미만	성실성
265	일반고	경상	국공립	10 ~ 20년	규칙준수
269	영재학교	대전	국공립	10 ~ 20년	몰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영역 또는 경험이 전공적합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78	일반고	인천	국공립	10년미만	성실성
291	일반고	대구	사립	10년미만	일별이 아닌 교과시간별 출결상황 파악, 독서활동 상황,
295	일반고	충청	국공립	10년미만	학생의 인성이나 성실성을 객관화할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03	특목고	경기	국공립	10년미만	평가에 반영하면 좋을 요소는 지적 호기심, 과제집착력 입니다. 그리고 혹시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교육과정 별 선택권의 차이가 학교별로 납니다. 상대적으로 부실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는 학생이 돋보일 수 있는 지표가 등장해도 됩니다.
334	특성화고	경기	국공립	20 ~ 30년	경험의 다양성
353	특성화고	인천	국공립	20 ~ 30년	생활성실성
364	특목고	서울	국공립	20 ~ 30년	자율동아리-학교사정에 따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들어가는 동아리가 많음. 기존 동아리 외 1개 정도의 자율동아리는 인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374	일반고	경상	사립	10 ~ 20년	도덕성(도덕적) 판단 역량
377	일반고	경상	사립	20 ~ 30년	책임감. 인성에 무엇을 포함하는지 분명치 않아 요즘 학생들에게 부족한 특성 중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380	자사고	서울	사립	10년미만	행복역량
386	일반고	경상	사립	30년이상	합리적인 방법이 다양하게 고려된 것 같습니다.
394	일반고	경기	국공립	10 ~ 20년	성실성, 지구력
400	일반고	서울	사립	10 ~ 20년	문제해결역량
421	일반고	경기	사립	10 ~ 20년	출결을 통한 성실성
423	일반고	인천	국공립	30년이상	전공 관련 노력 및 참여도
428	일반고	경상	국공립	10 ~ 20년	규칙준수(준법정신)
439	일반고	경상	사립	10 ~ 20년	공동체 의식

3. 다음의 각 평가항목을 서류평가에 활용하는 것이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1. 학업역량: 학업성취도

구분	전혀도움안됨	도움안됨	보통	도움됨	매우도움됨	계
N	18	46	76	175	64	379
%	4.7	12.1	20.1	46.2	16.9	100

3-2. 학업역량: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구분	전혀도움안됨	도움안됨	보통	도움됨	매우도움됨	계
N	11	22	66	172	108	379
%	2.9	5.8	17.4	45.4	28.5	100

3-3. 학업역량: 탐구활동

구분	전혀도움안됨	도움안됨	보통	도움됨	매우도움됨	계
N	8	20	72	182	97	379
%	2.1	5.3	19	48	25.6	100

3-4. 전공적합성: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구분	전혀도움안됨	도움안됨	보통	도움됨	매우도움됨	계
N	9	26	47	163	134	379
%	2.4	6.9	12.4	43	35.4	100

3-5. 전공적합성: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구분	전혀도움안됨	도움안됨	보통	도움됨	매우도움됨	계
N	10	19	48	178	124	379
%	2.6	5	12.7	47	32.7	100

3-6. 전공적합성: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구분	전혀도움안됨	도움안됨	보통	도움됨	매우도움됨	계
N	8	23	47	179	122	379
%	2.1	6.1	12.4	47.2	32.2	100

3-7. 인성: 협업 능력

구분	전혀도움안됨	도움안됨	보통	도움됨	매우도움됨	계
N	26	72	140	112	29	379
%	6.9	19	36.9	29.6	7.7	100

3-8. 인성: 나눔과 배려

구분	전혀도움안됨	도움안됨	보통	도움됨	매우도움됨	계
N	29	80	144	105	21	379
%	7.7	21.1	38	27.7	5.5	100

3-9. 인성: 소통능력

구분	전혀도움안됨	도움안됨	보통	도움됨	매우도움됨	계
N	27	67	151	105	29	379
%	7.1	17.7	39.8	27.7	7.7	100

3-10. 인성: 도덕성

구분	전혀도움안됨	도움안됨	보통	도움됨	매우도움됨	계
N	33	90	154	81	21	379
%	8.7	23.7	40.6	21.4	5.5	100

3-11. 인성: 성실성

구분	전혀도움안됨	도움안됨	보통	도움됨	매우도움됨	계
N	24	67	110	131	47	379
%	6.3	17.7	29	34.6	12.4	100

3-12. 발전가능성: 자기주도성

구분	전혀도움안됨	도움안됨	보통	도움됨	매우도움됨	계
N	12	23	79	176	89	379
%	3.2	6.1	20.8	46.4	23.5	100

3-13. 발전가능성: 경험의 다양성

구분	전혀도움안됨	도움안됨	보통	도움됨	매우도움됨	계
N	15	25	66	180	93	379
%	4	6.6	17.4	47.5	24.5	100

3-14. 발전가능성: 리더십

구분	전혀도움안됨	도움안됨	보통	도움됨	매우도움됨	계
N	23	55	153	117	31	379
%	6.1	14.5	40.4	30.9	8.2	100

3-15. 발전가능성: 창의적 문제해결력

구분	전혀도움안됨	도움안됨	보통	도움됨	매우도움됨	계
N	21	40	101	153	64	379
%	5.5	10.6	26.6	40.4	16.9	100

[요약표]

문항	N	평균	표준편차
3-1	379	3.58	1.05
3-2	379	3.91	0.97
3-3	379	3.9	0.92
3-4	379	4.02	0.98
3-5	379	4.02	0.95
3-6	379	4.01	0.94
3-7	379	3.12	1.03
3-8	379	3.02	1.01
3-9	379	3.11	1.02
3-10	379	2.91	1.01
3-11	379	3.29	1.09
3-12	379	3.81	0.97
3-13	379	3.82	1.01
3-14	379	3.21	0.99
3-15	379	3.53	1.06

4. 다음의 각 평가항목을 서류평가에 활용하는 것이 ‘학생 참여형 수업 활동 강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1. 학업역량: 학업성취도

구분	전혀도움안됨	도움안됨	보통	도움됨	매우도움됨	계
N	12	32	93	169	73	379
%	3.2	8.4	24.5	44.6	19.3	100

4-2. 학업역량: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구분	전혀도움안됨	도움안됨	보통	도움됨	매우도움됨	계
N	9	17	47	178	128	379
%	2.4	4.5	12.4	47	33.8	100

4-3. 학업역량: 탐구활동

구분	전혀도움안됨	도움안됨	보통	도움됨	매우도움됨	계
N	9	12	53	183	122	379
%	2.4	3.2	14	48.3	32.2	100

4-4. 전공적합성: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구분	전혀도움안됨	도움안됨	보통	도움됨	매우도움됨	계
N	11	22	87	179	80	379
%	2.9	5.8	23	47.2	21.1	100

4-5. 전공적합성: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구분	전혀도움안됨	도움안됨	보통	도움됨	매우도움됨	계
N	9	17	67	174	112	379
%	2.4	4.5	17.7	45.9	29.6	100

4-6. 전공적합성: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구분	전혀도움안됨	도움안됨	보통	도움됨	매우도움됨	계
N	7	17	54	188	113	379
%	1.8	4.5	14.2	49.6	29.8	100

4-7. 인성: 협업 능력

구분	전혀도움안됨	도움안됨	보통	도움됨	매우도움됨	계
N	11	21	77	170	100	379
%	2.9	5.5	20.3	44.9	26.4	100

4-8. 인성: 나눔과 배려

구분	전혀도움안됨	도움안됨	보통	도움됨	매우도움됨	계
N	14	40	93	157	75	379
%	3.7	10.6	24.5	41.4	19.8	100

4-9. 인성: 소통능력

구분	전혀도움안됨	도움안됨	보통	도움됨	매우도움됨	계
N	14	28	82	169	86	379
%	3.7	7.4	21.6	44.6	22.7	100

4-10. 인성: 도덕성

구분	전혀도움안됨	도움안됨	보통	도움됨	매우도움됨	계
N	19	58	133	118	51	379
%	5	15.3	35.1	31.1	13.5	100

4-11. 인성: 성실성

구분	전혀도움안됨	도움안됨	보통	도움됨	매우도움됨	계
N	14	28	97	159	81	379
%	3.7	7.4	25.6	42	21.4	100

4-12. 발전가능성: 자기주도성

구분	전혀도움안됨	도움안됨	보통	도움됨	매우도움됨	계
N	8	18	62	188	103	379
%	2.1	4.7	16.4	49.6	27.2	100

4-13. 발전가능성: 경험의 다양성

구분	전혀도움안됨	도움안됨	보통	도움됨	매우도움됨	계
N	8	19	72	188	92	379
%	2.1	5	19	49.6	24.3	100

4-14. 발전가능성: 리더십

구분	전혀도움안됨	도움안됨	보통	도움됨	매우도움됨	계
N	11	29	101	170	68	379
%	2.9	7.7	26.6	44.9	17.9	100

4-15. 발전가능성: 창의적 문제해결력

구분	전혀도움안됨	도움안됨	보통	도움됨	매우도움됨	계
N	11	27	75	176	90	379
%	2.9	7.1	19.8	46.4	23.7	100

[요약표]

문항	N	평균	표준편차
4-1	379	3.68	0.98
4-2	379	4.05	0.92
4-3	379	4.05	0.9
4-4	379	3.78	0.94
4-5	379	3.96	0.93
4-6	379	4.01	0.89
4-7	379	3.86	0.97
4-8	379	3.63	1.03
4-9	379	3.75	1.01
4-10	379	3.33	1.05
4-11	379	3.7	1
4-12	379	3.95	0.9
4-13	379	3.89	0.9
4-14	379	3.67	0.95
4-15	379	3.81	0.97

부록 2. 설문조사지(교사용)

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하나로 건국대·경희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학생부종합전형 공통 평가요소 및 항목 개선 연구』를 위한 것입니다.

현재 대학입시는 2019년 11월에 발표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제시된 일정에 맞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제시되었던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의 평가기준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추천서에 이어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학교생활기록부만을 활용하여 서류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글자 수가 축소되고 일부 항목들은 기재가 금지되거나, 기재가 되더라도 대학에 제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연구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른 평가자료 및 기록의 축소, 2015개정교육과정의 본격적인 실시와 향후 도입될 고교학점제 등에 따른 교육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기존 연구를 통해 제시하였던 서류평가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의 재구조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조사결과는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한 통계처리로만 활용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2021년 12월

건국대학교·경희대학교·연세대학교·중앙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진 드림

[설문 작성 전 안내]

- ☞ 이번 설문 조사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2019년 11월 발표)』에 따른 평가자료 및 기록의 축소, 2015개정교육과정의 본격적인 실시와 향후 도입될 고교학점제 등에 따른 교육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기존 연구를 통해 제시하였던 서류평가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의 재구조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 ☞ 특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추진 계획에 따라 추천서가 폐지된 데 이어 2024학년도 대입에서는 자기소개서도 폐지되어, 이후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평가는 학생부만을 활용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 ☞ 또한, 학생부는 사교육 등 외부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목별로 작성 가능한 글자 수가 축소되고, 일부 항목은 대입에 활용될 수 없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 이처럼 2024학년도 이후 대입의 서류평가 환경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 ☞ 이번 설문 조사는 향후 변화될 대입 환경에 맞는 서류평가 환경을 전제로 합니다.
- ☞ 응답자께서는 다음에 제시된 [학생부종합전형 공통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과 [사전 배경 설명]을 숙지하신 후, 설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부종합전형 공통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 ♦ 건국대·경희대·서울여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 등 6개 대학은 2017년 고교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의 공동 연구로 『대입전형 표준화방안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 ♦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공통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을 제시했습니다.

평가요소	평가항목	
학업역량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	학업성취도	교과목의 석차등급 또는 원점수(평균/표준편차)를 활용해 산정한 학업능력 지표와 교과목 이수 현황, 노력 등을 기반으로 평가한 교과목의 성취수준이나 학업적 발전의 정도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을 해 나가는 자발적인 의지와 태도,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학습 전략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실행하는 과정

평가요소	평가항목	
	탐구활동	어떤 대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깊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
전공적합성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노력과 준비 정도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고교 교육과정에서 지원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성취의 수준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지원 전공(계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인 태도와 알고 있는 정도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지원 전공(계열)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 과정과 배운 점
인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	협업 능력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돕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역량
	나눔과 배려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타인을 위하여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
	소통능력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정보와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역량
	도덕성	공동체의 기본윤리와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부정 또는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 태도
	성실성	책임감을 바탕으로 꾸준히 노력하여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태도와 행동
발전가능성 현재의 상황이나 수준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될 가능성	자기주도성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성향
	경험의 다양성	학교교육의 다양한 영역에서 직접 겪거나 활동하면서 얻은 성장 과정 및 결과
	리더십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가는 역량
	창의적 문제해결력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사전 배경 설명]

- 정부는 2019년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통해 “학생 개인의 능력이나 성취가 아닌 부모배경, 사교육 등 외부요인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이 차단되도록 학생부·자기소개서·추천서를 개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 방안의 하나로 2022학년도 대입부터 추천서를 폐지하였으며, 2024학년도부터는 자기소개서도 폐지되어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평가는 학생부만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 서류평가의 유일한 자료로 남게 된 학생부도 기재항목이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으며,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본격적으로 정규 교육과정 외의 비교과 활동은 평가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 2024학년도부터 적용될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평가 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추천서에 이어 자기소개서도 폐지되어 **학생부만을 활용**하여야 함
 - 학생부의 경우 기재항목이 축소되며, 일부 항목은 대학에 제공되지 않음
- 향후 예정된 학생부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전형연도	'22 ~ '23학년도	'24학년도
	교과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목당 500자 • 방과후학교 활동(수강) 내용 미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목당 500자 • 방과후학교 활동(수강) 내용 미기재 • 영재·발명 교육 실적 대입 미반영
	종합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500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500자
비교과 영역	자율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500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500자
	동아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500자 • 자율동아리는 연간 1개(30자)만 기재 • 청소년 단체활동은 단체명만 기재 • 소논문 기재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500자 •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 • 청소년 단체활동 미기재 • 소논문 기재 금지
	봉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기사항 미기재 • 교내·외 봉사활동실적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기사항 미기재 • 개인 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 • 단,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은 대입 반영
	진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700자 • 진로희망분야 대입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700자 • 진로희망분야 대입 미반영
	수상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수상 학기당 1건만(3년간 6건) 대입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입 미반영
	독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명과 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입 미반영

★ 미기재: 학생부에서 삭제

★ 미반영: 학생부에는 기재하되, 대입 자료로 미전송

- ☞ 설문은 2015개정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와 추천서가 폐지되고 학교생활기록부만을 활용하여 서류평가를 한다는 가정 아래 답해 주십시오.
- ☞ 학교생활기록부는 앞서 표에서 제시한 2024학년도 작성 방침을 기준으로 자료가 제공된다고 가정하고 답해 주십시오.

I. 평가요소와 관련된 질문

1. 다음에 제시된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의 각 평가요소가 학생부만을 활용하여 평가하는데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항목에 ✓ 표시해 주십시오.

	평가요소	설명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1-1	학업역량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능력	1	2	3	4	5
1-2	전공적합성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노력과 준비 정도	1	2	3	4	5
1-3	인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	1	2	3	4	5
1-4	발전가능성	현재의 상황이나 수준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될 가능성	1	2	3	4	5

2. 다음에 제시된 4가지 평가요소 중 학생부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선택하여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① 학업역량 ② 전공적합성 ③ 인성 ④ 발전가능성

II. 평가항목과 관련된 질문

앞서 제시한 4가지 평가요소 중 ‘학업역량’ 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 다음에 제시된 ‘학업역량’ 과 관련된 각 평가항목이 학생부만을 활용하여 평가하는데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항목에 ✓ 표시해 주십시오.

	평가항목	설명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1-1	학업 성취도	교과목의 석차등급 또는 원 점수(평균/표준편차), 성취도를 활용해 산정한 학업능력 지표와 교과목 이수 현황, 노력 등을 기반으로 평가한 교과목 성취수준이나 학업적 발 전의 정도	1	2	3	4	5
1-2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 을 해나가는 자발적인 의지와 태도,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 정하고 적절한 학습전 략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실행하는 과정	1	2	3	4	5
1-3	탐구활동	어떤 대상에 대해 호기 심을 가지고 깊이 폭넓 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	1	2	3	4	5

2. ‘학업역량’ 과 관련된 세 가지 평가항목 중 학생부만으로 평가하기에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학업성취도 ②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③ 탐구활동 ④ 없음

앞서 제시한 4가지 평가요소 중 ‘전공적합성’ 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3. 다음에 제시된 ‘전공적합성’ 과 관련된 각 평가항목이 학생부만을 활용하여 평가하는데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항목에 ✓ 표시해 주십시오.

	평가항목	설명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3-1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고교 교육과정에서 지원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성취의 수준	1	2	3	4	5
3-2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지원 전공(계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인 태도와 알고 있는 정도	1	2	3	4	5
3-3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지원 전공(계열)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 과정과 배운 점	1	2	3	4	5

4. ‘전공적합성’ 과 관련된 세 가지 평가항목 중 학생부만으로 평가하기에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 ②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 ③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 ④ 없음

앞서 제시한 4가지 평가요소 중 ‘인성’ 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5. 다음에 제시된 ‘인성’ 과 관련된 각 평가항목이 학생부만을 활용하여 평가하는데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항목에 ✓ 표시해 주십시오.

	평가항목	설명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5-1	협업능력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돕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역량	1	2	3	4	5
5-2	나눔과 배려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타인을 위하여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	1	2	3	4	5
5-3	소통능력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정보와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역량	1	2	3	4	5
5-4	도덕성	공동체의 기본윤리와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부정 또는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 태도	1	2	3	4	5
5-5	성실성	책임감을 바탕으로 꾸준히 노력하여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태도와 행동	1	2	3	4	5

6. ‘인성’과 관련된 다섯 가지의 평가항목 중 학생부만으로 평가하기에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협업능력 ② 나눔과 배려 ③ 소통능력 ④ 도덕성 ⑤ 성실성 ⑥ 없음

앞서 제시한 4가지 평가요소 중 ‘발전가능성’ 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7. 다음에 제시된 ‘발전가능성’ 과 관련된 각 평가항목이 학생부만을 활용하여 평가하는 데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항목에 ✓ 표시해 주십시오.

	평가항목	설명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7-1	자기 주도성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성향	1	2	3	4	5
7-2	경험의 다양성	학교 교육의 다양한 영역에서 직접 겪거나 활동하면서 얻은 성장 과정 및 결과	1	2	3	4	5
7-3	리더십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가는 역량	1	2	3	4	5
7-4	창의적 문제 해결력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1	2	3	4	5

8. ‘발전가능성’ 과 관련된 네 가지 평가항목 중 학생부만으로 평가하기에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자기주도성 ② 경험의 다양성 ③ 리더십 ④ 창의적 문제해결력 ⑤ 없음

Ⅲ. 세부평가내용과 관련된 질문

1. 학생부만을 활용하여 ‘학업역량’을 평가하는데 다음 각 항목은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항목에 ✓ 표시해 주십시오.

	세부 평가내용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1-1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자기주도적인 태도로 노력하고 있는가?	1	2	3	4	5
1-2	교과 활동을 통해 지식의 폭을 확장하려 노력하고 있는가?	1	2	3	4	5
1-3	교과성적에 유난히 소홀함을 보인 과목은 없는가?	1	2	3	4	5
1-4	학기별/학년별 성적은 상승 또는 하락하고 있는가?	1	2	3	4	5
1-5	각종 교과 탐구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가?	1	2	3	4	5
1-6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교과 외에 타 교과 성적은 적절한가?	1	2	3	4	5
1-7	과목별 성취도는 적절한가?	1	2	3	4	5
1-8	전체적인 교과성적은 대학 수학에 적절한 수준인가?	1	2	3	4	5
1-9	학업을 위해 적극적인 탐구 의지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가?	1	2	3	4	5
1-10	교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탐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1	2	3	4	5
1-11	과목별 원점수(평균/표준편차 포함)는 적절한가?	1	2	3	4	5
1-12	과목별 석차등급 및 성취도는 적절한가?	1	2	3	4	5
1-13	자발적인 성취동기와 목표의식을 가지고 학습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1	2	3	4	5
1-14	교과 수업에 스스로 참여하고 이해하려는 태도와 열정을 갖고 있는가?	1	2	3	4	5
1-15	희망전공과 관련된 과목과 다른 과목의 성적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	1	2	3	4	5
1-16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가?	1	2	3	4	5

2. **학생부만을 활용하여 ‘전공적합성’을 평가**하는데 다음 각 항목은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항목에 ✓ 표시해 주십시오.

	세부 평가내용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2-1	지원 전공(계열)에 관련된 교과 관련 활동이 있는가?	1	2	3	4	5
2-2	지원 전공(계열)에 관련된 창의적 체험활동이 있는가?	1	2	3	4	5
2-3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충실히 이수하였는가?	1	2	3	4	5
2-4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교과 성적이 우수한가?	1	2	3	4	5
2-5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활동 성과는 우수한가?	1	2	3	4	5
2-6	지원 전공(계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있는가?	1	2	3	4	5
2-7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해 선택하여 수강한 과목은 얼마나 되는가?	1	2	3	4	5
2-8	교육과정에 비취 선택과목은 적절한가?	1	2	3	4	5
2-9	(진로)선택과목은 교과목 위계에 맞게 이수하였는가?	1	2	3	4	5
2-10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되어 교내에 개설된 과목을 적절히 수강하는가?	1	2	3	4	5
2-11	지원 전공(계열)과 참여한 교내 활동간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가?	1	2	3	4	5
2-12	교내 활동은 지원 전공(계열)을 수학하는데 필요한 역량과 관련되는가?	1	2	3	4	5
2-13	지원 전공(계열) 관련 과목의 수업에서 보이는 학업 태도는 어떠한가?	1	2	3	4	5

3. **학생부만을 활용하여 ‘인성’을 평가**하는데 다음 각 항목은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항목에 ✓ 표시해 주십시오.

	세부 평가내용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3-1	타인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나누고자 한 구체적 경험이 있는가?	1	2	3	4	5
3-2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도 일관된 모습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경험이 있는가?	1	2	3	4	5
3-3	공동과제나 단체활동을 통해 구성원들로부터 좋은 동료로 인정받고 있는가?	1	2	3	4	5
3-4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1	2	3	4	5
3-5	상대방의 관심 사항과 요구를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1	2	3	4	5
3-6	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설득하여 협동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가?	1	2	3	4	5
3-7	공동과제 수행이나 모둠활동 단체활동 등에서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가?	1	2	3	4	5
3-8	출결상황이나 단체활동 참여 등 학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있는가?	1	2	3	4	5
3-9	수업이나 교과 외 활동 등에서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1	2	3	4	5
3-10	자신이 속한 구성원들에게 인정과 신뢰를 얻고 있으며 바람직한 행동으로 모범이 되는가?	1	2	3	4	5
3-11	자신이 속한 집단이 정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는가?	1	2	3	4	5
3-12	자발적인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과제를 완성한 경험이 나타나는가?	1	2	3	4	5
3-13	학교생활에서 타인을 배려한 사례가 있는가?	1	2	3	4	5
3-14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논리적·체계적으로 기술하거나 표현한 경험이 있는가?	1	2	3	4	5
3-15	자신의 재능을 나누려고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	1	2	3	4	5
3-16	단체로 하는 학습 및 활동 경험이 있는가?	1	2	3	4	5

4. 학생부만을 활용하여 ‘발전가능성’을 평가하는데 다음 각 항목은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항목에 ✓ 표시해 주십시오.

	세부 평가내용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4-1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	1	2	3	4	5
4-2	학생회나 동아리 등의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1	2	3	4	5
4-3	교내 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는가?	1	2	3	4	5
4-4	기존에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외연을 확장하려고 노력하였는가?	1	2	3	4	5
4-5	교내 활동 과정에서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일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가?	1	2	3	4	5
4-6	교내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으려 노력하였는가?	1	2	3	4	5
4-7	교내 활동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1	2	3	4	5
4-8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을 주도한 경험이 있는가?	1	2	3	4	5
4-9	자신의 목표를 위해 도전한 경험을 통해 성취한 적이 있는가?	1	2	3	4	5
4-10	새로운 과제를 주도적으로 만들고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	1	2	3	4	5
4-11	예체능 영역에서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참여하였는가?	1	2	3	4	5
4-12	새로운 지식이나 사고방식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1	2	3	4	5
4-13	필요한 과목이라면 학교 밖 교육과정(공동교육과정, 클러스터 교육과정 등)을 통해서라도 이수하였는가?	1	2	3	4	5

IV. 기타 질문

1. 다음에 제시된 학생부 기재 영역들이 4개의 평가요소를 평가하는 데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학생부 기재 영역이 평가에 의미 있는 항목이라고 판단되는 평가요소에 모두 ☑ 표시해 주십시오. 4개의 평가요소 외에 추가할 영역이 있다면 기타 항목에 직접 작성해 주십시오.

평가요소 학생부 기재 영역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기타
출결상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동아리활동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봉사활동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진로활동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교과학습 발달상황	교과성적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수상경력과 독서활동상황은 2024학년도 대입부터 반영하지 않아 제외함

* 기타(기타를 선택한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 작성해 주세요.)

2. 다음에 나열된 항목들이 학생부만을 활용하여 서류평가할 경우 ‘평가요소’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로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항목에 ✓ 표시해 주십시오.

	항 목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2-1	계열적합성	1	2	3	4	5
2-2	공동체 역량	1	2	3	4	5
2-3	발전가능성	1	2	3	4	5
2-4	학업역량	1	2	3	4	5
2-5	활동역량	1	2	3	4	5
2-6	소통 능력	1	2	3	4	5
2-7	전공계열적합성	1	2	3	4	5
2-8	창의융합 역량	1	2	3	4	5
2-9	사회성	1	2	3	4	5
2-10	지적활력	1	2	3	4	5
2-11	성장잠재력	1	2	3	4	5
2-12	학업충실성	1	2	3	4	5
2-13	자기주도성	1	2	3	4	5
2-14	전공적합성	1	2	3	4	5
2-15	인성	1	2	3	4	5
2-16	탐구역량	1	2	3	4	5
2-17	잠재역량	1	2	3	4	5
2-18	자기계발역량	1	2	3	4	5
2-19	전공준비도	1	2	3	4	5

- * 2번에 나열된 항목 이외에 학생부를 활용하여 서류평가 할 때,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가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학생참여형 수업활동 강화’ 등 2015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의 교육환경 변화를 대입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 다음의 각 평가항목을 서류평가에 활용하는 것이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항목에 ✓ 표시해 주십시오.

평가 요소	평가항목	전혀 도움안됨	별로 도움안됨	보통	도움됨	매우 도움됨
학업 역량	학업성취도	1	2	3	4	5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1	2	3	4	5
	탐구활동	1	2	3	4	5
전공 적합성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1	2	3	4	5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1	2	3	4	5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1	2	3	4	5
인성	협업 능력	1	2	3	4	5
	나눔과 배려	1	2	3	4	5
	소통능력	1	2	3	4	5
	도덕성	1	2	3	4	5
	성실성	1	2	3	4	5
발전 가능성	자기주도성	1	2	3	4	5
	경험의 다양성	1	2	3	4	5
	리더십	1	2	3	4	5
	창의적 문제해결력	1	2	3	4	5

4. 다음의 각 평가항목을 서류평가에 활용하는 것이 ‘학생 참여형 수업 활동 강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항목에 ✓ 표시해 주십시오.

평가 요소	평가항목	전혀 도움안됨	별로 도움안됨	보통	도움됨	매우 도움됨
학업 역량	학업성취도	1	2	3	4	5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1	2	3	4	5
	탐구활동	1	2	3	4	5
전공 적합성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1	2	3	4	5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1	2	3	4	5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1	2	3	4	5
인성	협업 능력	1	2	3	4	5
	나눔과 배려	1	2	3	4	5
	소통능력	1	2	3	4	5
	도덕성	1	2	3	4	5
	성실성	1	2	3	4	5
발전 가능성	자기주도성	1	2	3	4	5
	경험의 다양성	1	2	3	4	5
	리더십	1	2	3	4	5
	창의적 문제해결력	1	2	3	4	5

V. 응답자 특성

※ 다음은 조사된 결과를 분석하는 데 중요하게 사용되는 응답자의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직 중인 고교 소재지	<input type="checkbox"/> 서울 <input type="checkbox"/> 경기 <input type="checkbox"/> 인천 <input type="checkbox"/> 강원 <input type="checkbox"/> 대전 <input type="checkbox"/> 세종 <input type="checkbox"/> 충청 <input type="checkbox"/> 광주 <input type="checkbox"/> 전라 <input type="checkbox"/> 부산 <input type="checkbox"/> 대구 <input type="checkbox"/> 울산 <input type="checkbox"/> 경상 <input type="checkbox"/> 제주
재직 중인 고교 유형	<input type="checkbox"/> 일반고 <input type="checkbox"/> 자율형 공립고 <input type="checkbox"/> 자율형사립고 <input type="checkbox"/> 특목고 <input type="checkbox"/> 특성화고 <input type="checkbox"/> 영재학교 <input type="checkbox"/> 산업수요 맞춤형고
재직 중인 고교 설립 유형	<input type="checkbox"/> 국/공립 <input type="checkbox"/> 사립
교직경력	<input type="checkbox"/> 10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10년 이상 ~ 20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20년 이상 ~ 30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30년 이상

부록 3. 델파이 조사 설문지(1차)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 공통 평가요소 및 항목 개선 연구’라는 주제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델파이 조사는 고교 교사/교육청 및 대학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총 2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학생부 등 평가자료 축소, 학생 선택과목 확대 등에 따라 주요 대학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내용에 대해서 개방형 또는 선택형으로 질문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차 응답기간 : 2022. 1. 9.(일)까지

본 설문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본 조사의 응답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조사 결과는 보고서 작성을 위한 통계처리에서만 활용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중앙대학교 입학처 입학정책팀
02-820-6699

응답자 인적사항			
성명		고교/교육청()	입학사정관()

참고1

학생부종합전형 공통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 ▶ 건국대·경희대·서울여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 등 6개 대학은 2017년 고교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의 공동 연구로 『대입전형 표준화방안 연구』를 진행한 바 있음
- ▶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공통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을 제시함

평가요소	평가항목	
학업역량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	학업성취도	교과목의 석차등급 또는 원점수(평균/표준편차)를 활용해 산정한 학업능력 지표와 교과목 이수 현황, 노력 등을 기반으로 평가한 교과목의 성취수준이나 학업적 발전의 정도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을 해 나가는 자발적인 의지와 태도,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학습 전략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실행하는 과정
	탐구활동	어떤 대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깊이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
전공적합성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노력과 준비 정도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고교 교육과정에서 지원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성취의 수준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지원 전공(계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인 태도와 알고 있는 정도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지원 전공(계열)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 과정과 배운 점
인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	협업 능력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돕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역량
	나눔과 배려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타인을 위하여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
	소통능력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정보와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역량
	도덕성	공동체의 기본윤리와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부정 또는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 태도
	성실성	책임감을 바탕으로 꾸준히 노력하여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태도와 행동
발전가능성 현재의 상황이나 수준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될 가능성	자기주도성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성향
	경험의 다양성	학교교육의 다양한 영역에서 직접 겪거나 활동하면서 얻은 성장 과정 및 결과
	리더십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가는 역량
	창의적 문제해결력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참고2

학교생활기록부 등 평가자료 개편 방향

- ▶ 정부는 2019년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통해 “학생 개인의 능력이나 성취가 아닌 부모배경, 사교육 등 외부요인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이 차단되도록 학생부·자기소개서·추천서를 개선” 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 이 방안의 하나로 2022학년도 대입부터 추천서를 폐지하였으며, 2024학년도부터는 자기소개서도 폐지되어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평가는 학생부만을 활용하여야 함
- ▶ 서류평가의 유일한 자료로 남게 된 학생부도 기재항목이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으며,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본격적으로 정규 교육과정 외의 비교과 활동은 평가에 반영할 수 없음
- ▶ 2024학년도부터 적용될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평가 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추천서에 이어 자기소개서도 폐지되어 **학생부만을 활용**하여야 함
 - 학생부의 경우 기재항목이 축소되며, 일부 항목은 대학에 제공되지 않음
- ▶ 향후 예정된 학생부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음

전형연도 구분		’ 22 ~ ’ 23학년도	’ 24학년도
교과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목당 500자 방과후학교 활동(수강) 내용 미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목당 500자 방과후학교 활동(수강) 내용 미기재 영재·발명 교육 실적 대입 미반영
종합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500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500자
비 교 과 영 역	자율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500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500자
	동아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500자 자율동아리는 연간 1개(30자)만 기재 청소년 단체활동은 단체명만 기재 소논문 기재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500자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 청소년 단체활동 미기재 소논문 기재 금지
	봉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기사항 미기재 교내·외 봉사활동실적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기사항 미기재 개인 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 단,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은 대입 반영
	진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700자 진로희망분야 대입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700자 진로희망분야 대입 미반영
	수상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내 수상 학기당 1건만(3년간 6건) 대입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입 미반영
	독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명과 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입 미반영

★ 미기재: 학생부에서 삭제

★ 미반영: 학생부에는 기재하되, 대입 자료로 미전송

1. 대입전형 공정성 확보 방안에 따라 2024학년도 이후 평가 자료에 다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폐지	-개인 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
-영재·발명 교육 실적 대입 미반영	-수상경력 대입 미반영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	-독서활동 대입 미반영

1-1. 평가자료의 변화는 **고교의 학생부종합전형 대응**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또한,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기재해 주십시오.

구분	세부 의견
고등학교의 학생부종합전형 대응의 변화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의 변화	

1-2. 평가자료 변화와 관련된 다음의 질문에 대해서 의견을 기재해 주십시오.

(고교/교육청) 평가자료의 변화를 앞두고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와 관련하여 **대학에 바라는 점**
(입학사정관) 평가자료의 변화를 앞두고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와 관련하여 **고교에 바라는 점**

세부 의견

3.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고교 학점제 도입 등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과 ‘수업 및 평가의 변화’ 에 따라 24학년도 이후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시 강조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기재해 주십시오.

세부 의견

4. [4-1] ~ [4-8]번 문항은 2024학년도 이후 서류 평가 시 공통 평가항목과 학생부 항목의 연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15개 평가항목을 평가할 때 학교생활기록부 항목 8개 중 평가 가능한 항목을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표시해 주십시오.

- 15개 평가항목별로 각각 작성하되, 항목별 최대 3개 기재 가능
- 중요도에 따라 3-2-1점을 부여(최대 6점)
- 항목별로 1~2개 기재도 가능하며, 최고/최저점은 3/1점이 아니어도 됨(ex. 2-1점)
- 중복 점수 부여는 불가(ex. 3-3-2점)
- 평가 불가 판단 시 ‘평가불가’에 V표

(기재 예시)

평가요소	평가항목	출결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교과	세특	행특	평가불가
발전가능성	12. 자기주도성						3 점	2 점	1 점	
	13. 경험의 다양성					1 점	2 점			
	14. 리더십									V
	15. 창의적 문제해결력		3 점	2 점						

[학업역량]

-정의: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

평가항목		세부 설명
학업성취도	정의	교과목의 석차등급 또는 원점수(평균/표준편차), 성취도를 활용해 산정한 학업능력 지표와 교과목 이수 현황, 노력 등을 기반으로 평가한 교과의 성취 수준이나 학업적 발전의 정도
	세부 질문	-전체적인 교과성적은 대학 수학에 적절한 수준인가? -학기별/학년별 성적은 상승 또는 하락하고 있는가? -과목별 원점수(평균/표준편차 포함)는 적절한가? -희망전공과 관련된 과목과 다른 과목의 성적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교과 외에 타 교과의 성적은 적절한가?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정의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을 해나가는 자발적인 의지와 태도,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학습전략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실행하는 과정
	세부 질문	-자발적인 성취동기와 목표의식을 가지고 학습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자기주도적인 태도로 노력하고 있는가? -교과 수업에 스스로 참여하고 이해하려는 태도와 열정을 갖고 있는가?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가? -학업을 위해 적극적인 탐구 의지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가?
탐구활동	정의	어떤 대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깊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
	세부 질문	-각종 교과 탐구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가? -교과 활동을 통해 지식의 폭을 확장하려 노력하고 있는가? -교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탐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4-1. 다음 평가항목을 평가할 수 있는 학생부 항목에 점수를 표시해 주십시오.(5p. 설명 참조)

평가요소	평가항목	출결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교과	세특	행특	평가 불가
학업역량	1. 학업성취도									
	2.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3. 탐구활동									

4-2. 위 평가요소/평가항목 구성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기재해 주십시오.

평가요소/ 평가항목	수정/보완 방향
	자유롭게 칸 추가 가능

[전공적합성]

-정의: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노력과 준비 정도

평가항목	세부 설명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정의	고교 교육과정에서 지원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취득한 학업성취 수준
	세부 질문	-지원 전공(계열)에 관련된 교과 관련 활동이 있는가?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충실히 이수하였는가?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교과 성적이 우수한가?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해 선택하여 수강한 과목은 얼마나 되는가? -교육과정에 비취 선택과목은 적절한가? -(진로)선택과목은 교과목 위계에 맞게 이수하였는가?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되어 교내에 개설된 과목을 적절히 수강하는가? -교내 활동은 지원 전공(계열)을 수학하는데 필요한 역량과 관련되는가?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정의	-지원 전공(계열)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인 태도와 이는 정도
	세부 질문	-지원 전공(계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있는가? -지원 전공(계열) 관련 과목의 수업에서 보이는 학업 태도는 어떠한가?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정의	-지원 전공(계열)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 과정과 배운 점
	세부 질문	-지원 전공(계열)에 관련된 창의적 체험활동이 있는가?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활동 성과는 우수한가? -지원 전공(계열)과 참여한 교내 활동 간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가?

4-3. 다음 평가항목을 평가할 수 있는 학생부 항목에 점수를 표시해 주십시오.(5p. 설명 참조)

평가요소	평가항목	출결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교과	세특	행특	평가 불가
전공 적합성	4.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5.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6.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4-4. 위 평가요소/평가항목 구성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기재해 주십시오.

평가요소/ 평가항목	수정/보완 방향
	자유롭게 칸 추가 가능

[인성]

-정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

평가항목	세부 설명	
협업 능력	정의	공동체 목표를 위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돕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역량
	세부 질문	-공동과제나 단체활동을 통해 구성원들로부터 좋은 동료로 인정받고 있는가? -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설득하여 협동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가? -자발적인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과제를 완성한 경험이 나타나는가?
나눔과 배려	정의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타인을 위하여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
	세부 질문	-타인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나누고자 한 구체적 경험이 있는가? -학교생활에서 타인을 배려한 사례가 있는가? -자신의 재능을 나누려고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
소통 능력	정의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정보와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역량
	세부 질문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기울이는가? -상대방의 관심 사항과 요구를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공동과제 수행이나 모둠활동 단체활동 등에서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가? -수업이나 교과 외 활동 등에서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도덕성	정의	공동체의 기본윤리와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부정 또는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 태도
	세부 질문	-자신이 속한 구성원들에게 인정과 신뢰를 얻고 있으며 바람직한 행동으로 모범이 되는가? -자신이 속한 집단이 정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는가?
성실성	정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꾸준히 노력하여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태도와 행동
	세부 질문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도 일관된 모습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경험이 있는가? -출결상황, 단체활동 참여 등 학생으로서 해야 하는 의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있는가?

4-5. 다음 평가항목을 평가할 수 있는 학생부 항목에 점수를 표시해 주십시오.(5p. 설명 참조)

평가요소	평가항목	출결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교과	세특	행특	평가 불가
인성	7. 협업 능력									
	8. 나눔과 배려									
	9. 소통능력									
	10. 도덕성									
	11. 성실성									

4-6. 위 평가요소/평가항목 구성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기재해 주십시오.

평가요소/ 평가항목	수정/보완 방향
	자유롭게 칸 추가 가능

[발전가능성]

-정의: 현재의 상황이나 수준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될 가능성

평가항목	세부 설명	
자기 주도성	정의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성향 -학생회나 동아리 등의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교내 활동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자신의 목표를 위해 도전한 경험을 통해 성취한 적이 있는가? -새로운 과제를 주도적으로 만들고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 -필요한 과목이라면 학교 밖 교육과정(공동교육과정, 클러스터 교육과정 등)을 통해서라도 이수하였는가?
	세부 질문	
경험의 다양성	정의	-학교 교육의 다양한 영역에서 직접 겪거나 활동하면서 얻은 성장 과정 및 결과 -기존에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외연을 확장하려고 노력하였는가? -교내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으려 노력하였는가? -예체능 영역에서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참여하였는가? -새로운 지식이나 사고방식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세부 질문	

평가항목	세부 설명	
리더십	정의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가는 역량
	세부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
	질문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을 주도한 경험이 있는가?
창의적 문제 해결력	정의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세부	-교내 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는가?
	질문	-교내 활동 과정에서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일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가?

4-7. 다음 평가항목을 평가할 수 있는 학생부 항목에 점수를 표시해 주십시오.(5p. 설명 참조)

평가요소	평가항목	출결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교과	세특	행특	평가 불가
발전 가능성	12. 자기주도성									
	13. 경험의 다양성									
	14. 리더십									
	15. 창의적 문제해결력									

4-8. 위 평가요소/평가항목 구성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기재해 주십시오.

평가요소/ 평가항목	수정/보완 방향
	자유롭게 칸 추가 가능

5. 2024학년도 이후 평가 환경 변화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공통 평가요소**를 어려운 정도에 따라 ①~⑤로 기재해 주시고, **평가요소를 재구성한다면 어떻게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① ~⑦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고, 그 이유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 어려운 정도: ① 전혀 어렵지 않음 ② 어렵지 않음 ③ 보통 ④ 어려움 ⑤ 매우 어려움
- 변경방안: ① 현행 유지, ② 폐지, ③ 통합, ④ 분리, ⑤ 신설, ⑥ 명칭 변경, ⑦ 기타 중 하나 표기

평가요소	평가 어려운 정도 ① ~⑤	향후 방향	
		① 현행 유지 ② 폐지 ③ 통합 ④ 분리 ⑤ 신설 ⑥ 명칭 변경 ⑦ 기타	선택한 이유 (① 현행 유지는 생략 가능)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			

6. 2024학년도 이후 평가환경 변화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공통 평가항목**을 어려운 정도에 따라 ①~⑤로 기재해 주시고, **평가항목을 재구성한다면 어떻게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①~⑦중 선택하시고, 선택한 이유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 어려운 정도: ① 전혀 어렵지 않음 ② 어렵지 않음 ③ 보통 ④ 어려움 ⑤ 매우 어려움
- 변경방안: ① 현행 유지, ② 폐지, ③ 통합, ④ 분리, ⑤ 신설, ⑥ 명칭 변경, ⑦ 기타 중 하나 표기

평가 요소	평가항목	평가 어려운 정도 ① ~⑤	향후 방향	
			① 현행 유지 ② 폐지 ③ 통합 ④ 분리 ⑤ 신설 ⑥ 명칭 변경 ⑦ 기타	선택한 이유 (① 현행 유지는 생략 가능)
학업 역량	1. 학업성취도			
	2..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3. 탐구활동			
전공 적합성	4.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5.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6.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인성	7. 협업 능력			
	8. 나눔과 배려			
	9. 소통능력			
	10. 도덕성			
	11. 성실성			
발전 가능성	12. 자기주도성			
	13. 경험의 다양성			
	14. 리더십			
	15. 창의적 문제해결력			

7. 6개 대학 공통 평가요소 및 공통항목 개선 방향에 대해 건의하고 싶은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의견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3. 델파이 조사 설문지(2차)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 공통 평가요소 및 항목 개선 연구’라는 주제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델파이 조사는 고교 교사/교육청 및 대학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총 2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2차 설문지에서는 앞서 실시한 1차 델파이 조사에서 보내주신 의견과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문항에 대해서 추가 의견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차 응답기간 : 2022. 2. 7.(월)까지

본 설문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본 조사의 응답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조사 결과는 보고서 작성을 위한 통계처리에서만 활용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중앙대학교 입학처 입학정책팀
02-820-6699

응답자 인적사항			
성명		고교/교육청()	입학사정관()

참고1

학생부종합전형 공통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 ▶ 건국대·경희대·서울여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 등 6개 대학은 2017년 고교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의 공동 연구로 『대입전형 표준화방안 연구』를 진행한 바 있음
- ▶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공통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을 제시함

평가요소	평가항목	
학업역량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	학업성취도	교과목의 석차등급 또는 원점수(평균/표준편차)를 활용해 산정한 학업능력 지표와 교과목 이수 현황, 노력 등을 기반으로 평가한 교과목의 성취수준이나 학업적 발전의 정도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을 해 나가는 자발적인 의지와 태도,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학습 전략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실행하는 과정
	탐구활동	어떤 대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깊이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
전공적합성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노력과 준비 정도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고교 교육과정에서 지원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성취의 수준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지원 전공(계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인 태도와 알고 있는 정도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지원 전공(계열)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 과정과 배운 점
인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	협업 능력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돕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역량
	나눔과 배려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타인을 위하여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
	소통능력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정보와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역량
	도덕성	공동체의 기본윤리와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부정 또는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 태도
	성실성	책임감을 바탕으로 꾸준히 노력하여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태도와 행동
발전가능성 현재의 상황이나 수준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될 가능성	자기주도성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성향
	경험의 다양성	학교교육의 다양한 영역에서 직접 겪거나 활동하면서 얻은 성장 과정 및 결과
	리더십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가는 역량
	창의적 문제해결력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재구성에 대한 1차 델파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점수를 부여하고 의견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공적합성] 평가요소 유지

[전공적합성]은 기존과 같이 [학업역량], [발전가능성], [인성] 등 다른 평가요소와 **독립적인 평가요소**로 두는 것이 **적절하다**. (단, 명칭은 다른 용어로 대체 가능함)

평가 지표	의견 (V표)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자 의견(V 표시)	1	2	3	4	5
응답자 추가 의견					
참고자료(1차 델파이 조사 및 설문조사 주요 의견)					
<p><긍정적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적합성]은 [학업역량]과 더불어 학생부종합전형의 근간을 이루는 평가요소임. - 진로와 관련한 교과목 선택 이수 경험을 전공적합성 평가요소에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발전가능성]/[인성]은 통합해도, [전공적합성]은 다른 평가요소와 독립적으로 평가 가능함. <p><부정적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적합성] 강조는 다양한 영역의 교과/활동을 통한 전인적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전공적합성]은 별도의 평가요소 독립보다는 학업역량이나 발전가능성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전공’에서 ‘진로’로 평가 방향 전환

[전공적합성]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일부를 ‘전공’에서 **‘진로’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

예시:

-전공적합성 → 진로역량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 진로탐색 활동과 경험

평가 지표	의견 (V표)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자 의견(V 표시)	1	2	3	4	5
응답자 추가 의견					
참고자료(1차 델파이 조사 및 설문조사 주요 의견)					
<p><긍정적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입장의 ‘전공’ 개념보다는 지원자 고교 생활 위주의 ‘진로(탐색)’ 개념을 강조해야 함.- 대학 전공 교과이수나 활동보다 진로탐색 활동 전반의 평가로 전환되는 것이 중요 함.- 대학 전공적합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진로 결정 시기를 앞당기고, 대학 전공과 직접적인 활동에만 몰두하는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음. <p><부정적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탐색에 평가의 초점을 두면, 기존의 대학 학과와 적합한 학생의 선발이라는 평가의 기초가 약화될 우려가 있음.- 전공적합성 개념은 그대로 사용하되, ‘전공(계열)적합성’ 등으로 범위를 넓혀서 활용함.					

3. [발전가능성] 및 [인성] 평가요소의 통합

[발전가능성]과 [인성]은 하위 평가항목을 재정비하여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적절하다**.
(통합 명칭은 변경 가능)

평가 지표	의견 (V표)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자 의견(V 표시)	1	2	3	4	5
응답자 추가 의견					
참고자료(1차 델파이 조사 및 설문조사 주요 의견)					
<p><긍정적 의견></p> <p>- [발전가능성]은 다른 평가요소 대비 구체적인 정의가 모호하고 여러 개념이 섞여 있어 평가가에 어려움이 있음.</p> <p>- 학생부 기재 축소, 자기소개서 폐지 등 평가자료 감소에 따라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의 중복 요소 제거 및 간소화 대응이 필요함.</p> <p>- [발전가능성] 세부 항목은 학업, 비학업 영역에서 모두 평가 가능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다른 평가요소와 연계하여 통합할 필요가 있음.</p> <p><부정적 의견></p> <p>- 평가자료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의 지속성, 안정성을 알리기 위해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 평가요소를 그대로 두는 것이 필요함.</p> <p>- ‘경험의 다양성’, ‘자기주도성’, ‘리더십’ 등 세부 평가항목을 [발전가능성]이라는 평가요소 아래 묶어둘 필요가 있음.</p>					

4. [인성] 내 평가항목의 일부 통합

[인성] 평가요소 내 5가지 평가항목은 내용이 겹치거나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일부 통합**하는 방향이 **적절하다**.

평가 지표	의견 (V표)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자 의견(V 표시)	1	2	3	4	5
응답자 추가 의견					
참고자료(1차 델파이 조사 및 설문조사 주요 의견)					
<p><긍정적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성] 평가요소는 학생부 기재 내용 축소로 평가할 내용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에 비해 세부 평가항목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평가 효율성을 위해 재정비가 필요함.- ‘도덕성’ 항목은 학생부를 통해 평가하기 어려워 삭제하거나 다른 항목과 통합이 필요함.- ‘소통능력’과 ‘협업능력’은 사전적 정의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실제 평가에서 독립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 유사한 개념으로 보고 통합하는 것이 필요함. <p><부정적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성]의 세부 평가항목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각각의 독립적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론적 토대를 무시하고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학생부종합전형은 [인성] 영역이 중요하므로, 실제 평가는 어렵더라도 학교 교육 내 인성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는 점에서 평가요소의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음.					

5. [인성]에서 [공동체역량]으로 명칭 변경

전형자료 축소 등을 고려하여 [인성]을 **[공동체역량]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

평가 지표	의견 (V표)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자 의견(V 표시)	1	2	3	4	5
응답자 추가 의견					
참고자료(1차 델파이 조사 및 설문조사 주요 의견)					
<p><긍정적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자료 축소로 인해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학급/모둠활동 공동체 내 활동 사례 기재사항을 토대로 평가해야 함에 따라, [공동체역량] 등으로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적절함.- [인성]은 포괄적이고 함축적인 개념이며 ‘착한 정도’ 등 개인적 성향으로 오해할 여지가 많으므로, 평가하고자 하는 범위를 좁혀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p><부정적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성]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개인적 영역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넓은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음.- 여러 대학에서 [인성] 평가요소를 평가에 이미 활용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도 [인성]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 용어 변경이 불필요함.					

6.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평가항목의 발전적 해체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은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등 다른 평가요소 내 평가항목과 연계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별도 평가항목으로 두는 것보다 **평가항목의 세부 평가내용으로 두는 것이 적절하다.**

평가 지표	의견 (V표)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자 의견(V 표시)	1	2	3	4	5
응답자 추가 의견					
참고자료(1차 델파이 조사 및 설문조사 주요 의견)					
<p><긍정적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주도성’ 과 ‘경험의 다양성’ 의 중요성은 인정하나 학생부 내 여러 항목에 중복적으로 기재된 내용이라 평가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떨어짐.- ‘자기주도성’ 은 [학업역량]이나 [전공적합성], [인성] 등의 세부 항목에 모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음.- ‘경험의 다양성’ 은 교과 학습 과정의 경험, 창체 활동의 경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어 [발전가능성] 하위 평가항목으로 존재할 경우 개념의 혼란이 있음. <p><부정적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주도성’ 과 ‘경험의 다양성’ 등은 [학업역량]이나 [전공적합성] 평가요소에 포함하기 어려운 독립적인 항목으로, [발전가능성] 평가요소 아래에 그대로 두는 것이 필요함.					

7.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항목은 삭제

[인성] 중 ‘도덕성’, [발전가능성] 중 ‘창의적 문제해결력’ 등 대다수의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관찰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개념은 평가항목에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평가 지표	의견 (V표)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자 의견(V 표시)	1	2	3	4	5
응답자 추가 의견					
참고자료(1차 델파이 조사 및 설문조사 주요 의견)					
<p><긍정적 의견></p> <p>- 학생부 기재 사항 축소와 자기소개서/추천서 폐지 정책에 따라 평가 항목과 평가 요소를 간소화하는 측면에서 일부 항목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p> <p>- ‘창의적 문제해결력’은 실제로 고등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이지만 실제 학생부를 통해서 대학에 전달되기는 어려우며, 면접평가를 통해 평가할 수 있음.</p> <p><부정적 의견></p> <p>- 학생부 여러 항목 중 교사의 정성적 기재 항목을 통해서 기존 평가항목을 평가 가능함.</p> <p>-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도덕성’은 다른 평가요소에 못지않게 중요한 영역이며, 학생 변별이 다소 어렵더라도 상징적으로라도 존재할 이유가 충분함.</p>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4. 전문가 심층면접(FGI) 1차 자문지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 공통 평가요소 및 항목 개선 연구’라는 주제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FGI)은 교육전문가 및 대학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전에 교사와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설문조사와 1차 델파이 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한

‘평가요소 및 항목 개선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일정에 따라 자문지 내용을 작성하셔서 자문지를 제출하신 뒤, 온라인으로 진행될 1, 2차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 자문지 제출: (1차) 2022. 2. 5.(토) (회의 이전 제출)
(2차) 2022. 2. 10.(목) (회의 이후 제출)
- ☐ 회의 일정: (1차) 2022. 2. 7.(월), 13:30 ~ 15:00
(2차) 2022. 2. 10.(목), 10:00 ~ 11:00
- ☐ 회의 방식: 온라인(Zoom) 화상 자문
※ 회의실 접속 주소(id /pw)는 당일 문자로 안내 예정

본 자문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본 조사의 응답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조사 결과는 보고서 작성을 위한 통계처리에서만 활용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문의: 건국대학교 입학팀

(전화: 02-2049-6282, 02-450-4011 / 이메일: konkukao@konkuk.ac.kr)

응답자 인적사항			
성명		소속	

※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개선과 관련하여 진행한 설문조사와 1차 델파이조사의 의견을 참고하여 ‘평가요소 및 항목 개선안’을 도출하였습니다. 각각의 평가요소 및 항목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개선안	
평가요소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항목
학업역량	학업성취도	학업역량	학업태도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학업성취도
	탐구활동		탐구력
전공 적합성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진로역량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인성	협업 능력	공동 체역량	협업과 소통능력
	나눔과 배려		나눔과 배려
	소통능력		성실성과 규칙준수
	도덕성		리더십
	성실성		
발전 가능성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창의적 문제해결력		

평가요소 I	학업역량
--------	------

1. ‘학업역량’에 대한 개념정의와 평가항목의 내용입니다. 수정사항이나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 용
개념정의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
평가항목	학업태도
	학업성취도
	탐구력
[추가의견]	

2. 학업역량의 평가항목 중 ‘학업태도’의 개념정의와 평가세부내용입니다. 수정 사항이나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 용
개념정의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을 해나가는 자발적인 태도
평가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인 성취동기와 목표의식을 가지고 학습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자기 주도적인 태도로 노력하고 있는가? - 교과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 수업에서 이해하려는 태도와 열정을 보이는가?
[의견]	

3. 학업역량의 평가항목 중 ‘학업성취도’의 개념정의와 평가세부내용입니다. 수정사항이나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 용
개념정의	교과목 이수 현황, 노력 등을 기반으로 평가한 교과목의 성취수준이나 학업적 발전의 정도
평가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적인 교과성적은 대학 수학에 적절한가? -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과목(예: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등) 외에 예술·체육, 제2외국어, 교양 등 교과목의 성적은 어느 정도인가? 유난히 소홀함을 보인 과목은 없는가? - 과목별 이수단위, 수강자수,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성취도, 성취도별 분포비율 등은 어느 정도인가? - 과목별 원점수(평균/표준편차 포함)는 적절한가?
[의견]	

4. 학업역량의 평가항목 중 ‘탐구력’의 개념정의와 평가세부내용입니다. 수정사항이나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 용
개념정의	어떤 대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깊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
평가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을 위해 적극적인 탐구 의지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가? - 교과 활동을 통해 지식의 폭을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 각종 교과 탐구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가? - 기존에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외연을 확장하려고 노력하였는가?
[의견]	

평가요소 II	진로역량
---------	------

5. ‘진로역량’에 대한 개념정의와 평가항목의 내용입니다. 수정사항이나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 용
개념정의	진로에 관한 과목 선택, 탐색 노력과 준비 정도
평가항목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추가의견]	

6. 진로역량의 평가항목 중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의 개념정의와 평가세부 내용입니다. 수정사항이나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 용
개념정의	고교 교육과정에서 지원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정도
평가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이수하였는가? - 선택과목(일반/진로)은 교과목 위계에 맞게 이수하였는가? -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해 선택하여 이수한 과목은 얼마나 되는가? -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공동교육과정, 온라인수업, 소인수과목 등)
[의견]	

7. 진로역량의 평가항목 중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의 개념정의와 평가세부내용입니다. 수정사항이나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 용
개념정의	고교 교육과정에서 지원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 성취의 수준
평가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의 석차등급은 어느 정도인가? -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진로선택과목의 성취도별 분포비율을 고려한 성취도는 어느 정도인가? -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과목의 석차등급/성취도, 원점수, 평균, 이수단위, 수강자수, 성취도별 분포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과 성적은 어느 정도인가?
[의견]	

8. 진로역량의 평가항목 중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의 개념정의와 평가세부내용입니다. 수정사항이나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 용
개념정의	진로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 과정
평가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에 관련된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 등이 있는가? -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탐색하고 진로 희망 분야를 선택하는 과정이 있는가? - 지원 전공과 무관하게 자신의 관심 분야나 진로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고, 확장하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
[의견]	

평가요소 III	공동체역량
----------	-------

9. ‘공동체역량’에 대한 개념정의와 평가항목의 내용입니다. 수정사항이나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 용
개념정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
평가항목	협업과 소통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준수
	리더십
[추가의견]	

10. 공동체역량의 평가항목 중 ‘협업과 소통능력’의 개념정의와 평가세부내용입니다. 수정사항이나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 용
개념정의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생활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 및 공감할 수 있는 능력
평가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인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과제를 완성한 경험이 나타나는가? - 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설득하여 협동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가? - 공동과제나 단체 활동을 통해 구성원들로부터 좋은 동료로 인정받고 있는가? - 공동과제 수행이나 모둠활동, 단체활동 등에서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의견]	

11. 공동체역량의 평가항목 중 ‘나눔과 배려’의 개념정의와 평가세부내용입니다. 수정사항이나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 용
개념정의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타인을 위하여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
평가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을 위하여 양보하거나 배려한 구체적 경험이 있는가? -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나눔을 생활화하고자 하는 경험이 나타나는가? -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의견]	

12. 공동체역량의 평가항목 중 ‘성실성과 규칙준수’의 개념정의와 평가세부내용입니다. 수정사항이나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 용
개념정의	공동체의 기본 윤리와 원칙에 따라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고,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태도
평가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결상황, 단체활동 참여 등 학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있는가? -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정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는가? -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인정과 신뢰를 얻고 있으며, 바람직한 행동으로 모범이 되는가?
[의견]	

13. 공동체역량의 평가항목 중 ‘리더십’의 개념정의와 평가세부내용입니다. 수정사항이나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 용
개념정의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가는 역량
평가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회, 동아리 등의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 -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을 주도한 경험이 있는가?
[의견]	

14. 개선안에 대한 추가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부록 4. 전문가 심층면접(FGI) 2차 자문지

바쁘신 가운데 1차 전문가 자문을 통해 귀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의견으로 연구진에서 논의하여 최종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래 일정에 따라 자문지를 제출하신 뒤, 온라인 2차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 자문지 제출: (2차) 2. 9.(수) 22:00
- ☐ 회의 일정: (2차) 2. 10.(목), 10:00 ~ 11:00
- ☐ 회의 방식: 온라인(Zoom) 화상 자문
※ 회의실 접속 주소(id /pw)는 당일 문자로 안내 예정

※문의: 건국대학교 입학팀
(전화: 02-2049-6282, 02-450-4011 / 이메일: konkukao@konkuk.ac.kr)

응답자 인적사항			
성명		소속	
평가요소	평가항목		
학업역량	학업성취도		
	학업태도		
	탐구력		
진로역량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전공(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공동체역량	협업과 소통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준수		
	리더십		

평가요소 I	학업역량
--------	------

※ ‘학업역량’에 대한 개념정의와 평가항목의 내용입니다.

구분	내 용
개념정의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
평가항목	학업성취도
	학업태도
	탐구력

1. 학업역량의 평가항목 중 ‘학업성취도’의 개념정의와 평가세부내용입니다. 수정사항이나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 용
개념정의	고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취수준이나 학업적 발전의 정도
평가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과목(예: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등)의 교과성적은 적절한가? 그 외 과목(예: 예술·체육, 기술·가정, 제2외국어 등)의 교과성적은 어느 정도인가? 유난히 소홀한 과목이 있는가? - 학기별/학년별 성적의 추이는 어떠한가?
[의견]	

2. 학업역량의 평가항목 중 ‘학업태도’의 개념정의와 평가세부내용입니다. 수정사항이나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 용
개념정의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을 해나가는 자기주도적 태도
평가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인 성취동기와 목표의식을 가지고 학습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자기 주도적인 태도로 노력하고 있는가? - 교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수업 내용을 이해하려는 태도와 열정이 있는가?
[의견]	

3. 학업역량의 평가항목 중 **‘탐구력’**의 개념정의와 평가세부내용입니다. 수정사항이나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 용
개념정의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사물에 대해 깊게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평가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와 각종 탐구활동 등을 통해 지식의 폭을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 교과와 각종 탐구활동 등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가? - 탐구 활동에서 표출되는 학문에 대한 열의와 지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의견]	

평가요소 II

진로역량

※ ‘진로역량’에 대한 개념정의와 평가항목의 내용입니다.

구분	내 용
개념정의	자신의 진로와 전공에 관한 과목 선택, 탐색 노력과 준비 정도
평가항목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전공(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4. 진로역량의 평가항목 중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의 개념정의와 평가세부내용입니다. 수정사항이나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 용
개념정의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정도
평가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였는가? - 전공(계열)과 관련해 선택하여 이수한 과목은 얼마나 되는가? - 선택과목(일반/진로)은 교과목 학습단계(위계)에 따라 이수하였는가?
[의견]	

5. 진로역량의 평가항목 중 ‘전공(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의 개념정의와 평가세부내용입니다. 수정사항이나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 용
개념정의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성취의 수준
평가세부 내용	- 전공(계열)과 관련된 과목의 교과 성취 수준은 적절한가? - 전공(계열)과 관련된 동일 교과 내 과목별 성취 수준의 차이가 있는가?
[의견]	

6. 진로역량의 평가항목 중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의 개념정의와 평가세부내용입니다. 수정사항이나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 용
개념정의	자신의 진로를 설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나 경험 및 노력 정도
평가세부 내용	- 전공(계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교과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탐색한 경험이 있는가? - 자신의 관심 분야나 전공(계열)을 찾기 위해 다양한 진로 활동에 참여하며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
[의견]	

평가요소 III	공동체역량
----------	-------

※ ‘공동체역량’에 대한 개념정의와 평가항목의 내용입니다.

구분	내 용
개념정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
평가항목	협업과 소통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준수
	리더십

7. 공동체역량의 평가항목 중 ‘협업과 소통능력’의 개념정의와 평가세부내용입니다. 수정사항이나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 용
개념정의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며, 구성원들과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평가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활동 과정에서 서로 돕고 함께 행동하는 모습이 보이는가? - 구성원들과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과제를 수행하고 완성한 경험이 있는가? -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정보와 생각을 잘 전달하는가?
[의견]	

8. 공동체역량의 평가항목 중 ‘나눔과 배려’의 개념정의와 평가세부내용입니다. 수정사항이나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 용
개념정의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타인을 위하여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
평가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생활화한 경험이 있는가? - 타인을 위하여 양보하거나 배려를 실천한 구체적 경험이 있는가? -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의견]	

9. 공동체역량의 평가항목 중 ‘성실성과 규칙준수’의 개념정의와 평가세부내용입니다. 수정사항이나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 용
개념정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공동체의 기본 윤리와 원칙을 준수하는 태도
평가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경험이 있는가? - 수업 출석, 단체활동 참여 등 학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있는가? -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정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의견]	

10. 공동체역량의 평가항목 중 ‘리더십’의 개념정의와 평가세부내용입니다. 수정사항이나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 용
개념정의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가는 역량
평가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학생회, 동아리 등의 활동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여 공동체 목표 달성에 기여한 경험이 있는가? -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을 주도한 경험이 있는가? -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신뢰를 얻고 있으며, 모범이 된 사례가 있는가?
[의견]	

11. 이외의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및 항목 개선 연구

2022년 2월 18일 인쇄

2022년 2월 18일 발행

발 행 처 경희대학교

(주 소)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입학전형연구센터
(연락처) 02-961-0028~9

※ 이 보고서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허락 없이 변경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